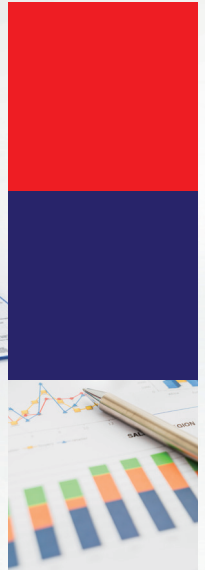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19-07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문진영
나승권
이재호
이성희
김은미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문진영 · 나승권 · 이재호 · 이성희 · 김은미

연구보고서 19-07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인 쇄 2019년 12월 24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일지사(02-503-6971)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2,000원
ISBN 978-89-322-1739-0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 언

우리나라는 아세안을 포함한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공동체를 핵심으로 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세안은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로 구성된 3개 축의 아세안 공동체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아세안이 우리나라가 제안한 3P와 유사한 공동체를 일찍부터 논의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의 독립과 주권을 전제로 지역 차원의 협력과 통합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아세안 정책으로 제시한 3P 공동체와 아세안 공동체 간의 접점을 확인해가며 상호 윈윈하는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남방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 이외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세안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주요 분야별로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관련한 협력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동시에 신남방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에 대한 아세안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특징 및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문진영 박사의 연구책임하에 나승권, 이재호, 이성희 전문연구원, 김은미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원장 이재영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로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아세안 교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자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3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27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8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1
가.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PSC)	32
나.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37
다.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41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	46
가. ASCC 중요성	46
나. ASCC 주요 협력 분야: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	48
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61
1. 아세안의 현황	62
가. 사회 인프라 격차	62
나. 아세안 차원의 노력	68
다.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지원 특징	78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87
가. 보건의료	87
나. 교육	100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114
가. 협력 현황	114
나. 평가 및 시사점	129

제4장 문화예술 133

1. 아세안의 현황	134
가. 아세안 통합전략: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문화예술 분야	134
나. 문화예술 분야 기반 여건	142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150
가. 다자	150
나. 양자	152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165
가. 협력 현황	165
나. 평가 및 시사점	174

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79

1. 아세안의 현황	180
가. 아세안의 환경 관련 지표	180
나. 논의 동향	188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203
가. 재해관리	203
나. 온실가스 감축	212
다. 기타 환경 분야	219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226

가. 협력 현황	226
나. 평가 및 시사점	236
제6장 한·아세안 협력방안	239
1. 기본방향	240
2. 분야별 정책과제	243
가. 사회 인프라	243
나. 문화예술	248
다. 지속가능한 환경	253
참고문헌	262
부록	289
Executive Summary	292



표 차례

표 2-1. 동남아 지역연합체 개요(1945~67년)	29
표 2-2. 연대별 아세안의 발전 개요	30
표 2-3. APSC 청사진 2015의 주요 내용	32
표 2-4. APSC 청사진 2025의 주요 내용	35
표 2-5. AEC 청사진(2009~15) 개요	38
표 2-6. AEC 청사진 2025 개요	39
표 2-7. ASCC 청사진 6대 중점분야 및 주요 이행과제 개요	42
표 2-8. ASCC 청사진 2025 중점 이행 분야별 내용	44
표 2-9. 제3장(사회 인프라)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53
표 2-10. 문화예술 영역의 분류 사례: 양혜원 외(2011)	54
표 2-11. 제4장(문화예술)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56
표 2-12. 제5장(지속가능한 환경)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59
표 3-1. 아세안 회원국의 인간개발지수(HDI) 비교(2017년 기준)	63
표 3-2. 소득수준별 아세안 회원국 분류(그룹 1~4)	64
표 3-3. 아세안 사회 인프라 개발격차 분석을 위한 세부항목 구성	64
표 3-4. ASCC 청사진 2025 내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	70
표 3-5. 아세안 보건 및 교육 장관회의 논의 결과	71
표 3-6.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73
표 3-7.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74
표 3-8.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77
표 3-9.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5대 공여국/기관 (2013~17년 평균)	82
표 3-10. 일본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88
표 3-11. 일본의 보건의료 ODA 관련 기본 원칙 및 정책	90

표 3-12. 미국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94
표 3-13. 미국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 및 아세안 내 지원 국가	98
표 3-14. 독일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100
표 3-15. 독일 「교육전략」의 주요 내용	102
표 3-16. 독일의 대아세안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관련 주요 사업 ·	106
표 3-17. EU 기관 차원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109
표 3-18. EU · 아세안 SHARE 프로그램: 교류 현황	113
표 3-19. 우리나라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116
표 3-20. 우리나라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118
표 3-21. 우리나라의 아세안 중점협력국 국별협력전략(CPS): 사회 인프라	120
표 3-22.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중점 사업계획(안)(2019)」: 사회 인프라	122
표 3-23. 우리나라의 대아세안(6개국) 사회 인프라 관련 주요 사업 ·	124
표 3-24. 한 · 아세안 협력기금(AKCF): 교육사업(2016~18년)	126
표 3-25. 우리나라의 민관 및 민간 차원의 대아세안 사회 인프라 사업 예시 ·	128
표 4-1. ASCC 청사진 2025의 문화예술 분야 관련 실행전략	135
표 4-2. 「아세안 문화예술 전략계획 2016~2025」의 핵심전략 및 실행계획	137

표 4-3.	「아세안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2016~2025」의 주요 내용	140
표 4-4.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의 콘텐츠 관련 실행전략	141
표 4-5.	아세안 주요국의 분야별 콘텐츠 시장 규모(2017년 기준)	143
표 4-6.	아세안 주요국의 문화예술 부문 개발협력 수혜 현황	144
표 4-7.	베트남 ‘문화산업발전전략: 2020년까지, 비전 2030’ 실행전략	148
표 4-8.	UNESCO의 국제 문화다양성기금 중 아세안 회원국 지원 사례	151
표 4-9.	세계은행의 문화·관광 분야 지원 프로젝트 사례	152
표 4-10.	ADB의 문화·관광 분야 지원 프로젝트 사례	152
표 4-11.	EUNIC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클러스터 펀드 지원 사례	154
표 4-12.	아세안 지역 프랑스문화원 설립 현황	156
표 4-13.	프랑스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ODA 사례(2017년 기준)	157
표 4-14.	아세안에 대한 CFU 지원 사례	158
표 4-15.	아세안 지역 독일문화원 설립 현황	159
표 4-16.	독일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ODA 사례(2017년 기준)	160
표 4-17.	아세안 지역의 중국 공자학원·공자학당 설립 현황	162
표 4-18.	아세안 지역의 일본 국제교류기금 설립 현황	163
표 4-19.	일본의 대아세안 문화 ODA(문화무상자금협력)	164
표 4-20.	한·아세안 협력기금: 문화사업(2016~18년)	167
표 4-21.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중 문화 관련 추진전략 및 과제	167
표 4-22.	2018년도 공공외교 시행계획 중 문화 관련 사업	168
표 4-23.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ODA 예산 계획: 문화예술·관광 분야	172
표 4-24.	문화재청 2019년 ODA 예산 계획	173
표 4-25.	신남방정책 중 문화예술 분야 협력사업 계획(2019년)	173

표 5-1. 아세안 회원국의 세계위험지수(WRI) 비교	183
표 5-2. 아세안 회원국의 기후위험지수(CRI) 비교	184
표 5-3.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마커 기준)	185
표 5-4.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마커 기준, 국가별) ·	186
표 5-5. OECD DAC 주요 회원국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 (마커 기준)	187
표 5-6. ASCC 청사진 2025: 지속가능한 환경 관련 속성과 핵심분야 ·	189
표 5-7. 「아세안 환경전략계획(ASPEN) 2016~2025」의 우선 과제와 세부 프로그램	192
표 5-8. 최근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의 주요 내용	195
표 5-9. 아세안 AADMER 작업 프로그램 2016~2020	199
표 5-10.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결정기여(NDC) 비교	201
표 5-11. 아세안 자연재해 사례	205
표 5-12. 일본의 대아세안 재해관리 협력사업	210
표 5-13. 아세안 에너지 센터(ACE)의 협력 프로그램	216
표 5-14.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의 협력 프로그램	221
표 5-15.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마커 기준)	228
표 5-16.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마커 기준, 국가별) ·	228
표 5-17. 아세안 회원국 국가협력전략에 명시된 중점분야	230
표 5-18.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 계획(2019년) ·	232
표 5-19.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양자 협력사업	233
표 6-1.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지역별 수출액	258
표 6-2. 한·아세안 사회문화 분야별 협력과제(안)	260



그림 차례

그림 2-1. AEC 청사진 변화 비교	40
그림 2-2. ASCC 청사진 변화 비교	45
그림 2-3. 아세안 공동체별 협의회 및 주요 장관회의	48
그림 2-4. 본 연구의 ASCC 주요 협력 분야 도출방안	49
그림 3-1. 아세안 사회 인프라 개발격차 분석: 보건의료 및 교육	66
그림 3-2. 아세안 사회 인프라 개발격차 분석: 세부지표별	68
그림 3-3.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공여 추이(2008~17년) ..	82
그림 3-4.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추이: 수원국별(2013~17년) ·	83
그림 3-5.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내 10대 하위 분야 (2013~17년 평균)	83
그림 3-6.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공여 추이 및 5대 공여국(기관) ..	84
그림 3-7.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85
그림 3-8.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분야 및 소득수준별(2013~17년 평균)	86
그림 3-9. 일본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88
그림 3-10. 미국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94
그림 3-11. 독일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101
그림 3-12. EU 기관 차원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109
그림 3-13. EU·아세안 SHARE 프로그램의 핵심영역별 추진 기관 ..	111

그림 3-14. 우리나라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116
그림 3-15. 우리나라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118
그림 4-1. 아세안 주요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규모 변화 추이	143
그림 4-2. 아세안 회원국의 UNESCO 문화유산 현황	145
그림 4-3. 아세안 10개국의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	146
그림 4-4. 아세안 10개국의 3G/4G 이동통신 보급률 비교	147
그림 4-5. ASEAN 주요국의 주요 방송 인프라 비교	147
그림 4-6. 주요 DAC 회원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부문 지원 규모 ·	153
그림 4-7. 한국의 글로벌 및 대아세안 문화예술 분야 ODA 지원 추이 ·	171
그림 5-1. 아세안의 인구 전망	181
그림 5-2. 아세안의 인구밀도	181
그림 5-3. 아세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181
그림 5-4. 아세안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181
그림 5-5. 아세안의 환경분야 회의체	192
그림 5-6. 아세안 AADMER 작업 프로그램 2016~2020의 이행체계 ·	198
그림 5-7. 재해의 위험과 영향	204
그림 5-8. 재해관리 단계	204
그림 5-9. 아세안 자연재해 발생 횟수	205
그림 5-10. 대아세안 재해관리 분야 ODA 주요 공여국/기관 (2013~17년 평균)	206
그림 5-11. 아세안의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전망	212
그림 5-12. 대아세안 온실가스 감축목적 ODA 주요 공여국 (2013~17년 평균)	213

그림 5-13. 대아세안 에너지 발전 분야 ODA 추이	213
그림 5-14. 아세안 CDM 사업 현황	215
그림 5-15. 주요국의 대아세안 CDM 사업	215
그림 5-16. 대아세안 생물다양성 ODA 주요 공여국(2013~17년 평균) ·	220
그림 5-17. 아세안 회원국별 생물다양성 ODA(2013~17년 평균)	220
그림 5-18.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ODA 중 환경 분야 비중 비교(마커 기준)	227
그림 5-19. KOICA 기후변화 중기 지원전략(2016~2020년)	231
그림 6-1.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의 기본방향	241
그림 6-2.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 추진체계(안)	243
그림 6-3.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와 환경	255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민간 부문의 대아세안 지원 현황: 자선기금	86
글상자 3-2. UNESCO의 대아세안 협력 사례: 비취학 아동 지원사업 ..	113
글상자 5-1. 바젤협약과 해양폐기물	225
글상자 5-2. 다자기구 및 기금을 통한 아세안 환경협력	225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ASEAN)¹⁾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1월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정상 순방에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공동체를 핵심으로 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를 천명한 바 있다.²⁾ 정부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신남방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2018년 8월 출범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3P 공동체 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가 추진되고 있다.³⁾ 3대 목표로 첫째,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으로 2020년까지 한·아세안 상호 방문객 연간 1,500만 명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으로 2020년 아세안과의 연간 교역액 2,000억 달러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이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실질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상호교류·상생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6개 추진과제를 2018년 말에 수립하고, 3P별로 이를 구체화하는 총 50개 세부과제를 범부처적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⁴⁾

아세안은 2003년 발리협약 II(Bali Concord II)를 통해 2020년까지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⁵⁾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⁶⁾ 2007년 아세안 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앞당겨 출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결국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3개 축의 공동체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처럼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총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이재호(2018), p. 5.

3)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8. 11. 8, 검색일: 2019. 8. 19).

4)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4. 30, 검색일: 2019. 10. 14).

5)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6) 김형중, 최경희(2017), pp. 24~27.

아세안은 이미 우리가 제안한 3P와 유사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아세안 정책으로 제시한 3P 공동체와 2015년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 간의 접점을 확인해가며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윈윈하는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3P별로 진행하고 있는 추진과제들도 아세안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하며 진행할 때 일회성의 협력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이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1989년 11월 아세안과 부문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아세안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및 교역 주요 대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2018년 말 누계 기준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는 법인 수 1만 4,680개, 투자액 619억 달러로, 아세안은 대세계 투자 총액의 13.7%를 차지하는 4대 투자 대상 지역이다.⁷⁾ 또한 2018년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1,597억 달러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 지역이다.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금번 신남방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 이외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세안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ASCC는 2025년까지 사람 중심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C는 빈곤, 환경, 노동 문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발전에 대한 구상이며, 아세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 환경, 사회복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장관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ASCC 논의사항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와 중첩적으로 여러 경제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2018년 11월에 개최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ASCC와 관련 분야인 교육, 환경, 문화 등을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추가사업을 장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7) 이재호(2019), p. 3.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서 ASCC와 관련한 연구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왔다. 김형중(2015)은 그동안의 ASCC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아세안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충렬(2014)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추진배경과 성과를 다루었고, 윤순진 외(2018)는 메콩 유역의 개발과 환경협력의 제약 및 초국가적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를 분석하였다.

2015년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문화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미미하다. 본 연구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추진 경과를 분석하고, 주요 분야별로 아세안 차원의 현황과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을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관련한 협력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아세안 공동체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서 사회문화공동체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사회 인프라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특징,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를 분석하였다. 제4장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전략 및 여건을 분석하고, 문화예술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와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아세안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였다. 제5장은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 동향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분야별 협력 활동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창설되어 현재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이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연대를 위한 지역공동체로 자리 잡기 이전에도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민족주의 및 탈식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만든 다수의 지역공동체가 난립된 바 있다. 예를 들어 1945년 베트남 주도 ‘범아시아 공동체(Pan-Asian Community)’, 1947년 미얀마 주도 ‘아시아연방(Asian Commonwealth)’, 인도네시아 주도 ‘동남아연합(Southeast Asian Association)’, 태국 주도 ‘동남아 연맹(Southeast Asian League)’ 등 다수의 동남아 지역연합체가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연합체는 모두 전후 민족주의 운동 수준에서 벗어난 진정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한 채 소멸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4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창설된 ‘동남아조약기구(SEATO: Southeast Asian Treaty Organization)’와 역내 국가간 경제·사회·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등이 상대적으로 보다 근대화된 지역협력체의 성격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나 동남아 내부 국가간 갈등과 견해 차이로 지역협력체로서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⁸⁾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남아 국가 간 영토 분쟁,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베트남전 발발 등 안보적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으로서 지역협력체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1966년 동남아연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태국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국이 참여하는 지역연합체의 결성을 제안했으며, 이에 4국이 태국의 제안을 수락해 기존 ASA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1967년 방콕 선언을 통해 아세안을 출범시켰다.

8) 강대창 외(2011), pp. 24~26.

표 2-1. 동남아 지역연합체 개요(1945~67년)

기구명	설립 시기	설립 주도 국가	특징
범아시아 공동체	1945년	베트남	민족주의, 탈식민 시기
아시아연방	1947년	미얀마	
동남아연합	1947년	인도네시아	
동남아연맹	1947년	태국	
동남아조약기구	1954년	미국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동남아시아연합	1961년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3국	경제사회문화 협력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태국	안보위협 대응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자료: 강대창 외(2011), pp. 24~26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이후 1984년 브루나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90년대 냉전 종식과 지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베트남(1995), 라오스 ·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연이어 가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10개국 연합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발전과정은 크게 5개 연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1967년 창설 당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반 형성 단계로 1969년 아세안 기금 창설 및 1971년 ‘동남아 평화 · 자유 및 중립지대(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선언’ 등을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로 정치경제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동 시기에는 회원국 간 연대를 위한 1976년 발리협약 I 및 동남아 우호협력 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체결, 1977년 아세안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한 지역협력체로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아세안 공업프로젝트(AIP), 아세안特惠무역협정(PTA) 등 경제적 협력 기반 및 미국 · 일본 · 호주 등 역외국과의 대화관계도 확충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1990년대로 냉

전 종식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맞추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추가로 아세안에 가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10개국 형태를 갖춘 시기이다. 동 시기에는 탈냉전과 지역주의의 부상에 발맞추어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합의,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이 창설되면서 현재의 경제·외교적 협의체로서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2020년까지 아세안의 장기 발전계획인 ‘아세안 비전 2020’을 채택해 아세안 공동체 출범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네 번째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된 2000년대로 2003년 ‘발리협약 II(Bali Concord II)’를 통해 2020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3개 공동체 창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07년 세부 선언(Cebu declaration)에서는 기존 2020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 계획을 2025년으로 조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07년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발표, 2009년 후아힌 선언(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채택), 2014년 네피도 선언을 통해서 아세안 통합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설립 이후 2025년까지 아세안의 추가 통합 발전을 위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추진 단계로 APSC, AEC, ASCC별로 2025년까지의 추가 발전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비롯해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MPAC) 2025,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행동계획 III 등 주요 아세안 통합 프레임워크를 수립·추진 중이다.

표 2-2. 연대별 아세안의 발전 개요

연대	시기	발전 방향	주요 성과
1단계	1967~70년 대 중반	공동체 기반 형성	1969년 아세안 기금 창설
			1971년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
2단계	1975~ 80년대	정치경제 협력 기반 확충	1976년 발리협약 I 및 동남아 우호협력 조약
			1977년 아세안 사무국 설치, 아세안 기업프로젝트, 아세안特惠무역협정
			역외국 대화관계 확충*

표 2-2. 계속

연대	시기	발전 방향	주요 성과
3단계	1990년대	냉전종식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
		경제·외교 협력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기틀 마련	1997년 아세안 비전 2020 채택
4단계	2000~15년	아세안 공동체 추진 본격화	2003년 발리협약 II - 2020년까지 아세안 통합
			2007년 세부 선언 - 2015년 아세안 조기 통합
			2007년 아세안 헌장 발표
			2009년 후아힌 선언(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채택)
5단계	2015~25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추진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사회문화공동체(ASCC) 청사진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MPAC) 2025,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행동계획 III

주: * 호주(1974), 뉴질랜드(1975), 미국(1977), 일본(1977), 카타르(1977), EU(1977), 한국(1989), 중국(1996), 러시아(1996), 인도(1996).

자료: 외교부(2018a), pp. 20~29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아세안 공동체 출범 논의는 2003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추진이 본격화되고 안보, 경제, 사회문화 3대 축(Three Pillars) 형태로 발전이 공식화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위한 논의가 최초로 이루어지던 당시에 아세안 공동체는 경제통합에 적극적이었던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통합 구상에 기반했고, 안보공동체는 역내 리더십 회복을 꾀하던 인도네시아가 제안했으며, 이후 필리핀이 사회문화협력에 기반한 사회문화공동체를 또 하나의 축으로 제안했다.⁹⁾ 2003년 발리협약 II는 역동적, 호혜적, 회복력 있고 통합된 아세안 공동체(Dynamic, Cohesive, Resilient and Integrated

9) 김형중(2015), p. 6.

ASEAN Community)로의 발전을 지향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축으로 아세안 안보공동체(ASC: ASEAN Security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를 제시했다. 발리협약 II에서는 각 공동체별로 안보 12개, 경제 5개, 사회문화 6개의 개괄적인 통합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공동체별 이행계획은 2007년 세부 선언을 계기로 마련된 3대 축별 청사진을 통해 제시되었다.

가.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PSC)

APSC 청사진 2015에 제시된 APSC의 3대 특징(Three Characters)은 ① 공동의 가치와 규범의 규칙에 기반한 공동체(A Rules-based Community of shared values and norms) ② 포괄적 안보에 공동의 책임을 지는 단결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회복력 있는 지역(A Cohesive, Peaceful, Stable and Resilient Region with shared responsibility for comprehensive security) ③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지역(A Dynamic and Outward-looking Region in an increasingly integrated and interdependent world)을 지향하며 각 부문들은 상호 연관 및 보완적으로 균형과 일관성을 갖추는 형태로 추진된다. 또한 각 특징별로 2~6개의 추진과제 및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2-3. APSC 청사진 2015의 주요 내용

특징	세부목표	
공동의 가치와 규범의 규칙에 기반한 공동체	정치발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의 정치체제, 문화, 역사의 이해와 존중 촉진 - 회원국 간 상호 지지와 지원을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 - 법치와 법제도 강화전략 개발을 위한 상호 지지와 자원 프로그램 도입

표 2-3. 계속

특징	세부목표	
공동의 가치와 규범의 규칙에 기반한 공동체	정치발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 거버넌스 촉진 - 인권의 촉진과 보호 - 정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관련 사업의 참여 증대 - 부정 부패의 예방과 근절 - 민주주의 원칙 증진
	규범 형성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헌장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 조정 - TAC에 따른 협력 강화 -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행동강령선언(DOC)의 완전 이행 - SEAMWFZ와 행동계획의 완전 이행 - 해양협력의 촉진
포괄적 안보에 공동의 책임을 지는 단결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회복력있는 지역	갈등 예방과 신뢰 구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구축방안 강화 - 국방정책과 안보인식의 이해와 투명성 촉진 - APSC 지원을 위한 ARF 프로세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협력에 대한 국제법 원칙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토주권과 회원국의 단결에 대한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 강화 - 아세안 방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 촉진
	갈등 해소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기존 방식의 강화와 추가적 메커니즘 - 평화, 갈등 관리와 갈등에 대한 연구 -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한 지역협력 촉진
	갈등 후 평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 강화 - 갈등 후 인적자원개발과 능력개발 프로그램 수행 - 재건활동 협력 증가와 평화중심 가치 강화
	비전통적 안보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통적 안보 이슈 대응 협력 강화, 특히 초국가적 범죄와 초국경적 사안에 중점 - 대테러리즘 아세안 협약의 이행을 통한 대테러리즘 노력 강화
	재난관리 응급 대응	
	아세안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또는 위기적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지역	지역협력과 공동체 건설에 있어 아세안 중심주의 강화	
	역외국가와의 관계 강화 촉진	
	공동관심인 다자적 이슈에 대한 협의와 협력 강화	

자료: ASEAN Secretariat(2009a); 김형중(2014), pp. 141~142.

APSC 청사진 2015에서는 여타 기존의 안보협력체제와 달리 규범을 기반으로 제도화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포괄적 안보협력의 개념을 도입해 탈냉전시대에 맞는 역내 갈등 해소 및 비전통 안보, 재난관리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향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로서 아세안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역외국과의 관계 촉진 또한 동시에 고려하는 대외지향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동시에 기존 APSC 청사진 2015는 APSC 청사진 2025로 대체되었다. APSC 청사진 2025는 ① 규범에 기반한 사람우선, 사람 중심 공동체(Rule based, people-oriented, people-centered community) ② 평화롭고,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Peaceful, secure and stable region) ③ 역동적이며 대외지향적인 지역에서의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in a dynamic and outward-looking region) ④ 아세안 제도적 역량 및 인식 강화(Strengthened ASEAN institutional capacity and presence) 등 4대 특징(4 Characters)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기존 APSC 청사진 2015는 크게 정치안보 부문의 통합의 방향성을 ① 규범화 ② 포괄적 안보 ③ 대외지향성으로 둔 반면, APSC 청사진 2025는 ① 규범화 ② 평화 ③ 대외지향성 ④ 인식 강화의 4대 부문으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기존 APSC 청사진 2015에 제시된 포괄적 안보의 경우 기존 역내 갈등 해소 및 비전통 안보 협력 분야에 집중한 반면 APSC 청사진 2025에는 아세안 정치안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군축·비핵화, 해양안보 등 보다 구체화된 협력방향이 추가되었다. 또한 APSC 청사진 2025에는 아세안 지역의 인식 및 인지도 개선에 대한 협력방향도 추가되었는데 이는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 과정에서 발 견된 아세안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아세안 사무국 및 외부 기관 간 협업체계상의 비효율 개선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표 2-4. APSC 청사진 2025의 주요 내용

특징	세부목표	
<p>규범에 기반한 사람 우선, 사람 중심 공동체</p>	아세안 기본 원칙, 국제법과 공동된 가치 및 규범 고수	아세안 헌장의 완전하고 효율적 이행
		기 서명·인준 아세안 협약 이행
		평화적 관계를 위한 원칙과 국제법 준수
		독립, 자주, 평등, 영토, 불간섭, 국가 정체성 존중
		사람 우선, 사람 중심 공동체 인식 개선
		아세안 회원국 간 정치, 법률 시스템, 문화, 역사 이해 증진
		동남아우호조약(TAC) 목적과 원칙 준수
	민주주의, 거버넌스, 법률, 자유 및 인권 보호, 반부패 강화	민주주의의 원칙 강화
		굿 거버넌스 문화 도입
		통합 및 반부패 문화 도입
		법률, 사법체계, 법 인프라 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
		인권, 자유원칙, 사회정의의 추구
	역내외 조화, 평화, 안 정을 위한 평화 문화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이행을 위한 이해당사자 참여 촉진
		신념, 종교, 문화 등 다양성 존중·관용 등 평화문화 정착
<p>평화롭고,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p>	도전과제 해결능력 강화	차이 인정, 긴장완화, 분쟁해소,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관용·절제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메커니즘 강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의 플러스를 포함한 국방장관회의의 협력
		ARF 협력 강화
		EAS 협력 강화
	효율적이고 시의성 있는 비전통 안보 대응	ASEAN+3 협력 강화
		효율적이고 시의성 있는 위기 긴급 대응
		초국가범죄 분석 대응 역량 강화
		테러리즘 협력 지속
		마약청정(Drug Free) ASEAN 추구
		납치 인신매매 대응
		소규모 무기매매 철폐
		사이버 테러 대응
		국경 관리 협력
		재난관리 긴급 대응 협력
		초국가, 초국경 도전과제 분석 역량 강화

표 2-4. 계속

특징	세부목표	
아세안 헌장과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이견 및 분쟁 해결	신뢰 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 추진	신뢰 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 추진
		국방정책 및 안보의식 이해 및 투명성 증진
		평화적인 분쟁해소 형태 및 강화된 추가 메커니즘 고려
		평화, 갈등 관리 및 해소 연구활동 강화
		아세안 국가별 역량에 따른 평화유지 및 분쟁 후 평화재건
		평화 우선 가치 강화
	군축, 비확산, 평화로운 핵사용 원칙에 따라 아세안의 비핵화, 비대량 살상무기 지역화	아세안 비핵화 협약 효율적 이행
		IAEA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에 핵안전 향상
		역내 비핵화 지대 설립
		역내 군축 및 비확산 노력
	아세안 역내외 해양안보협력	남중국해 평화지대 협력
		포괄적 해양 이슈 분석을 위한 해양협력
		국제법에 따른 평화, 안전, 불가침 행위의 자유
역동적이며 대외지향적인 지역에서의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주도 역내 구조를 위한 아세안의 통일, 호혜, 중심성 강화	개방, 투명, 규범 기반의 역내 구조를 위한 아세안 중심성 강화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효율성 강화
	대화상대국 및 대외협력기관 협력	대화상대국과 실질적, 전략적 협력 증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기관 파트너십 개발
		잠재적 협력기관의 실질적 참여 검토
아세안 사무국의 제도적 역량 및 인식 강화	아세안 사무국 및 역내외 기관과의 효율적 협업을 위한 업무 간소화	아세안 사무국의 고위급 T/F 보고서 채택, 25차 네피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기관 업무 점검
		아세안 국가, 역내, 국제적 차원 인지도 강화
	아세안 인식 및 인지도 강화	아세안 국가, 역내, 국제적 차원 인지도 강화
		아세안에 대한 인식 인지도 강화

자료: ASEAN Secretariat(2016a), pp. 2-36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EC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로 이루어지는 아세안 공동체 3개 축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아왔다. AEC의 역사적인 시발점은 아세안 국가들이 최초로 역내 관세특혜 협력을 시작한 1977년 아세안 특혜무역협정(PTA) 체결로 볼 수 있으나, 아세안의 본격적인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1993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출범 시기부터라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특히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 등 주요 다자통상체계의 등장과 EU, NAFTA, MERCOSUR 등 지역 자유무역지대의 등장으로 지역주의가 대두되었고, 아시아 역내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역내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에 아세안 각국은 199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지역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AFTA를 추진했다. 이후 아세안은 1995년 아세안서비스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 1996년 아세안산업협력(AICO: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1998년 아세안투자지대(AIA: ASEAN Investment Area) 등 경제통합을 위한 협정을 다수 추진했다.

AEC는 정치안보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와 함께 2003년 발리협약 II를 계기로 공식화되었으며, 2004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EC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AFTA 완료 시점을 기존 2010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2007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EC 출범을 기존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AEC 청사진(2009~15)을 채택했다. AEC 청사진(2009~15)은 상품·서비스·투자·자본·숙련인력의 자유로운 이동(Free Flow)을 바탕으로 한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Single Market and Production Base)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유무역지대 형태인 AFTA 체제와 차별화된다. 즉 아세안 역내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의 도약과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 기여하는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지향한다. AEC 청사진(2009~15)은 AEC 추진방향을 [표 2-5]와 같이 ①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Single Market and Production Base) ②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Competitive Economic Region) ③ 균형경제발전(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④ 세계경제로의 통합(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표 2-5. AEC 청사진(2009~15) 개요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무역 자유화 · 서비스무역 자유화 · 투자 자유화 · 자본 자유화 · 숙련인력 이동 자유화 · 우선부문(12개) 통합 · 농림 식품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정책 강화 · 소비자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 인프라 개발 · 조세협력 · e-commerce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 ·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IAI) 추진 : 개발격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경제관계 확대: 아세안 중심성 유지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강화

자료: ASEAN Secretariat(2008).

아세안은 AEC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대 축의 세부과제들을 총 4개 연대 (2008~09, 2010~11, 2012~13, 2014~15)로 나누어 단계별 이행을 위한 전략 스케줄(Strategic Schedule)을 제시했으며, 동 스케줄 이행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Scorecard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2015년 AEC 출범 당시 Scorecard에 취합된 AEC 이행 내역은 총 506개 조치사항 중 469개로 총 92.7%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AEC 4대 축별로는 ①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92.4% ②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90.5% ③ 균형경제발전 100% ④ 세계경제로의 통합 100%로 ①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에서 21개 ②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의 부문에서 16개 사항들이 미이행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2015년 11월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가 공식 출범함과 동시에 AEC 청사진 2015가 AEC 청사진 2025로 대체되면서 보다 고도화

된 경제통합체로의 발전을 위한 다수 과제가 추가되었다. AEC 청사진 2025에는 2025년까지 AEC의 추가 발전을 위한 5대 축인 ①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권(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 ②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Competitive, Innovative and Dynamic ASEAN) ③ 연계성 강화 및 부문별 협력 ④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의 아세안 ⑤ 글로벌 아세안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형태의 이행과제들이 제시되었다.

표 2-6. AEC 청사진 2025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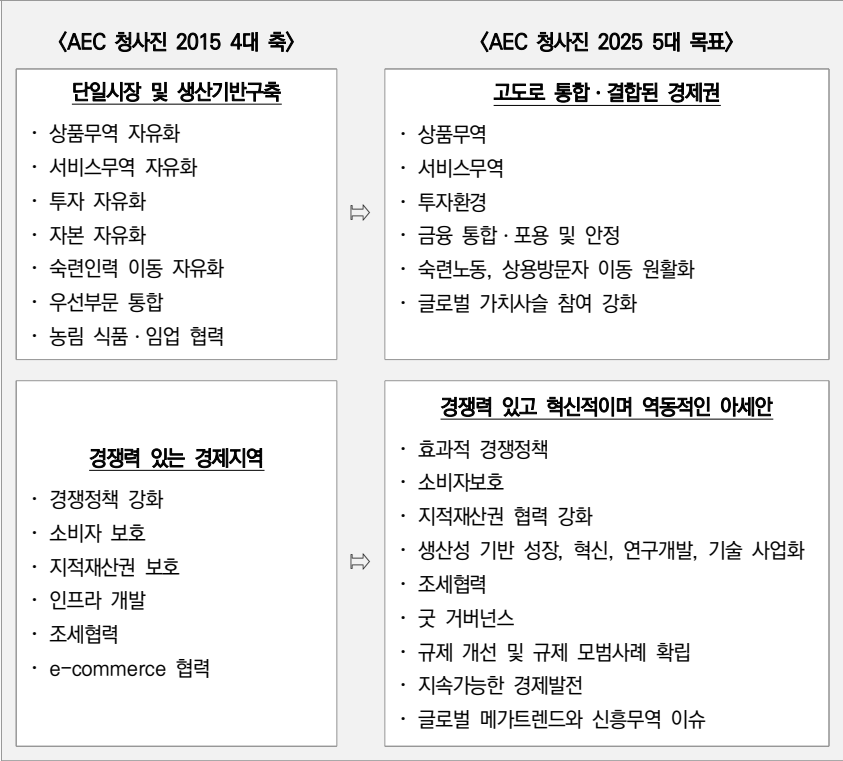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권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연계성 강화 및 부문별 협력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의 아세안	글로벌 아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투자환경 · 금융 통합과 포용 및 안정 · 숙련노동, 상용 방문자 이동 원활화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 경쟁정책 · 소비자보호 · 지재권 협력 강화 · 생산성경인성장, 혁신,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 조세협력 · 굿 거버넌스 · 효과적, 효율적, 일관적, 대응적 규제와 우수한 규제 관행 · 지속가능 경제발전 · 글로벌 메가트렌드, 무역 관련 신흥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 ICT · e-commerce · 에너지 · 식품, 농·임업 · 관광업 · 보건 · 광물 ·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역할 강화 · 민간 부문 역할 강화 · 민관협력 · 개발격차 감소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CEPA 등을 통한 세계경제 편입

자료: ASEAN Secretariat(2015a); ASEAN Secretariat(2015b), 재인용: 김제국(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새 청사진 발표」,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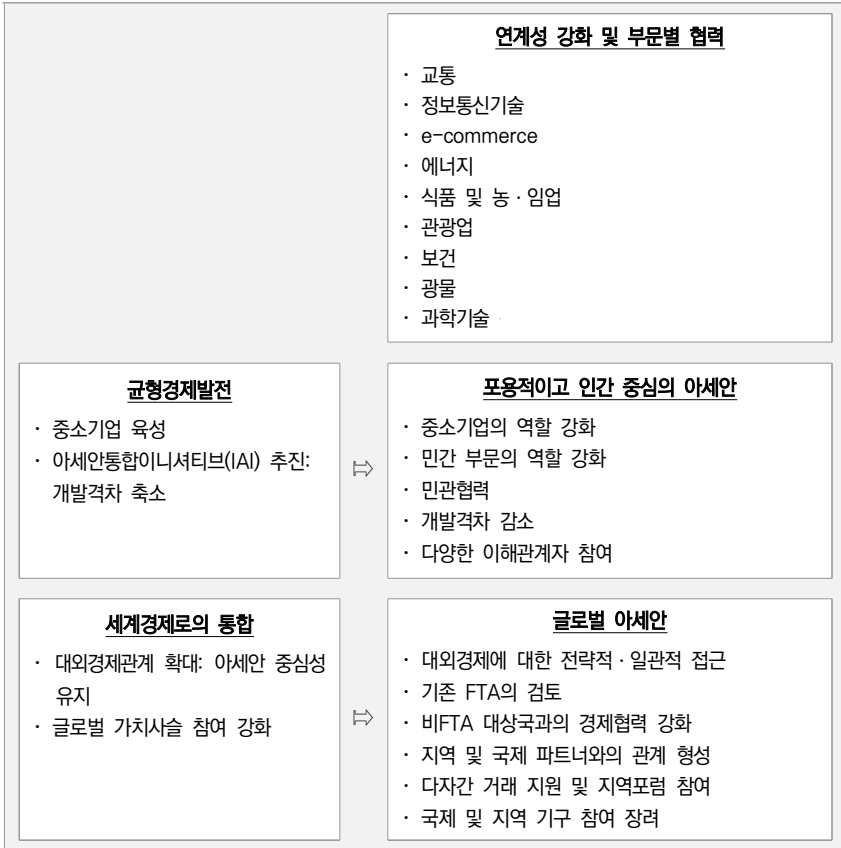
AEC 청사진 2025는 기존 4대 축에서 제시된 AEC 이행 방향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분화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이며, 특히 AEC 추진의 핵심 프레임 워크 중의 하나로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강화 및 부문별 협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아세안 연계성은 AEC 청사진 2015가 제시된 직후인 2010년 제1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EC의 핵심 추진체계 중 하나로 「아세안

연계성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10」이라는 정책명으로 물리적(Physical)·제도적(Institutional)·인적(People to People) 연계성 강화를 위한 다수의 이니셔티브로 제시된 바 있다. 2015년 말 AEC 출범 이후 MPAC 2010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세안 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해 AEC 청사진 2025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16년 제28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규 연계성 강화정책인 MPAC 2025를 채택·추진하고 있다.¹⁰⁾

그림 2-1. AEC 청사진 변화 비교



10)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MPAC) 2025에 대한 상세내용은 이재호(2017)를 참고.



자료: 광성일, 김제국(2016), p. 10에서 발췌·인용.

다.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ASCC도 APSC 및 AEC와 함께 2003년 발리협약 II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7년 세부 선언을 거쳐 아세안 공동체 출범 기한이 기존 2020년에서 2015년으로 단축되고 2009년 ASCC 청사진이 도입되면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2009년 ASCC 청사진은 사회문화공동체의 1차 목적을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살핌과 나눔의

사회를 건설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해 아세안 국민과 국가간 연대와 단결을 달성하는 사람 중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가진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두고 ASCC 핵심 가치로 삶의 질 개선, 친환경적 지속가능개발, 상호 이해, 문화·다양성 존중, 개발격차 해소 등도 제시하였다.¹¹⁾ 이를 기반으로 ASCC 추진을 위한 6대 중점분야(6 Characters)로 ①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② 사회복지·보호(Social Welfare and Protection) ③ 사회정의·권리(Social Justice and Rights) ④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Ensuring Environment Sustainability) ⑤ 아세안 정체성 형성(Building ASEAN Identity) ⑥ 개발격차 해소(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이하 다수의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표 2-7. ASCC 청사진 6대 중점분야 및 주요 이행과제 개요

분야	이행과제	분야	이행과제
인간 개발	교육개발과 우선분야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	국제환경 이슈
	인력개발투자		초국경적 환경오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ICT촉진		환경친화적 기술(EST)
	과학기술(S&T) 접근성 강화		도시 삶의 질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업가 정신 및 기술 강화		환경정책과 데이터베이스의 조화
	공무원 능력 개발		해안·해양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사회 복지· 보호	빈곤 완화		천연자원·생물다양성 지속가능 관리
	통합, 세계화 부정적 여파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보호		수자원 지속가능한 이용
	식량안보와 안전		기후변화 대응과 영향
	의료보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전염병 통제능력 향상	아세안 정체성 형성	아세안 인식과 공동체 인식
	마약 퇴치		아세안 문화유산 보전
	재난 대응과 관리		문화 창의성과 문화산업
사회 정의· 권리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및 권리 보호	개발격차 해소	공동체 관여 지원
	이주노동자 권리의 보호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자료: ASEAN Secretariat(2009b), pp. 2-24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1) ASEAN Secretariat(2009b), p. 1.

아세안 사무국은 ASCC 청사진으로 제시된 주요 이행과제별 진행상황을 분석한 Scorecard를 기반으로 작성된 중간보고서(Mid-term Review)를 통해서 2009~13년 동안의 ASCC 청사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동 중간보고서를 통한 ASCC 청사진 이행 점검 결과 2009~13년까지 이행계획들이 대체로 90%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¹²⁾ 분야별로는 ① 인간개발 93%(61개 이행계획 중 57개 이행) ② 사회복지·보호 97%(94개 이행계획 중 91개 이행) ③ 사회정의·권리 79%(28개 이행계획 중 21개) ④ 아세안 정체성 형성 96%(50개 이행계획 중 48개)의 이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환경 및 개발격차 해소는 별도의 지수를 활용해 평가했는데 ⑤ 환경 지속가능성 부문은 환경이행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가 전반적으로 6.54포인트가량 개선되었고 ⑥ 개발격차 해소 부문은 유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의 ASEAN-6국가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간의 격차가 감소되었다고 평가했다. 동 보고서는 ASCC 청사진 이행 현황 점검 이외에도 ASCC 청사진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① ASCC 청사진 우선 이행 ② ASCC 모니터링 톨 확보 ③ 지식관리 시스템 ④ 조정 및 교차 메커니즘 ⑤ 자원 조달 ⑥ 다부문, 다수 이해당사자 접근법 ⑦ CLMV 특별 배려 ⑧ 제언 성실 이행 등을 제시했다.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으로 여타 정치안보, 경제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ASCC 또한 2025년까지 추가 이행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ASCC 청사진 2025를 채택했다. ASCC 청사진 2025 서문에 기존 ASCC 청사진을 통한 6대 이행과제는 물론 질병, 여성인권, 인도적 지원, 최빈층 감소, 교육, 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음을 자평했으며, ASCC 청사진 2025의 중점 5대 분야로 ① 사람에 대한 참여와 혜택(Engages and Benefits the People) ② 포용성(Inclusive) ③ 지속가능성(Sustainable) ④ 회복력(Resilient) ⑤ 역동성(Dynamic)을 제시했으며, 각 중점분야별로 이행과제(Key result area) 이

12) ASEAN Secretariat(2014a).

하 다수의 세부 전략조치(Strategic measure)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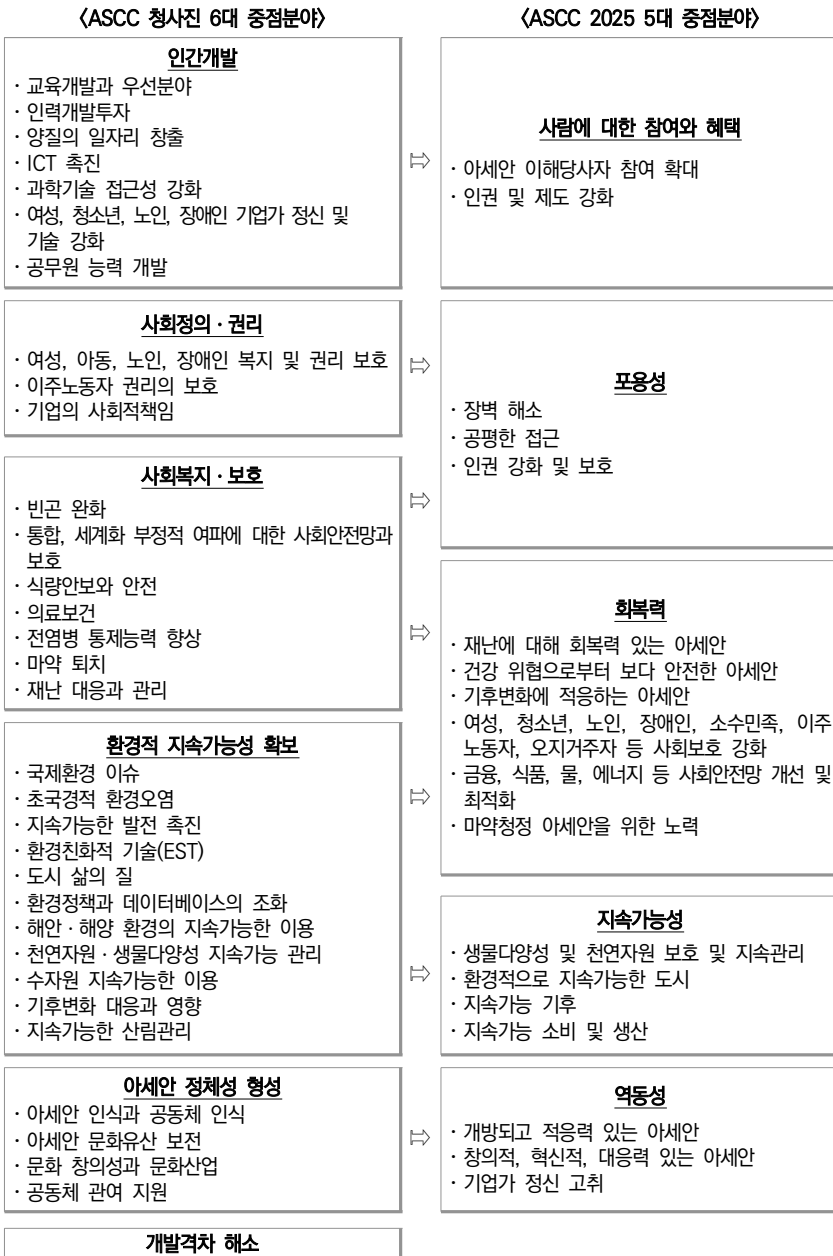
표 2-8. ASCC 청사진 2025 중점 이행 분야별 내용

중점분야	이행과제	전략조치
사람에 대한 참여와 혜택	아세안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	2개
	인권 및 제도 강화	7개
포용성	장벽 해소	5개
	공평한 접근	13개
	인권 강화 및 보호	9개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및 천연자원 보호 및 지속관리	10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6개
	지속가능 기후	7개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4개
회복력	재난에 대한 회복력 있는 아세안	7개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아세안	3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아세안	3개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오지거주자 등 사회보호 강화	2개
	금융, 식품, 물, 에너지 등 사회안전망 개선 및 최적화	5개
	마약청정 아세안을 위한 노력	2개
역동성	개방되고 적응력 있는 아세안	11개
	창의적, 혁신적, 대응력 있는 아세안	10개
	기업가 정신 고취	3개

자료: ASEAN Secretariat(2016b), pp. 4-20 내용을 활용해 저자 작성.

ASCC 청사진 2025는 기존 ASCC 청사진(2009~15)에 비해서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다른 아세안 공동체(특히 AEC)와 Cross-Cutting하는 형태로 연계된 분야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선 중점분야의 구성부터 인간개발, 환경, 사회 복지보호 등 분야별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기존 ASCC 청사진(2009~15)과는 달리 ASCC 청사진 2025에 제시된 중점분야들은 포용성, 지속가능성, 회복력 등 다소 선연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ASCC 청사진 2025는 ASCC 자체 이행 프로그램 간 Cross-cutting 형태의 이행은 물론 여타 공동체와의 Multi-sectoral 이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② 포용성 부분의 경우 AEC 청사진 2025에 제시된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의 아세안’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ASCC 청사진 변화 비교



자료: ASEAN Secretariat(2009b)와 ASEAN Secretariat(2016b)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

가. ASCC 중요성

아세안은 2008년 12월 15일 아세안 헌장을 공식 발표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향한 법적 지위와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세안 헌장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를 아세안의 모토로 공식화하였다.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하면서 하나의 통합되고 평화로우며 안정적인 공동체를 아세안의 비전으로 재확인하였다.¹³⁾ 아세안 공동체는 경제 및 사회 문화 개발, 역내 평화와 안정, 상호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삶 개선을 추구하면서 세 가지의 공동체를 출범하게 되었다.¹⁴⁾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세 가지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경제공동체만으로는 아세안 지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제약이 있다.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적 개발격차가 큰 상황에서 경제공동체 청사진이 역내 국가간의 급속한 통합을 담보하지 못하며, 공동체의 비전을 달성하면서 진정으로 하나의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협력 이상의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세안 사람들 간에 사회적·문화적으로 더 밀접하지 못한다면 경제공동체의 진전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달성은 하나된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추진력으로 기능해야 한다.¹⁵⁾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아세안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commitment)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13) ASEAN Secretariat(2015b), p. 13.

14) ASEAN Secretariat, Fact Sheet on ASEAN Commun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8).

15) Vejajiva(2017), Baviera and Maramis eds., pp. 347-348.

배경하에서 사회문화공동체는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 관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산하에 있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협의회가¹⁶⁾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나 경제공동체보다 문화예술, 환경,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의 장관회의 및 협의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된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¹⁷⁾

또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다양한 이슈들은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에 제시된 연계성 강화 및 부분별 협력,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의 아세안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아세안의 경제개발이 진전되고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환경,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결국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6) 아세안 공동체 이사회(ACCs: ASEAN Community Councils)는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별로 협의회를 설치하며 관련 분야 장관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각 분야별 또는 분야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을 조율하고 이를 아세안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권고사항을 제출하며, 정상회의 결정사항의 실무적 이행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아세안 장관회의에서 맡고 있음. 김형중, 최경희(2017), p. 20.

17) ASEAN Secretariat, "Fact Sheet of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https://asean.org/storage/2019/01/34.-November-2018-Fact-Sheet-on-ASCC.pdf>(검색일: 2019. 11. 8).

그림 2-3. 아세안 공동체별 협의회 및 주요 장관회의



주: 각 공동체별로 [그림 2-3]에 언급된 주요 장관회의 이외에도 다양한 협의체들이 포함되어 있음.¹⁸⁾
 자료: 김형중, 최경희(2017), p. 21.

나. ASCC 주요 협력 분야: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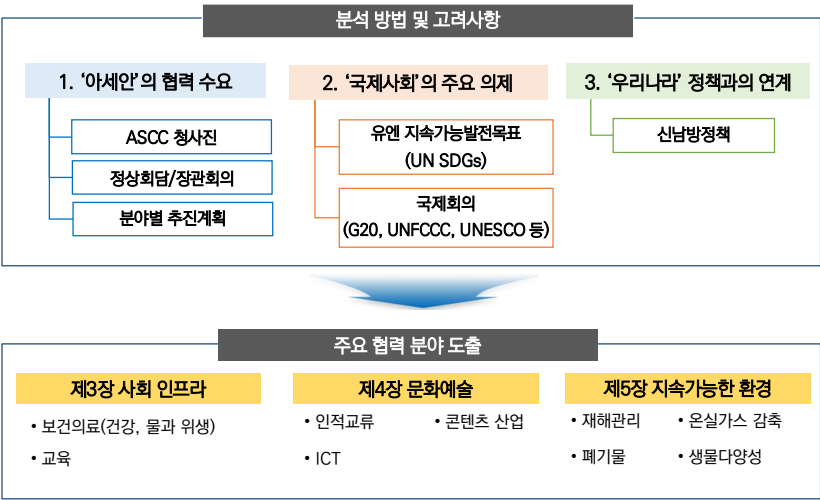
본 연구는 사회문화공동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와 주요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협력 분야 도출에 있어서 [그림 2-4]와 같이 아세안과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 정책과의 연계라는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먼저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였다. ASCC 청사진 이외에도 정상회담 및 ASCC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장관회의 의제와

18) ASEAN Secretariat,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 <https://asean.org/asean/asean-structure/asean-sectoral-ministerial-bodies>(검색일: 2019. 11. 8).

추진계획을 살펴보았다. 각 분야별 의제로 다루는 내용은 실제로 아세안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림 2-4. 본 연구의 ASCC 주요 협력 분야 도출방안



자료: 저자 작성.

둘째,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논의하고 있는 주요 의제도 고려하였다. 특히 지난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goals)와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서도 아세안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⁹⁾

셋째,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의 연관성도 고려하였다. 현재 신남방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3P 공동체로 제시한 세 분야(사람, 번영, 평화)

19) ASEAN Secretariat(2015b), p. 13.

중에서 사람공동체뿐만 아니라 변영 및 평화 공동체에 포함된 추진과제 역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연계되어 있음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고려 요인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출하였다. 각 분야별 세부 협력 분야는 관련 논의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는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해 그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²⁰⁾의 경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를 총 6개의 분야(교육, 건강, 인구 정책 및 프로그램, 물과 위생, 정부와 시민사회, 기타)로 구분한 후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²¹⁾ EU는 사회 인프라를 ‘사회 분야에서의 장기적·물리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세 가지 하위 분야(교육과 평생학습, 건강과 장기적 관리, 구입가능한 주거지)로 나누어 논의 중이다.²²⁾ Atolia *et al.*(2017) 또한 ‘학교, 대학, 병원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으로 정의한 바 있다.²³⁾

본 연구는 건강 및 물과 위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분야들은 ASCC 내 대표 의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로 손꼽히는 분야이다. 국제사회 또한 이를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해당 분야를 개선

20)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1) OECD(2018),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Annexes - Modules A, B & C,” pp. 98-10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22) Fransen, Bufalo and Reviglio(2018), “Boosting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in Europe,” pp. 28-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23) Atolia *et al.*(2017), “Investing in Public Infrastructure: Roads or Schools?,”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하려는 노력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인프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달성 목표이자 다른 분야의 성공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일례로 홍수 등 물 관련 재해는 환경 분야에 해당하나 이를 예방·대응하는 데 필요한 관리 역량 강화, 수인성 감염병 관리 등에는 보건의로 인프라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를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교육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안정된 수입원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고 양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물과 위생 관련 일부 지원사업(담 건설 등)의 경우 ASCC뿐 아니라 AEC의 활동과도 연계되어 있어 관점에 따라서는 사회문화보다 경제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분야 내 활동이 식수 공급, 위상상태 개선 등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중요시하고 있고, 공동체 간 중복 영역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분석 범위 내에 포함하였다.

최빈국부터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경제성장 수준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된 아세안은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발격차를 기록하고 있다.²⁴⁾ ASCC 청사진에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아세안의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ASCC 출범 이후 2009년에 발표된 청사진이 제시한 총 6개 중점분야 중 4개(인간개발, 사회복지·보호, 개발격차 해소, 아세안 정체성 형성)가 해당 인프라와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²⁵⁾ 청사진 2025에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회원국들은 청사진 2025를 기반으로 정상급, 장관급,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지역 차원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ASCC 산하

24) 아세안 회원국간 사회 인프라 개발격차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제3장 1절 참고.

25) ASEAN Secretariat(2009b), p. 1 및 본문 제2장 2절 내용 참고.

15개 장관급 회의체 중 절반²⁶⁾이 사회 인프라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해당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각 장관회의에서는 청사진을 토대로 작성된 분야별 목표와 세부계획을 승인한 후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²⁷⁾

국제사회 또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총 17개 SDGs 중 상당수가 해당 인프라를 구축 또는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ASCC 청사진 2025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연계되어 있다. 특히 청사진 2025는 SDGs 1~6번 목표(빈곤, 기아, 건강과 웰빙,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²⁸⁾ 우리나라 또한 최근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해당 위원회가 추진하는 총 16개 주요 정책 중 △ 인적자원 역량 강화 △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 신남방국가의 삶의 질 개선 등이 사회 인프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출신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²⁹⁾

26) 보건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노동장관회의, 청소년장관회의, 여성장관회의, 지역개발 및 빈곤 퇴치 장관회의,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 등.

27) ASEAN Secretariat(2015b), pp. 105-118; ASEAN 홈페이지,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검색일: 2019. 5. 16).

28) ASEAN Secretariat(2015b), pp. 105-118; ASEAN Secretariat(2017d), "ASEAN Community Progress Monitoring System(ACPMS) 2017," pp. 132-1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5); UN SDGs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검색일: 2019. 6. 25).

2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검색일: 2019. 8. 29).

표 2-9. 제3장(사회 인프라)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세부 분야	고려사항		
	아세안 차원의 노력	국제사회 주요 의제	우리나라 정책과의 연계
보건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CC 청사진(20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및 보호, 개발격차 해소 • ASCC 청사진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분야 해당 • 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장관회의 등 • 분야별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간 보건의료 격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빈곤 퇴치 - 2. 기아 종식 - 3. 건강과 웰빙 - 6. 물과 위생 - 17. 이행수단 강화 및 파트너십 활성화 • G20 정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의료보장 (UHC)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주요 정책 6. 신남방국가의 삶의 질 개선 (보건의료 개발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역량 강화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CC 청사진(20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개발, 아세안 정체성, 개발격차 해소 • ASCC 청사진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혜택, 포용성, 역동성 • 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관회의 등 • 분야별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 (2016~2020)」 등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간 교육격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빈곤 퇴치 - 4. 양질의 교육 - 5. 양성평등 - 8.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 9. 산업, 혁명 및 사회기반시설 -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 모두를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주요 정책 3.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장학생 지원사업, 초청연수 등) 4.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

주: *사회 인프라 관련 의제는 보건장관회의와 교육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노동장관회의, 청소년장관회의, 여성장관회의, 지역개발 및 빈곤퇴치 장관회의,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 등에서 논의 중임.

자료: ASEAN 홈페이지,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검색일: 2019. 5. 1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검색일: 2019. 8. 29); UN SDGs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검색일: 2019. 6. 25); ASEAN Secretariat,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16); ASEAN Secretariat(2016h), "The ASEAN Work Plan on Education 2016-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5); 보건복지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6. 28, 검색일: 2019. 8. 13)를 참고하여 정리.

2) 문화예술

문화예술 분야는 그 용어의 사용,³⁰⁾ 정의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

30)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에서 사용되

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예술의 범위는 순수예술(전통문화 포함), 대중문화의 영역을 포괄한다. 먼저 문화예술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상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용어를 채택하였다. 다만 문화예술의 일반적 인 의미를 ‘예술을 중심으로 예술적 특성을 가진 문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 및 상황에 따라 정의 또한 달라질 수 있다.³¹⁾ 다만 세부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양혜원 외(2011)에서는 통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영역을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공예, 문학, 대중예술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동 연구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정의에 따라 관련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 2-10. 문화예술 영역의 분류 사례: 양혜원 외(2011)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공연예술	음악	양악(관현악, 실내악, 합창, 오페라, 재즈 등)
		대중가요 콘서트
		전통음악(국악 등)
	연극	연극, 년버벌 퍼포먼스, 인형극 등
		뮤지컬
		전통연희
	무용	고전발레, 현대무용, 비보이댄스 등
		전통무용
	기타 공연예술	기타 혼합장르

고 있는 용어가 ‘문화예술(culture and arts)’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이와 유사한 범주를 규정할 때 문화, 예술,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홍익 외(201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예술 + 예술이 아닌 문화 중 예술적 특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의미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음. 또한 ‘콘텐츠 산업’의 경우는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닌 산업 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사한 의미로서 활용할 수도 있으나, 사회문화공동체라는 틀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본 연구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산업 및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는 ‘콘텐츠 산업’이라는 용어보다 ‘문화예술’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1) 정홍익 외(2014), p. 30.

표 2-10.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시각예술 및 공예	미술	현대미술
		전통미술
	사진	사진
	만화	만화
	공예	현대공예
		전통공예
	디자인	그래픽, 의상, 캘리그래피 등
	건축	건축설계
	기타 시각예술	기타 혼합장르
문학	문학	소설, 시, 희곡, 평론, 번역 등
대중예술	영화	영화
	방송·연예	방송·연예(교양, 드라마, 오락)

자료: 양혜원 외(2011), p. 33

한편 문화예술 분야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성장전략의 하나로서 경제적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정책분야와 연계될 수 있으며 다른 시각에서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실현이라는 큰 방향성하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인식 제고 및 역내 삶의 질 개선이라는 가치가 보다 강조될 것이다. 실제 아세안 회원국 간에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다양성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이라는 공동체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는 한편, 역내 국가들이 비교적 균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데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부분이다. SDGs 11.4번 세부목표에서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³²⁾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는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보호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³³⁾ 그 밖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또한 중요 의제로서 UNESCO의 주도하에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³⁴⁾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정책의 기본적인 기조인 3P 중 사람공동체의 기조인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관련하여 아세안 지역과의 문화 예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특히 한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으로 상호 교류협력 및 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의 공동체 실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11. 제4장(문화예술)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분야	고려사항		
	아세안 차원의 노력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 정책과의 연계
문화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CC 청사진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동적 아세안 • 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장관회의 • 정보장관회의 • 분야별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문화예술전략계획 2016~2025」 - 「아세안 정보·미디어 전략 계획 2016~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 UNES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지정, 보호 및 이해 증진 - 문화다양성 지원 • 지역개발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분야 개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문화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 ODA 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대아세안 인식 개선 등 추진)

자료: ASEAN Secretariat(2016b), pp. 18~20 ; ASEAN 홈페이지,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검색일: 2019. 8. 12); ASEAN Secretariat(2016c), pp. 4~12; ASEAN Secretariat(2016e), pp. 4~7; UN SDG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검색일: 2019. 8. 1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programmes/culture/>(검색일: 2019. 8. 12); World Bank, “Projects: Culture,” <http://projects.worldbank.org/search?lang=en&searchTerm=culture>(검색일: 2019. 8. 12); ADB, “Projects: Culture,” <https://www.adb.org/projects/country/cam/country/tha/country/vie?terms=culture>(검색일: 2019. 8. 1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 (검색일: 2019. 8. 12).

32) UN SDG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검색일: 2019. 8. 12).
33) UNESCO 세계유산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검색일: 2019. 8. 12).
3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programmes/culture/>(검색일: 2019. 8. 12).

3) 지속가능한 환경

본 과제에서 다루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세 번째 분야는 ‘지속가능한 환경(sustainable environment)’이다. 지속가능한 환경 또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자연자원의 관리 및 유지’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발표된 *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제시된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지속가능성을 환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활동과 생태계 사이의 균형, 회복력,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와 미래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³⁵⁾ SDGs와 같은 국제사회의 의제뿐 아니라 아세안 차원의 ASCC 청사진에서도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의제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은 [표 2-12]와 같다. 먼저 아세안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은 ASCC 청사진(2009~15와 20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은 ASCC 청사진(2009~15)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항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어 ASCC 청사진 2025에서는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회복탄력성,’ 즉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아세안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ASCC 주제를 다루는 15개 장관급 회의 중 특히 환경장관회의와 재해관리장관회의에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문제를 다루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환경전략계획(ASPEN), 재해관리 및 긴급대응 협약(AADMER) 작업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 산하 7개 작업반이 다루는 주제(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도시, 폐기물, 생물다양성, 해양, 수자원, 환경교육)이자 ASPEN의 7대 우선분야를 통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확인할

35) Morelli(2011).

수 있다.

SDGs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같은 국제사회의 논의에서도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이미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되었다. SDGs하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은 육상과 해양생태계 보존 및 보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의 세부목표로 구체화되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협약의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에는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목표와 정책이 포함된다. 따라서 아세안 회원국이 제출한 INDC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 및 아세안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선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등의 논의도 고려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 중 ‘테러·사이버·해양 안보와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가 아세안의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과 관련된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2019년 중점사업 계획 중 △ 해양폐기물 공동조사 및 수거사업 △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구축 △ 산불재난관리센터 시범사업 △ 이탄지 복원 및 보전 등 아세안의 환경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2. 제5장(지속가능한 환경)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세부 분야	고려사항		
	아세안 차원의 노력	국제사회 주요 의제	우리나라 정책과의 연계
지속 가능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CC 청사진(20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 ASCC 청사진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지속가능성 - D. 회복탄력성 • 아세안 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장관회의 및 주제별 작업반 - 재해관리장관회의 • 분야별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환경전략계획 - 아세안 재해관리 및 긴급 대응 협약 작업 프로그램 *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와 환경 전략계획에서 다루는 7개 주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함: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도시, 폐기물, 생물다양성, 해양, 수자원, 환경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13. 기후변화와 대응 - 14. 해양생태계 보존 - 15. 육상생태계 보호 • UNFC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회원국이 UNFCCC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 그 외 샌다이 프레임워크,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 (신남방특위 16대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 16.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자료: ASEAN 홈페이지, <https://asean.org/>(검색일: 2019. 8. 29); ASEAN Secretariat(2009b); ASEAN Secretariat (2016b); KoFID, KOICA(201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검색일: 2019. 8. 29) 등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본 장에서는 보건의료 및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ASCC 체제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아세안 차원의 추진 경과와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지원 특징을 분석하였다. 2절과 3절에서는 각 분야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아세안의 현황

가. 사회 인프라 격차

아세안은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회원국 간 개발격차가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세안은 예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에는 보건, 교육, 빈곤 문제 등이 남아 있다고 자평하였다.³⁶⁾ IMF(2018) 또한 아세안이 역내 절대빈곤 감소에 있어 진전을 이루어냈으나 하위 중소득국들은 여전히 건강, 교육 및 인프라 부문을 개선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³⁷⁾ 아세안의 개발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³⁸⁾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HDI는 기대수명, 교육 및 소득 수준을 계량화하여 국가별 성취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아세안 회원국 중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전반적인 개발 수준이 가장 낮았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도 100위권의 순위를 기록하였는

36) ASEAN Secretariat(2015b), pp. 103-104.

37) IMF(2018), "ASEAN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Role of the IMF," pp. 6-7, pp. 17-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15).

3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데 이는 교육지수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³⁹⁾

표 3-1. 아세안 회원국의 인간개발지수(HDI) 비교(2017년 기준)

국가	HDI 순위	HDI 지수	세부지표별		
			기대수명 지수	교육 지수	소득 지수
캄보디아	146	0.582	0.759	0.487	0.533
라오스	139	0.601	0.723	0.484	0.620
미얀마	148	0.578	0.719	0.443	0.607
인도네시아	116	0.694	0.759	0.622	0.708
말레이시아	57	0.802	0.853	0.719	0.841
필리핀	113	0.699	0.758	0.661	0.682
태국	83	0.755	0.854	0.661	0.762
베트남	116	0.694	0.869	0.626	0.615
브루나이	39	0.853	0.883	0.704	1.000
싱가포르	9	0.932	0.973	0.832	1.000

주: 총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2018년 9월 업데이트된 자료를 반영하여 정리.
자료: UNDP 홈페이지, “Glob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검색일: 2019. 6. 29).

본 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 인프라 관련 취약점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원국 간 개발격차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세안 10개국을 소득수준별로 4개의 그룹, △ 그룹 1(최빈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그룹 2(하위 중 소득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 그룹 3(상위 중소득국: 말레이시아, 태국), △ 그룹 4(고소득국: 브루나이, 싱가포르)로 구분하였다(표 3-2 참고).⁴⁰⁾ 분석 대상 분야는 보건의료와 교육으로 각각의 세부지표 결정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표 3-3]과 같다. 선정 기준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춘 UNDP의 HDI,⁴¹⁾ WHO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서비스 보장 지수,⁴²⁾⁴³⁾ Social Progress Imperative의

39) UNDP 홈페이지, “Glob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검색일: 2019. 6. 29). 2018년 9월 업데이트된 자료 활용.

40) OECD 홈페이지, “DAC List of ODA Recipi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7) 참고.

41) UNDP 홈페이지, “Glob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검색일: 2019. 6. 29).

사회진보지수(SPI),⁴⁴⁾⁴⁵⁾ 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⁴⁶⁾⁴⁷⁾의 자료 중 각 분야에 적합한 최신 정보를 다루고 있으면서 데이터가 누락된 국가의 수가 최소인 지표들을 채택하였다.

표 3-2. 소득수준별 아세안 회원국 분류(그룹 1~4)

그룹 1 (최빈국)	그룹 2 (하위 중소득국) 1인당 GNI \$1,006~3,955	그룹 3 (상위 중소득국) 1인당 GNI \$3,956~12,235	그룹 4 (고소득국)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태국	• 브루나이 • 싱가포르

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수원국 조건에 따라 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임.
자료: OECD 홈페이지, “DAC List of ODA Recipi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7)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표 3-3. 아세안 사회 인프라 개발격차 분석을 위한 세부항목 구성

분야	분석항목 구성 및 자료 출처		기준 연도
	세부지표	자료 출처	
보건 의료	(1) 영양 및 기본 의료 서비스	사회진보지수	2018
	(2) 보편적 의료보장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보장 지수	2015
	(3) 물과 위생	사회진보지수	2018
교육	(4) HDI 교육지수	인간개발지수	2017
	(5) 고등교육에의 접근성	사회진보지수	2018
	(6) 직장 내 교육*	세계경쟁력지수	2017~18

주: *는 미얀마의 원본 데이터 누락 건으로 소속 지역의 평균으로 대체.
자료: 저자 정리.

42) Universal Health Coverage(UHC) Service Coverage Index.
43) WHO(2018), “World Health Statistics 2018: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p. 68-7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3).
44) Social Progress Index.
45) Social Progress Imperative 데이터베이스, <https://www.socialprogress.org/download>(검색일: 2019. 7. 9).
46)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Historical Datas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9).

이를 바탕으로 그룹 간 격차를 비교하기 위해 간단한 지수 정규화(normalization)를 수행하였다. 먼저 j 국의 세부지표 i 에 대한 값인 X_{ij} 을 아세안 10개국의 평균(μ_i)과 표준편차(σ_i)를 이용하여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이 되고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Z_{ij})⁴⁸⁾로 변환하였다. 추가로 Z_{ij} 의 표준정규누적분포⁴⁹⁾ 확률을 계산하여 0과 1 사이의 수치로 변경하고, 여기에 10을 곱하여 0과 10 사이의 값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⁵⁰⁾ 산출된 수치가 클수록 특정 지표 i 에 대한 j 국의 발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분야 내 세부지표별 가중치는 동일하며, 그룹별 지수는 소속 국가들의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산출된 그룹별 지수를 비교한 후 그 차이(gap)가 클수록 해당 분야에서 개발격차가 큰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3-1]은 보건의료 및 교육 분야의 개발격차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룹 1(최빈국)은 모든 세부지표에서 가장 취약하였으며, 고소득국인 그룹 4와의 지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그룹 2(하위 중소득국)의 경우 그룹 1보다는 나은 상황이나 아세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룹 3(상위 중소득국)과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져 있다. 그룹 2와 그룹 3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보편적 의료보장 항목에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순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그룹 3(상위 중소득국)과 그룹 4(고소득국) 간의 차이는 양호한 편이었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해당 분야의 발전 수준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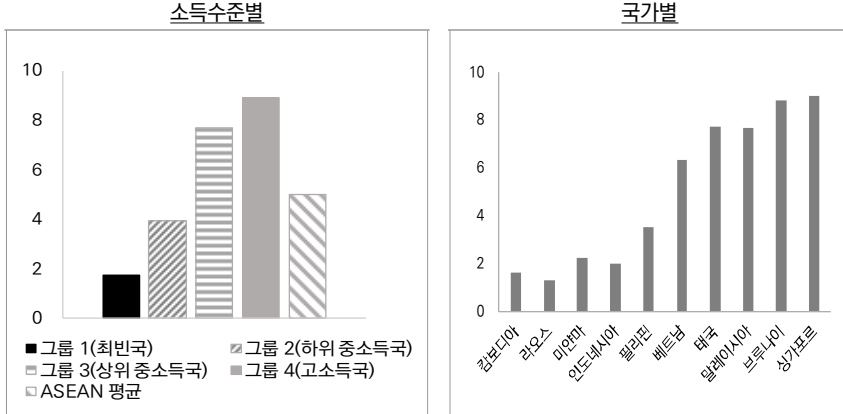
$$48) Z_{ij} = \frac{X_{ij} - \mu_i}{\sigma_i}.$$

49) Standard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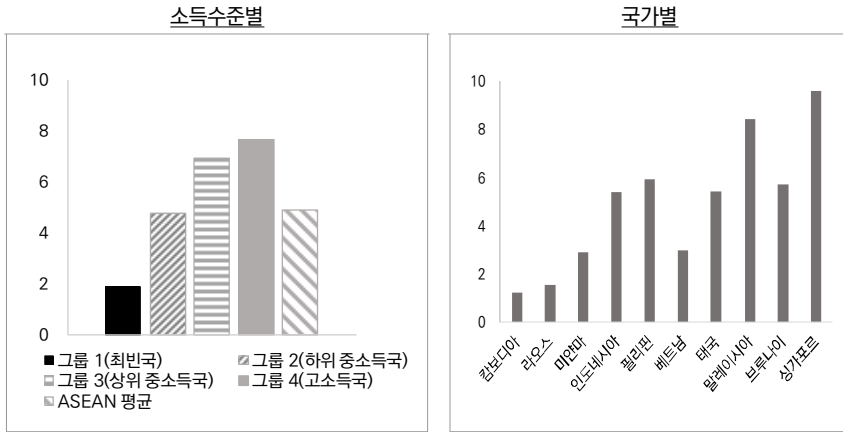
50) 문진영, 김윤옥, 이민영(2013), pp. 47~48과 문진영 외(2016), p. 117에서도 동일한 분석 방법을 활용한 바 있음. 참고로 세부지표 내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국가인 미얀마(6번 지표)의 경우 소속 지역(동아시아·태평양)의 평균치로 대체한 후 그룹별 평균을 산출함.

그림 3-1. 아세안 사회 인프라 개발격차 분석: 보건 의료 및 교육

(1) 보건 의료



(2)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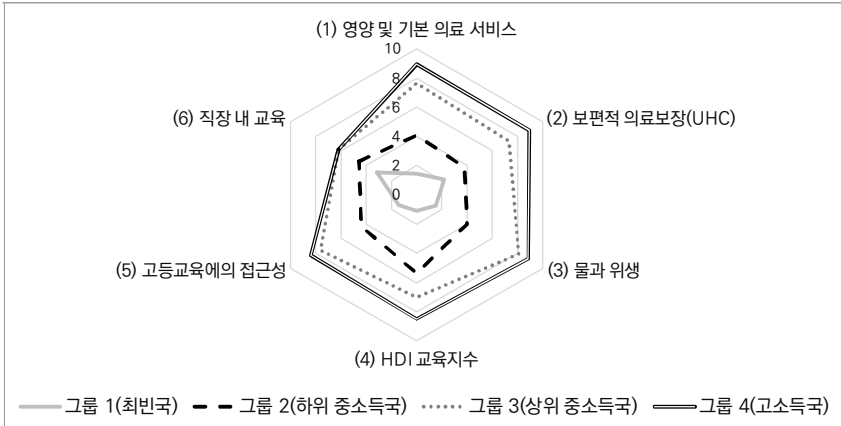


주: 1) 산출된 지수 수치가 클수록 특정 지표에 대한 국가(또는 그룹)의 발전 수준이 높음을 의미.
 2) 그룹 1(최빈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룹 2(하위 중소득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룹 3(상위 중소득국: 말레이시아, 태국), 그룹 4(고소득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3) 국가 및 소득그룹별 산출 수치는 [부록] 참고.
 자료: UNDP 홈페이지, "Glob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검색일: 2019. 6. 29); WHO(2018), "World Health Statistics 2018: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p. 68-7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3); Social Progress Imperative 데이터베이스, <https://www.socialprogress.org/download>(검색일: 2019. 7. 9);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Historical Datas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9)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교육 분야에서의 격차는 보건의료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그룹 1(최빈국)의 경우 고소득국인 그룹 4와의 격차뿐 아니라 그룹 2(하위 중소득국)와의 지수 차이도 상당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룹 2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취약했고, 그룹 3(상위 중소득국)과 그룹 4(고소득국)는 직장 내 교육에 관한 지표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보건의료 분야와는 달리 역내의 소득수준과 교육 발달 수준이 비례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일례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진했던 베트남은 교육 분야에서는 최빈국인 미얀마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 태국과 브루나이의 지수도 하위 중소득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앞으로 아세안 회원국 간 사회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룹 1(최빈국)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그룹은 모든 지표에서 다른 회원국과의 발전 수준 차이가 상당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그 외 그룹 또한 각자가 취약한 분야부터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룹 2(하위 중소득국)는 가장 취약한 세부지표인 보편적 의료보장과 고등교육에 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그룹 3(상위 중소득국)은 직장 내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차원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세안이 소득수준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사회 인프라 취약 분야가 존재하며,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2. 아세안 사회 인프라 개발격차 분석: 세부지표별



주: 1) 산출된 지수 수치가 클수록 특정지표에 대한 국가(또는 그룹)의 발전 수준이 높음을 의미.
 2) 그룹 1(최빈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룹 2(하위 중소득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룹 3(상위 중소득국: 말레이시아, 태국), 그룹 4(고소득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3) 국가 및 소득그룹별 산출 수치는 [부록] 참고
 자료: UNDP 홈페이지, "Glob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검색일: 2019. 6. 29); WHO(2018), "World Health Statistics 2018: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p. 68-7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3); Social Progress Imperative 데이터베이스, <https://www.socialprogress.org/download>(검색일: 2019. 7. 9);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Historical Datas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9)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아세안 차원의 노력

1) ASCC 청사진

아세안은 ASCC 청사진을 통해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2009년 발표된 ASCC 청사진이 제시한 총 6개 중점 분야 중 4개(인간개발, 사회복지·보호, 개발격차 해소, 아세안 정체성 형성)가 해당 인프라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청사진 2025의 핵심영역(Key Result Areas)은 모두 사회 인프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그중 B. 포용성(Inclusive)과 E. 역동성(Dynamic) 항목에서 공통으로 보건의료와 교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표 3-4 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

된 다수의 전략조치들을 통해서도 해당 인프라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⁵¹⁾

아세안은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현존하는 장벽을 해소하고, 기회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며,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권 강화와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B. 포용성 항목에 관한 전략조치로서 보건,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및 이해관계자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타 공동체(AEC, APSC)와 중복되는 영역(사회적 보호, 보편적 의료보장, 식품안전 등)에 대해서도 공동체 간 조화를 추구한다. 나아가 빈곤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ICT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⁵²⁾

교육의 중요성은 E. 역동성 항목에 포함된 다수의 전략조치들을 통해 강조되었다. 아세안은 해당 항목을 통해 개방적이고 적응력이 있고, 창의적, 혁신적 대응 능력을 갖춘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평생학습, 기술 개발, ICT 활용 등을 통해 아세안의 인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교육기관뿐 아니라 정부, 민간, 지역사회 내에도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훈련 및 재교육 시스템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직업훈련 및 연구 영역에서의 협력과 고등 교육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세안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⁵³⁾

51) ASEAN Secretariat(2009b), p. 1; ASEAN Secretariat(2015b), pp. 105-118.

52) ASEAN Secretariat(2015b), pp. 106-110.

53) ASEAN Secretariat(2015b), pp. 116-118.

표 3-4. ASCC 청사진 2025 내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

핵심 영역	이행과제	사회 인프라와의 연계*	
		보건의료	교육
참여와 혜택	A.1 아세안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A.2 인권 및 제도 강화		
포용성	B.1 장벽 해소		
	B.2 공평한 접근		
	B.3 인권 강화 및 보호		
지속 가능성	C.1 생물다양성 및 천연자원 보호 및 지속 관리		
	C.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C.3 지속가능한 기후		
	C.4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회복력	D.1 재난에 대한 회복력 있는 아세안		
	D.2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아세안		
	D.3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아세안		
	D.4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이주 노동자, 오지 거주자 등 사회보호 강화		
	D.5 금융, 식품, 물, 에너지 등 사회안전망 개선, 최적화		
	D.6 마약청정 아세안을 위한 노력		
역동성	E.1 개방되고 적응력 있는 아세안		
	E.2 창의적, 혁신적, 대응력 있는 아세안		
	E.3 기업가 정신 고취		

주: 사회 인프라와 연계된 전략조치를 포함한 항목에 대해서만 색상으로 반전 표기함.

자료: ASEAN Secretariat(2015b), pp. 105-118; ASEAN Secretariat(2017h, 2017i, 2017j, 2017k), “ASEAN Health Cluster 1: Promoting Healthy Lifestyle Revised Work Programme 2016-2020”; “ASEAN Health Cluster 2 Work Programme for 2016 to 2020”; “ASEAN Health Cluster 3: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and Access to Care”; “ASEAN Health Cluster 4 Work Programme for 2016 to 2020”(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6. 25) 토대로 저자 작성.

2) 장관회의

아세안은 ASCC 청사진을 토대로 사회 인프라에 관한 지역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 청사진 2025에서 제시한 전략조치들을 이행하고, 주요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특히 장관회의는 정상 회의에서의 합의 내용을 추진하고, 분야별 고위급회의⁵⁴⁾가 주도하여 수립한

세부계획을 검토·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2020년까지의 보건의료 개발 전략이자 계획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와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를 채택한 후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논의 의제도 메르스 등 당시 유행 중인 감염성 질병에 관한 내용에서 나아가 비감염성 질병 등 일상생활에 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건 이슈나 항생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장관회의에서도 2020년까지의 달성 목표와 추진계획을 담은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을 채택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을 통한 포용적 교육과 평생학습, 기술직업교육 훈련(TVET)⁵⁵⁾의 중요성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⁵⁶⁾

표 3-5. 아세안 보건 및 교육 장관회의 논의 결과

회의명	논의 내용
보건장관회의 (AHMM), '14년, '15년,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 관련 모니터링 • 감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합의한 기존 전략들의 효과적 이행 • 식품 안전성 및 영양 확보를 위한 협력 지원 • 재난 보건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항생제 내성(AMR)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등

54) 보건개발에 관한 고위급회의(SOMHD: Senior Officials' Meeting on Health Development) 등.
55)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56) ASEAN Secretariat(2014b), "Joint Statement 12th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ASEAN Secretariat(2015e), "Joint Statement of ASEAN Plus Three Health Ministers' Special VDO Conference on The Threat of MERS-COV in The Region"; ASEAN Secretariat(2017f), "Joint Statement 13th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ASEAN Secretariat(2016g), "Joint Statement of The Ninth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 ASEAN Secretariat(2018h), "Joint Statement of The Tenth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7. 11).

표 3-5. 계속

회의명	논의 내용
교육장관회의 (ASED), '16년,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채택 • 고등교육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2015) 관련 행동계획 채택 • 4차 산업혁명 대비 역내 포용적 교육 및 평생학습 배양 • 고등교육 및 기술직업교육훈련 간 조화 추구 • EU와의 학점교류(EU-SHARE) 등 기관 간 협력 촉진 •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NU) 강화 등

자료: ASEAN Secretariat(2014b), "Joint Statement 12th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ASEAN Secretariat (2015e), "Joint Statement of ASEAN Plus Three Health Ministers' Special VDO Conference on The Threat of MERS-COV in The Region"; ASEAN Secretariat(2017f), "Joint Statement 13th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ASEAN Secretariat(2016g), "Joint Statement of The Ninth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 ASEAN Secretariat(2018h), "Joint Statement of The Tenth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7. 11).

3) 분야별 세부계획

(1)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한 아세안의 정책적 노력은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 의제에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7개 목표와 20개 우선 과제들을 클러스터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4개의 클러스터는 △ 건강한 생활방식 추구 △ 모든 위험요소 및 새로운 위험에의 대응 △ 보건 시스템 및 서비스에의 접근 향상 △ 식품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였다(표 3-6 참고). 참고로 식수와 위생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의제들은 두 번째 클러스터 내 환경보건과 보건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었다.⁵⁷⁾

57) ASEAN Secretariat,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16).

표 3-6.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클러스터	목표(2020년)	우선 과제
건강한 생활방식 추구	a) 건강한 생활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아세안 공동체의 최대 보건 잠재력 달성	1) 비감염성 질병 예방 및 통제
		2) 담배 소비, 알코올 유해 사용 축소
		3) 부상 예방
		4) 산업보건 증진
	b) 모든 연령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추구	5) 정신건강 증진
		6)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 추구
		7) 양질의 영양 및 건강한 식습관 추구
모든 위험요소 및 새로운 위험에의 대응	a) 전염병, 신종 감염성 질병 및 소외 열대질환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증진	8) 전염병, 새로운 감염성 질병 및 소외열대질환의 예방 및 통제
		9) 실험역량 강화
	b) 환경보건 위험, 유해물질 및 재해에의 대응과 재난 보건관리를 위한 효과적 준비 보장	10) 항생제 내성 퇴치
		11) 환경보건과 보건영향평가(HIA)
보건 시스템 및 서비스에의 접근 향상	a) (필수적) 보건 서비스와 기존 및 보완 의약품들을 포함한 양질의 안전한 의약품에의 보편적 접근 확보	12) 재난 보건관리
		13) 기존 의약품
		14) MDGs(4, 5, 6) 관련 보건
		15) 보편적 의료보장
	b) SDGs의 측면에서 미완료된 MDGs 목표 달성	16) 이민자 건강
		17) 의약품 개발
		18) 인적자원개발
식품안전 확보	a) 안전한 식품, 식수 및 위생에의 접근성 향상	19) 보건 재정
		20) 식품 안전성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16).

위 의제에서 제시한 우선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진 세부계획이 바로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이다. 먼저 아세안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당뇨 등 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낮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계획과 전략 수립, 데이터 및 조사결과 공유, 영양 상태와 유해물질(담배, 알코올 등) 관련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성 질병을 비롯하여 환경이나 재난 측면의 보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차원의 네트워크를 창설하고, 보건영향평가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 시스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백신 센터를 확보하고자 한다. 2030년까지 역내 모든 인구가 누리는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범위를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주노동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⁵⁸⁾

표 3-7.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클러스터	우선 과제	성과지표/달성 목표
건강한 생활방식 추구	1) ~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비감염성 질병(당뇨,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최소 5% 축소 • 프로세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감염성 질병 관련 다분야적 국가 계획 및 전략 수립·완성 - 비감염성 질병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기준 데이터와 조사결과 보유 - 비감염성 질병 관련 필수 서비스 이행 - 담배와 알코올 사용 수요를 줄이는 국내법 시행 - 양질의 영양 상태를 위한 정책 및 법률 구축 - 식량 및 영양 안보 달성을 위한 다분야 행동계획 실행 - 건강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역량 배양 완성 - 부상 예방과 안전 증진에 관한 보고서 마련 또는 모범사례 수집 등
모든 위험요소 및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	8)	• Dengue, 광견병, HIV/에이즈, 결핵 등 주요 질병 감소·퇴치·확인
	9)	• ASEAN Reference Laboratory Network 창설
	10)	• 항생제 관련 아세안 차원의 체계, 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Environmental Health Network 창설 • 보건영향평가 관련 역량 강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aster Medicine and Emergency Medical System Network 구축 • 재난 보건관리 아세안 협력 강화

58) ASEAN Secretariat(2017h, 2017i, 2017j, 2017k), “ASEAN Health Cluster 1: Promoting Healthy Lifestyle Revised Work Programme 2016-2020”; “ASEAN Health Cluster 2 Work Programme for 2016 to 2020”; “ASEAN Health Cluster 3: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and Access to Care”; “ASEAN Health Cluster 4 Work Programme for 2016 to 2020”(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6. 25).

표 3-7. 계속

클러스터	우선 과제	성과지표/달성 목표
보건 시스템 및 서비스에의 접근 향상	13) ~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Units 보유 • 가계 소득, 지출, 부(wealth), 거주지, 성별과 관계없이 2030년까지 전 인구의 필수 보건 서비스 보장 범위를 최소 80% 이상으로 보유 • 백신의 생산역량과 질을 위한 기관(센터) 역내 확보 • 최소 80% 이상의 서류등록 이민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보건 서비스(건강보험 보장 등)에 접근 가능 등
식품안전 확보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평가를 위한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 마련 • 신속 경보 및 대응 시스템을 위한 메커니즘 개발·운영 • 아세안 소비자 참여 및 권한 강화 프레임워크 개발 • 아세안 식품안전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및 운영 체계에 관한 초안 마련 등

자료: ASEAN Secretariat(2017h, 2017i, 2017j, 2017k), “ASEAN Health Cluster 1: Promoting Healthy Lifestyle Revised Work Programme 2016~2020”; “ASEAN Health Cluster 2 Work Programme for 2016 to 2020”; “ASEAN Health Cluster 3: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and Access to Care”; “ASEAN Health Cluster 4 Work Programme for 2016 to 2020”(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6. 25).

(2) 교육

아세안 회원국 간 교육협력의 기본 목표는 △ 아세안에 대한 인식 증진 △ 아세안 정체성 강화 △ 인적자원개발 △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UN)⁵⁹⁾ 등 고등 교육 강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고위급회의(SOM-ED)⁶⁰⁾는 이를 달성하고자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의 이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SEAMEO)⁶¹⁾ 등과도 협업 중이다.⁶²⁾ 1965년 설립된 정부간 기구인 SEAMEO는 현재 11개 회원국(아세안 10개국, 동티모르), 5개 준회원국(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 및 5개 기관(CEAIE,⁶³⁾ British Council 등)이 활동하고 있다(2019년 9월 기준).⁶⁴⁾

59) ASEAN University Network.

60) ASEAN Senior Officials on Education.

61) 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

62) ASEAN 홈페이지,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asean-education-ministers-meeting-ased/overview/>(검색일: 2019. 6. 25).

63) China Educatio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xchange. 중문명은 中国教育国际交流协会(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

2016년 채택된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은 교육 분야에 대한 총 8가지 세부목표를 달성하고자 19개 우선 과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표 3-8 참고). 과제별로 산하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성과지표, 기대 효과, 참여국(리더 국가) 및 잠재적 파트너, 추진 기간 등을 기재하였다. 이 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세안에 대한 인식과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등교육 수준의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강화하려는 계획으로 이어져 우선 과제 중 가장 많은 수(8개)의 하위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⁶⁵⁾

인적자원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ICT 활용 능력을 키우고, 양질의 기술직업 교육훈련(TVET)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역량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계획의 내용을 교육 수준별로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소외되어온 그룹(비취학 아동,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기본교육을 제공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고등교육 측면에서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산학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역내 사회경제적 성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UN)의 경우 학생, 교사, 학자 및 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총 30개 아세안 대학들이 AUN에 참여 중이다.⁶⁶⁾

64) SEAMEO 홈페이지, https://www.seameo.org/Main_about/92; https://www.seameo.org/Main_about/104; https://www.seameo.org/Main_about/113(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9. 16).

65) ASEAN Secretariat(2016h), "The ASEAN Work Plan on Education 2016-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5).

66) *Ibid.*; AUN 홈페이지, <http://www.aunsec.org/aunmemberuniversities.php>(검색일: 2019. 9. 16).

표 3-8.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우선 과제	성과지표
목표 1. 동남아 역사와 토착 지식 강화를 통한 '아세안 인식 증진'	
1.1) 아세안 학생 및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아세안 인식 제고	아세안 학생 및 청소년 대상 교환 프로그램 증가 수
1.2) 평화롭고 조화로운 아세안 공동체에 기여하는 교육을 통한 평화와 이해의 문화 증진	평화와 공유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보충 교육·학습 자료의 개발, 지역 언어로의 번역 및 역내 학교에서의 사용
1.3) 온라인 및 국경 간 이동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향상	양질의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 및 학생의 접근성 향상
목표 2. 장애인, 소외 그룹 등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질과 접근성 강화	
2.1) 소외된 비취학 아동에 대한 기본교육 접근성 개선 및 제공을 통한 포용적 학교 추구	포용적 학교 및 교육에 대한 소외된 학습자와 비취학 아동의 접근성 향상
2.2) 교육의 질 중심(quality-focused) 개입을 통한 기본교육의 질 증대	교육의 질 중심 기본교육 개입의 증가 수 및 다양성 향상
목표 3. ICT 활용 강화	
3.1) 양질의 교육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온라인 디자인에서의 인적 및 제도적 역량 확대·강화	(특히 CLMV 국가들을 위한) ICT 지원 교육 및 학습 도구의 다양성과 수 증가
3.2) ICT를 통한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과 사용 역량 강화 및 이를 지원하는 역량 배양 프로그램 제공	ICT 기반 학습과 ICT 중심 역량 배양을 위한 이티셔티브와 참여 기회 증가 수
목표 4.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개발 및 평생학습 지원	
4.1) 고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TVET에의 접근 극대화	TVET 역량 배양 및 이동성에 대한 접근 증가
4.2) 네트워킹, 파트너십, TVET 인력 및 자원 이동을 통해 양질의 TVET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 간 조화 강화	TVET 인력 역량 배양을 통해 지역 간 조화를 추구하는 이티셔티브와 기회 증가 수
4.3) TVET 및/또는 비학위(디플로마 또는 인증서만 해당) 기관에 대한 지역 교육의 질 보증 및 인증 구축	교육의 질 보증/인증을 지원하는 TVET 인력 및 학습자의 이동성에 관한 이티셔티브 및 기회 증가 수
4.4) 직업적 기술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gap) 축소*	직업적 기술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gap)를 축소하는 이니셔티브 및 기회 증가 수
목표 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 목표 달성을 위해 타 분야에서의 노력 보완	
5.1) 교육과 ESD 연관 타 부문 간의 협력 강화	ESD에 관한 부문 간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기회 증가 수
5.2) 연관 분야의 이니셔티브 지원을 통한 국가 커리큘럼 내 재난위기감소(DRR)를 위한 포용성 증대	DRR에 관한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및 기회 증가 수

표 3-8. 계속

우선 과제		성과지표
목표 6. 탄탄한 (교육의) 질 보증 메커니즘 실행을 통한 고등교육 분야 강화		
6.1) 아세안의 맥락에서 조화로운 교육의 질 보증 메커니즘 개발	(교육의) 질 보증 시스템/메커니즘을 개발·조화시키는 이니셔티브 및 기회 증가 수	
6.2) 아세안의 맥락에서 조화로운 교육의 질 보증 메커니즘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 강화**	(교육의) 질 보증 시스템/메커니즘을 개발·조화시키는 아세안 회원국 및 아세안의 역량 강화	
목표 7.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개발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장려		
7.1) 대학, 기업 및 지역사회 간 더 강력한 연계 개발	고등교육 발전과 PPP를 통해 학생 이동성을 개발/시행하는 이니셔티브 및 기회 증가 수	
7.2) 아세안 내(intra-ASEAN) 학생의 수 증가*	국제 대학생의 아세안 내 이동 수 증가	
목표 8. 교사, 학자 및 그 외 핵심 이해관계자를 위한 역량 배양 프로그램 제공		
8.1) 보편적, 다양한, 광범위한 교환 및 협력을 증진하는 교육교환주간(EEW) 촉진	교육 관련 다양한 수준의 교환/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기회 증가 수	
8.2) 21세기 기술에 대한 교사의 역량 강화	21세기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은 교사와 교육자의 수 증가	

주: *와 **는 각각 「아세안 연계성 2025 계획」과 「고등교육에 관한 쿠팔라룸푸르 선언」 관련 내용임.

자료: ASEAN Secretariat(2016h), "The ASEAN Work Plan on Education 2016-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5).

다.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지원 특징

1) 주요 의제

아세안 내 사회 인프라 이슈들은 SDGs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2016년 아세안과 UN은 각자의 비전과 목표 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고,⁶⁷⁾ 이후 상호보완이 필요한 다섯 가지 우선분야(빈곤 퇴치, 인프라 및 연계성,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복원력)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아세안 공동체 비전과 SDGs가 중복되거나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아세안과 UN 모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67) ASEAN 홈페이지, "ASEAN taps on Vision 2025 to support SDG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5).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려는 노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위의 우선 분야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특정 이슈를 해결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이슈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⁶⁸⁾

사회 인프라와 관련하여 요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이다. 이는 ‘건강 증진부터 예방, 치료, 재활, 완화치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과 커뮤니티 모두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⁶⁹⁾ SDGs의 세부목표(3.8번) 중 하나이나 국제회의에서 단독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9년 6월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 보건 및 재무장관들은 해당 의제에 관한 공동회의를 진행하였다. 개도국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면 보건과 재정 측면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회의였다.⁷⁰⁾ 이러한 노력은 차후 선진 공여국의 ODA 정책과 역내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 정부, 다자기구,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파트너십인 UHC 2030 등도 활약 중이다.⁷¹⁾

물과 위생의 경우 도시환경(urban environment),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도시개발에 있어 식수공급, 상하수도 시설, 폐수 처리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수자원 관리역량은 필수요소이다. 이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될 뿐 아니라 홍수 등의 재해 관리와 연계되며 도시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⁷²⁾ 2018년 발표된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총 6개 영역 중 2개 영역(건강과 웰빙, 양질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⁷³⁾ 상하수도를 포함한 새로운

68) United Nations ESCAP(2017), "Complementarities between ASEAN Community Vision 2025 and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Framework for Action," pp. 14-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5).

69) WHO 홈페이지,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universal-health-coverage-\(uhc\)](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universal-health-coverage-(uhc))(검색일: 2019. 8. 13).

70) 보건복지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6. 28, 검색일: 2019. 8. 13).

71) UHC 2030 홈페이지, <https://www.uhc2030.org/about-us/>(검색일: 2019. 9. 18).

72) 전문가간담회,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환경분야 협력 현황, 환경부 관계자 발표 내용(2019. 8. 6, 세종).

도시 인프라 및 거주지를 위해 2035년까지 약 7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⁷⁴⁾

교육 분야에서는 2015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통해 2000년에 채택되었던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을 대체하는 새로운 비전을 채택하였다. 주로 최빈국 내 기본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예전과는 달리 교육의 질, 영유아 교육, 평생학습 등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노력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 정책, 계획, 법률 및 시스템 강화 △ 형평성, 포용성, 양성평등 강조 △ 양질 및 학습에의 초점 △ 평생학습 증진 △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에서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실행 과정을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⁷⁵⁾ 특히 교육을 통해 SDGs의 달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목표별 달성전략에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⁷⁶⁾

2) 대아세안 ODA 지원 현황⁷⁷⁾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사회 인프라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공공 개발재원 중 공적개발원조(ODA)⁷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 자료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2017년 미 달러화 불변가격(constant prices)을 기준으로

73) ASEAN Secretariat(2018g), “ASEAN Sustainable Urbanisation Strategy,” p.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6).

74) UN Environment(2018), “Sustainable Urban Infrastructure Transitions in the ASEAN Region: a Resource Perspective,” p.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3), 재인용.

75) UNESCO 홈페이지,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pp. 31-35, p. 5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8).

76) *Ibid.*, p. 24.

77) 본 파트에서의 모든 데이터는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활용하여 서술함.

78)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s)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지역은 ODA 수원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8개국⁷⁹⁾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국제사회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투입한 공공 개발재원 중 ODA와 기타공적자금(OOF)⁸⁰⁾의 합계는 연평균 약 2,314억 달러로 이 중 약 9%인 199억 5,547만 달러가 아세안 8개국으로 유입되었다. 2008년부터 지난 10년간 전 세계 ODA 규모가 증가해온 것과는 달리 대아세안 ODA는 2013년 미얀마로의 ODA가 급증함에 따라 총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해왔다. 대표적인 ODA 공여국은 일본,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우리나라 등이며, 다자 차원에서는 세계은행그룹(WBG),⁸¹⁾ 아시아개발은행(ADB)⁸²⁾ 등이 손꼽힌다. 대아세안 ODA 중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³⁾

(1) 보건의료

2017년 국제사회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총 16억 2,533만 달러의 ODA를 아세안 내 보건의료 분야를 위해 지원하였다. 분석기간(2013~17) 연평균 총 14억 5,731만 달러의 보건의료 ODA가 투입되었으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다소 감소한 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보건의료 ODA 중 건강과 관련해서는 연평균 7억 7,163만 달러를 사용하였고, 분야 내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당시에는 물과 위생과 거의 비등한 규모였으나 2017년에 접어들면서 각각의 비중이 약 6대 4를 기록하며 건강을 위한 ODA 지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그림 3-3 참고).

79)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80) Other Official F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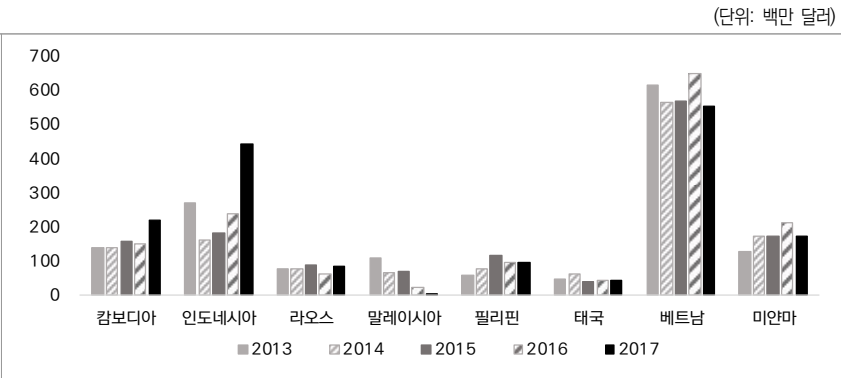
81) World Bank Group.

82) Asian Development Bank.

83) 본 파트에서의 모든 데이터는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6. 26)를 활용하여 서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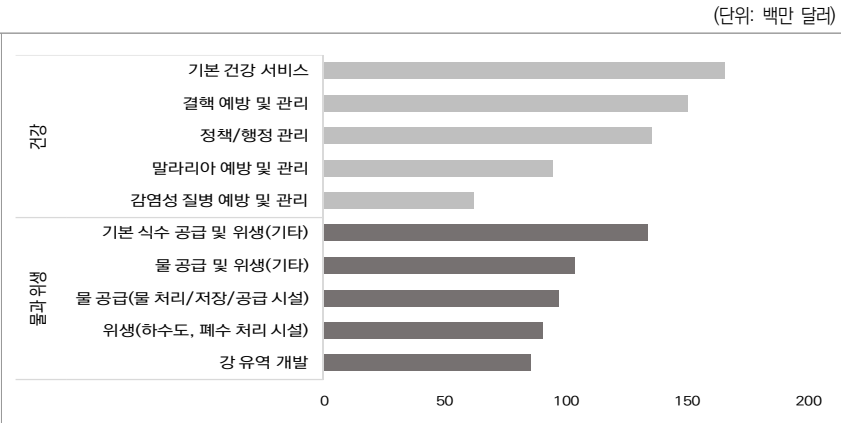
국이 차지하는 비중(64.6%)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원된 보건 의료 ODA의 11.4%인 1억 3,543만 달러가 역내 회원국들의 기본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 뒤이어 결핵 예방 및 관리(10.3%), 건강정책/행정 관리(9.3%), 기본 식수 공급 및 위생(기타)(9.2%) 등의 하위 분야로 유입되었다(그림 3-5 참고).

그림 3-4. 대아세안(8개국) 보건 의료 ODA 추이: 수원국별(2013~17년)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5. 대아세안(8개국) 보건 의료 ODA 내 10대 하위 분야(2013~17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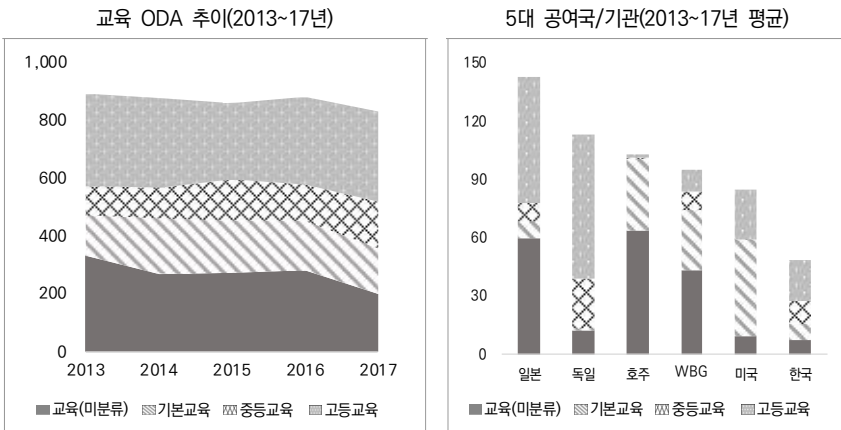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교육

2017년 국제사회는 아세안의 교육 분야를 위해 전년대비 약 6% 감소한 총 8억 3,24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분석기간(2013~17)에 연평균 총 8억 6,958만 달러의 교육 ODA가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투입되었으며,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그림 3-6]과 같이 중·고등교육으로의 재원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나, 교육(미분류)과 기본교육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 양자 및 다자 지원의 비중은 75대 25로 양자가 우세한 상황이다. 최근 다자 차원의 지원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며 2017년에는 2013년 대비 12.7%p 하락한 바 있다. 앞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해당 비중이 3.1%p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그림 3-6.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공여 추이 및 5대 공여국(기관)

(단위: 백만 달러)



주: 1)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2) 오른쪽 그래프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대 공여국(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교 분석을 위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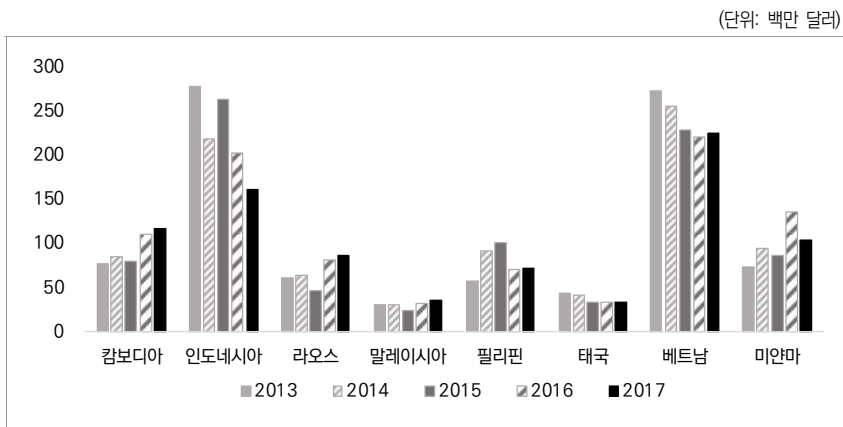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공여주체별로는 일본, 독일, 호주, WBG, 미국 등이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다. 보건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공여국 지위를 차지한 국가는 일본

이었으며, 교육(미분류)과 고등교육을 위해 교육 ODA의 80% 이상을 활용 중이다. 호주의 경우 교육 분야가 자국의 ODA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4.9%)이 위의 국가(기관) 중 가장 높았다. 호주와 WBG는 주로 교육(미분류)과 기본교육을 대상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도 기본교육에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반면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수원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7]과 같다. 분석기간 연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대아세안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27.6%)과 인도네시아(25.9%)가 가장 높았으나 2013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하락하였다. 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2013년 대비 각각 50.5%, 41.4%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하위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아세안 회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최빈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대체로 교육(미분류)과 기본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수원국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고등교육으로의 재원 투입이 더 많았다(그림 3-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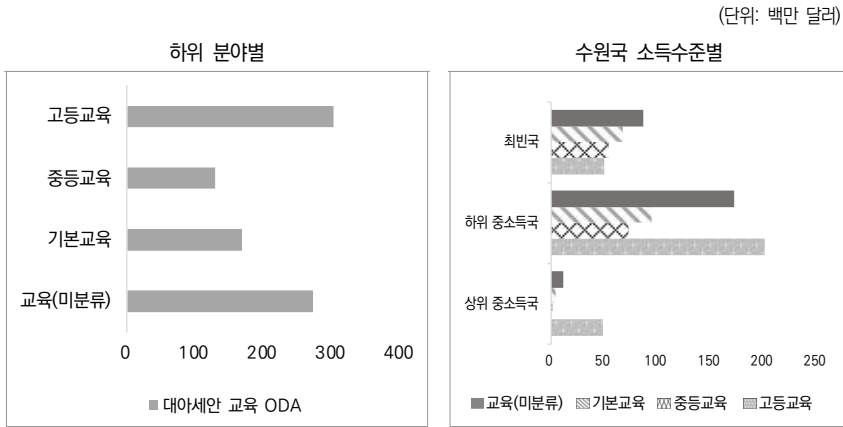
그림 3-7.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8.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분야 및 소득수준별(2013~17년 평균)



주: 1)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2) 최빈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하위 중소득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상위 중소득국: 말레이시아, 태국.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글상자 3-1. 민간 부문의 대아세안 자원 현황: 자선기금

민간 부문의 대아세안 자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OECD DAC CRS 데이터베이스가 집계하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자선기금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분석기간(2013~17)에 이들의 대아세안 자선기금 규모는 연평균 약 5,675만 달러로 전 세계에 제공된 자선기금 총액의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기부금 성격의 재원인 만큼 총액의 70%에 육박하는 금액(3,794만 달러)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을 위해 사용되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를 위해 연평균 2,320만 달러가 투입된 것과 달리 교육은 연평균 93만 달러를 지원받는 데 그쳤다. 대표적인 예로 역내에서 최대 규모의 재원을 제공 중인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Melinda Gates Foundation)은 연평균 3,929만 달러의 자선기금을 아세안을 위해 제공하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의 금액은 감염성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를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H&M 재단(H&M Foundation)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교육 분야를 위한 지원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위 재단은 아세안을 대상으로 2017년 총 232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2014년 대비 약 88% 증가한 결과이다.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⁸⁴⁾

가. 보건의료

1) 일본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대아세안 ODA 공여국이자 주요 협력국이다. 1950년대부터 동남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왔고, 아세안 연계성에 관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도 기여해왔다고 평가된다.⁸⁵⁾ 일본은 아시아가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장이자 투자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아세안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최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로도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다.⁸⁶⁾ 일본의 유·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国際協力機構, 이하 JICA)⁸⁷⁾는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개발 또한 가능한 일이나 ‘감염성 질병의 확산, 고령화에 따른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부담 증가, 소득 불평등이 아시아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⁸⁸⁾

분석기간(2013~17) 일본은 아세안의 보건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양자 및 다자 기구를 통틀어 최대 규모인 연평균 3억 3,625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대아세안 ODA 총액의 약 8% 규모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ODA 재원은 베트남(41.6%)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16.0%), 인도네시아(11.0%), 미얀마

84) 2절에서 소개한 분야별 주요국(일본, 미국, 독일, EU)의 대아세안 ODA 지원 현황은 1절과 동일한 기준으로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활용하여 서술함.

85) JICA(2012), “JICA’s Regional Cooperation in ASEAN,”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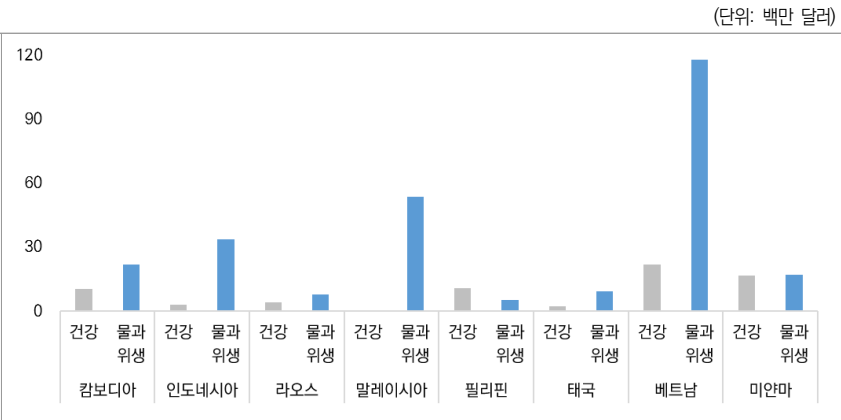
86) Government of Japan(2015a), “Cabinet decision 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pp. 7-8, 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4).

87)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88) JICA 홈페이지, https://www.jica.go.jp/english/about/president/speech/190213_01.html (검색일: 2019. 8. 13).

(10.0%) 등을 대상으로 사용 중이다(그림 3-9 참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다는 물과 위생 방면으로 재원이 집중되었고, 그중에서도 강 유역 개발(23.1%)과 기본 식수공급 및 위생(기타)(16.4%)을 위해 최대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3-10 참고). 건강 관련 ODA는 아직 금액이 크지 않으나 최근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2017년 해당 재원의 규모는 9,202만 달러로 2013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바 있다.

그림 3-9. 일본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10. 일본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대분류	하위 분야	내용	지원 금액	비중
건강	건강 일반	정책/행정 관리	15.36	4.6
		의료 교육/훈련	0.56	0.2
		의학 연구	0.06	0.0
		의료 서비스	27.11	8.1
	기초 건강	기본 건강 서비스	1.13	0.3
		기본 보건 인프라	16.27	4.8

표 3-10. 계속

대분류	하위 분야	내용	지원 금액	비중
건강	기초 건강	기본 영양	0.33	0.1
		감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	4.77	1.4
		건강 관련 교육	1.17	0.3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	1.27	0.4
		결핵 예방 및 관리	0.81	0.2
		의료인력개발	0.26	0.1
	소계(A)		69.11	20.6
물과 위생	물과 위생	정책/행정 관리	0.01	0.0
		수자원 보존	10.81	3.2
		물 공급 및 위생(기타)	35.98	10.7
		물 공급(물 처리/저장/공급 시설)	34.39	10.2
		위생(하수도, 폐수 처리 시설)	35.77	10.6
		기본 식수공급 및 위생(기타)	55.11	16.4
		기본 식수공급	7.80	2.3
		기본 위생	0.00	0.0
		강 유역 개발	77.64	23.1
		폐기물 관리/처리	9.61	2.9
		교육/훈련	0.01	0.0
	소계(B)		267.14	79.4
총 합계: (A) + (B)		336.25	100.0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일본의 ODA 정책은 기존의 『ODA 현장(ODA大綱)』을 수정하여 2015년에 제정한 『개발협력현장(開発協力大綱, 이하 현장)』⁸⁹⁾을 근간으로 한다. 2015년 일본은 앞으로 원조 활동의 기준이 될 위의 현장과 내각에 신설된 건강·의료 전략추진본부⁹⁰⁾의 「평화와 건강을 위한 기본 방침(平和と健康のための基本方針, 이하 기본 방침)」⁹¹⁾을 발표하였다. 다음 해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보건을 위한 G7 이세시마 비전(国際保健のためのG7伊勢志摩ビジョン)」⁹²⁾

89)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90) 健康・医療戦略推進本部.

91) Basic Design for Peace and Health(Global Health Cooperation).

의 채택에 앞장서며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13년 발표된 국가 외교정책인 「글로벌 보건외교전략(國際保健外交戰略)」과도 그 맥락을 함께한다. 무엇보다 이후 발표된 정부 부처와 JICA의 전략이나 계획들이 위의 문건들을 추진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⁹³⁾

표 3-11. 일본의 보건의료 ODA 관련 기본 원칙 및 정책

문서	보건의료 관련 내용
개발협력현장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군사적 목적의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에의 기여 - 인간안보(Human Security) 촉구 - 일본의 경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협력뿐 아니라 자조적(self-help) 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적(self-reliant) 개발을 목표로 협력 • 우선 이슈: 질적 성장(quality growth)과 이를 통한 빈곤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개발 촉진 - 건강관리, 깨끗한 물과 위생, 식품과 영양,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 불평등 감소, 여성의 능력 향상, 문화 및 스포츠 등에 집중 • 지역별 우선정책 이슈: 아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공동체 설립 및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아세안의 개발 지원 -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건강관리, 위생, 교육 등)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 경제적 인프라 개발로 지원 확대
평화와 건강을 위한 기본방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의 건강을 보장하고, 공중보건 관련 위급상황(특히 감염성 질병), 재해 등 외부 요인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노력 증진과 보건 시스템 강화 추구 - 궁극적으로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을 위한 지원 추진 • 기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안보 개념을 기반으로 한 보건 개발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복원력 있는 보건 시스템 구축과 보건안보 구축 B. 보건 분야 지원을 통한 질적 성장과 빈곤 퇴치에의 기여 C.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92) G7 Ise-Shima Vision for Global Health.
93) Government of Japan(2015a, 2015b), “Cabinet decision 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Basic Design for Peace and Health(Global Health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홈페이지, “G7 Ise-Shima Vision for Global Health”(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8. 14).

표 3-11. 계속

문서	보건의료 관련 내용
	<p>(2) 일본의 경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한 개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등 보건 분야에서의 선도적 경험, 기술, 전문성 활용 - 물리적(병원 건설 등), 비물리적 원조(운영 관리 등)를 결합하여 추진 <p>(3) 지역별 우선 정책이슈: 동남아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다양화되는 역내 보건 수요를 감안하여 감염성 질병 및 비감염성 질병 모두에 대응하는 조치 강화 -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기준 강화(농촌 지역에서의 접근성 강화 포함), 질병 예방, 영양상태 개선
글로벌 보건을 위한 G7 이세시마 비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보건 위급상황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구조(Global Health Architecture) 관련 지원 강화 • 강력한 건강 시스템과 공중보건 위급상황에 대한 더 나은 준비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 항생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 R&D 및 혁신 등

자료: Government of Japan(2015a, 2015b), "Cabinet decision 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Basic Design for Peace and Health(Global Health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홈페이지, "G7 Ise-Shima Vision for Global Health"(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8. 14).

[표 3-11]은 위 문건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특히 현장의 3가지 우선 이슈(priority issues) 중 하나인 ‘질적 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 퇴치’의 하위 내용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연관된 분야(건강관리, 물과 위생, 영양 등)를 위한 노력을 추구함을 밝혔다. 이는 기본 방침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은 최근 일본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다. G7 정상회의뿐 아니라 관련 국제포럼(UHC Forum 2017)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해당 의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세계 최장 기대수명을 기록한 국가이자 국가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온 다년간의 경험치를 내세우고 있다.⁹⁴⁾

2014년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일·아세안 건강 이니셔티브

94) Ibi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온라인 보도자료(2017. 12. 4, 검색일: 2019. 8. 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8),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17: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pp. 14-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4).

브(Japan-ASEAN Health Initiative)’를 통해 아세안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8,000명의 인재를 육성하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개최된 아세안과의 지역 컨퍼런스(ASEAN-Japan Active Ageing Regional Conference)를 통해서도 고령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 도전 과제, 정책과 이행을 위한 목표 및 지표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⁹⁵⁾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양측의 관심을 토대로 2017년 채택된 ‘아세안 · 일본 UHC 이니셔티브(ASEAN-Japan UHC Initiative)’는 양질의 건강 데이터와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보건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SDGs 내 관련 지표와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CRVS)⁹⁶⁾에 관한 지원이 포함된다. 아세안뿐 아니라 WHO 고베센터, UN ESCAP,⁹⁷⁾ WBG, ADB 등 다자기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교육훈련과 현지로의 인력 파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⁹⁸⁾ JICA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 기록이 담긴 모자수첩(母子手帳, MCH Handbook)⁹⁹⁾ 배포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등지의 모자보건 분야를 지원해왔다.¹⁰⁰⁾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이 추진 중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의 우선 과제 중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 추구’, ‘보편적 의료보장(UHC)’과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은 깨끗한 식수 공급, 질병 관리,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아세안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8개국에 설치된 JICA 지역 사무소들은 현장 중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NGOs와 협업을 위한 전담 데스크(NGO-JICA Japan Desk)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0~10년 베트남

95) Mission of Japan to ASEAN 홈페이지, <https://www.asean.emb-japan.go.jp/asean2025/jpasean-sc01.html>(검색일: 2019. 9. 11).

96)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97)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98)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홈페이지, “ASEAN-Japan UHC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3).

99) Maternal and Child Health Handbook.

100) JICA(2016), “Maternal and Child Heal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8).

남에서 수행한 보건사업은 수원국인 베트남의 수요와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에 부합하고, 5개 중점 프로젝트가 목표했던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된다.¹⁰¹⁾ 그러나 아시아 중소득국 위주의 자원 배분에서 벗어나 최빈국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하며, 자국과 수원국 내 시민단체의 참여를 좀 더 독려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¹⁰²⁾

2)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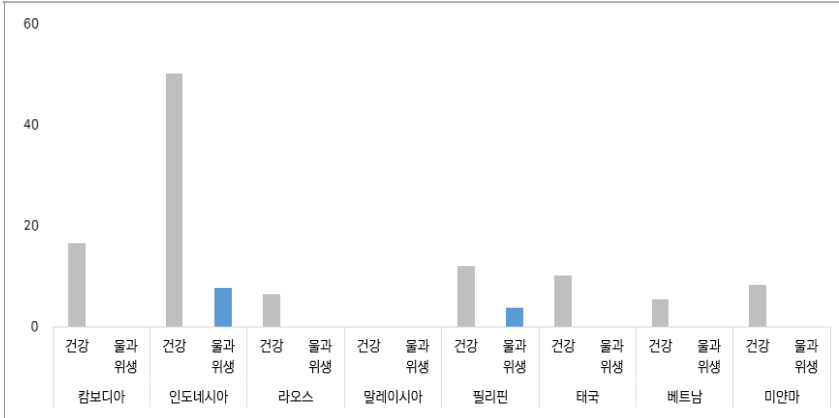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국은 일본, WBG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ODA를 아세안에 제공 중인 대표 공여국이다. 특히 전 세계에 창궐하는 범유행성 질병 퇴치를 위해 자국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분석기간(2013~17) 동안 미국은 대아세안 ODA 총액의 약 13.4%인 연평균 1억 2,176만 달러를 보건의료 분야를 위해 제공하였다. 보건의료 ODA 재원의 절반 정도가 인도네시아(47.7%)로 유입되었고, 뒤이어 캄보디아(13.6%), 필리핀(13.2%) 등의 순이었다(그림 3-10 참고). 미국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건강에 관련된 지원(1억 964만 달러)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물과 위생(1,212만 달러) 분야보다 10배 정도 큰 규모이다. 그중에서도 결핵 예방 및 관리(26.4%), 감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25.0%), 기본 영양(22.8%) 등을 위해 가장 많은 규모의 재원을 사용 중이다. 물과 위생 분야에서는 기본 식수 공급 및 위생(기타)(4.3%)에 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표 3-12 참고).

101) Consultation of Investment in Health Promotion(2014), "Evaluation of Japan's ODA to the Health Sector in Vietnam(Partner Country-led Evaluation)," p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3).

102) OECD(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Japan 2014," p. 16, p. 6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3).

그림 3-10. 미국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12. 미국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대분류	하위 분야	내용	지원 금액	비중
건강	건강 일반	정책/행정 관리	7.55	6.2
		의료 교육/훈련	0.00	0.0
		의학 연구	0.03	0.0
		의료 서비스	0.05	0.0
건강	기초 건강	기본 건강 서비스	1.40	1.1
		기본 보건 인프라	0.13	0.1
		기본 영양	27.70	22.8
		감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	30.46	25.0
		건강 관련 교육	2.62	2.2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	7.52	6.2
		결핵 예방 및 관리	32.11	26.4
		의료인력개발	0.06	0.1
	소계(A)		109.64	90.0

표 3-12. 계속

대분류	하위 분야	내용	지원 금액	비중
물과 위생	물과 위생	정책/행정 관리	0.31	0.3
		수자원 보존	0.00	0.0
		물 공급 및 위생(기타)	3.89	3.2
		물 공급(물 처리/저장/공급 시설)	2.41	2.0
		위생(하수도, 폐수 처리 시설)	0.03	0.0
		기본 식수 공급 및 위생(기타)	5.28	4.3
		기본 식수 공급	0.00	0.0
		기본 위생	0.00	0.0
		강 유역 개발	0.21	0.2
		폐기물 관리/처리	0.00	0.0
		교육/훈련	0.00	0.0
	소계(B)		12.12	10.0
	총 합계: (A) + (B)		121.76	100.0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국의 개발협력은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 법령은 자국의 대외원조 정책 추진에 있어 최빈국의 빈곤 완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self-sustaining) 경제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대통령은 통합 건강서비스, 물과 위생, 질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¹⁰³⁾ 주요 담당부처에는 국무부(DoS),¹⁰⁴⁾ 보건후생부(HHS),¹⁰⁵⁾ 국방부(DoD)¹⁰⁶⁾가 있으며, 독립 기관인 국제개발처(이하 USAID)¹⁰⁷⁾와 평화봉사단(Peace Corps), 보건후

103) 「U.S.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Public Law 87-195, 1961. 9. 4 제정, 2019. 2. 15 일부 개정) §2151, §2151b.

104) U.S. Department of State.

10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06) U.S. Department of Defense.

107)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생부(HHS) 산하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¹⁰⁸⁾ 국립보건원(NIH),¹⁰⁹⁾ 식품의약국(FDA),¹¹⁰⁾ 보건자원서비스국(HRSA)¹¹¹⁾과 민간 자선단체 등이 원조 활동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글로벌 조정관¹¹²⁾은 말라리아와 HIV/AIDS에 관련 활동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미국은 외교와 안보 관점에서 대외원조를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9월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통해 전 세계의 빈곤 인구가 개발의 혜택과 기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국 국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각국의 생산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 ‘공중보건 확보’를 제시하였다.¹¹³⁾ 2009년 오바마 행정부도 「대통령의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President on Global Health Initiative)」를 통해 새로운 HIV 감염 예방, 모자 사망률 감소, 의도하지 않은 임신 방지 및 소외열대질환(NTDs)¹¹⁴⁾ 퇴치를 위한 투자를 촉진할 것임을 밝혔다.¹¹⁵⁾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째 미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순방하며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다자기구인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¹¹⁶⁾ 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을 추구함을 밝힌 바 있다.¹¹⁷⁾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분야는 크게 △ 범유행성(pandemic) 질병

108)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09)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10)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11)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112) U.S. Global Malaria Coordinator(USAID), U.S. Global HIV/AIDS Coordinator(국무부).

113) U.S. White House,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sc/nss/2002/print/nss7.html>(검색일: 2019. 9. 24).

114) Neglected Tropical Diseases.

115) U.S. White House 온라인 보도자료(2009. 5. 5, 검색일: 2019. 9. 24).

116)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117) U.S. Mission to ASEAN 홈페이지, “FACT SHEET: Unprecedented U.S.-ASEAN Relations,” <https://asean.usmission.gov/fact-sheet-unprecedented-u-s-asean-relations/>(검색일: 2019. 9. 26).

△ 글로벌 보건안보(GHS)¹¹⁸⁾ △ 모자보건 및 △ 기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3-13 참고). 특히 미국은 HIV/AIDS, 결핵, 말라리아로 대변되는 범유행성 질병 지원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된다. 2003년부터 HIV/AIDS 퇴치를 위해 「에이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이하 PEPFAR)¹¹⁹⁾」 관련 전략¹²⁰⁾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이는 HIV/AIDS 퇴치를 지원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사업으로 현재 지원 중인 국가의 수도 50여 개국에 달한다. 아세안에서는 베트남이 최대 투자 대상국(23개국) 중 하나로 포함되었고, 그 외 5개국¹²¹⁾은 아시아 지역 프로그램(Asia Regional Program)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분석기간(1990~2017) 동안 급격한 HIV 감염인 사망률 감소를 기록한 국가 중 하나로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¹²²⁾

HIV 감염인에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질병인 결핵에 대해서는 1990년대 말부터 관련 노력을 추진해왔으며, 위의 PEPFAR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활동은 2005년 시작된 「대통령의 말라리아 이니셔티브(PMI: President's Malaria Initiative)」를 토대로 아프리카와 메콩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¹²³⁾ 여기에는 살충제 처리된 모기장, 긴급 진단 테스트, 말라리아 퇴치 약물인 아르테미시닌 기반 병용 용법(ACTs),¹²⁴⁾ 보건인력 훈련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약 1억 1,410만 달러의 재원을 메콩 지역 내 5개국을 대상으로 제공하였고, 그중 미얀마와 캄보디아로의 지원 비중이 높았다(2011~17년 회계연도 기준).¹²⁵⁾

118) Global Health Security.

119) The United State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120) PEPFAR Strategy for Accelerating HIV/AIDS. Epidemic Control.

121)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122) U.S. Department of State(2018), "2018 Progress Report: PEPFAR Strategy for Accelerating HIV/AIDS Epidemic Control(2017-2020)," p. 3,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6).

123) KFF(Kaiser Family Foundation), "The U.S. Government and Global Health," <https://www.kff.org/global-health-policy/fact-sheet/the-u-s-government-and-global-health/>; Donor Tracker, "United States Sector Global health," <https://donortracker.org/united-states/globalhealth>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24).

124) Artemisinin-based Combination Therapy.

125) PMI 홈페이지, "Greater Mekong Region," <https://www.pmi.gov/docs/default-source/de>

표 3-13. 미국의 주요 보건으로 정책 및 아세안 내 지원 국가

구분	주요 정책/프로그램	총괄/담당 기관	아세안 내 지원 국가
범유행성 질병	에이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EPFAR)	국무부(DoS)	베트남 아시아 지역(미얀마,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대통령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PMI)	USAID, CDC 보건후생부(HHS)	메콩 지역(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글로벌 보건안보	글로벌 보건안보전략 (GHSS)	관계부처 USAID, CDC 등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자 보건	Acting on the Call	USAID	인도네시아, 미얀마
	Feed the Future		캄보디아(기존)
기타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GHSA)*	관계부처 USAID, CDC 등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주: *단,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의 경우 해당 다자기구에 참여 중인 아세안 회원국들을 정리함(2019년 3월 기준).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18), "2018 Progress Report: PEPFAR Strategy for Accelerating HIV/AIDS Epidemic Control(2017-2020)," p. 3; PMI 홈페이지, "Greater Mekong Region," https://www.pmi.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country-profiles/mekong_profile.pdf; GHSA 홈페이지, <https://www.ghsagenda.org/members>; Feed the Future 홈페이지, "2017 Feed the Future Progress Snapshot," p. 6(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9. 26); Donor Tracker, "United States Sector Global health," <https://donortracker.org/united-states/globalhealth>(검색일: 2019. 9. 24); U.S. White House(2019), "U.S. Government Global Health Security Strategy," p.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1)를 토대로 저자 정리.

최근에는 감염성 질병을 예방·관리함으로써 자국민과 세계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보건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글로벌 보건안보전략(GHSS: U.S. Government Global Health Security Strategy)」에 반영되었다. 이 전략은 「국가안보전략」 등 연관 정책들을 지원하며, 감염성 질병에 대한 목표와 함께 기관별 전략추진 방향, 역할, 활동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양자 차원에서 파트너국이 감염성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감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한 이후부터는 미국이 주도해온 다자기구인 GHSA의 역량배

fault-document-library/country-profiles/mekong_profile.pdf(검색일: 2019. 9. 26).

양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과의 파트너십도 추진 중이다.¹²⁶⁾

모자보건(MCH)에 관한 미국의 노력은 ‘Acting on the Call’, ‘Feed the Future’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시작된 Acting on the Call은 USAID를 중심으로 예방 가능한(preventable) 모자사망을 종식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모자건강, 면역, 물과 위생, 영양 상태 등의 영역을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영양실조가 아동 사망의 45%, 산모 사망의 20%를 차지하는 근본 원인임에 따라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별 행동 계획을 모색 중이다.¹²⁷⁾ 아세안에서는 미얀마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종사자 교육, 산전관리 및 영유아 질병관리 정책 수립, 보험제도 개선, 임신 기간 내 말라리아 감염 퇴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¹²⁸⁾ Feed the Future는 USAID와 민간단체들이 최빈국을 대상으로 기아를 퇴치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 국가에 캄보디아가 포함된 바 있으나 현재는 제외되었다.¹²⁹⁾

USAID는 국무부와의 정책 검토를 통해 보건의료 등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영역을 토대로 한 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양자 ODA의 25%를 대통령의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였고, OECD DAC 회원국 전체의 HIV/AIDS 지원 총액에서 미국의 PEPFAR가 90% 비중을 차지하는 등 범유행성 질병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된다.¹³⁰⁾ GHSA 등을 통해서도 글로벌 보건안보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동남아 지역

126) U.S. White House(2019), “U.S. Government Global Health Security Strategy,”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11).

127) USAID(2019), “Acting on the Call: A Focus on the Journey to Self-Reliance For Preventing Child and Maternal Deaths,”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4).

128) *Ibid.*, p. 14, p. 20.

129) Feed the Future 홈페이지, “2017 Feed the Future Progress Snapshot,” p. 2, p. 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9. 26).

130) OECD(2016), “The DAC’s ma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Extract from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16,” pp. 15-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4).

에서는 아세안 차원보다 일부 회원국 또는 지역 프로그램으로 선정·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GHSA 등 다자기구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나. 교육

1) 독일

독일은 OECD DAC 회원국 중 아세안에 가장 많은 ODA 재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분석기간(2013~17)에 독일의 대아세안 ODA 총액은 연평균 8억 7,367만 달러로 그중 약 13%인 1억 1,289억 달러를 교육 분야를 위해 투자하였다. 이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인도네시아(37.9%), 베트남(31.8%), 태국(8.4%)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고등교육(64.7%)’과 ‘직업교육(22.9%)’으로 재원이 집중되었다. 세부항목별 비중은 수원국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아세안 회원국 중 고등교육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수원국은 상위 중소득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이었다. 반면 최빈국인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는 직업교육을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입하였다(표 3-14, 그림 3-11 참고).

표 3-14. 독일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대분류	내용	지원 금액	비중
교육 (미분류)	교육 정책 및 행정 관리	0.23	0.2
	교육 시설 및 훈련	10.36	9.2
	교원 훈련	1.70	1.5
	교육 연구	0.00	0.0
	소계(A)	12.30	10.9
기본 교육	초등교육	0.84	0.7
	청소년 및 성인의 기본생활 기술	0.25	0.2
	유아교육	0.17	0.2
	소계(B)	1.26	1.1

표 3-1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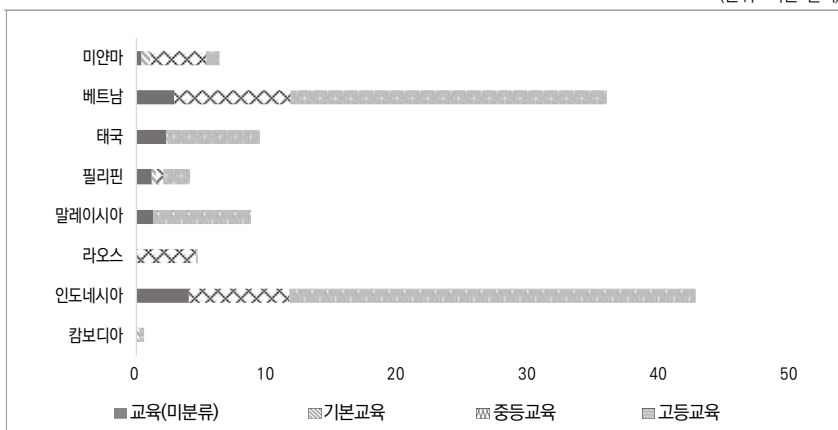
대분류	내용	지원 금액	비중
중등 교육	중등교육	0.01	0.1
	직업교육	25.91	22.9
	소계(C)	25.91	23.0
고등 교육	고등교육	73.06	64.7
	고급 기술 및 관리 훈련	0.37	0.3
	소계(D)	73.43	65.0
총 합계: (A) + (B) + (C) + (D)		112.89	100.0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1. 독일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독일의 대외원조 정책은 1961년에 설립된 독립 부처인 ‘연방경제협력개발 부(이하 BMZ)’¹³¹⁾가 총괄한다. BMZ는 2014년 11월 「미래를 위한 헌장 (Charter for the Future)」를 발표하며 자국의 개발협력 정책이 우선시하는

131)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총 8개 분야를 제시하였고, 그중 첫 번째인 ‘누구든 어디에서나 삶의 존엄성 보장’을 통해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향후 아동, 청년, 여성 및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정규 및 비정규 초등·중등교육과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평생교육도 추진하고자 함을 명시하였다.¹³²⁾

「미래를 위한 현장」을 토대로 2015년에 수립된 「교육전략(Education Strategy)」은 기존과는 달리 수원국이 처한 상황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영역별로는 교원 관리, 교육 행정, 지역 협력, 교육 재정 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단계별로는 크게 기본교육,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을 대상으로 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특히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노동시장 수요와 일치하고 지방에서도 활성화된 직업교육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영역(농업, 에너지, 제조업 등)에 자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공평하고 분권화된 고등교육을 위해 추진되는 ICT 기반 학습(이러닝 등), 교육기관 간 협력, 장학금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표 3-15 참고).¹³³⁾

표 3-15. 독일 「교육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영역별	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질과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교원관리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발전·이행 지원 - 교원 대상 평생교육 추진
	교육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하고 참여적·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의 국가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 거버넌스 개선, 분권화된 구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132) BMZ(2015a), “Charter for the Future: One World – Our Responsibility,” pp. 15-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5).

133) BMZ(2015b), “BMZ Education Strategy: Creating equitable opportunities for quality education,” pp. 12-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1).

표 3-15.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영역별	지역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제공을 위한 분권화된 지역 중심 이니셔티브 추진 - NGOs와의 협력 추진
	교육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조달을 위한 혁신적 교육 재정 - 새로운 금융수단(debt-for-education swap 등) 활용 경험 보유 - 교육목표 달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결과 기반 재정 확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 인구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및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 • 교육성과 측정 관련 양자 및 다자협력 참여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단계 간소화 •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단계별	기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형태의 기본교육 보장 - 커리큘럼, 교수 방법 및 교구 개발 지원 - 교실 및 교원 훈련센터 건설·재건·시설구비 지원, 교구 제공 - 성인 대상 비정규 기본교육 제공 -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유아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단계별	직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확대 - 노동시장의 수요와 일치하는 직업교육 제공 - 지방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증진 - 직업교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장기적 재원 마련 - 숙련 노동자 부족 영역에 대한 자격 시스템 개발
	고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및 연구 강화 - 교육의 질 관련 기준 체계 구축·강화, 고등교육 및 연구 관리 지원 - 개별 학습자 및 연구자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제공 -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러닝 등 ICT 기반 학습 장려 - DAAD 등 유관기관의 고등교육/산학협력 사업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분야 이슈(양성평등 등)에 관한 비정규 교육 지원 • 보건의료, 기후변화 등 타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추구

자료: BMZ(2015b), "BMZ Education Strategy: Creating equitable opportunities for quality education," pp. 12-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1)를 토대로 저자 정리.

해당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BMZ는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과정을 통솔한다. 개도국을 위한 기술지원과 금융협력은 각각 독일국제협력공사(이하 GIZ)¹³⁴⁾

134)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GIZ) GmbH.

와 독일개발은행(이하 KfW)¹³⁵⁾이 나누어 담당한다. GIZ는 수원국의 기술역량 배양을 목표로 컨설팅 서비스, 인적자원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KfW는 현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시설을 구축·개선하고, 취약계층 및 소규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장학금, 바우처, 학자금 대출 등)을 전개 중이다. 국립계측연구소(PTB)¹³⁶⁾와 독일지질자원연구소(BGR)¹³⁷⁾의 경우 관련 기술 및 천연자원에 관한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³⁸⁾

독일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자기구인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¹³⁹⁾ 등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민간 부문도 자체 재원과 정부 보조금, 국제사회의 위탁 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원국 내 시민단체들과 교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독일학술교류처(DAAD),¹⁴⁰⁾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vH),¹⁴¹⁾ DVV International¹⁴²⁾ 등이 기관 간 교류협력, 산학협력, 장학금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¹⁴³⁾ 참고로 BMZ가 민간 차원의 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예산은 연평균 12억 1,377만 유로로 그중 7.5%를 아세안 회원국들을 위해 사용하였다(2013~17년 기준).¹⁴⁴⁾

아세안에서도 교육은 독일과의 우선협력 분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2017년 아세안·독일 개발 파트너십¹⁴⁵⁾을 구축하였고, 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섯 가지 실질적 협력 영역 중 하나로 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을 제시하

135)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Entwicklungsbank.

136)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137) 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138) BMZ(2015b), "BMZ Education Strategy: Creating equitable opportunities for quality education," p.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1).

139)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140)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141)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142)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des Deut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143) BMZ(2015b), "BMZ Education Strategy: Creating equitable opportunities for quality education," pp. 24-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1).

144) BMZ 홈페이지, http://www.bmz.de/de/ministerium/zahlen_fakten/oda/ngo/index.html (검색일: 2019. 10. 23).

145) ASEAN-Germany Development Partnership.

였다.¹⁴⁶⁾ GIZ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TVET와 비정규교육(Fit for School 등)을 지원하고 있다. BMZ는 아세안의 TVET 프로그램들이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직업교육에 대한 현지의 인식이 좋지 않고 교원과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과 남아시아지역국가연합(SAARC)¹⁴⁷⁾ 등과 공조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근로자 능력 향상, 직업교육의 질과 적합성 향상, 아세안 내 노동자 이동성을 위한 숙련도 기준(학위, 자격증 등)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제시하였다.¹⁴⁸⁾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서 해당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추진 중이다. 아세안 차원으로도 2014년부터 RECOTVET I, II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이해당사자 간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표 3-16 참고).¹⁴⁹⁾

146) ASEAN 홈페이지, “ASEAN, Germany formalise Development Partnership,” <https://asean.org/asean-germany-formalise-development-partnership/>; “Practical Cooperation Areas for ASEAN-Germany Development Partnership,”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7/04/PCA-for-ASEAN-Germany-Development-Partnership-2018-2022.pdf>(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15).

147)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48) BMZ(2015c),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ASEAN Region: Sustainable Growth through Regional Networking,” pp. 4-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5).

149) GIZ 홈페이지, <https://www.giz.de/en/worldwide/16755.html>; <https://www.giz.de/en/worldwide/70532.html>; <https://www.giz.de/en/worldwide/18723.html>; <https://www.giz.de/en/worldwide/26261.html>; <https://www.giz.de/en/worldwide/17777.html>; <https://www.giz.de/en/worldwide/57320.html>; GIZ, “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 to Improve the Training of TVET Personnel(RECOTVET),” <http://www.thai-german-cooperation.info/admin/uploads/publication/cdc46875d4421082ce81184925d894cdcn.pdf>(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3).

표 3-16. 독일의 대아세안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관련 주요 사업

수원국	담당 기관	프로그램 내용
인도네시아	GIZ, KfW (B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SED) though TVET(201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ET 관리 및 교수 역량 향상 -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위한 혁신 추진 - TVET 규정 이행 및 모니터링 지원 - 23개 TVET 교육기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문, 역량개발 지원 등
	GIZ (B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ET System Reform(TSR)(2018~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ET 참여자(공공/민간 행위자) 관련 정책 자문 - 민간 부문의 참여 촉진 -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성공 모델 및 정책도구 향상에 관한 조언 제공 등
베트남	GIZ (B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orm of TVET(2017~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기반 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기관(CoEs) 구축 지원 -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제 개발 지원 등 (예: 사내 교육담당자에 대한 자격 및 인증 체계)
라오스	GIZ (B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cational Education in Lao PDR(VELA)(2019~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협동 훈련 프로그램(DCT: Dual-Cooperative Training) 구축 - 「TVET Development Plan 2016~2020」 등 관리체계 개발 -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로드맵 개발 지원 - DCT 관련 담당자(TVET 교원 등) 역량 배양 지원 등
미얀마	GIZ (B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mo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2017~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ET 체계 개혁 추진 - 교원, 학교 경영진, 관계부처 공무원, 산업계 대상 교육 실시 - 노동시장 기반 기준을 근거로 한 근로자 평가 및 인증 체계 시범적 운영 등
지역 차원	GIZ (B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 to Improve the Training of TVET Personnel(RECOTVET I)(2014~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 간 정책대화 및 작업반 구축 - 노동시장 수요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구축·평가방법 교육 - 직장인 자격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등 • 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 to improve the quality and labour market orientation of TVET(RECOTVET II)(2017~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 TVET 시스템 개선에 관한 공공 및 민간간 정책대화 실시(연 2회) - 사내교육 등에 중점을 둔 민간협력 추진을 통한 민간측 의견 제시, 교원 교육 및 훈련 개선 등

자료: GIZ 홈페이지, <https://www.giz.de/en/worldwide/16755.html>; <https://www.giz.de/en/worldwide/70532.html>; <https://www.giz.de/en/worldwide/18723.html>; <https://www.giz.de/en/worldwide/26261.html>; <https://www.giz.de/en/worldwide/17777.html>; <https://www.giz.de/en/worldwide/57320.html>; GIZ, “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 to Improve the Training of TVET Personnel(RECOVTET),” <http://www.thai-german-cooperation.info/admin/uploads/publication/cdc46875d4421082ce81184925d894cdcn.pdf>(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3)를 토대로 저자 정리.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교육에 있어 대표적인 협력 프로그램은 ‘Fit For School’이다.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총 4개국(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추진되었다. GIZ가 BMZ에게 위임받아 이행하는 사업으로 파트너 기관은 SEAMEO이며, 수혜국별 교육 담당부처 등과 공조하여 8년간(2011~18) 추진되었다. 무엇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내 위생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WASH¹⁵⁰⁾ in School’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2008년부터 필리핀에서 이행된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나머지 3개국도 국가별로 9만~20만 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탄자니아(2015), 기니(2017) 등지로도 확산되었다.¹⁵¹⁾

GIZ를 주축으로 진행 중인 TVET와는 달리 고등교육 협력사업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925년에 설립된 독일학술교류처(DAAD)는 전 세계 총 15개의 지역사무소와 57개의 정보센터 등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학생과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사업을 비롯하여 개도국 내 파트너 대학이 특정 전공을 중심으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전공중심 개도국 고등교육 기관 파트너십(SRP)’,¹⁵²⁾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기업-파트너십’¹⁵³⁾ 등을 운영 중이다.¹⁵⁴⁾ AvH의 경우 연방교육연구

150) Water, Sanitation, Hygiene.

151) GIZ(2018), “Fit for School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3); Fit For School 홈페이지, <http://www.fitforschool.international/fit-in-action/>(검색일: 2019. 10. 23).

152) Subject-Related Partnerships with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53) University-Business-Partnerships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Business Partners in Germany and in Developing Countries.

154) DAAD 홈페이지, <https://www.daad.de/der-daad/unsere-aufgaben/entwicklungszusammenarbeit/foerderprogramme/hochschulen/infos/en/44494-subject-related-partnerships-with-institutions-of-higher-education-in-developing-countries/>; <https://www.daad.de/der-daad/unsere-aufgaben/entwicklungszusammenarbeit/foerderprogramme/hochschulen/infos/en/44507-university-business-partnerships-between-higher-education-institutions-and-business-partners-in-germany-and-in-developing-countries>

부(BMBF)¹⁵⁵⁾ 등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국적에 상관없이 독일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을 위해 장학금과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다.¹⁵⁶⁾ DVV International¹⁵⁷⁾은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을 지원하고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직전문가서비스(SES)¹⁵⁸⁾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¹⁵⁹⁾ OECD는 독일의 이행기관들과 NGOs 활동들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규모 단기사업 외에도 다년도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¹⁶⁰⁾

2) EU

이제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다자기구로서 EU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U는 분석기간(2013~17) 중 기관 차원으로 연평균 4,751만 달러를 아세안의 교육 분야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는 기관 ODA 총액의 약 14.6% 비중으로 독일, 호주와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53.7%)로 유입되었고, 뒤이어 캄보디아(23.5%), 라오스(9.3%), 미얀마(6.7%) 등의 순이었다. 하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특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교육 정책 및 행정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은 재원을 집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와 라오스의 경우 ‘기본교육’으로의 투입 비중이 압도적이었다(표 3-17, 그림 3-12 참고).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18); DAAD(2019), “Annual Report 2018,” pp. 10-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155)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156)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2019), “We support your research,” p. 6, http://www.humboldt-foundation.de/pls/web/docs/F346501920/broschuere_ziele_und_programme.pdf(검색일: 2019. 10. 24).

157)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des Deut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158) Senior Expert Service(Der Welt Experten Dienst).

159) BMZ(2015b), “BMZ Education Strategy: Creating equitable opportunities for quality education,” pp. 24-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1).

160) OECD(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Germany 2015,” p. 19, pp. 110-1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5).

표 3-17. EU 기관 차원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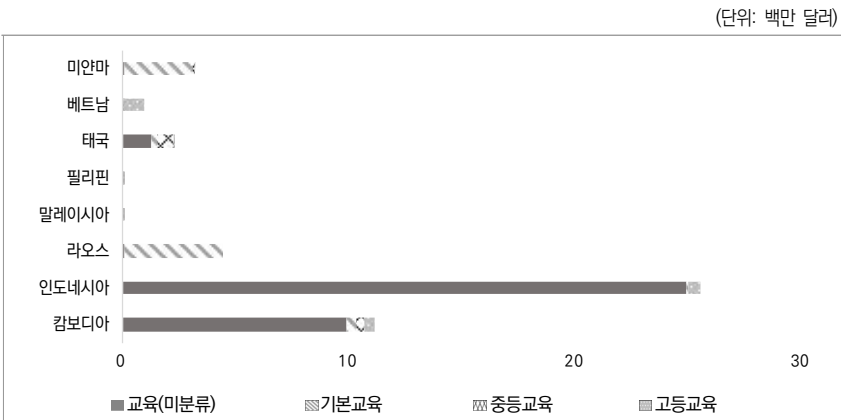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대분류	내용	지원 금액	비중
교육 (미분류)	교육 정책 및 행정 관리	35.12	73.9
	교육 시설 및 훈련	1.08	2.3
	교원 훈련	0.05	0.1
	교육 연구	0.00	0.0
	소계(A)	36.26	76.3
기본 교육	초등교육	7.75	16.3
	청소년 및 성인의 기본생활 기술	0.09	0.2
	유아교육	0.29	0.6
	소계(B)	8.12	17.1
중등 교육	중등교육	0.00	0.0
	직업교육	1.15	2.4
	소계(C)	1.15	2.4
고등 교육	고등교육	1.99	4.2
	고급 기술 및 관리 훈련	0.00	0.0
	소계(D)	1.99	4.2
총 합계: (A) + (B) + (C) + (D)		47.51	100.0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2. EU 기관 차원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5년 EU와 아세안은 「EU·아세안: 전략적 목적의 파트너십」¹⁶¹⁾을 채택하며 아세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양측 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방법의 하나로 ‘연구, 혁신 및 인적교류’를 제시하였다. 특히 자격 체계, 인증 및 평가, 학위 상호인증 등 EU가 고등교육과 연관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며, 대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¹⁶²⁾ 2017년 장관급 회의를 통해 채택된 「아세안·EU 행동계획(2018-2022)」¹⁶³⁾에서도 양측 간 사회문화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교육, 학제 및 문화 교류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에 따라 현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 및 EU에 설립된 국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EU 회원국과 AUN 간 교류 또한 활성화할 계획이다.¹⁶⁴⁾

EU가 아세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고등교육 협력사업은 2015년에 시작된 ‘EU·아세안 SHARE’¹⁶⁵⁾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EU가 쌓아온 일련의 경험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세안 학생들의 지역 내 (intra-ASEAN) 교류 및 아세안·EU 간 교류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EU는 1999년부터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통해 유럽을 동일한 고등교육체계를 가진 하나의 권역(EHEA)¹⁶⁶⁾으로 만들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위 체제를 통일시키고, 학점교류시스템(ECTS)¹⁶⁷⁾을 수립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해왔다.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에라스무스(ERASMUS)¹⁶⁸⁾와 장학금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플

161) The EU and ASEAN: a partnership with a strategic purpose.

162) EC(2015), “The EU and ASEAN: a partnership with a strategic purpose,” pp. 7-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JOIN:2015:22:FIN&from=EN>(검색일: 2019. 10. 30).

163) ASEAN-EU Plan of Action(2018-2022).

164) ASEAN Secretariat(2017e), “ASEAN-EU Plan of Action(2018-2022),” pp. 6-7, <https://asean.org/storage/2017/08/ASEAN-EU-POA-2018-2022-Final.pdf>(검색일: 2019. 10. 30).

165) The European Union Support to Higher Education in the ASEAN region.

166)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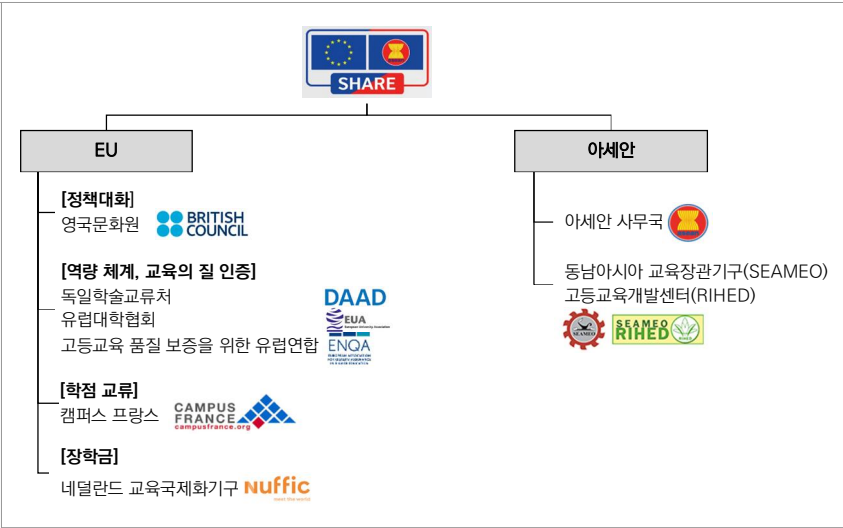
167)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168)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러스(ERASMUS+)를 통해서도 EU 회원국 간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¹⁶⁹⁾

EU는 EU·아세안 SHAR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총 957만 5,780유로(2015년 1월 ~ 2019년 1월)를 약정하였고, 이는 EU가 운영 중인 개발협력기금(DCI)¹⁷⁰⁾을 통해 조달된다.¹⁷¹⁾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영역 △ 정책 대화(Policy Dialogues) △ 역량 체계(Qualification Framework) 및 교육의 질 인증(Quality Assurance) △ 학점교류 시스템과 아세안 내 학생 교류(mobility)를 위해 추진된다. 6개 유럽 교육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영역별로 각자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3-13 참고).¹⁷²⁾

그림 3-13. EU·아세안 SHARE 프로그램의 핵심영역별 추진 기관



자료: SHARE 홈페이지, <https://www.share-asean.eu/about-share>(검색일: 2019. 10. 31)를 토대로 저자 작성.

169) SHARE 홈페이지, <https://www.share-asean.eu/about-share>(검색일: 2019. 10. 31).

170)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171) EC 홈페이지, "EU Support to Higher Education in ASEAN Region - EU SHARE," https://ec.europa.eu/europeaid/projects/eu-support-higher-education-asean-region-eu-share-0_en(검색일: 2019. 10. 31).

172) SHARE 홈페이지, <https://www.share-asean.eu/about-share>(검색일: 2019. 10. 31).

먼저 리더 기관인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은 아세안의 고등교육 이슈를 다루는 정책대화를 총 9차례 진행하였고 1,2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두 번째로 독일학술교류처(DAAD), 유럽대학협회(EUA),¹⁷³⁾ 고등교육 품질 보증을 위한 유럽연합(ENQA)¹⁷⁴⁾은 워크숍 등을 통해 아세안의 역량 체계와 교육의 질 인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프랑스(Campus France)는 아세안 회원국 간 학점교류 시스템과 아세안·EU 학점교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네덜란드 교육국제화기구(nuffic)¹⁷⁵⁾는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여 아세안 내 학생 교류를 촉진하고자 노력 중이다. 아세안 측에서는 아세안사무국과 SEAMEO의 고등교육개발센터(RIHED)¹⁷⁶⁾가 담당하고 있다.¹⁷⁷⁾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아세안 회원국 국적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선발될 경우 학비, 생활비, 귀국 항공료, 건강보험료, 비자 비용 등이 지원된다. 현재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8개국 총 32개 대학과 유럽 10개국 총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교환학생 장학금 건수도 489건에 달했으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에서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장학금을 통해 아세안 학생들이 EU 회원국으로 유학을 간 경우도 102건에 달했다(표 3-18 참고).¹⁷⁸⁾ 참고로 EU와 회원국들은 2014년부터 5,500명 이상의 아세안 대학생과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으며, ERASMUS+를 통해 약 3,000명이 아세안 내에서 공부하거나 근무한 바 있다.¹⁷⁹⁾

173)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174) European Association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175) The Dutch organisa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in education.

176) Reg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177) EU Mission to ASEAN(2019), p. 40; SHARE 홈페이지, <https://www.share-asean.eu/about-share>(검색일: 2019. 10. 31).

178) SHARE 홈페이지, "The SHARE students mobility scheme"(검색일: 2019. 10. 31).

179) EU Mission to ASEAN(2019), p. 42.

표 3-18. EU·아세안 SHARE 프로그램: 교류 현황

(단위: 명)

교류 방향	소득 구분	국가	인바운드 학생	아웃바운드 학생
아세안 ↔ 아세안 (32개 대학)	최빈국	캄보디아	68	61
		라오스	-	46
		미얀마	16	177
	하위 중소득국	인도네시아	103	104
		필리핀	75	8
		베트남	87	52
	상위 중소득국	말레이시아	108	38
		태국	32	3
	계		489	489
아세안 → 유럽 (10개 대학)	네덜란드		23	-
	폴란드		21	-
	체코		16	-
	독일		14	-
	기타*		28	-
	계		102	-

주: *아일랜드(9명), 스웨덴(9명), 오스트리아(8명), 스페인(2명).

자료: SHARE 홈페이지, "The SHARE students mobility scheme"(검색일: 2019. 10. 31)를 토대로 저자 정리.

글상자 3-2. UNESCO의 대아세안 협력 사례: 비취학 아동 지원사업

유네스코는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다자기구 중 하나이다. 본래 교육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등과 함께 해당 기구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한다. 유네스코는 2018~19년 승인한 정규 프로그램 예산 총액의 17.5%인 1억 395만 달러를 교육 분야를 위해 사용할 것임을 밝혔으며, 인건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자원(2,660만 달러)을 회원국들이 SDGs 목표 4(교육)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하였다.

‘비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Strengthening Education System for Out-Of-School Children Project)’는 유네스코가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 대표 프로젝트이다. 2015년 유네스코는 아세안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아세안 내 비취학 아동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 이주 노동자의 자녀, 난민 아동 등이 취학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초등교육 연령대의 비취학 아동은 남아(8%)보다 여아(76%)가 월등히 많아 성평등 차원에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는 EAC(Educate a Child)과의 파트너십하에서 위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예산

규모는 총 265만 4,059달러로 2014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지에서 현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위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을 수료한 아동과 청소년이 다음 단계의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포스코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1%나눔재단을 통해 총 90만 달러(2018~20)를 위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하였다.

자료: UNESCO, "39 C/5 Approved programme and budget, 2018-2019: first biennium of the 2018-2021 quadrennium," pp. 397-40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 UNESCO Bangkok Office(2017), "Out-of-School Children(OOSC): regional overview,"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59836>(검색일: 2019. 11. 3); UNESCO Transparency Portal, <https://opendata.unesco.org/project/XM-DAC-41304-571RAS1000>(검색일: 2019. 11. 3);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사회적 책임」 「스틸빌리지」로 글로벌 사회공헌(2019. 5.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3).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가. 협력 현황

1) ODA 지원 현황¹⁸⁰⁾

분석기간(2013~17)에 아세안 지역이 우리나라의 ODA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연평균 4억 7,252만 달러)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OECD 공여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주요 수원국은 베트남으로 연평균 2억 1,126만 달러(44.7%)가 집중되었고, 뒤이어 캄보디아(14.5%), 필리핀(11.4%), 라오스(10.4%), 인도네시아(9.7%) 등의 순이었다. 2019년 기준 아세안 6개국(중점협력국)에 대한 양자 협력 ODA 예산은 총 5,800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지원 비중이 다소 줄어든 반면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로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아세안과의 다자성 협력의

180) 3절에서 소개한 분야별 대아세안 ODA 지원 현황(2013~17년)은 1절과 동일한 기준으로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활용하였으며, 2018년 이후 자료는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를 활용함.

경우 협력기금(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등)의 분담금 지출과 한·아세안센터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¹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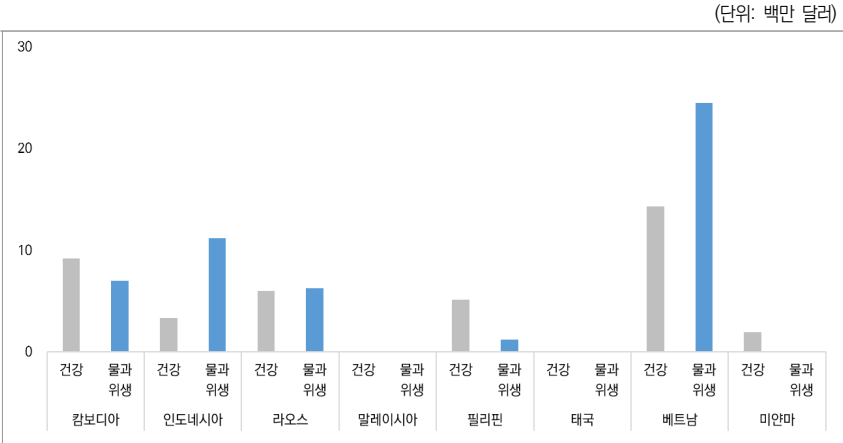
이러한 지원 현황을 사회 인프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분석기간(2013~17)에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가 대아세안 ODA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1%,¹⁸²⁾ 10.3%를 차지하였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연평균 9,033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그림 3-14]와 같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물과 위생에 관한 지원 규모가 컸으나, 그 외 국가에서는 대체로 건강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본, 미국 등과는 달리 [표 3-19]의 항목 중 물 공급 및 위생(기타)(36.2%), 의료 서비스(15.1%), 기본 보건 인프라(11.4%) 등의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본 식수 공급 및 위생이나 대형 인프라(상하수도 등) 건설을 위한 지원보다는 그 외의 영역에 치중해왔고, 물리적인 보건 인프라(병원, 약국, 기자재 제공 등)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왔음을 뜻한다. 2019년에도 종합병원(3차병원급), 응급의료 인력 양성 등 현지의 보건 서비스와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¹⁸³⁾

181)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p. 68, p. 14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182) 건강(연평균 3,999만 달러, 8.5%), 물과 위생(연평균 5,033만 달러, 10.7%).

183) 전문가간담회, 대아세안 사회문화분야 개발협력 사업운영 방향 및 과제, KOICA 관계자 발표 내용 (2019. 8. 9, 경기도 성남).

그림 3-14. 우리나라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19. 우리나라의 대아세안(8개국) 보건의료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대분류	하위 분야	내용	지원 금액	비중
건강	건강 일반	정책/행정 관리	3.88	4.3
		의료 교육/훈련	5.30	5.9
		의학 연구	0.12	0.1
		의료 서비스	13.61	15.1
	기초 건강	기본 건강 서비스	4.53	5.0
		기본 보건 인프라	10.34	11.4
		기본 영양	0.11	0.1
		감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	1.14	1.3
		건강 관련 교육	0.44	0.5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	0.06	0.1
		결핵 예방 및 관리	0.45	0.5
		의료인력개발	0.01	0.0
		소계(A)	39.99	44.3

표 3-19. 계속

대분류	하위 분야	내용	지원 금액	비중
물과 위생	물과 위생	정책/행정 관리	1.52	1.7
		수자원 보존	5.46	6.0
		물 공급 및 위생(기타)	32.71	36.2
		물 공급(물 처리/저장/공급 시설)	0.80	0.9
		위생(하수도, 폐수 처리 시설)	0.29	0.3
		기본 식수 공급 및 위생(기타)	4.98	5.5
		기본 식수 공급	0.07	0.1
		기본 위생	0.02	0.0
		강 유역 개발	0.56	0.6
		폐기물 관리/처리	3.92	4.3
		교육/훈련	0.00	0.0
	소계(B)		50.33	55.7
	총 합계: (A) + (B)		90.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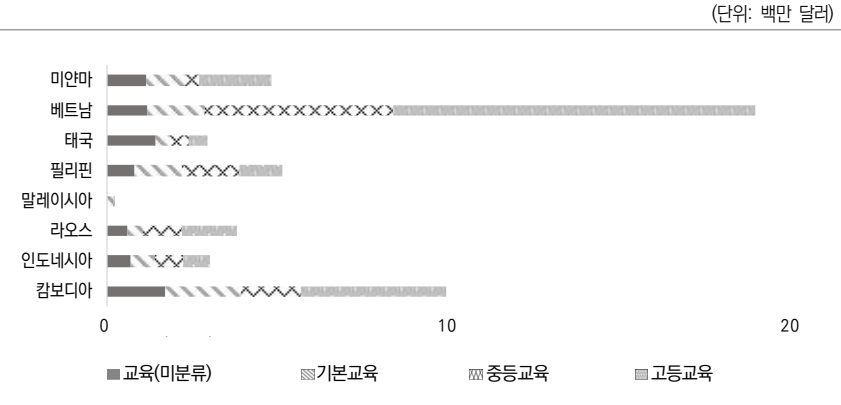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교육 분야를 위해 연평균 4,886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26.4%)과 직업교육(19.5%)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해왔다. 아세안 회원국 중 고등교육으로의 지원 비중이 높은 수원국은 하위 중소득국인 베트남(55.9%)과 최빈국에 포함되는 캄보디아(42.8%), 미얀마(43.9%), 라오스(42.1%)였다. 국제사회가 주로 아세안 최빈국의 고등교육보다 기본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지원해온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그림 3-8 참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직업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3-15, 표 3-20 참고). 2019년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수원국 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고자 대학 육성, 교육환경 개선 및 직업훈련 분야를 위해 중점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 치중된

정책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¹⁸⁴⁾

그림 3-15. 우리나라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수원국별(2013~17년 평균)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20. 우리나라의 대아세안(8개국) 교육 ODA 지원 현황: 세부분야별(2013~1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대분류	내용	지원 금액	비중
교육 (미분류)	교육 정책 및 행정 관리	1.17	2.4
	교육 시설 및 훈련	5.33	10.9
	교원 훈련	1.24	2.5
	교육 연구	0.04	0.1
	소계(A)	7.78	15.9
기본 교육	초등교육	4.84	9.9
	청소년 및 성인의 기본생활 기술	1.64	3.4
	유아교육	1.55	3.2
	소계(B)	8.03	16.4

184)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표 3-20. 계속

대분류	내용	지원 금액	비중
중등 교육	중등교육	2.37	4.9
	직업교육	9.54	19.5
	소계(C)	11.91	24.4
고등 교육	고등교육	12.91	26.4
	고급 기술 및 관리 훈련	8.23	16.8
	소계(D)	21.14	43.3
총 합계: (A) + (B) + (C) + (D)		48.86	100.0

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주요 정책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은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총 24개 중점협력국에 아세안 6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을 포함하였다.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 지원 지침인 「국별협력전략(CPS)」를 살펴본 결과, 사회 인프라는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 중점협력 분야로 선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21 참고).¹⁸⁵⁾

185)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관계부처 합동(2016a, 2016b, 2016c, 2016d, 2016e), 「베트남 국별협력전략」; 「인도네시아 국별협력전략」; 「캄보디아 국별협력전략」; 「필리핀 국별협력전략」; 「라오스 국별협력전략」(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3).

표 3-21. 우리나라의 아세안 중점협력국 국별협력전략(CPS): 사회 인프라

(단위: 억 원)

수원국	중점협력 분야 내 사회 인프라 관련 내용		
	분야	'19년 예산	지원방향
베트남	물 관리 및 보건위생	73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농촌종합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보건위생 증진 지원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및 산업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보건 서비스 강화 지원
	교육	15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 각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 기관 설립
인도네시아	물 관리	43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수도 공급체계 및 수질 개선 역량 강화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캄보디아	물 관리 및 보건위생	30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자원 관리역량 및 물 관련 재해대응 강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 지원
	교육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및 학생의 교육 접근성 강화 '소녀를 위한 더 나은 삶' 구상 지원
필리핀	물 관리 및 보건위생	393.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 없는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강화 아동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도시지역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및 수처리 체계 구축
라오스	물 관리 및 보건위생	41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 보급률 국가개발목표 달성 및 안전한 식수 접근 비율 증대 건강한 삶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교육	4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교육 강화를 통한 산업인재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 중·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고급 인적자원개발
합계		2,500.86	

주: 미얀마의 경우 중점협력국이나 4대 중점협력 분야에 사회 인프라의 주요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제외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a, 2016b, 2016c, 2016d, 2016e), 「베트남 국별협력전략」, p. 12; 「인도네시아 국별협력전략」, p. 11; 「캄보디아 국별협력전략」, p. 13; 「필리핀 국별협력전략」, p. 13; 「라오스 국별협력전략」, p. 12(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3);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pp. 149~19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위의 사업들은 총 41개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표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¹⁸⁶⁾은 각각 양자 ODA 예산의 28.9%, 45.8%를 사용 중이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1.7%)와 교육부(2.7%)도 사회 인프라 관련 지원사업에 동참하고 있다.¹⁸⁷⁾ KOICA의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 내 주요 분야¹⁸⁸⁾에도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 인프라 하위 분야가 모두 포함되었다. 그중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수원국의 식수 및 위생환경 개선, 모자청소년보건서비스 향상,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물과 위생 서비스 지원, 수자원 관리, 물 관련 재해관리 역량 강화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기초학력 증진과 교사역량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및 기관 개발을 위해 지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¹⁸⁹⁾

한·아세안 관계의 중요성은 2017년부터 시작된 신남방정책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위 정책은 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 지역 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에 이행하고자 하는 50개 중점사업을 발표하였다. 사람, 상생번영 및 평화 공동체 중 주로 사람공동체 산하 추진과제에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제시되었다. 특히 △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 △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 신남방국가의 삶의 질 개선 지원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현지 ICT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었다(표 3-22 참고).¹⁹⁰⁾ KOICA 또한 신남방정책에 발맞추고자 2019년 5월 ‘코이카 신남방 ODA 이행계획 비전 선포식’을 개최

186)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87)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p. 4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188) 주요 분야에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물, 교통 및 에너지가 포함되며, 범분야의 경우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혁신을 제시함.

189) KOICA(2017), pp. 6~15, pp 24~27.

19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4. 30), pp. 12~30(검색일: 2019. 10. 14).

하며 고등교육 등 5개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¹⁹¹⁾

표 3-22.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중점 사업계획(안)(2019년)」: 사회 인프라

추진과제	사회 인프라 관련 내용	담당부처
1. PEOPLE: 사람공동체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	- 장학생 초청 규모 확대 교원 박사학위 취득 지원, GKS 등 장학·연수 사업 규모 확대 - 공무원, 전문가 교류 확대 단기초청연수 확대, 수요맞춤형 연수 제공, 교육센터 운영 등 - 기술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교원 및 정책담당자 연수, 한·베트남 산업기술대학 지원 등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 공공행정 협력 확대(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한·아세안 공공행정혁신전람회 개최 등	행정안전부
삶의 질 개선 지원	- 환경 및 보건위생 역량 강화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 지원, 소외계층 모자보건 향상, 물 관리 역량강화 등	외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 PROSPERITY: 번영공동체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역량 제고	- ICT 협력 거점 구축 및 기술인력 양성 현지 ICT 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KOREA IT 스쿨 운영 등 - 첨단 보건의료 기술협력 확대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말레이시아 로이병원 한국형 재활 병원 설립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3. PEACE: 평화공동체		
-	- 해당 없음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4. 30), pp. 12~30(검색일: 2019. 10. 14).

3) 분야별 추진사업

현재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 EDCF를 비롯하여 유관 부처(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표 3-23]과 같다. 아세안에서 추진되는 보건의료 ODA 사업은 주로 양자 협력을

191) KOICA 온라인 보도자료(2019. 5. 17, 검색일: 2019. 10. 14).

기반으로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병원, 의과대학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차관(유상 원조) 형태로 지원 중이며, 그중 2건의 사업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KOICA 등이 추진하는 컨설팅 사업(무상 원조)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KOICA는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을 통해 보건 분야의 핵심프로그램 중 하나로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건강증진 등을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현재 진행 중인 대아세안 사업 중 감염성 질병에 특화된 사업은 1건¹⁹²⁾에 불과하였다.¹⁹³⁾

반면 교육 분야에서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협력사업을 위해 상당 규모의 예산을 사용 중이다. 교육부의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¹⁹⁴⁾ 사업, 교원해외파견사업,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사업’은 한·아세안 정상회의(2009)를 계기로 시작된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에서 비롯하였다. 2011년부터 4개의 CLMV 거점대학¹⁹⁵⁾을 선정한 후 사이버대학 설립에 필요한 이러닝 기반 구축을 지원하였고,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러닝 역량 강화, 공용플랫폼 운영 개선, 한·아세안 네트워크 형성·운영,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¹⁹⁶⁾ ‘CAMPUS Asia-AIMS¹⁹⁷⁾ 사업(2016~2021)’을 통해서도 한·아세안 학부생 간 교류를 강화하고 아세안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EAMEO의 RIHED와 협업하고 있다. 총 8개국 69개 대학이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도 사

192) 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보건복지부).

193)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pp. 28~35, pp. 149~19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KOICA(2017), p. 15.

194) Global Korea Scholarship.

195) 캄보디아공과대학, 라오스국립대학, 미얀마 기술대학,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

196)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pp. 58~63, pp. 149~19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 pp. 383~39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30).

197)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Asi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업단 범위를 확대(198)하였다. 199)

표 3-23. 우리나라의 대아세안(6개국) 사회 인프라 관련 주요 사업

(단위: 억 원)

분야	사업명	원조 방식	담당부처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건 의료	라오스 국립의과대학 건립사업	차관	기획재정부(EDCF)	1,107.10	2019~24
	(연계) 라오스 국립의과대학 운영 관리 컨설팅 사업	무상원조	보건복지부	20.00	2019~22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사업	차관	기획재정부(EDCF)	703.37	2018~24
	(연계) 라오스 의료기기 관리운영 체계 강화사업	무상원조	보건복지부	50.00	2018~22
	(연계) 라오스 경찰병원 역량강화 사업	무상원조	외교부 (KOICA 포함)	56.00	2014~23
	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	무상원조	보건복지부	33.00	2019~23
	라오스 통합모자보건 및 소아과 의료인력 교육사업	무상원조	외교부 (KOICA 포함)	107.35	2013~19
	베트남 하이퐁 종합병원 건립사업	차관	기획재정부(EDCF)	1,028.00	2019~22
	베트남 땀띠성 종합병원 건립사업	차관		678.08	2018~21
	베트남 렌강 및 횡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	차관		832.51	2017~22
	캄보디아 다운트림 개발사업	차관		505.33	2016~22
	캄보디아 타크마유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화사업	차관		691.32	2018~22
	캄보디아 건강형평성 및 질 향상 프로그램	무상원조	외교부 (KOICA 포함)	80.50	2017~19
	캄보디아 앙동병원 이비인후과(ENT) 역량강화사업	무상원조		90.40	2018~22
	캄보디아 동북부 소외지역 모자보건 프로그램	무상원조		79.10	2019~22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차관	기획재정부(EDCF)	2,249.49	2013~22
	필리핀 의료 포괄수거제 도입, 의약품 시장 및 공공 병원관리시스템 개선	무상원조	기획재정부(KSP)	4.20	2019~20
	필리핀 의료보험 제도개선	무상원조	외교부 (KOICA 포함)	5.59	2018~20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도시빈곤지역 건강증진 사업	무상원조	보건복지부	10.00	2019~21
	인도네시아 카리안템 건설사업	차관	기획재정부(EDCF)	1,095.20	2013~20

198) 기참여 대학(강원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전남대학교, 한남대학교), 2019년 신규 참여 대학(경상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경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199)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9), 「2019년 CAMPUS Asia - AIMS 사업 추진계획(안)」, p. 3,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30); CAMPUS ASIA AIMS 홈페이지, http://aims.campusasia.kr/bbs/content.php?co_id=university_1(검색일: 2019. 10. 30).

표 3-23. 계속

분야	사업명	원조 방식	담당부처	총사업비	사업기간
교육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	차관	기획재정부(EDCF)	486.95	2016~20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 사업	무상원조	외교부	392.00	2014~20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무상원조	(KOICA 포함)	57.50	2017~20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	무상원조	외교부 (KOICA 포함)	129.38	2015~19
	(연계) K-Lab 설치 및 운영	무상원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10	2016~20
	ASEAN 직업기술교육훈련 협력강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무상원조	고용노동부	2.00	2019
	(연계) 한·ILO 협력사업	무상원조		34.30	2018~20
	CAMPUS Asia - AIMS*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무상원조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90 (2019년)	2016~21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무상원조	교육부	83.28	2014~22 (국별 상이)
	아세안대학 이라닝 지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무상원조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3.96	2012~20
	교육정보화지원/교원연수, 인프라지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무상원조	교육부	4.10	2019
	교원해외파견사업*	무상원조	교육부	305.70	2019~23
	GKS 사업(정착 지원)*	무상원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5,431.58	1967~계속

주: 별표(*)로 표기된 사업은 아세안 외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시행 중인 사업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pp. 28~35, pp. 58~63, pp. 149~19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9), 「2019년 CAMPUS Asia - AIMS 사업 추진계획(안)」, p. 1,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30) 토대로 저자 정리.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²⁰⁰⁾을 통해서도 교육 관련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아세안 공동체와 한·아세안 협력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총 8,800만 달러를 위 기금에 제공하였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17~2020)」를 통해 교육, 문화 및 환경 분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부터 공여 규모도 연간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200) ASEAN-ROK Cooperation Fund.

확대하였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직업훈련, 인적교류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표 3-24 참고). 「한·메콩 행동계획(2017~20)」에서 제시한 주요 협력 분야에도 인적자원개발이 포함된 바 있어 앞으로 교육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²⁰¹⁾

표 3-24.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교육사업(2016~18년)

분야	사업명
교육	ASEAN 여성의 ICT 리터러시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임파워먼트 전략
	해양 기름유출대비 방제교육훈련사업
	ASEAN 새마을 지역개발 전문가 양성 석사학위과정 운영사업
	ASEAN 공무원 인적자원개발 과정
	차세대 여성학 연구자 교육 및 교류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협력사업
	한·ASEAN 포럼 및 한·ASEAN 대학원생 연구 세미나
	한·ASEAN 대학생 교류사업
	ASEAN 어린이담당사서 연수
	아세안 여성을 위한 K-Beauty 직업교육훈련사업
	한·ASEAN 화상(火傷) 의료진 역량강화 사업
	한·ASEAN 농업기술 교류 및 개선 협력 시스템 구축사업
	ASEAN 지역 수산양식 공동 개발방안 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사업
	ASEAN 적정기술 개발 파트너십 및 기술이전 사업
	디지털 리터러시와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ASEAN 여성의 경제력 향상
	ASEAN Youth in Action - Learning Express
	고등공학교육 강화

자료: 외교부(2016), p. 75; 외교부(2018a), p. 79.

민관 협력사업이나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주도하는 민관 협력사업에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이하 CTS),²⁰²⁾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하 IBS)²⁰³⁾ 등이 대표적이다. CTS와 IBS 모두 공개

201) 외교부(2016), p. 75; 외교부(2018a), p. 49, pp. 75~79; ASEAN Secretariat(2017g), “New 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 (AKCF) 2017–2020,”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

202)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203) Inclusive Business Solution.

모집을 통해 민간 기업이 개도국을 위해 제안한 다년도(2~5년) 사업을 선별한 후 KOICA가 재원을 분담하여 제공하며, 이후의 추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CTS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이 주도한 사업에 대해 매칭 펀드를 제공하며, 아세안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의료기기, 질병 진단 키트, 정수처리장치 등을 제공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한 바 있다. IBS는 개도국 내 저소득층이 직면한 교육, 농촌개발, 보건 등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기업들을 지원 중이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현대드림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청소년 직업기술교육 사업 등이 있다.²⁰⁴⁾ 이러한 활동들은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 및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20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198개 기업)들은 2017년 평균 137억 6,000만 원 상당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교육 연관 분야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²⁰⁵⁾ 대표적인 예로 효성은 ‘미소원정대’ 사업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베트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구강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²⁰⁶⁾ 삼성전자 또한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IT 교육을 실시하는 ‘테크 인스티튜트’를 운영하며 현지의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있다.²⁰⁷⁾ 현대건설은 ‘H-CONTECH’를 통해 베트남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공공시설 개선을 추진하였다(표 3-25 참고).²⁰⁸⁾

204) KOICA 홈페이지, 「2017~2018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브로셔」, p. 4, pp. 12~21; 「2018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브로셔」, pp. 4~5, p. 7; 현대자동차그룹(2019), 「현대자동차그룹 사회공헌 활동 백서 2018」, pp. 22~23(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9).

205) 전국경제인연합회(2019), 「2018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pp. 1~2,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9).

206) *Ibid.*, p. 18; 효성그룹(2016), 「2016 효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p. 58~5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9).

207) 문진영 외(2019), pp. 279~280에서 재인용.

208) 현대자동차그룹(2019), 「현대자동차그룹 사회공헌활동 백서 2018」, p. 4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9).

표 3-25. 우리나라의 민관 및 민간 차원의 대아세안 사회 인프라 사업 예시

구분	사업명	참여자	활동사항
민관 협력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KOICA,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해결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특징) Seed 1(기술개발), Seed 2(시범사업), Seed 3(현지적용)별 차등 지원 - (현황) 2015~17년 총 33개 사업 진행 - (대아세안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비츠코리아: 저가 초소형 검안기기 보급 힐세리온: 휴대용 초음파 활용 글로리바이오택: 휴대용 에이즈 검사기기 Lab SD: 포괄적 실명예방 플랫폼 개발 스트라티오코리아: 휴대용 항말라리아제 진위 판별 시스템 문: 안전한 주사기 자동처리기기 개발 루티헬스: 당뇨망막병증 관리 솔루션 LS테크놀로지: 저가형 고도정수처리 장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FS)	KOICA,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개도국 내 저소득층 지원 - (특징) 민간파트너 기업 유형별 분담금 차등 지급(대상자별 KOICA 분담 비율 - 대기업: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사회적 기업: 80%) - (현황) 2010~17년 84개 기업과 협력을 통해 28개국 대상 총 110개 사업 진행 - (대아세안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자동차그룹: 청소년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현대드림센터 개소
민간 활동	미소원정대 (글로벌 의료 봉사)	효성그룹	베트남 주민 대상 건강검진(1,149명), 진료(9,447명), 임신, 출산, 구강 교육 등 교육수료(1,950명) 등
	테크 인스티튜트 (기술교육)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IT 교육 실시를 통한 현지 취업인력 양성 등
	H-CONTECH (해외기술봉사단)	현대건설	베트남 대학생 및 건설 관계자를 위한 기술·문화교류 세미나 개최, 적정기술 아이디어 공모 추진 및 지원 등

자료: KOICA 홈페이지, 「2017~2018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브로셔」, pp. 4~5, p. 10, pp. 12~21; 「2018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FS) 브로셔」, pp. 3~4, p. 7, p. 16; KOICA CTS 홈페이지, 「CTS 파트너」, http://koica.go.kr/cts_kr/2434/subview.do; 효성그룹(2016), 「2016 효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p. 58~59; 현대자동차그룹(2019), 「현대자동차그룹 사회공헌활동 백서 2018」, p. 49(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9); 문진영 외(2019), pp. 279~280에서 재인용.

나. 평가 및 시사점

지금까지 아세안은 ASCC 청사진을 토대로 회원국 간 사회 인프라 개발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자 노력해왔다. 회원국 간 장관회의를 비롯하여 분야별 세부계획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세부 과제들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로 분야에서는 역내에서 유행한 감염성 질병뿐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의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생활방식, 질병 등 각종 위협에의 대응, 보건 시스템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식품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등을 추진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을 통해 회원국들의 아세안에 대한 인식과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ICT 활용 교육, TVET 등을 활용하여 인적자원 역량을 개발하고 고등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아세안이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하고 있는 자체적인 노력은 환경 등 타 분야와도 밀접히 연계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절과 3절에서는 사회 인프라의 주요 영역인 보건의료와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범유행성 질병(HIV/AIDS 등)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공여국은 보건의료 ODA 정책 추진에 있어 다년간 축적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글로벌 보건안보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발협력 정책을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이행하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의 수요, 자국의 강점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 있어 아세안 지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며 최대 규모의 ODA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사업 목적에 적합한 일부 회원국이나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 활동을 이행해왔다는 차이를 보였다. OECD는 동료 평가를 통해 일본이 건강, 재난 관리 등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²⁰⁹⁾ 미국 또한 G7, G20, UN 등 소속 기구를 활용하여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대규모 연합들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²¹⁰⁾

교육 분야의 경우 독일과 EU 차원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교육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고등교육과 TVET를 위해 재원을 집중해왔다. 아세안 대학들이 전공 중심의 대학교육체계를 구축하도록 자문하고, 직업교육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자국의 우수한 역량과 수원국의 개발 수요가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자 사업뿐 아니라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RECOTVET, Fit for School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이를 다른 개도국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오랜 역사와 탄탄한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단체들도 독립된 주체로서 활약하며 아세안의 역량 배양에 기여 중이다. EU의 경우 대아세안 ODA 규모는 크지 않으나 아세안에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시켜온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EU·아세안 SHARE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아세안은 이러한 EU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²¹¹⁾

209) OECD(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Japan 2014," p.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3).

210) OECD(2016), "The DAC's ma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Extract from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16,"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4).

211) ASEAN Secretariat(2018h), "Joint Statement of The Tenth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 p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1).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회원국들은 소득 그룹별로 보건의로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가장 취약한 영역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아세안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세안은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 중이며, 주요국(기관)들도 양자 협력과는 별도로 아세안을 위한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상 회담 의제 중 하나로 사회 인프라 이슈를 포함하여 다루거나 아세안+3 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고, 대부분이 양자 협력 위주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대화채널을 통해 아세안 차원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만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중점협력 분야를 새롭게 모색하고, 민간과 다자 기구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사회 인프라 협력 특징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의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병원 설립 등 현지의 보건의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식수 공급 및 위생, 건강 서비스, 감염성 질병 관리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국제사회와는 대조적이다. 소수의 사업만이 '보건 인프라 구축(차관 제공) + 관리 역량 강화 지원/기자재 제공(무상원조)' 형태로 진행 중이었다.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UHC 의제의 경우 우리나라 또한 경쟁우위를 가지는 분야로 평가되나 포럼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의제에 대해 아세안과 어떻게 협력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이며, 역내에서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고등교육과 TVET를 위해 집중 지원하는 국가는 독일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

회가 최빈국을 지원하는 경우 고등교육보다 기본교육이나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 비중이 더 높으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위주의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는 초·중등교육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득그룹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의 사례와 같이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인적교류 사업을 지원하며 ASCC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AMPUS Asia-AIMS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에게 인문사회학 위주의 전공 코스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단기 초청연수 지원 비중도 높다.²¹²⁾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동남아학 또는 아세안학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관련 협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내적 장애 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12) 2019 한·아세안 학술 컨퍼런스(교육부, 한-아세안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동 개최) 발표자 및 패널 토론 내용(2019. 8. 28,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홀).

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문화적 가치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공동의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에 있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²¹³⁾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 분석, 아세안 협력전략과 관련한 국제사회와 한국 간의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의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 가능성 등 공급자 측면의 정책보다는 아세안 차원에서의 협력 수요에 대응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아세안의 정체성 확립, 상호 연대와 통합 강화라는 문화예술의 가치실현과 관련한 지원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시장으로서 서보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파트너 혹은 지원대상으로서 아세안의 가치에 주목하고, 문화 교류 및 ODA 등을 통한 아세안 공동체 차원의 문화예술 전략에 대한 정책 기여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아세안의 현황

가. 아세안 통합전략: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문화예술 분야

1)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과 주요 협의체별 논의 동향

실제 문화라는 수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에서 문화라는 영역에 대한 핵심적 가치는 아세안 공동체의 ‘역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CC 청사

213)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진 2025에서 문화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개방적이고 적응적인 아세안’,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대응력 있는 아세안’ 등의 실현을 위한 전략에 집중되어 있다. 각 목표별 세부 실행전략 중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표 4-1]과 같으며, 이에 따르면 문화의 가치는 회원국 간 상호이해 확대, 대내적인 아세안 공동체 가치의 공유 및 확대, 대외적인 아세안 홍보, 창조적 산업으로서의 가치 발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4-1. ASCC 청사진 2025의 문화예술 분야 관련 실행전략

구분	하부 목표	실행전략
E. 역동성 (Dynamic)	E.1. 개방적이고 적응적인 아세안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와 관련한 관용, 상호이해 및 존중의 문화를 증진 • 예술제, 영화제 및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아세안을 외부 세계에 홍보 • 글로벌 차원의 사회문화포럼 및 각종 협상 등에서 아세안 공통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력 • 아세안 역내와 외부로의 인적교류 및 이동 확대 •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 개발 • 아세안 Day, 아세안 Flag, 아세안 Anthem 및 아세안 Emblem 등 하나의 아세안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포괄적 협력 추진
	E.2.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대응 력 있는 아세안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창의적 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지원 • 식품안전, 의약품, 전통문화재, 생물다양성 기반 제품 등의 영역에서 지적재산권 등록을 촉진하고 아세안 내에서의 협력과 이행을 강화

자료: ASEAN Secretariat(2016b), pp. 18-20.

또한 현재 ASCC 산하의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장관급 협의체로는 아세안 문화예술장관회의(AMCA: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 이하 AMCA)와 함께 미디어 분야를 포괄하는 아세안 정보장관회의(AMRI: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이하 AMRI)를 포함할 수 있다. 두 장관회의는 각각 문화·예술 분야, 정보·미디어 분야에 대

한 아세안 회원국 및 역외 대화상대국(한국, 중국, 일본) 간 협력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개최된 제8차 AMCA의 경우 아세안 차원의 예방문화(the Culture of Prevention)에 대한 지지와 이행의지 확인, 아세안 문화도시(족자 카르타)의 선정 및 지원, 아세안 문화예술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Culture and Arts)의 성과 평가 등이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더불어 중국, 일본, 한국 등 3개 대화상대국과는 주로 문화교류, 창조산업, 문화유산관리, 인적자원 개발 부문의 협력 증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²¹⁴⁾

같은 해(2018) 개최된 제14차 AMRI에서는 아세안 통신마스터플랜의 성과 평가 및 차기 마스터플랜(2018~2025)의 승인,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오디오-영상 분야의 공동제작 프레임워크 채택,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 육성, 페이크 뉴스 관련 협력 등이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AMRI 또한 중국, 일본, 한국 등 3개 대화상대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과 차세대 방송기술,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 개선, 언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²¹⁵⁾

2) 아세안의 문화예술분야 관련 주요 전략계획

가) 「아세안 문화예술전략계획 2016~2025」

아세안 문화예술전략의 가치는 ASCC 청사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역내 개인들 간의 공통의 정체성 확립, 이를 통한 연대와 통합의 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실제 아세안 문화예술전략이 밝히고 있는 전략 목표는 문화, 예술, 전통 등의 수단을 통해 아세안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역내 문화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²¹⁶⁾

214) ASEAN Secretariat(2018a), pp. 2-4.

215) ASEAN Secretariat(2018c), pp 2-4.

216) ASEAN Secretariat(2016c), p. 3.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세안 문화예술전략계획 2016~2025」가 제시하고 있는 여섯 가지 핵심전략과 우선적인 실행 분야는 [표 4-2]와 같다. 첫 번째 전략은 아세안 공동체의 역사·문화예술·전통 등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 등 아세안의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아세안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역내의 문화다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문화재에 대한 동등한 접근 가능성 및 문화의 포용성·지속가능발전 지원가능성의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아세안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네 번째 전략은 아세안 역내의 혁신 및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창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문화유산 등의 관리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연계 및 토론 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략은 아세안 이 글로벌 공동체의 선도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표 4-2. 「아세안 문화예술 전략계획 2016~2025」의 핵심전략 및 실행계획

핵심전략	실행계획
아세안 정체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페스티벌, 포럼, 전시회 등 정기적인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 정부관료, 민간, 비정부기관, 학계 차원의 파트너십 등 아세안 공동체 인식 증진 프로그램 지원 • 도시화, 지역통합에 따른 세계화 등 글로벌 주제에 대한 아세안 연구 지원 • 아세안의 유산, 문화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멀티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촉진 • 언어적 전통의 문서화 및 일반대중의 접근성 개선 • 유산의 보존·기록, 홍보에 젊은 세대의 참여 촉진 • 아세안 문화의 독창성·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도제 제도 등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전통적·현대적 아세안 예술의 홍보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증대 지원

표 4-2. 계속

핵심전략	실행계획
역내 문화적 연결고리 강조 및 아세안의 문화 다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측면에서 아세안의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강조를 위한 대화채널 활성화 학교 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등의 요소 포함 상호이해, 평화적 공존, 사회적 변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문화를 주류화(mainstream)
포용적·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의 문화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의 문화 활용 등에 대한 로드맵 구축 포용적 사회로의 발전, 빈곤 감소, 지속가능발전 등과 문화의 연결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지원 아세안 시민의 문화적 소양 제고 지속가능발전의 한 축으로서 문화적 요소를 고려 문화유산의 위함원화 및 관리에 대한 이니셔티브, 재해대비 계획 등 수립 재해 피해 문화유산에 대한 긴급대응 메커니즘 구축 지원 기타 무형유산의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협력
혁신 및 경제 개발 기여 측면에서 창조산업의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지역문화를 활용한 문화 관련 제품의 개발 지원 아세안 회원국의 문화제품에 대한 공동마케팅 행사 지원 역내 문화창조산업을 위한 기금 지원 메커니즘(재원조달 기구, 벤처 펀드, 지역 경쟁 기금 등) 조직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및 여성 기업가 육성 지원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산업에서의 역내 협력 기술이전, 역량 강화, 디자인 개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인적자원 및 훈련의 중심지로의 육성 문화제품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력 영화스튜디오 및 복원/보관소 등 시설 공유에 대한 지역협력 타당성 조사 역내 문화제품의 공동 생산 및 국경 간 유통 지원 품질 및 마케팅 전략과 관련한 우수 업체 발굴·포상 역내 관광 분야 협력 제고
정책입안자, 전문가 및 실무자,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연계 및 토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관과 학계 간 네트워크 구축, 학생 및 교사의 상호 교류 촉진 예술인 간 정기적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최 출판물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예술가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무·유형 유산과 관련한 역내 연계·협력 필요성 환기 기록보관소 및 기록 관리와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가 공유 등 지역 간 협력 촉진 신진 아티스트의 지원 및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개발 역내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협력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사업 활성화

표 4-2. 계속

핵심전략	실행계획
아세안이 글로벌 공동체의 선도적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의 역할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지역 단위의 문화협의체에서 아세안 공통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협력 • 아세안 예술 페스티벌, 과거유산 프로그램, 영화 페스티벌 등 아세안 차원의 이벤트 조직 • 아세안 City of Culture, 아세안 Best of Performing Arts, Heritage in ASEAN, 아세안-Dialogue Partner Cultural Exchange Year, 아세안 및 다른 국가의 Cultural Center 등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역내·외 개인교류 확대 • 역외 지역에서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예술, 유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UNESCO, SEAMEO, 일본 국제교류기회(Japan Foundation) 등과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예술, 문화, 문학, 아카이브 자료, 문화예술교육, 문화연구소, 창조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세안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과의 방문·교류 촉진 • 문화정책, 문화기업, 문화제품·활동의 개발 및 마케팅 등에 대하여 정책결정권자를 중심으로 아세안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과의 대화 지속 • 문화보존, 문화예술교육, 문화행사 및 축제, 창조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각국의 문화기관 차원의 협력 추진

자료: ASEAN Secretariat(2016c), pp. 4-12.

나) 「아세안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2016~2025」

정보 및 미디어 분야는 통신 계획, 멀티미디어 공동제작 및 방송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역내의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인식 확대 및 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아세안의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²¹⁷⁾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2016~2025」는 아세안의 정보·미디어 부문 개발 및 협력에 대한 10년간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계획은 여타 아세안 공동체 추진과 관련한 통신 수요에 대한 지원, 아세안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 및 이니셔티브의 홍보, 아세안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영향 등을 전파하기 위한 각 개인 간 플랫폼을 활용한 통신 등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217) ASEAN Secretariat(2016e), p. 1.

표 4-3. 「아세안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2016~2025」의 주요 내용

핵심전략	실행계획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 증진 및 역내 협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내의 정보·미디어 분야 실태 연구 • 아세안 회원국 및 기타 대화상대국 간의 조정·협력 관련 협정 및 액션플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 아세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미디어의 현지 언어 사용 등을 포함한 지역 이니셔티브 실행 • 국가 통신계획의 실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통신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각국 통신 전략의 개발 및 효과성 제고를 지원 •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PPP 이니셔티브 개발 • 아세안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 아세안의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아세안에 대한 대외적 존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
아세안 공동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육 분야 협력 • 다양한 정보접근 플랫폼(도서관, 박물관, 커뮤니티 센터) 개선을 위한 관련 모범사례 공유,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실행 • 여성·청소년·일반대중의 참여 활성화 및 아세안에 대한 지식 확대를 위한 멀티미디어 플랫폼 및 이벤트의 활용 •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공유하고 아세안의 인적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행 및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 간 공동 제작을 지원 • 아세안 회원국 및 기타 지역의 영화, 공연 예술 및 음악 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아이디어 교류 및 협력 촉진 • 아세안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젊은 아세안 미디어 관계자 및 제작자의 역량,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개발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의사소통 수단 으로서 정보 및 통신기술의 적 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통합, 연대성, 다양성 및 단일성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새로운 매체를 적극 활용 • 기술개발 촉진, 정보 및 미디어 분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른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 • 디지털 콘텐츠 창작 및 제작, 아세안 콘텐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ICT 앱 개발 촉진 •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아세안 통합 콘텐츠와 연계
아세안 콘텐츠 의 공동 개발 을 위한 전문 가 협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의 스토리를 잘 반영하고 전파하기 위한 전문성과 지식 향상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의 미디어 전문가 간 협력 촉진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실행 • 콘텐츠의 다양성 증대와 정보·미디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역내 혁신 및 창조성 분야 지원 • 아세안 역내·외 다른 그룹 간 문화적 대화 촉진 • 아세안 관련 콘텐츠의 발전과 전파 등 성과에 대한 인정 및 보상

자료: ASEAN Secretariat(2016e), pp. 4-7.

다)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만 한정된 전략계획은 아니지만,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은 앞서 제시된 문화예술 및 미디어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의 8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뉴 미디어 및 콘텐츠’의 경우 2020 마스터플랜에 새롭게 포함된 부문으로, 개인의 참여와 성장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ICT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아세안 콘텐츠의 질과 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²¹⁸⁾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략의 방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 및 정부·복지 서비스의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해당 전략 및 실행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4]와 같다.²¹⁹⁾

표 4-4.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의 콘텐츠 관련 실행전략

구분	실행 방침	타겟 분야/프로젝트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발전 지원	아세안 차원의 새로운 미디어의 성장, 제작, 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ICT Award에 새로운 영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Media Content: 로컬콘텐츠의 창작과 관련하여 혁신적 접근전략이 인정되는 프로젝트 및 제품 - Community Content: 커뮤니티 참여 및 지자체 서비스를 지원하는 콘텐츠와 앱(App) • 규제, 책임 있는 온라인 관행 등의 문제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소셜미디어 공급자 간 대화채널 구축 • 영어 및 아세안 각국 언어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언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플러그인 개발을 지원, 아세안 웹사이트를 주요 아세안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로컬콘텐츠 개발·지원에 대한 실행지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콘텐츠 개발에 대한 모범실행사례의 문서화 및 관련 지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적인 콘텐츠 개발 환경 조성 - 공동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소프트웨어의 로컬 언어 패키지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 로컬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 로컬기업의 콘텐츠 현지화 및 유통 지원

218) ASEAN Secretariat(2015c), p. 16.

219) ASEAN Secretariat(2015c), pp. 24-25.

표 4-4. 계속

구분	실행 방침	타겟 분야/프로젝트
아 세 안 디 지 털 사회 육성	e-서비스 전송의 모범 사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모범사례 및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e-서비스 전송의 최소 요건에 대한 프레임워크 개발 - 통상적인 e-정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 - ASEAN 회원국 내에서의 성공사례 상호 활용
	가이드라인, 교육 및 지 원 프로그램 을 통한 사 이버 복지의 발전·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웰니스(Cyber Wellness) 관련 교육, 변호(advocacy), 참여(engagement) 관련 모델 프로그래밍 개발 - 취약그룹(어린이, 청년층, 장애인) 대상의 온라인 위험에 대한 가이드 개발 및 인식 개선 - 온라인상의 새로운 위협과 위험(예: 잘못된 정보의 확산, 사이버 자경주의, 개인 및 기업 정보의 과다 제공 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적응력 개선 - 해당 아세안 회원국 정부기관에 '위해 콘텐츠' 및 온라인 남용 실태를 보고하기 위한 통신채널 등 온라인 아동보호 수단의 개발 - 사이버 웰니스와 인터넷 남용에 대한 온라인 포럼 구축 및 의견 교환을 위한 협업 - 정책·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mindshare) 개선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트렌드와 과제에 대해 국가간 정보 및 데이터 공유

자료: ASEAN Secretariat(2015c), pp. 24-25.

나. 문화예술 분야 기반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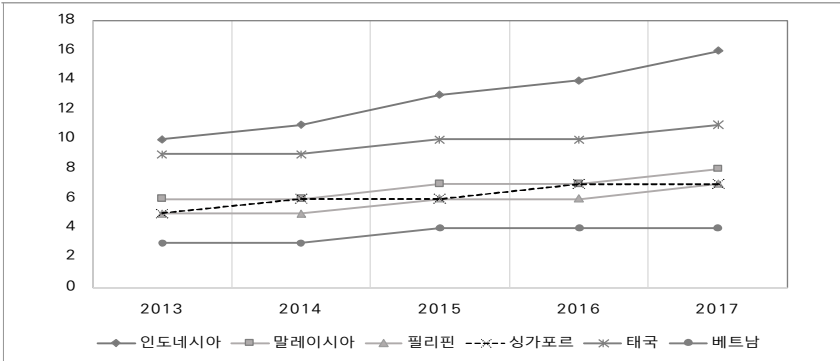
1) 문화예술 시장 여건

콘텐츠진흥원(2018)의 추정에 따르면, 아세안 주요국의 문화콘텐츠²²⁰⁾ 시장은 최근 비교적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세안 내에서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3년 100억 달러에서 2017년 16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5%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 기간 동안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연평균 약 10%,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연평균 8.3%로 역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20)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로 정의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 산업과 유사한 의미와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Invest Korea(2015), p. 5.

그림 4-1. 아세안 주요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규모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콘텐츠진흥원(2018), p. 19.

콘텐츠 시장의 규모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광고, 방송, 출판, 지식정보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식정보와 캐릭터·라이선스 시장의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 출판시장의 규모는 작은 반면 지식정보 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아세안 주요국의 분야별 콘텐츠 시장 규모(2017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출판	3,509	1,563	652	1,208	2,524	371
만화	9	3	2	7	36	2
음악	207	75	74	83	204	45
게임	457	401	318	405	910	455
영화	335	231	201	202	325	139
애니메이션	20	14	13	13	17	19
방송	5,788	1,875	3,222	942	2,416	1,040
광고	8,531	1,873	3,393	1,616	3,468	610
지식정보	3,391	2,484	1,587	2,497	3,112	1,761
캐릭터·라이선스	612	602	481	1,165	554	624

자료: 콘텐츠진흥원(2018), p. 24, p. 136, p. 209, p. 286, p. 377, p. 429, p. 430, p. 478, p. 562, p. 666, p. 743.

한편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수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순으로 높은 지원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동일 기간 동안 개도국 전체의 ODA 중 문화예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7%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와 라오스를 제외하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4-6. 아세안 주요국의 문화예술 부문 개발협력 수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평균치	전체 ODA 대비 비중
캄보디아	0.880	1.877	2.322	0.894	1.257	1.446	0.19
인도네시아	3.108	5.277	3.226	1.747	1.158	2.903	0.11
라오스	0.914	1.425	2.840	1.903	0.540	1.524	0.38
말레이시아	0.445	0.680	0.648	0.444	0.299	0.503	1.02
미얀마	2.069	1.429	1.758	1.253	0.622	1.426	0.05
필리핀	1.273	1.463	1.583	1.489	0.858	1.333	0.09
태국	1.379	1.176	1.227	1.047	0.973	1.160	0.22
베트남	4.947	2.757	2.683	1.302	1.566	2.651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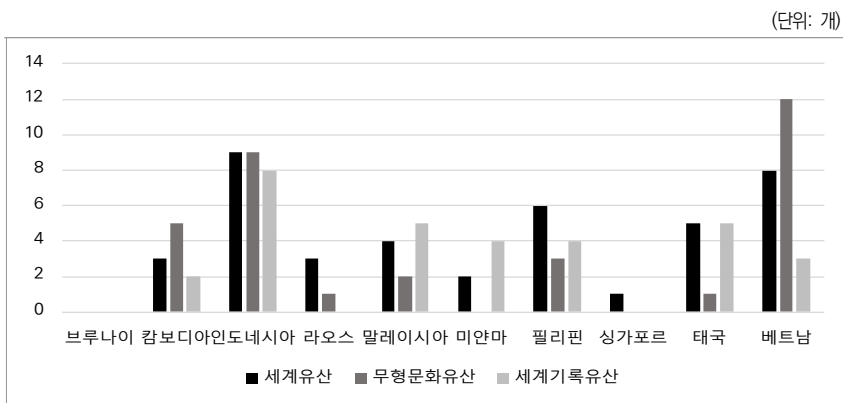
주: 2017년 시점 'Culture and recreation' 분야 약정액(Commitments) 기준.
 자료: OECD Stat, "Flow Based on Individual Project(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18).

2) 관련 인프라 여건

한 국가의 문화적 가치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국가적 차원의 문화자산 보유 여건에 대한 논의 시 비교적 자주 제시되는 기준으로 UNESCO의 문화유산 등재 현황을 들 수 있다. 현재 UNESCO 차원의 문화유산은 크게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등재 현황은 [그림 4-2]와 같다. 전체 문화유산 지정 건수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26건, 베트남이 23건으로 가장 많은 문화

유산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10여 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 아세안 회원국의 UNESCO 문화유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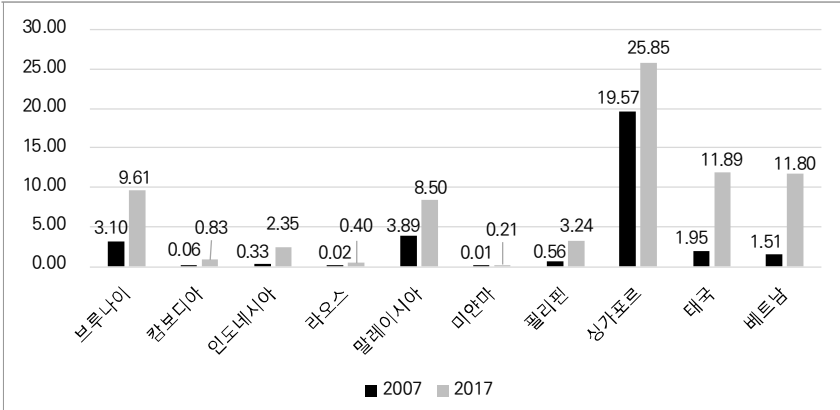


자료: UNESCO 세계유산, <http://whc.unesco.org/en/list/>(검색일: 2019. 7. 31); UNESCO 무형문화유산, <https://ich.unesco.org/en/lists>(검색일: 2019. 7. 31); UNESCO 세계기록유산, <https://en.unesco.org/programme/mow/register>(검색일: 2019. 7. 31).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물리적 인프라로는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정보통신 및 미디어 관련 인프라의 경우도 문화예술 분야의 확산·보급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 기반 인프라로 볼 수 있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비중 현황의 경우 전체적으로 싱가포르 외의 아세안 국가들은 낮은 보급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이 2007년 대비 2017년 가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인프라 여건이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실제 한국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보급률이 41.58%에 이르는 점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의 보급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국가별로 10년간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으로 보급률이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 아세안 10개국의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단위: 100명당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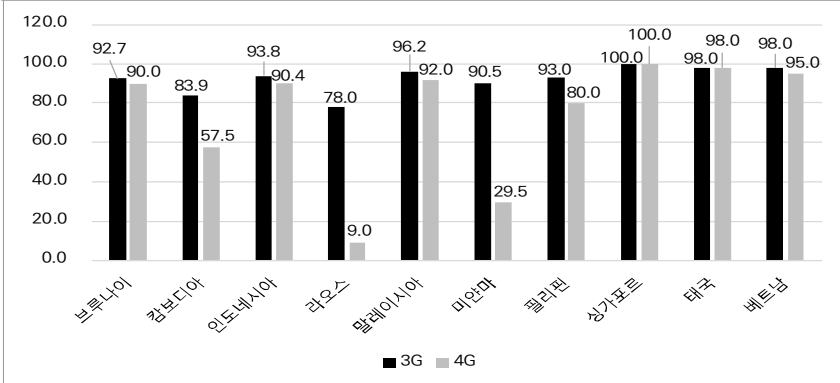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IT.NET.BBND.P2>(검색일: 2019. 7. 9).

또한 콘텐츠·미디어 활용의 주요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통신 보급률을 살펴보면, 3G에 비해 4G 보급률의 경우 아세안 국가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3G와 4G 보급률이 각각 78%와 9%에 그치고 있으며,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경우 4G 보급률이 각각 57.5%와 29.5%로, 90%에 이르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주요한 방송 매체로서 TV 보급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TV에 비해 디지털방송 및 IPTV의 보급비율의 국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경우 디지털방송 보급률이 90%를 넘고 있으나, 여타 국가들의 경우는 대부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아세안의 정보·미디어 장관회의에서 주요한 논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계획이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지체되고 있다.

그림 4-4. 아세안 10개국의 3G/4G 이동통신 보급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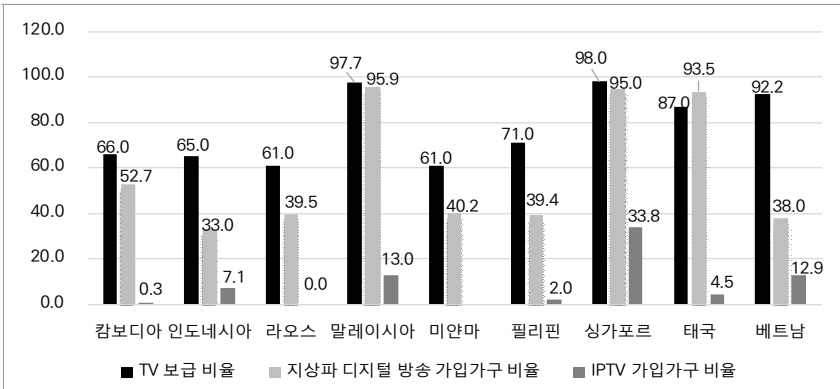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검색일: 2019. 7. 9).

그림 4-5. ASEAN 주요국의 주요 방송 인프라 비교

(단위: %)



주: 브루나이는 자료 미비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의 ASEAN 9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대한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자료 참고.

3) 주요국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사례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관련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진흥,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문화의 활용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산업²²¹⁾에 대한 장기 발전전략으로 ‘문화산업발전전략: 2020년까지, 비전 2030’을 제시하였다.²²²⁾ 동 발전전략은 UNESCO와 영국문화원의 지원하에 수립된 것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문화산업에 대한 베트남의 정책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전전략을 통해서 베트남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 거버넌스·투자·규제, 수요자·시장 개발, 클러스터·네트워크 강화, 국제적인 포지셔닝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²²³⁾

표 4-7. 베트남 ‘문화산업발전전략: 2020년까지, 비전 2030’ 실행전략

5대 중점분야	주요 내용
창조적 교육 및 기술	• 문화산업과 관련한 전문가, 기업가, 고급 기술인력 등의 육성
거버넌스, 투자 및 규제	• 문화 분야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 혁신에 개방적이고, 무역 및 고용 창출 등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발전
청중 및 시장 개발	• 베트남의 문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견고하고 역동적인 시장 구축 • 관련 기관·제작자를 위한 정책으로 문화 소비자들의 다양성 제고, 시장 성장 지원, 보다 효과적인 문화 활동 참여 유도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 주요 전략 분야에 대하여 역량 있는 최고 관리기관 설립 •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문화 업계 및 기관 간 커뮤니티 활성화
국제적인 포지셔닝	•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을 문화산업국가로 포지셔닝

자료: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2013), pp. 8-9.

221) 동 전략에서 규정하는 문화산업의 범위는 광고, 건축, 공예, 디자인, 영화 및 비디오, 출판, 소프트웨어 및 게임, 전자출판, 음악, 행위예술, 영상예술, TV 및 오디오 방송, 문화관광 등 13개 영역임.

222)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2013), p. 3.

223)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2013), pp. 8-9.

인도네시아는 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에서 문화 분야와 연관된 경제발전, 캐릭터 구축, 관광 분야의 잠재력, 문화 분야의 개인 역량 개발 등을 핵심목표로 포함하고 있다.²²⁴⁾ 또한 UNESCO 프로그램에의 대응, 문화 관련 개발 및 상호교류를 위한 방안으로 ① 문화유산의 보호, 홍보 및 전파 ② 무형 유산, 창조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창조성 및 다양성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²²⁵⁾

캄보디아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인 ‘문화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경제발전을 위한 문화산업의 활용가능성,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²⁶⁾ 또한 2009년 시작된 태국의 ‘창조산업(Creative Thailand)’ 정책은 경제성장동력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광, 음식, 출판, 방송, 영화, 비디오, 음악 등의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²²⁷⁾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제11차 Malaysian Plan(2016-2020)」 중 문화예술 분야 전략에서 문화적 다양성, 문화유산, 공동의 정체성 증진 등을 강조하였다.²²⁸⁾ 또한 이태주 외(2017)에 따르면, 미얀마, 필리핀 등 여타 아세안 국가의 경우도 국가 경제정책 등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부문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⁹⁾

224) UNESCO(2018a), p. 19.

225) *Ibid.*, p. 19.

226) 이태주 외(2017), p. 112.

227) 콘텐츠진흥원(2014), p. 557.

228) UNESCO(2018b), p. 12.

229) 이태주 외(2017), pp. 109~113.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본 절에서는 아세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협력 및 지원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사례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협력 및 지원 사례의 경우 향후 우리의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개선방안 도출 및 차별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혹은 정치안보, 외교 등의 측면에서 아세안의 중요도를 높게 보기 어렵고, 특히 양자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아세안에 대한 차별적 전략 등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UNESCO 등 다자적인 지원체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 및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가. 다자

다양한 국제기구 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다자협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기구로는 우선 UNESCO를 들 수 있다. UNESCO는 국제사회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이해 증진, 문화의 다양성 및 창의성 촉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²³⁰⁾ 이 중 대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는 활동이 앞서 언급한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보호 및 이해 증진과 관련한 사업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UNESCO는 국제 문화다양성기금(IFCD: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을 통해 개도국의 문화정책 개발, 인적역량 강화, 문화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또한 지속해오고 있다. 동 지원 프로그램 중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의 현황은 [표 4-8]과 같다.

23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programmes/culture/>(검색일: 2019. 8. 8).

표 4-8. UNESCO의 국제 문화다양성기금 중 아세안 회원국 지원 사례

(단위: 달러)

국가	프로젝트	사업기간	사업 규모
캄보디아	행위예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2015. 3 ~ 2017. 2	100,000
	캄보디아 미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예술인 협회 설립	2012. 2 ~ 2013. 2	81,341
인도네시아	시베루트(Siberut) 지역의 시청각산업 발전	2013. 4 ~ 2014. 7	99,982
라오스	유네스코 '2005 Convention' ¹⁾ 이행 세미나	2011. 4 ~ 2012. 4	5,000

주: 1) '2005 Convention'은 UNESCO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자료: UNESCO 국제 문화다양성기금, <https://en.unesco.org/creativity/ifcd/projects>(검색일: 2019. 8. 8).

한편 UN SDGs의 목표 4번 및 11번의 각 세부목표²³¹⁾²³²⁾에도 문화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면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펀드(SDG-F) 등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사업 지원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SDG-F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 중 문화와 관련된 사례는 '온두라스 루타 렌카 지역에 대한 문화·관광 지원' 1건뿐이지만²³³⁾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향후 아세안 등 여타 지역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세계은행, ADB 등 주요 지역개발은행 차원에서 각종 개발 프로젝트와 문화·관광 분야 등을 연계하는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다만 [표 4-9],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젝트들의 경우 단순히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된 지원보다는 대부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정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UN SDGs, "4. Quality Education,"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education/>(검색일: 2019. 8. 16).

232) "11.4.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UN SDG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검색일: 2019. 8. 16).

233) SDG-F, Programmes, <https://www.sdgfund.org/programmes>(검색일: 2019. 8. 16).

표 4-9. 세계은행의 문화·관광 분야 지원 프로젝트 사례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프로젝트명	사업 규모	승인 일자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관 및 생태관광 프로젝트	53.16	2019. 5. 30
캄보디아	생활수준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프로젝트의 연계(LEAP)	22.17	2017. 2. 24
인도네시아	국가 관광전략지역 통합인프라 개발(인도네시아 관광개발 프로젝트)	772.9	2018. 5. 30
베트남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3.3	2017. 11. 25
인도네시아	아다트(Adat) 및 지역 사회의 권리·경제 강화 프로젝트	6.32	2017. 3. 16

자료: World Bank, "Projects: Tourism," http://projects.worldbank.org/search?lang=en&searchTerm=§or_exact=YT(검색일: 2019. 8. 12); World Bank, "Projects: Culture," <http://projects.worldbank.org/search?lang=en&searchTerm=culture>(검색일: 2019. 8. 12).

표 4-10. ADB의 문화·관광 분야 지원 프로젝트 사례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프로젝트명	사업 규모	승인 일자
캄보디아	GMS: 메콩 관광개발 프로젝트	20.70	2002. 12. 12
베트남	GMS: 메콩 관광개발 프로젝트	12.20	2002. 12. 12
태국	염수새우 문화 개발 프로젝트	2.38	1986.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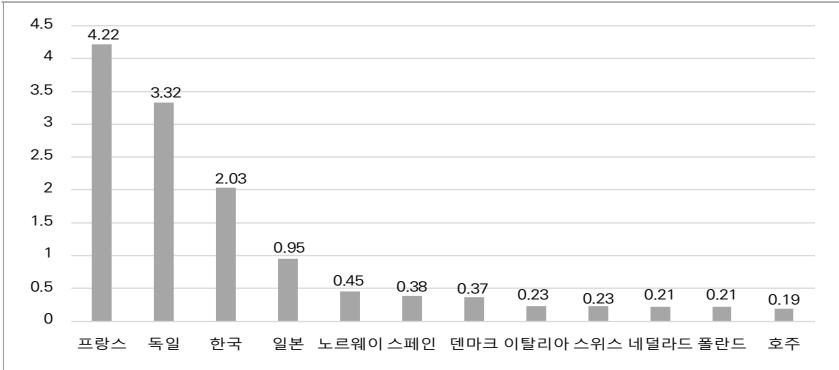
자료: ADB, "Projects: Culture," <https://www.adb.org/projects/country/cam/country/tha/country/vie?terms=culture>(검색일: 2019. 8. 12).

나. 양자

한편 본 절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대아세안 문화협력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 국가는 양자 간 상호 대화채널 구축 상황과 아세안에 대한 문화 ODA 지원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였다. 첫째로 현재 아세안의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주요 대화상대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으로, AMCA 및 AMRI 개최와 함께 이들 3개국과의 정례적인 협의 또한 진행하고 있다. 두번째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주요 DAC 회원국들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4-6]과 같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6. 주요 DAC 회원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부문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주: 'Culture and recreation' 분야 2013~17년 연평균 총지출액 기준.

자료: OECD Stat, "Flow Based on Individual Project(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18).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절에서는 중국, 일본, EU(프랑스, 독일)를 중심으로 아세안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협력정책의 추진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EU의 경우 아세안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선행사례로서 개별 국(프랑스, 독일)의 정책뿐 아니라 EU 차원의 정책에 대한 논의 또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별 정책 등의 검토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해당 국가와 아세안 간의 협력계획 등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각 국가별 대외협력 정책 및 주요 사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EU: 프랑스, 독일

EU는 아세안이 지향하는 지역통합의 선행사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개별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다만 현재 EU·아세안 차원에서 사회문화 분야 협력은 대체로 인력 및 지식 교류, 생물다양성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²³⁴⁾

234) EU Mission to ASEAN(2019), pp. 40-53.

한편 아세안과 EU 간의 문화예술 협력에 대한 기본적 방향은 「아세안·EU 2016~2020 작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계획의 ‘사회문화협력’ 부문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정책 관련 경험 및 전문가 교류, 아세안과 EU 간 문화적 이해와 인식도 제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EU는 회원국 간 통합적 문화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각국의 문화기관 간 네트워크인 EUNIC(EU National Institute for Culture)를 설립하여 문화 관련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UNIC는 특히 EU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한 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세계 각국에 100여 개에 이르는 협업 플랫폼인 ‘클러스터’를 설정하고, ‘EUNIC 클러스터 펀드’를 통해 각 클러스터의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²³⁵⁾ 현재 해당 펀드의 지원 사업 중 아세안 회원국과 관련한 프로젝트로는 ‘베트남: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베트남 번역가를 위한 교육(2019)’, ‘유럽의 봄 디자인: EUNIC 방콕(2018)’ 등 2건의 사례를 들 수 있다.²³⁶⁾

표 4-11. EUNIC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클러스터 펀드 지원 사례

사업명	기간	총 예산 (펀드 자원 규모)	EU 측 협력기관
베트남: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베트남 번역가를 위한 교육 (EUNIC 베트남)	2019. 1~12	2만 8,088유로 (1만 유로)	Institut français du Vietnam, Goethe-Institut, Embassy of Hungary, Wallonia Brussels Delegation, Embassy of Italy, Embassy of Spain
유럽의 봄 디자인 (EUNIC 방콕)	2018. 5. 30 ~ 6. 17	2만 1,000유로 (5,100유로)	French Embassy, Alliance française, Italian Embassy, Goethe-Institut, Portuguese Embassy, Spanish Embassy, British Council

자료: EUNIC, “Project: EUNIC Vietnam,” <https://www.eunicglobal.eu/projects/eunic-vietnam>(검색일: 2019. 8. 16); EUNIC, “Project: European Spring Design,” <https://www.eunicglobal.eu/projects/european-spring-design>(검색일: 2019. 8. 16).

235) EUNIC, “Cluster,” <https://www.eunicglobal.eu/clusters#cluster-what-is>(검색일: 2019. 8. 16).

236) EUNIC, “Project,” <https://www.eunicglobal.eu/projects>(검색일: 2019. 8. 16).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이른바 문화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는 문화라는 수단의 정책적 활용이 아직은 국가 단위의 홍보 및 영향력 제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세안과의 문화 부문 협력 및 지원 정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도 문화의 외교적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가로서, 일찍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대외홍보 및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²³⁷⁾ 프랑스는 외교부의 주도하에 이른바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현대 창작물 전파, 프랑스 문화홍보 및 문화다양성 구현, 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²³⁸⁾ 또한 이러한 문화 외교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프랑스문화원(Institut français)과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²³⁹⁾ 등이 전 세계 각 지역에 설립·운영되고 있다.²⁴⁰⁾ 이 중 특히 프랑스문화원은 다양한 부처 및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컨트롤타워 기관이다.²⁴¹⁾

237) 박경택(2016), p. 9; 전동진(2012), p. 461; 외교부, 「공공외교 소개: 주요국의 공공외교」,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main_case.jsp(검색일: 2019. 10. 21).

238) France Diplomatie, “Cultural Diplomacy,”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cultural-diplomacy/>(검색일: 2019. 10. 21).

239)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는 전 세계에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1883년 파리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137개국에 800개 이상의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France Diplomatie, “France’s overseas cultural network,”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cultural-diplomacy/france-s-overseas-cultural-network/>(검색일: 2019. 10. 21).

240) France Diplomatie, “France’s overseas cultural network,”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cultural-diplomacy/france-s-overseas-cultural-network/>(검색일: 2019. 10. 21).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교류활동 또한 국가별로 설립된 프랑스 문화원,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대체로 문화교류사업, 프랑스어 교육, 유학 및 교육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 지역 내 프랑스문화원 설립 실태를 살펴보면, 프랑스어 교육 등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에 비교적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식민지 경험 등으로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들과의 유대관계 지속 및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아세안 지역 프랑스문화원 설립 현황

국가	도시
캄보디아	바탐방, 프놈펜
인도네시아	반둥, 자카르타 슬라탄, 자카르타 푸삿,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라오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미얀마	양곤
싱가포르	싱가포르
베트남	다낭, 하노이, 호치민, 후에

자료: Institut francais, <https://www.institutfrancais.com/en/carte-lieux-evenements-culturels>(검색일: 2019. 10. 18).

프랑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ODA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2017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분야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보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교류 및 인력 파견 등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태주 외(2017) 또한 프랑스의 문화 관련 ODA는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문화 발전보다는 문화 분야의 전문기술을 전파하는 데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²⁴²⁾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1997년

241) 잔동진(2012), p. 470.

242) 이태주 외(2017), p. 19.

UNESCO와의 ‘France-UNESCO Cooperation Agreement(CFU)’ 체결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프랑스의 전문성을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에 전파하는 기술 및 재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⁴³⁾²⁴⁴⁾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아세안 지역에 대한 CFU 지원사업 현황은 [표 4-14]의 내용과 같다.

표 4-13. 프랑스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ODA 사례(2017년 기준)

세부사업명	대상국가	사업 유형	예산 (백만 달러)
인프라 및 기타 사회서비스: 문화 및 레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프로젝트	0.0158
알리앙스 프랑세즈 직원-개발활동 지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력 파견	0.9398
문화 분야의 전문가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력 파견	0.2629
대학협력 관련 전문가 교류	베트남	기타 기술 지원	0.6144
EAF 활동(문화 분야)에 대한 기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기타 기술 지원	0.5641
기타 해외기관 기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미얀마	기타 기술 지원	0.3412
FSPI(The French solidarity fund for innovative projects)	캄보디아	기타 기술 지원	0.2818
정책 파트너십을 위한 물자 등 지원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미얀마	기타 기술 지원	0.1223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물자 등 지원(T3)(UO Poste)	필리핀(6건), 베트남(2건)	기타 기술 지원	0.0323
프랑스문화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기타 기술 지원	0.1741
SCAC(Le Service de Coopération et d'Action Culturelle) 개척 관련 비용	라오스	기타 기술 지원	0.0056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말레이시아(7건), 태국	기타 기술 지원	0.0152
지역별 알리앙스 프랑세즈 지원(문화 분야)	말레이시아, 필리핀	기타 기술 지원	0.0686
학위 지원 프로그램	태국	학위	0.0381

주: ‘Culture and recreation’ 분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ECD Stat, “Flow Based on Individual Project(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18).

243) 연구원, 역사학자, 고고학자, 건축가, 큐레이터, 도시계획자, 조경사, 복원전문가, 법률 전문가, 경제학자, NGO 등의 전문가 및 관련 기술을 지원함.
 244) UNESCO, “France-UNESCO Cooperation Agreement(CFU),” <https://whc.unesco.org/en/cfu> (검색일: 2019. 10. 21).

표 4-14. 아세안에 대한 CFU 지원 사례

국가	사업명(사업기간)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국제협력 10주년 기념(2013년) •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신전의 비문에 대한 예비 지원(2005~2008년)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Champasak 문화경관 내의 Vat Phou 및 관련 고대 정착지 보존 및 관리지원 (2009~2012년) • 라오스 루앙프라방 타운의 개선, 개발 및 보호를 위한 기술협력(1995~2015년)
태국	• 태국 '인간방콕(Humanize Bangkok)' 프로젝트(1999년)
베트남	• 베트남의 Huế 기념비 및 역사도시 단지의 복원 및 활성화(1999~2008년)

자료: UNESCO, "France-UNESCO Cooperation Agreement(CFU)," <https://whc.unesco.org/en/cfu>(검색일: 2019. 10. 21).

나) 독일

독일의 경우 외교부 총괄하에서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 독일학교 류처, 알렉산더 훔볼트 재단 등 여러 민간기관의 주도로 다양한 공공·문화외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²⁴⁵⁾ 특히 독일문화원은 독일어 전파 및 국제문화협력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외교의 전담 실행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98개국 157개 독일문화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²⁴⁶⁾ 독일문화원은 1951년 독일아카데미(Deutsche Akademie)의 후속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1959년 독일의 여러 국외 문화기관을 통합함으로써 독일의 문화외교 실행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²⁴⁷⁾ 아세안 지역의 경우는 현재 7개국에 9개²⁴⁸⁾ 독일문화원이 설립되어 해당 지역의 문화교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타 국가별 문화원 운영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세안 지역 내 독일문화원의 역할 또한 독일어의 보급(교육 및 시험 등), 문화전파 및 교류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45) 외교부, 「공공외교 소개: 주요국의 공공외교」,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main_case.jsp(검색일: 2019. 10. 21).

246) Goethe Insitutut, "Locations," <https://www.goethe.de/en/wwt.html>(검색일: 2019. 10. 21).

247) 윤광일, 김새미, 신혜선(2017), p. 56.

248) 캄보디아 1개, 인도네시아 2개, 말레이시아 1개, 필리핀 1개, 싱가포르 1개, 태국 1개, 베트남 2개.

표 4-15. 아세안 지역 독일문화원 설립 현황

국가	도시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필리핀	마닐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자료: Goethe Insitut, "Locations," <https://www.goethe.de/en/wwt.html>(검색일: 2019. 10. 21).

그 밖에 문화교류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대외문화교류연구소(IFA: Institut for Auslandsbeziehungen)’, ‘세계문화의 집(HKW: Haus der Kulturen der Welt)’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²⁴⁹⁾ ‘대외문화교류연구소’는 독일의 대외 문화협력 지원기관으로 각종 전시회, 컨퍼런스 등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외무부와 함께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²⁵⁰⁾ ‘세계문화의 집’은 베를린에 설립되어 비 유럽 국가들의 예술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⁵¹⁾

한편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프랑스 다음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ODA 지원 규모가 큰 국가이다. 그런데 2017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아세안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달리 특히 문화유산 복원 및 보존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협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또한 실행하고 있다.

249) 윤광일, 김새미, 신혜선(2017), pp. 56~57.

250) Institut for Auslandsbeziehungen, "Organisation," <https://www.ifa.de/en/organisation/> (검색일: 2019. 10. 21).

251) 윤광일, 김새미, 신혜선(2017), p. 57.

표 4-16. 독일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ODA 사례(2017년 기준)

세부사업명	대상국가	사업 유형	예산 (백만 달러)
퐁티엔 사원 보존	베트남	프로젝트	0.0597
시민사회 파트너와의 교육협력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기타 기술지원	0.3866
보로부르 사원 보존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0.1127
비엔티엔 시사켓 사원의 벽화 보존	라오스	프로젝트	0.0361
바간 사원의 벽화 보존	미얀마	프로젝트	0.0114
바간 사원(벽화)의 복구 준비	미얀마	기타 기술지원	0.0052
교육 분야의 독일 · 프랑스 공동 프로젝트	태국	기타 기술지원	0.0192
앙코르 사원 보존	캄보디아	기타 기술지원	0.1895
아유타야의 왓 라차부라나 사원의 복원	태국	기타 기술지원	0.0762
바간 사원 보존	미얀마	기타 기술지원	0.0612
만달레이의 우베인 다리 복원 준비	미얀마	기타 기술지원	0.0558
바간 사원의 복원(벽돌 보존 관련) 준비	미얀마	기타 기술지원	0.0107
북부 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화	태국	기타 기술지원	0.1341

주: 'Culture and recreation' 분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ECD Stat, "Flow Based on Individual Project(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18\).](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18).)

2) 중국

중국은 이른바 ‘문화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등 문화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편, 대외협력 및 외교정책 측면에서도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⁵²⁾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문화발전행동계획(2016~2020)」을 통해 중국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아세안은 중국의 대외 문화교류협력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²⁵³⁾ 동 계획에서는 문화교류협력 체계로서 중국 · 아세안 문화부 장관회의의 개최, 일대일로 국가로서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중국문화센터 건립 등을 중요계획으로 제시하였다.²⁵⁴⁾

252) 문진영 외(2019), pp. 66~77 참고.

253) 위의 책, pp. 75~76.

254) 위의 책, p. 76.

더불어 중국은 2015년 아세안과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 우호관계, 상호호혜적 협력, 선린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아세안·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성명 실행계획(2016~2020)’을 채택한 바 있다.²⁵⁵⁾ 동 실행계획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은 정부정책·예술·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교류협력, 문화산업의 발전 및 상호시장 발전, 중·아세안 센터, 중·아세안 문화포럼 등 기존 협력 채널의 활성화, 인적자원개발 및 전문가 교류에 대한 지원 등이다.²⁵⁶⁾

한편 중국의 대외 문화예술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해외 네트워크로는 해외중국문화센터와 공자학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우선 해외중국문화센터는 중국문화의 해외전파 및 상호 문화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 35개가 설립되었으며, 중국의 외교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현지 문화교류, 교육연수, 정보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⁵⁷⁾ 아세안 지역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에 문화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자학원은 해외 중국어 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중국문화의 효과적인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²⁵⁸⁾ 2004년 운영기관인 국가한반(国家汉办) 설립 이래 전 세계적으로 그 숫자를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²⁵⁹⁾ 2019년 9월 30일 현재 전 세계에 총 535개 공자

255) ASEAN Secretariat,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ASEAN-China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2016-2020),” <https://www.asean.org/storage/images/2015/November/27th-summit/ASEAN-China%20POA%20%202016-2020.pdf> (검색일: 2019. 10. 21).

256) *Ibid.*

257) 中国文化中心, 「中国文化中心介绍」, <http://cn.cccweb.org/portal/pubinfo/001002011/20150210/0c793f933c364d4c90f8fffb54771d00.html>(검색일: 2019. 10. 21), 재인용: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2018), p. 16.

258) 「공자학원 기본법령 및 부칙」에 따르면, 공자학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중국어 교육, 중국어 교사 훈련 및 관련 교재 제공, HSK 시험 및 중국어 교사 자격시험 실시, 중국의 교육 및 문화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서비스, 중국과 해외국가 간 언어 및 문화교류활동 실시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Hanban),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Confucius Institutes,” http://english.hanban.org/node_7880.htm(검색일: 2019. 10. 21).

259)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Hanban), “About us: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 http://english.hanban.org/node_7716.htm(검색일: 2019. 10. 21).

학원, 1134개 공자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이 중 아세안 지역에는 40개 공자학원과 18개 공자학당이 설립·운영 중이다.²⁶⁰⁾

표 4-17. 아세안 지역의 중국 공자학원·공자학당 설립 현황

국가	공자학원 수	공자학당 수
캄보디아	2	-
인도네시아	8	-
라오스	2	1
말레이시아	5	1
미얀마	-	3
필리핀	5	-
싱가포르	1	2
태국	16	11
베트남	1	-

자료: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Hanban), “About Confucius Institute/Classroom,” http://english.hanban.org/node_10971.htm(검색일: 2019. 10. 21).

또한 중국은 2011년 특히 아세안 지역과의 무역·투자, 교육,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아세안과 합의에 따라 자국 내에 중국·아세안 센터를 설립하였다.²⁶¹⁾ 중국·아세안 센터는 센터 내 교육문화관광국을 통해 양 지역 간 각종 문화교류 및 관련 연구 활동, 관광 진흥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²⁶²⁾

더불어 정부의 영역은 아니나 중국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문화·인적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화인화교 네트워크이다. 전 세계 화인화교의 70% 이상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²⁶³⁾ 이러한 아세안 지역 내 화인화교 네트워크는 경제적 측면뿐만

260)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Hanban), “About Confucius Institute/Classroom,” http://english.hanban.org/node_10971.htm(검색일: 2019. 10. 21).

261) 中国—东盟中心(중국-아세안 센터), 「中国-东盟关系」, http://www.asean-china-center.org/2019-05/28/c_13356849.htm(검색일: 2019. 10. 21).

262) ASEAN-China Center, “Our Organization,” http://www.asean-china-center.org/english/2010-06/23/c_13364828_2.htm(검색일: 2019. 10. 21).

아니라 중국의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고 교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전후 군국주의적인 국가 이미지의 변화 등을 목적으로 문화를 외교 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특히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는 1977년 ‘후쿠다 독트린’ 발표를 계기로 적극적인 문화교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²⁶⁴⁾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은 주로 외무성, 문부과학성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문화의 소개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인적교류 및 일본어의 해외 보급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⁶⁵⁾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은 외무성 산하에 문화교류 전담기관인 국제교류 기금을 설립하여, 각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언어·대화 등 3개 영역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²⁶⁶⁾ 특히 2019년 현재 전 세계 25개 거점 중 아세안 지역 내 총 8개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²⁶⁷⁾ 2014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상호 문화교류를 전담하기 위해 아시아 센터를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였다.²⁶⁸⁾

표 4-18. 아세안 지역의 일본 국제교류기금 설립 현황

국가	도시	국가	도시
캄보디아	프놈펜	미얀마	양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라오스	비엔티엔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하노이

자료: Japan Foundation, “JF Worldwide,” <https://www.jpf.go.jp/e/world/index.html>(검색일: 2019. 10. 21).

263) 庄国土(2011), pp. 13~14, 재인용: 문진영 외(2019), p. 82.
264)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2018), p. 5.
265) 위의 책, p. 8.
266) Japan Foundation, “Three Fields,” <https://www.jpf.go.jp/e/project/index.html>(검색일: 2019. 10. 21), 재인용: 문진영 외(2019), p. 33.
267) Japan Foundation, “JF Worldwide,” <https://www.jpf.go.jp/e/world/index.html>(검색일: 2019. 10. 21).
268) Asia Center 홈페이지, <https://jfac.jp/en/>(검색일: 2019. 10. 21), 재인용: 문진영 외(2019), p. 34.

또한 일본은 1981년 아세안 회원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무역·투자 확대, 관광 및 인적교류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일본·아세안 센터(ASEAN-Japan Centre)를 설립하였으며,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⁶⁹⁾ 유사한 성격의 중국·아세안 센터, 한국·아세안센터가 2000년대 후반에 설립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아세안 지역의 외교적 가치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아세안 지역의 최대 ODA 공여국 중 하나일뿐 아니라²⁷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 ODA에도 프랑스, 독일, 한국 다음으로 아세안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예술 분야 ODA 지원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일반 문화무상자금협력(Cultural Grant Assistance)’, ‘풀뿌리 문화무상자금협력(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Grassroots Projects)’ 사업을 들 수 있다.²⁷¹⁾²⁷²⁾ 전체적으로 그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일본어 교육지원 분야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9. 일본의 대아세안 문화 ODA(문화무상자금협력)

(단위: 백만 엔)

구분	승인 연도	사업명(계약체결일)	국가	공여한도액
일반 문화무상 자금협력	2016	국민TV 방송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비계획(2016. 6. 17)	필리핀	38.2

269) ASEAN-Japan Center, “About AJC,” <https://www.asean.or.jp/en/ajc/>(검색일: 2019. 10. 21).
 270) 2016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양자 ODA 상위 10대 공여국에 아세안 회원국 중 5개국(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음. 外務省, 「ODA実績」,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jisseki.html>(검색일: 2019. 10. 21).
 271) 일본의 경우 OECD 데이터만으로는 문화 ODA와 관련한 프로젝트들의 주요 내용(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자국 정부(외무성)에서 제공하는 동 협력사업의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272) 이태주 외(2017), p. 21.

표 4-19. 계속

구분	승인 연도	사업명(계약체결일)	국가	공여한도액
풀뿌리 문화무상 자금협력	2018	필리핀 일본 역사박물관 개량·보수 계획(2018. 12. 26)	필리핀	10.0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 대학 온라인 일본어 학습 기자재 정비 계획(2019. 3. 18)	말레이시아	3.0
		논본 중등교육학교 일본어 센터 정비 계획(2019. 1. 15)	라오스	10.0
	2017	미얀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기 정비 계획(2018. 2. 2)	미얀마	9.8
	2016	교사양성학교 국제 여학 캠퍼스 일본어 교육환경 정비 계획(2017. 3. 28)	말레이시아	8.3

자료: 外務省, 「[ODA] 草の根文化無償資金協力: 平成30年度」,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page24_000020.html(검색일: 2019. 10. 25); 外務省, 「草の根文化無償資金協力: 平成29年度」,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page22_000891.html(검색일: 2019. 10. 25); 外務省, 「一般文化無償資金協力平成28年度 地域・国名別」,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page18_000209.html(검색일: 2019. 10. 25); 外務省, 「草の根文化無償資金協力: 平成30年度」,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page22_000370.html(검색일: 2019. 10. 25).

또한 일본은 ‘쿨 재팬’ 전략을 통해서 문화·콘텐츠 분야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또한 중점대상 시장의 하나로서 주목하고 있다. 다만 ‘쿨 재팬’ 전략의 경우 쌍방향 교류협력이 아닌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예술 교류협력사업과는 그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가. 협력 현황

한국은 최근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문화예술 차원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남방정책 3대 목표 중 하나인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16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쌍방향 문화교류'를 채택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를 아세안 협력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본 절에서는 AMCA 등 아세안 공동체 차원의 한·아세안 문화예술 분야 협력 논의와 더불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문화교류협력 추진 실태를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1) AMCA 관련

한국은 아세안과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의 채택을 통해 상호 교류협력의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문화예술 분야의 행동계획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상호교류, 인적자원개발, 문화예술 정책 수립, 문화유산의 보존 등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특히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등 한·아세안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전담 기관의 효과적 운영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과 아세안의 양자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아세안 협력 기금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한 지원수단의 하나이다. 실제로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 2017~2020」에 따라 3대 우선 협력 분야로 교육, 환경과 함께 문화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²⁷³⁾ 특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협력사례로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한·아세안 차세대 영화인재 육성사업(FLY)'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과 아세안의 영화 인재 육성을 위한 단기 영화제작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2019년 관련 행사가 11월 중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²⁷⁴⁾

273)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개요」, http://overseas.mofa.go.kr/asean-ko/wpge/m_21591/contents.do(검색일: 2019. 9. 18).

274) 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 <http://www.filmleadersincubator.asia/>(검색일: 2019. 9. 18).

표 4-20. 한·아세안 협력기금: 문화사업(2016~18년)

분야	사업명
문화	한·ASEAN 청소년 태권도 문화교류캠프
	ASEAN 차세대 영화 인재 육성사업 및 한·ASEAN 문화교류의 해 기념 FLY 영화제
	ASEAN 10개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Digital Heritage Contents 개발
	한·ASEAN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사업
	한·ASEAN 프론티어 포럼

자료: 외교부(2016), p. 75; 외교부(2018a), p. 79.

2)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 현황

한국 또한 우리의 문화적 자산과 역량 등을 국가의 외교 및 국제교류의 주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외교부가 발표한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도 ‘문화공공외교’ 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의 경우 최근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중요한 외교 및 교류협력의 파트너로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문화공공외교 사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아세안 지역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나, 단순히 아세안 지역에 한정된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2018년 공공외교 시행계획에 포함된 대표적인 아세안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한·아세안 언론인 교류사업, 아세안 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표 4-21.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중 문화 관련 추진전략 및 과제

구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풍부한 문화 자산을 활용한 국제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문화공공외교)	선진문화 국가로서의 매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기념 및 주요 외교계기 행사의 전략적 활용 • 재외공관별 현지 맞춤형 한국 알리기 • 한국 예술품 및 미래형 문화콘텐츠 소개 공간으로서 재외공관과 문화원 활용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대중문화)의 전략적 확산 • 전통·현대 한국문화의 세계적 전파 • 국제 스포츠 행사의 효과적 활용 • 미래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확산 지원 • 한식 홍보 강화 •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 제고

표 4-21. 계속

구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풍부한 문화 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문화공공외교)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 문화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글로벌 공헌

자료: 외교부(2017), pp. 21~29.

표 4-22. 2018년도 공공외교 시행계획 중 문화 관련 사업

담당부처	중점 추진과제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기념 및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 한국주간행사(Korea Week) •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사업 • K-Pop 월드 페스티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 지원 • 대사배 태권도 대회 • 한국관광 홍보활동 강화 •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 • 한·아세안 언론인 교류사업 • 친한(韓) 외국인 기반 구축사업
국제교류재단(K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문화예술행사 지원 • 재외공관 한국영화 상영 지원 • Korea Festival • 해외박물관 한국문화 활성화 • 해외단체 한국문화예술행사 지원 • 한국문화예술소개지 『KOREANA』 발간 • 재외공관 문화예술행사 지원(한식 글로벌 확산) • 전략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 KF글로벌센터 • 아세안 문화원 •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 해외박물관 한국전문가 육성 • 문화예술 활용 글로벌 공헌사업

표 4-22. 계속

담당부처	중점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기념 및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 한·영 상호교류의 해 사업 •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 우리나라 우수 예술인의 작품 입차를 통한 전시 • K-POP World Festival • 한국 영상 콘텐츠의 해외 홍보 및 위상 강화 • 재외문화원 우수 브랜드 사업 • 현대예술의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우리 현대문화 소개 • 주요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 전 세계 태권도 저변 확대 • 국가대표팀 간 또는 아마추어팀 간 친선경기 추진 •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 • 한식문화 교육사업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 제9회 한일축제한마당 • 한중일 예술제 • 해외 주요인사 초청 • 아시아예술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 국제 레지던시 운영 •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 문화 분야 ODA 추진

자료: 외교부(2018b), p. 20, p. 156, pp. 324~325.

현재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실행하는 주요 기관 및 단체로는 재외 한국문화원 및 이를 관리하는 해외문화홍보원, 세종학당,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재외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의 홍보 및 국제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 27개국에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특히 아세안 지역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에 설립되어 있다.²⁷⁵⁾ 각 문화원은 한국영화, K-pop, 한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전시, 공연,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²⁷⁶⁾ 세종학

275) 해외문화홍보원, 「기관 소개: 조직도」, <http://www.kocis.go.kr/division.do>(검색일: 2019. 10. 25).

276)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 활동」, 각 지역별 주요활동 내용 참고, <http://www.kocis.go.kr/>

당의 경우는 국외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전파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 60개국 180개소가 설립·운영 중이며, 현재 아세안 지역에는 7개국에 걸쳐 33개가 분포하고 있다.²⁷⁷⁾ 세종학당의 관리·운영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의 지정·운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원 전문성 강화사업 등을 통해 세종학당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한류포럼 개최 등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각종 문화교류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⁷⁸⁾ 다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물리적인 해외 거점을 설립하기보다는 지역별 통신원을 통해 문화교류의 창구이자 현지 문화산업 관련 정보 제공·공유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히 아세안 지역과 문화예술 분야 등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등의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한·아세안 센터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합의에 따라 2009년 설립되었으며, 아세안 10개국과 문화·관광 분야 교류 및 역량 개발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²⁷⁹⁾ 또한 아세안 문화원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아세안의 사회·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아세안과의 국제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아세안 문화에 대한 전시활동, 복합문화축제, 학술 네트워크 등 다양한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²⁸⁰⁾²⁸¹⁾

kocc.do?searchType=menu0023(검색일: 2019. 10. 25).

277) 세종학당재단, 「세계 곳곳 세종학당」, <https://www.ksif.or.kr/st/ksf/hkd/lochkd.do?menuNo=20101800>(검색일: 2019. 10. 25).

27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진흥원 활동」, http://kofice.or.kr/g100_introduction/g100_introduction_05.asp(검색일: 2019.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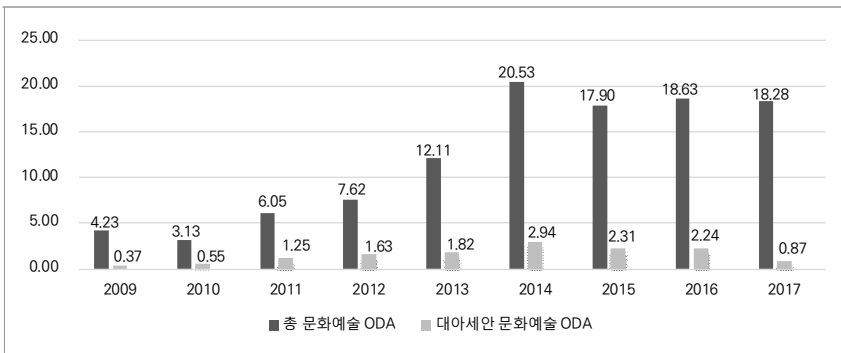
279) 한·아세안센터, 「한·아세안 센터 소개」, <https://www.aseankorea.org/kor/AKC/introduction.asp>(검색일: 2019. 10. 25).

280) 아세안문화원은 2014년 12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성과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음.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기관개요」, <https://www.ach.or.kr/ct/2/2/1>(검색일: 2019. 12. 25).

3) 문화예술 분야 ODA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한국의 ODA 사업은 KOICA,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비교적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림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ODA 또한 2017년에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2009년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림 4-7. 한국의 글로벌 및 대아세안 문화예술 분야 ODA 지원 추이



주: 'Culture and recreation' 분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ECD Stat, "Flow Based on Individual Project(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18).

실제 문화예술 분야 ODA 지원사업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KOICA의 경우 봉사단 파견을 비롯하여 박물관·미디어센터 등 건립, 교육설비 지원, 고대문서의 디지털화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²⁸²⁾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예술, 스포츠 분야의 인력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과 함께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²⁸³⁾ 문화재청의 경우는 주로 유네스코

281)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기관개요」, <https://www.ach.or.kr/ct/2/2/1/>(검색일: 2019. 12. 25).

282) OECD Stat, "Flow Based on Individual Project(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18); 관계부처 합동(2019), pp. 67~94.

283) OECD Stat, "Flow Based on Individual Project(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18); 관계부처 합동(2019), pp. 100~101.

와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등과 관련한 협력사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²⁸⁴⁾ 전체 사업 중 특히 아세안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사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지원사업(등재 준비, 목록 시스템 구축, 세계유산의 보존 등), ‘아시아예술계 인력 양성’ 등과 같은 인력개발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표 4-23.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ODA 예산 계획: 문화예술 · 관광 분야

(단위: 억 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2019 예산	구분
문화 예술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 강화	문화동반자사업	연수사업	8.24	양자 무상
	문화예술 ODA	문화예술교육 ODA(베트남)	연수사업	1.00	양자 무상
		문화예술교육 ODA(인도네시아)	연수사업	1.00	양자 무상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탄자니아)	프로젝트	1.89	양자 무상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몽골)	프로젝트	1.89	양자 무상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베트남)	프로젝트	1.89	양자 무상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	Art Major Asian(AMA) 장학사업	장학지원	10.89	양자 무상
		Art Major Faculty Explore K-Arts(AMFEK)	연수사업	0.80	양자 무상
	아시아 문화역량 강화 지원 (ODA) 사업	미얀마 문화예술 활용 역량 강화 지원사업	프로젝트	8.08	양자 무상
관광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 연수		연수사업	13.35	양자 무상
	지속가능관광 발전 지원사업	몽골 관광인력 역량 강화	연수사업	5.64	양자 무상
	관광외교 역량 강화	유엔 세계관광기구 분담금 및 OECD 관광위원회 자발적 기여금	다자	3.13	다자
기타	WIPO 신탁기금 지원		기타	10.72	다자성양자
	유네스코 협력		기타	4.81	다자성양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pp. 100~101.

284) OECD Stat, “Flow Based on Individual Project(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18); 관계부처 합동(2019), pp. 131~132.

표 4-24. 문화재청 2019년 ODA 예산 계획

(단위: 억 원)

세부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2019 예산	구분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라오스)	프로젝트	11.64	양자 무상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미얀마)	프로젝트	7.87	양자 무상
협력국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지원	협력국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지원(라오스)	기타 기술협력	0.50	양자 무상
	협력국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지원(우즈베키스탄)	기타 기술협력	0.50	양자 무상
협력국 유네스코 유산등재 역량 강화	협력국 유네스코 유산등재 역량 강화(아랍, 아프리카 지역)	기타 기술협력	0.90	양자 무상
문화재청-IUCN 아태 지역 주제연구사업 기여금		기타 기술협력	0.50	다자성양자
UNESCO 세계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기타	0.45	다자성양자
UNESCO 세계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기타	0.45	다자성양자
IUCN 의무분담금		기타	0.10	다자성양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pp. 131~132.

한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제1축인 ‘사람(People) 공동체’와 관련한 협력사업계획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아세안 국가들과 쌍방향 교류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사업은 크게 한국문화원 등 해외 거점 인프라 확충, 한류 및 각종 콘텐츠 분야의 교류 활성화, 아세안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 증진 관련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25. 신남방정책 중 문화예술 분야 협력사업 계획(2019년)

사업명	담당부처	사업내용
문화홍보 거점 인프라 확충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원 신설 추진 • 콘텐츠 분야 시장조사를 위한 마케터 파견 • 세종학당 추가 신규 지정
문화행사 계기 한류 확산	문체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정부 간 MoU 체결 •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계기 문화행사 추진

표 4-25. 계속

사업명	담당부처	사업내용
아세안 대상 콘텐츠 교류 활성화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영화교류 센터 설립 • 콘텐츠 장르별 마켓 참가 및 교류 추진 • K-콘텐츠 엑스포 개최 • 아세안 국가와의 저작권 교류 강화
아세안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 증진	외교부,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계 홍보 강화 • 한·ASEAN 센터·아세안 문화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연중 문화행사 실시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4. 30), pp. 13~14(검색일: 2019. 10. 25).

나. 평가 및 시사점

1) 아세안의 문화예술 협력·지원 수요 평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세안 회원국들은 ASCC 청사진 2025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분야, 정보 미디어, ICT 관련 전략계획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및 아세안의 정체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 차원의 문화예술 관련 전략계획 및 주요 의제, 개별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진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문화예술 협력 수요 측면에서의 기회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아세안 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특히 문화 활동 참여 확대 및 문화예술 접근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등과 관련한 협력·지원 수요의 확대가 기대된다. 아세안 지역은 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 측면에서도 역내 국가 혹은 개인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역내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극복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 이슈는 특히 「아세안 문화예술 전략 2016~2025」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아세안 정체성 증진’, ‘문화다양성 지원’ 등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동 전략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문화유산의 기록 및 보관,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문화유산의 위험관리 및 지속가능발

전과의 연계, 상호 대화채널 확대, 문화산업 관련 기금 지원 메커니즘 조직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대외협력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나아가 문화관광산업 육성 부문과의 연계 관련 인프라 및 정책 개발의 협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차원의 문화예술전략뿐만 아니라 각 국가 단위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이다. 또한 아세안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은 자국 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다양한 ODA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 및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아세안 지역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아세안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아세안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혁신 및 경제발전 측면의 기회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동력화를 도모하기에는 산업적·인적자원적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 이므로 대외적인 협력·지원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각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 및 미디어 플랫폼 개발, 문화 인프라 조성, 정부정책 개발 분야 등 문화예술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미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과 주요 선진국 간 문화예술 분야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교류협력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아세안 지역의 성장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지원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의 문화예술 협력정책 평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외교류 및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외교정책 등에서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교류 및 ODA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경제·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어,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 아세안의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및 지원정책의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일본, 프랑스 등은 이른바 문화외교 추진의 역사가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으며,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은 국내외 문화교류 거점의 수 혹은 전체적인 조직의 규모 측면에서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에도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은 문화원 등 문화교류 거점기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산 및 인력 등의 제약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쉽지 않으므로 국외 민간 업체 및 개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의 성과 역시 미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이래 문화외교 정책의 주 대상 지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으며, 일본은 국제교류기금 내에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사업 전담을 위한 아시아 센터를 별도로 설립·운영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문화교류 거점 설립 및 지원정책 등의 측면에서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에 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도 아세안에 집중되어 있는 화인화교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의 영향력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요소 중 하나이다. 물론 한국 또한 아세안에서 K-pop 등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특히 아세안 지역 내 한국 문화예술의 영향력을 지속화할 수 있는 차별적 협력정책 및 지원채널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아세안의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자적 문화예술 협력·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아세안 공동체라는 다자적 차원의 협력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문화예술전략계획에서는 문화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개별 국가 차원의 의제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역내 자금 지원 등 다자적 차원의 의제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류협력 및 문화예술 ODA 지원사업 등은 여전히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적 차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양자 차원의 교류협력 및 지원 분야의 경우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 및 경쟁으로 우리가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정책적 차별화를 위해서도 아세안 공동체 형성 등 다자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사회 및 대아세안 협력에 다양한 기관이 관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대외협력은 크게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및 KOICA 또한 ODA 지원사업의 수행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교류협력의 시행기구 또한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세종학당재단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아세안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관으로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 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 혹은 아세안과의 문화예술 교류협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처·기관이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 각 기관별 협력사업들이 우리나라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외교·대외협력 전략의 방향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기관 간 상호 연계 채널 및 콘트롤타워 기능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ASCC 비전하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은 기후변화, 재해로부터의 회복력, 생물 다양성, 지속가능한 도시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아세안의 환경 및 기후변화 지표를 살펴보고 환경, 재해관리, 기후변화 영역에서 아세안의 논의 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주력 분야로 재해관리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해양폐기물) 이상 세 가지 분야를 선정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진행 중인 주력 분야별 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아세안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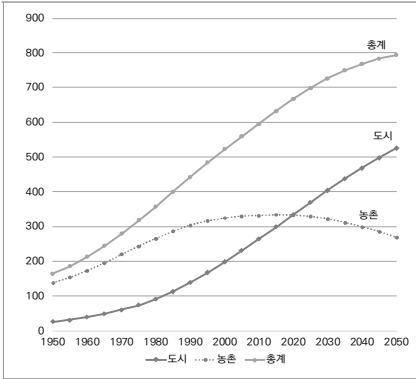
가. 아세안의 환경 관련 지표

지형적으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본토와 동남아 해안으로 구성된다. 아세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아세안의 자연환경은 식량, 물, 에너지 공급 외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의 원천을 제공한다. 그러나 경제발전, 빠른 속도의 도시화 및 높은 인구밀도, 부문별한 자원 채취, 적절한 규제와 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해 아세안의 자연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아세안의 빠른 인구 증가는 [그림 5-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아세안 회원국 전체에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농촌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50년경 아세안의 인구규모는 8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의 인구밀도는 [그림 5-2]와 같이 전 세계 평균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적절한 자원 배분 및 관리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세안의 경제개발, 도시화, 인구증가는 결국 각종 환경 및 기후 관련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림 5-1. 아세안의 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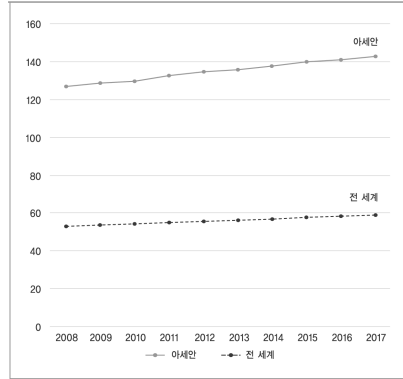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자료: United Nation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https://population.un.org/wup/Download/> (검색일: 2019. 8. 14).

그림 5-2. 아세안의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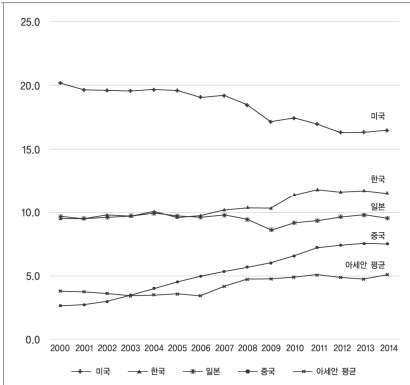
(단위: people per sq. km)



자료: ASEAN Secretariat(2018e), p. 4; World Bank, Population Density,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POP.DNST>(검색일: 2019. 8. 8).

그림 5-3. 아세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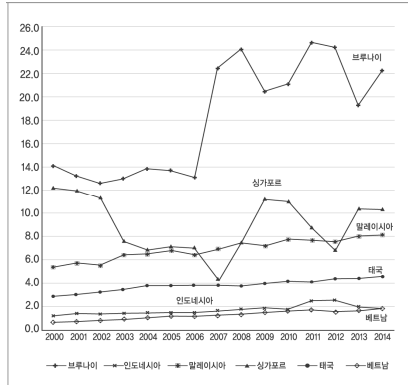
(단위: metric tones per capita)



자료: World Bank, CO2 Emission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atm.co2e.pc>(검색일: 2019. 8. 1).

그림 5-4. 아세안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metric tons per capita)



자료: World Bank, CO2 Emission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atm.co2e.pc>(검색일: 2019. 8. 1).

기후변화의 감축²⁸⁵⁾ 측면과 관련하여 아세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 보겠다. [그림 5-3]은 아세안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주요국의 배출량

285) 감축(mitigation)이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의미함.

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 5-4]는 아세안 회원국별 배출량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2014년 기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치는 5.1톤으로 2000년 3.8톤에 비해 34% 늘어났다. 아세안 평균 배출량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 간 배출량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4년 기준 브루나이의 배출량이 1인당 22.2톤인 반면, 라오스는 0.3톤에 불과했다. 싱가포르(10.3톤)와 말레이시아(8.1톤)도 아세안 평균을 상회하는 배출량을 기록했다.

아세안은 경제개발 수준과 지리적인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²⁸⁶⁾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이다. 동남아 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몬순, 태풍, 지진 및 쓰나미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후변화의 심화는 자연재해의 발생 정도와 빈도 등에 영향을 준다. ADB의 연구²⁸⁷⁾에 따르면 2100년경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연간 기온이 1900년 대비 2.5~4.8℃ 가량 오르고 해수면은 7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지리적 특징과 복합성으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취약하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도서국이 많다는 점과 내륙과 해양에서 국가간 접경지역이 많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국가간 전이되기 쉽고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또는 역내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²⁸⁸⁾ 이는 아세안 공동의 재해 대응과 관리를 강조하는 아세안의 정책기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발표되는 국가별 세계위험지수(WRI: World Risk Index)와 기후위험지수(CRI: Climate Risk Index)에서 조사된 아세안 회원국의 순위와 세부지표를 비교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286) 적응(adaptation)은 현재 또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취약층 지원, 사회적 인프라 구축, 예방적 조치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이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기후변화홍보포털, 저감과 적응, <https://www.gihoo.or.kr/portal/kr/change/reduction.do>(검색일: 2019. 8. 1).

287) ADB(2009), p. 62.

288) Indra Overland *et al.*(2017), p. 2.

WRI는 자연재해에 대한 노출 정도, 재해 대응 취약성, 재해로 인한 해를 겪을 가능성(민감성),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회구조 변화 역량 등 다섯 가지 항목과 그 하위 항목을 통해 산출된다(표 5-1 참고). 2018년 WRI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과 브루나이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높은 국가 3위와 8위를 기록했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도 비교적 높은 위험을 지닌 국가로 평가되었는데, 대부분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역량 부족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CRI는 보다 단순화된 수치를 토대로 산출되는데,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와 10만 명당 사망자 수, 재해로 인한 손실액, GDP 단위당 손실액 비중으로 구성된다.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경제적 피해를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WRI와 차이를 보인다. [표 5-2]와 같이 1998~2017년 아세안 회원국의 CRI를 비교한 결과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이 해당 기간 동안 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 아세안 회원국의 세계위험지수(WRI) 비교

국가	WRI 순위	WRI 지수	노출도	취약성	민감성	대응역량 부족	적응역량 부족
필리핀	3	25.14	49.94	50.33	29.58	81.57	39.83
브루나이	8	18.81	52.71	35.61	14.80	61.50	30.83
캄보디아	12	16.07	27.13	59.22	40.97	86.03	50.67
베트남	25	11.35	24.17	46.98	25.54	75.22	40.17
인도네시아	36	10.36	20.57	50.38	27.20	78.42	45.51
미얀마	64	7.49	13.30	56.29	33.74	85.23	49.90
말레이시아	82	6.44	16.35	39.41	17.95	67.06	33.23
태국	88	6.12	14.22	43.04	18.91	74.81	35.39
라오스	106	5.30	9.30	56.94	33.97	82.07	54.77
싱가포르	158	2.31	8.56	26.98	11.89	47.73	21.31

자료: Heintze et al.(2018), pp. 48-51.

표 5-2. 아세안 회원국의 기후위험지수(CRI) 비교

국가	CRI 순위	CRI 점수	사망자 (연평균)	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평균)	손실액 (백만 달러, PPP, 연평균)	GDP 단위당 손실액 비중 (% , 연평균)
미얀마	3	13.17	7,048.850	14.392	1,275.961	0.661
필리핀	5	19.67	867.400	0.971	2,932.153	0.576
베트남	9	31.67	296.400	0.350	2,064.740	0.516
태국	13	34.83	137.800	0.209	7,894.763	0.936
캄보디아	19	39.67	53.300	0.384	242.493	0.723
인도네시아	69	74.17	252.000	0.109	1,798.562	0.083
라오스	89	85.67	6.300	0.108	73.910	0.237
말레이시아	116	105.50	21.450	0.078	182.228	0.033
브루나이	175	168.17	0.100	0.027	0.342	0.001
싱가포르	180	172.17	0.000	0.000	2.874	0.001

주: 1998~2017년 평균.

자료: Eckstein, Hufils, and Wings(2018), pp. 32-34.

[표 5-3]은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ODA 지원액을 OECD의 정책마커(policy marker) 중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목적에 따라 분류한 현황이다. OECD 정책마커란 성평등, 환경, 거버넌스, 무역 개발, 모자보건증진 등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원조 사업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보고 항목이다.²⁸⁹⁾ 개발원조 사업의 목적과 정책마커 분야별 관련성을 판단하여 비연관(0점), 부수적 목적(1점, significant), 주목적(2점, principal)으로 구분한다. OECD에 따르면 수원국 및 대상 지역의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거나 제도, 역량개발 등을 통해 개발목표에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목적의 사업에 대해 환경 정책마커(부수적 목적 또는 주목적) 점수를 부여한다.²⁹⁰⁾ 본 장에서는 환경마커 외에 리우마커(Rio Marker)²⁹¹⁾ 즉 기후변화

289)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2018), p. 145.

290) OECD, Aid to Environment, <https://www.oecd.org/dac/stats/38025362.pdf>(검색일: 2019. 8. 12).

291) OECD, OECD DAC Rio Markers for Climate Handbook, <https://www.oecd.org/dac/>

(감축, 적응),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목적의 개발 사업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²⁹²⁾

2013~17년 평균 아세안 8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에 유입된 ODA는 123억 5,000만 달러이며, 이 중 27.4%(33억 9,000만 달러)가 환경보호 목적의 활동에 사용되었고, 16.2%(20억 달러)는 기후변화 목적의 사업에 제공되었다.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 적응, 감축과 적응 공통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13~17년 평균 기후변화 목적의 ODA 금액에서 감축과 적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1%와 32.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생물다양성과 사막화방지 목적의 사업은 전체 ODA의 5.2%와 1.2% 수준이었다.

[표 5-4]는 2013~17년 평균 아세안 회원국별로 환경과 기후변화 목적의 사업에 제공된 ODA 금액과 비중을 정리한 표이다. 제공받은 ODA 금액 중 환경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태국(64.6%), 말레이시아(52.8%), 베트남(36.0%) 등이었고, 기후변화 목적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태국(57.7%), 인도네시아(22.8%), 필리핀(22.3%) 순이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ODA의 52.8%가 환경 분야에 투입된 반면, 기후변화 목적의 지원은 3.9%에 불과했다.

표 5-3.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마커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7년 기준)

연도	ODA 합계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금액	비중	감축	적응	감축 적응 공통	기후 변화 합계	기후 변화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3	18,154.0	3,330.7	18.3	809.2	360.5	527.7	1,697.4	9.4	469.1	2.6	122.6	0.7
2014	12,756.1	3,781.3	29.6	708.3	719.9	448.9	1,877.0	14.7	887.7	7.0	232.4	1.8

environment-development/Revised%20climate%20marker%20handbook_FINAL.pdf(검색일: 2019. 8. 12).

292) 리우 마커 중 기후변화 감축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마커는 1998년부터, 기후변화 적응은 2010년부터 도입됨. OECD, OECD DAC Rio Markers for Climate Handbook, https://www.oecd.org/dac/environment-development/Revised%20climate%20marker%20handbook_FINAL.pdf(검색일: 2019. 8. 12).

표 5-3. 계속

연도	ODA 합계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금액	비중	감축	적응	감축 적응 공통	기후 변화 합계	기후 변화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5	10,078.0	3,186.5	31.6	876.5	808.7	517.9	2,203.1	21.9	545.9	5.4	148.9	1.5
2016	10,383.2	3,151.3	30.4	856.4	613.8	468.2	1,938.3	18.7	679.1	6.5	123.1	1.2
2017	10,391.7	3,479.3	33.5	1,155.2	699.0	419.2	2,273.4	21.9	647.3	6.2	137.9	1.3
2013-17 평균	12,352.6	3,385.8	27.4	881.1	640.4	476.4	1,997.9	16.2	645.8	5.2	153.0	1.2

주: Disbursement 기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 ODA grant와 ODA loan만 포함, 마커는 중복표시가 가능함.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8. 12) 토대로
 저자 작성.

표 5-4.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마커 기준, 국가별)

(단위: 백만 달러, %, 2017년 기준)

구분	ODA 합계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금액	비중	감축	적응	감축 적응 공통	기후 변화 합계	기후 변화 비중	금액	비중
캄보디아	836.5	156.0	18.6	10.0	54.2	29.7	93.9	11.2	37.2	4.4
인도네시아	2,214.2	612.5	27.7	273.7	52.9	177.6	504.3	22.8	172.3	7.8
라오스	505.7	111.8	22.1	14.3	20.9	16.7	51.9	10.3	31.2	6.2
말레이시아	132.2	69.8	52.8	1.7	0.7	2.8	5.2	3.9	6.6	5.0
미얀마	2,833.3	182.1	6.4	15.9	104.5	18.3	138.7	4.9	64.3	2.3
필리핀	1,112.5	387.0	34.8	21.2	188.4	38.6	248.2	22.3	90.8	8.2
태국	587.8	379.7	64.6	318.1	16.9	4.0	338.9	57.7	8.0	1.4
베트남	4,130.4	1,486.9	36.0	226.2	201.8	188.7	616.8	14.9	235.6	5.7

주: 2013~17 평균, Disbursement 기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 ODA grant와 ODA loan만 포함, 마커는 중복표시가 가능함.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8. 12) 토대로
 저자 작성.

DAC 회원국 가운데 2013~17년 아세안에 가장 많은 ODA를 제공한 공여국은 일본으로 연평균 약 46억 달러 규모이다(표 5-5 참고). 일본은 같은 기간

아세안의 환경과 기후변화 목적 ODA의 최대 공여국이기도 한데, 환경 분야에는 15억 달러,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 사업에는 1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등도 아세안의 환경과 기후변화 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ODA를 투입한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EU보다 대아세안 전체 ODA 금액으로는 앞서지만 환경과 기후변화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작고, 전체 ODA 대비 비중도 낮은 편이다. 주요 공여국 또는 공여기관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특징은 2절에서 검토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은 3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5-5. OECD DAC 주요 회원국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마커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7년 기준)

구분	ODA 합계	환경		기후변화				
		금액	비중	감축	적응	감축적응 공통	기후변화 합계	기후변화 비중
일본	4,626.8	1,549.8	33.5	483.9	360.7	225.9	1,070.5	23.2
독일	881.8	219.0	24.5	152.5	42.5	31.6	226.6	25.7
프랑스	632.5	208.3	32.9	94.5	19.5	11.1	125.1	19.8
미국	885.9	203.5	23.0	22.6	19.9	54.0	96.4	10.9
호주	732.0	99.9	13.6	4.0	25.0	49.6	78.6	10.7
덴마크	254.9	96.5	37.8	7.4	1.2	9.9	76.8	30.1
영국	259.7	83.3	32.1	12.3	53.6	20.1	86.0	33.1
EU	334.1	76.8	23.0	11.8	9.2	17.7	38.7	11.6
한국	460.6	63.2	13.7	1.4	28.6	13.6	43.6	9.5

주: 2013~17 평균, Disbursement 기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 ODA grant와 ODA loan만 포함, 마커는 중복표시가 가능함.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8. 12) 토대로 저자 작성.

나. 논의 동향

1) ASCC 청사진 2025²⁹³⁾

아세안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비전은 ASCC 청사진 2025의 5대 요소 중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표 5-6 참고). 지속가능성 항목은 아세안의 균형 잡힌 사회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하며, 핵심분야로는 ①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②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③ 지속가능한 기후 ④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있다. 각 핵심분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전략조치로 설명된다.

먼저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C.1)’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활용,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월경성 대기오염 및 해양폐기물, 해안 및 해양환경 보호 및 복구 등이 전략조치로 명시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역내 협력 강화, 역량 배양, 우수사례 공유, 관련 국제 및 역내 협약에의 참여가 강조되었다. 아세안은 ASEAN 생물다양성 센터, 생물다양성을 위한 아세안 전략계획(2011~2020),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 협정(AATHP)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C.2)’ 분야는 청정한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통합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략조치에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인 토지, 공공구역, 대기질, 식수, 위생 등 다양한 분야 간 조정과 도시 인프라에 대한 취약층(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성 향상이 포함되었다.

‘지속가능한 기후(C.3)’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의 적응과 감축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아세

293) ASEAN Secretariat(2016b), pp. 10-18을 정리한 내용임.

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접근방식을 토대로 새롭게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후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후를 구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기후 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 수요 파악 등을 위한 역량 배양과 UNFCCC와 같은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C.4)’의 전략조치에는 친환경 기술의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환경교육 및 인식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표 5-6. ASCC 청사진 2025: 지속가능한 환경 관련 속성과 핵심분야

구분	핵심분야
C. 지속가능성	C.1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C.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C.3 지속가능한 기후
	C.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D. 회복탄력성	D.1 재해에 대한 회복력 있는 아세안(신속하고 정확한 재해 예측, 대응, 적응, 회복)
	D.2 보건 관련 위험(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 관련, 그 외 신규 위험)에 대응하는 보다 안전한 아세안
	D.3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인적 역량을 강화한 기후적응적 아세안
	D.4 기후변화 관련 위험, 재해, 기타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여성, 아동, 노약자, 장애인, 소수민족, 위험 지역 거주민 등)
	D.5 자원의 이용가능성, 접근성, 비용,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위기 시 재정 시스템, 식량, 물, 에너지, 사회보장제도 강화 및 최적화

자료: ASEAN Secretariat(2016b) 참고하여 저자 정리.

한편 아세안은 2015년 제26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회복탄력성 제도화 선언’²⁹⁴⁾을 채택하며 보다 회복탄력적인 아세안을 실현하기 위해 재해와 기후 관련 현존하는 위협의 경감, 새로운 위협의

294) Declaration on Institutionalizing the Resilience of ASEAN and its Communities and People to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예방,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강조하였다. ASCC 청사진 2025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된 ‘회복탄력성’ 항목의 핵심분야와 전략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⁹⁵⁾

‘재해에 대한 회복력 있는 아세안(D.1)’은 역내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아세안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전략조치로는 아세안 회원국 간 공통의 정보 공유체계, 재해 관련 방법론 및 기준 마련,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등이 언급되었고, 관련 정책 간(재해위험 경감,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인도주의적 활동, 지속가능한 개발 등)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도 포함되었다. ‘보건 관련 위협에 대응하는 보다 안전한 아세안(D.2)’ 분야는 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 그 외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의 탄력적인 대응체제 강화를 그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인적 역량을 강화한 기후적응적 아세안(D.3)’을 구현하기 위해 범분야적 플랫폼을 확장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적인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위협, 재해, 기타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D.4)’ 항목은 아세안의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포용적 요소를 가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재정 시스템, 식량, 물, 에너지, 사회보장제도 강화 및 최적화(D.5)’ 항목의 전략조치는 자연재해, 식량가 폭등, 물이나 에너지 자원 희소성 등의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 간 조정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2) 아세안의 환경 분야 논의

아세안은 ASCC 비전하에서 다양한 주제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회의를 통해

295) ‘회복탄력성’ 항목은 6개의 핵심분야로 구성되나 ‘미약으로부터 청정한 아세안을 위한 노력(D.6)’은 지속가능한 환경과는 연관성이 적으므로 본 장에서는 회복탄력성의 5개 핵심분야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ASCC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중 본 장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된 회의체로 환경 분야와 재해관리 분야 회의체의 최근 논의 경과와 분야별 협력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²⁹⁶⁾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²⁹⁷⁾ 및 산하 7개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그림 5-5 참고). ‘ASCC 청사진 2025’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항목의 핵심분야와 전략조치들을 중심으로 「아세안 환경전략계획(ASPEN)²⁹⁸⁾ 2016~2025」가 마련되었다. ASPEN에 따른 아세안 환경 분야 우선 과제 및 세부 프로그램은 [표 5-7]과 같다.

ASPEN에 명시된 우선 과제는 ① 자연보존과 생물다양성 ② 해안 및 해양환경 ③ 수자원 관리 ④ 지속가능한 도시 ⑤ 기후변화 ⑥ 화학물질과 폐기물 ⑦ 환경교육 등 7개 분야이다.²⁹⁹⁾ ASPEN에는 우선 과제별로 배경 및 목표, 상세 프로그램과 활동, 평가지표, 주도국/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지표는 세부 내용이 미확정인 부분도 있어 지속적으로 개정 및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ASPEN의 7대 우선 과제에 따라 AMME와 ASOEN의 산하기구로 주제별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 단 환경문제는 비단 ASCC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므로 APSC나 AEC 비전하의 분야별 산하기구와도 긴밀히 협조한다는 것이 아세안의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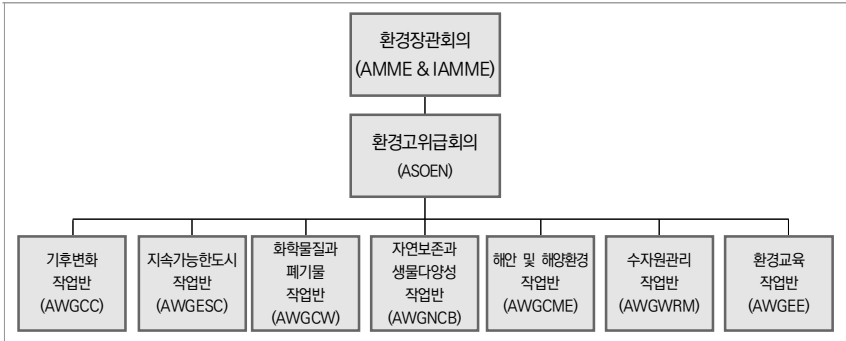
296)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Environment.

297)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vironment.

298) ASEAN Strategic Plan on Environment.

299) ASEAN Secretariat(2017a), pp. 9-11.

그림 5-5. 아세안의 환경분야 회의체



자료: ASEAN Secretariat(2017a), p. 13.

표 5-7. 「아세안 환경전략계획(ASPEN) 2016~2025」의 우선 과제와 세부 프로그램

우선 과제	목표	아세안의 관련 이행기구	프로그램
자연보존과 생물다양성	1. 2025년까지 아세안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회복하고 현명하게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보장 2. 자연의 회복력과 통합적 생태계 접근방식의 활용 촉진(기후변화 적응, 재해위험 경감)	자연보존과 생물다양성 작업반 아세안 생물다양성 센터(ACB)	1. 주요 생물다양성 구역 보존(보호구역, 생물종 보존, 침투외래종,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주류화, 생태계 복원, 보건과 생물다양성) 2. 도시의 생물다양성 3. 농업과 생물다양성 4. 접근성과 이익 공유 5. 커뮤니케이션, 교육, 대중의 인식(CEPA) 6. 아세안 생물다양성 센터
해안 및 해양환경	1. 아세안의 해안 및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생태계/장강지역 보호, 경제활동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해안 및 해양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2. 해안 및 해양환경에 대한 인간발생적 위협을 경감하여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안 및 해양환경 보존 3. 지속가능한 해안 및 해양환경 관리와 월경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기관 간·분야 간 조정 강화	해안 및 해양환경 작업반 아세안 생물다양성 센터	1. 주요 해양보존구역 2. 멸종위기의 해안 및 해양 생물종 보존 3. 해양 기름유출 문제 4. 해안 및 해양오염 문제 5. 해안 및 해양 침투외래종 문제 6. 기후변화와 해안 환경 7. 통합해안관리(ICM), 해양 공간계획(MSP)

표 5-7. 계속

우선 과제	목표	아세안의 관련 이행기구	프로그램
수자원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공평한 접근성, 수자원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한 통합물관리(WVRM) 촉진 2. 적절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3.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성 개선 4. 물관련 재해 위험 및 영향 경감, 사회체계 및 생태계의 회복성 강화 	수자원 관리 작업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물관리 국가전략지침 및 지표 2. 대중의 인식, 범분야 간 조정 3. 수자원 보존, 수질과 위생 시설 개선 4. 물 관련 재해
지속가능한 도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2.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기후탄력적 도시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 작업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개발, 시행 2. 기후탄력적 저탄소 도시
기후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축, 적응, 기술이전, 역량 배양, 기후자원, 범분야 간 조정,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후 변화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개발, 보건, 회원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 2. UNFCCC하의 파리협약과 SDGs 같은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 3. 기후변화 관련 우수사례와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회원국 간 활동을 조정하고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 강화 	기후변화 작업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응과 탄력성 2. 감축 3. 기술이전 4. 기후자원 5. 범분야 간 조정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화학물질과 폐기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자국제협약과 국제적인 논의 체계 하에서 월경성 폐기물 통제 문제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과 화학물질 관련 역내 조정 및 협력 강화 2. 국제적인 논의체계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생애주기에 걸친 친환경적 관리 3.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이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물질의 불법적 국가간 이동 금지를 위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관리사례 구축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작업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폐기물 관리, 바젤협약하의 기타 폐기물 관리 2. 월경성 유해폐기물 관리 3. 녹색산업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EST) 4.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입지 5.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사고 방지, 대비, 비상대응 5.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오염지역 복원

표 5-7. 계속

우선 과제	목표	아세안의 관련 이행기구	프로그램
환경교육	현재와 향후의 환경문제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환경교육과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 촉진	환경교육 작업반	1. 아세안 에코스쿨 프로그램, 아세안 녹색고등교육 프로그램 2. 역내 커뮤니케이션, 교육, 대중의 인식 개선 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주: 우선 과제별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보다 상세한 평가 및 모니터링 매트릭스는 ASEAN Secretariat(2017a) 참고.
자료: ASEAN Secretariat(2017a), pp. 9-11.

AMME 회의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환경장관들은 ASCC 청사진의 지속가능성 항목과 관련하여 역내 환경 분야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아세안 환경협력에 관한 방콕결의안(Bangkok Resolution on ASEAN Environment Cooperation)을 채택하였는데, 해당 결의안은 ASCC 비전,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통합 등을 실현하기 위해 천연자원 및 환경에 관한 역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³⁰⁰⁾ 아세안은 방콕결의안을 통해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재해 관리 및 통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강화 등에 있어 역내 및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들어 ASPEN 2016-2025, 아세안 환경보고서, 아세안·UN 환경 및 기후변화 행동 계획 등의 개발과 채택, 아세안의 폐기물 문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 등이 AMME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표 5-8 참고).

300) ASEAN Secretariat(2012a), 2012 Bangkok Resolution on 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https://cil.nus.edu.sg/wp-content/uploads/2019/02/2012-Bangkok-Resolution-on-ASEAN-Environmental-Cooperation.pdf>(검색일: 2019. 8. 8) 참고.

표 5-8. 최근 아세안 환경장관회의³⁰¹⁾ 주요 내용

회차/연도	주요 내용
제12차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CC 청사진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역내 협력방안 검토 - 아세안 환경협력에 관한 방콕결의안 채택 -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아세안 행동계획(ASEAN Action Plan on Joint Response to Climate Change) 채택 - 제11차 생물 다양성협약(CBD) 당사국회의에 아세안 환경장관 공동성명문 제출에 원칙적으로 합의 - 아세안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ESC) 시범도시 1차년도 사업 종료에 주목
제13차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CC 청사진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역내 협력방안 검토 - 필리핀과 미얀마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 표명 - 아세안의 Post-2015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아젠다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ASEAN Post-2015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genda) 개발 착수 - 아세안 환경전략계획, 연무 없는 아세안 로드맵, 제5차 아세안 환경보고서, 아세안-유엔 Post-2015 환경 및 기후변화 작업계획 등의 개발 지원
제14차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CC 청사진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역내 협력방안 검토 - 아세안 특수기상센터(ASMC)의 아세안 기상예측 내용에 주목 -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BRS) 당사국회의에서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아세안 공동 선언(ASEAN Joint Declaration on Hazardous Chemicals and Wastes Management)에 주목 - ASCC 비전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ASOEN과 작업반의 위임사항(TOR) 개정, ASPEN 2016-2025 개발 마무리 작업 기대 - 아세안·중국 환경협력행동계획 2016~2020 채택, 아세안·유엔 환경 및 기후변화 행동 계획 채택 - 제5차 아세안 환경보고서 공개 - ESC 발표, 제3차 아세안 청정대기/물/토지 인증 도시 발표
제15차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CC 청사진 실현을 위한 ASPEN 2025 협력방안 논의 - 아세안과 주요 협력 파트너 간 지속적인 논의에 주목(특히 2019년 7월 ASEAN·EU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도시, 순환경제 등에 관한 논의에 주목) - 2019년 9월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제출한 아세안 공동선언문 및 12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 제출할 공동선언문 합의, 2019년 8월 제2차 아세안 기후변화 파트너십 컨퍼런스 논의사항에 주목 - 해양폐기물과 이에 관한 방콕선언 재확인,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 및 이니셔티브 이행경과 점검(아세안+3 해양폐기물 경감을 위한 경량강화 사업, 토지해양 통합정책(일본 지원), 아세안·PROBLUE 활동(세계은행 지원), 아세안·노르웨이 협력사업, 아세안·EU 순환경제 파트너십 등)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관한 아세안의 의견사항 제출, 2020년 아세안 생물다양성 컨퍼런스 개최에 주목 - 2018년 채택된 아세안·메콩강위원회(MRC) 협력 이행경과 검토, AATHP 이행경과 검토 등

자료: 각 회차별 회의에 관한 아세안 보도자료 참고하여 저자 정리.³⁰²⁾

3) 아세안의 재해관리 논의

2004년 출범한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³⁰³⁾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의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2005년 채택된 아세안 재해관리 및 긴급대응 협약(AADMER)³⁰⁴⁾³⁰⁵⁾은 아세안의 재해관리를 위한 공통의 플랫폼이자 역내 협력정책의 토대이다. AADMER에는 ① 재해위험 식별, 측정, 모니터링 ② 재해 예방 및 경감 ③ 재해 대비 ④ 긴급대응 ⑤ 재해복구와 같이 재해관리 단계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사항이 명시되어 있다.³⁰⁶⁾ 또한 협약의 당사국 및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 간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의 설립 근거도 제시하였다. 아세안은 2012년부터 AADMER 당사국 총회를 통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세안 재해관리 위원회(ACDM)³⁰⁷⁾는 위험 평가 및 인식, 예방 및 경감, 준비 및 대응, 회복, 지식 및 혁신관리 등 5개 주제별로 관련 작업반을 운영하며 AADMER를 이행한다. 2013년 아세안 회원국은 아세안의 재해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선언(ASEAN Declaration on Enhancing Cooperation in Disaster

301)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는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 협정(AATHP) 당사국회의와 함께 개최됨.

302) ASEAN Secretariat(2012b), 12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nd 8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https://asean.org/12th-asean-ministerial-meeting-on-the-environment-and-8th-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asean-agreement-on-transboundary-haze-pollution/>(검색일: 2019. 8. 4); ASEAN Secretariat(2015d), 13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https://asean.org/13th-asean-ministerial-meeting-on-the-environment/>(검색일: 2019. 8. 4); ASEAN Secretariat(2017c), 14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nd the 13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https://asean.org/14th-asean-ministerial-meeting-environment-13th-meeting-conference-parties-asean-agreement-transboundary-haze-pollution/>(검색일: 2019. 8. 4); ASEAN Secretariat(2019a), 15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nd the 15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https://asean.org/15th-asean-ministerial-meeting-environment-15th-meeting-conference-parties-asean-agreement-transboundary-haze-pollution/>(검색일: 2019. 10. 28).

303)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304)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305) 2009년 발효.

306) ASEAN Secretariat(2010), pp. 6-13.

307) ASEAN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

Management)³⁰⁸⁾을 통해 재해로부터의 회복탄력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세안 공동의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역내 협력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재해에 대한 아세안 공동의 대응 노력을 명시한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 선언(ASEAN Declaration on One ASEAN, One Response)’³⁰⁹⁾을 채택하였다.

아세안은 2015년 출범한 재해관리에 관한 아세안 전략정책대화(SPDDM)³¹⁰⁾를 통해 ACDM의 장기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아세안의 재해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³¹¹⁾ 2016년 2차 SPDDM에서 아세안 회원국은 재해관리를 위한 민간의 참여, 2017년 3차 회의에서는 재해관리 역량과 재해회복력 강화를 위해 유엔기구들과의 협력에 주목하였다. 한편 2015년 제3차 AMMDM 회의에서 ACDM가 마련한 장기 비전인 ‘아세안 재해관리 비전 2025(ASEAN Vision 2025 on Disaster Management)’가 채택되었는데, 효과적인 AADMER 이행을 위한 요소로 제도화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과 혁신, 재정 및 자원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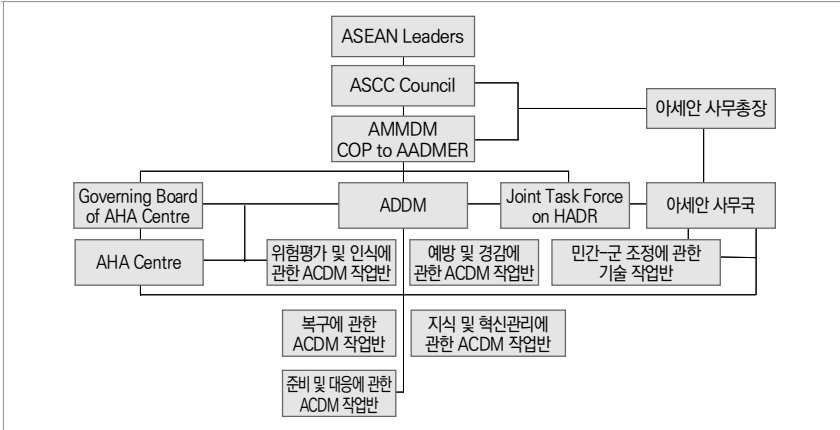
308) ASEAN Secretariat(2013b), https://www.asean.org/wp-content/uploads/images/pdf/Final_Draft_ASEAN_Declaration_on_Disaster_Management_-_23rd_ASEAN_Summit.pdf(검색일: 2019. 8. 13).

309) ASEAN Secretariat(2016f), <https://asean.org/storage/2016/09/Declaration-on-One-ASEAN-One-Response.pdf>(검색일: 2019. 8. 13).

310) ASEAN Strategic Policy Dialogue on Disaster Management.

311) ASEAN 홈페이지, ASEAN Strategic Policy Dialogue on Disaster Management(SPDDM),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asean-ministerial-meeting-on-disaster-management-ammdm/asean-strategic-policy-dialogue-on-disaster-management-spddm/>(검색일: 2019. 8. 13).

그림 5-6. 아세안 AADMER 작업 프로그램 2016~2020의 이행체계



주: HADR - 인도적인 지원과 재해구호, AHA Centre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자료: ASEAN Secretariat(2016d), p. 20.

2010~15년 1차 AADMER 작업 프로그램에 이어 현재는 2차 작업 프로그램(2016~2020)이 운영되고 있다. 1차 AADMER 작업 프로그램은 ① 위험 평가, 조기경보, 모니터링 ② 예방 및 경감 ③ 준비 및 대응 ④ 재해복구와 같이 재해관리의 각 단계를 전략적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³¹²⁾ 또한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AADMER의 제도화, 역내의 협력, 자원 조달, 홍보 및 주류화, 훈련 및 지식관리, ICT 기술 활용 등이 강조되었다.

1차 작업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수립된 2차 작업 프로그램(2016~2020)의 우선 과제는 ASCC 청사진 2025를 토대로 아세안의 보다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AADMER 작업 프로그램(2016~2020)의 8대 우선 과제는 ① 재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안전한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 제공 ③ 재해회복적이고 기후적응적인 아세안 ④ 아세안 통합의 사회경제

312) ASEAN Secretariat(2013a) 참고.

적 이득을 보호 ⑤ 재해대응을 위한 리더십 전환 ⑥ 공동의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⑦ 재해로부터의 회복 역량 ⑧ 재해관리 전문성 강화이다(표 5-9 참고).³¹³⁾

표 5-9. 아세안 AADMER 작업 프로그램 2016~2020

우선 과제	목표	목표성과
재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위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아세안 역내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의 위험 및 취약성 평가 역량 강화 - 역내 위험 및 취약성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이용가능성 개선 - 데이터 활용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 강화
안전한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 제공	재난이나 기후변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 회복적인 필수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평한 양질의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 제공 - 아세안 Safe School 이니셔티브 확대 - 회복적이고 기후적응적 도시를 위한 혁신 사례 장려
재해회복적이고 기후적응적인 아세안	청년층과 올바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재해회복적이고 기후적응적인 아세안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과 정책 강화 - 아세안 청년층의 리더십 구축 - 지역사회 회복성 구축을 위해 모델 프로그램 확대 - 재해회복적이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아세안에 관한 인식 마련 프로그램 강화
아세안 통합의 사회경제적 이득을 보호	혁신적인 시장기반의 해결방안, 민간 부문 참여,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 통합의 사회경제적 이득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위험 파이닝스와 보험 프레임워크 구축 -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의 재정 접근성 강화 - 재해관리와 경제를 연계하는 정책 분석과 전략을 강화하여 아세안 통합과 일관성 심화 - 회복력 있는 역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 - 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사회적 보호장치와 사회보장망 구축
재해대응을 위한 리더십 전환	아세안의 재해 대비와 공동 대응에 관한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역내 인도주의적 지원 방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공동재해대응계획(AJDRP) 개발 - 민간-군 조정 강화 - 아세안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조정 역할 강화 - 아세안 재해대응모의훈련(ARDEX) 정기 실시

313) ASEAN Secretariat(2016d), pp. 14-18.

표 5-9. 계속

우선 과제	목표	목표성과
공동의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해 대응을 위해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 재해비상물류시스템(DELSA) 이행 강화 - 아세안 긴급대응과 평가 팀(ASEAN-ERAT) 역량 강화
재해로부터의 회복 역량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재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 배양	- 재해 복구에 관한 표준과 지침 간 조화 - 회복적 복구 도구 개발 - 재해 복구에 관한 역량과 지역사회 리더십 강화 -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원 확보
재해관리 전문성 강화	역내 재해관리 관련 지식관리체계, 메커니즘, 전문성 강화	- 통합지역재해관리 지식허브 구축 - 표준화와 인증을 통한 재해관리 전문성 구축 - 혁신적인 재해관리 방식 도입

주: 우선 과제별 목표성과, 핵심활동, 이행기관 등의 내용은 ASEAN Secretariat(2016d) 참고.
자료: ASEAN Secretariat(2016d), pp. 14-18.

4) 아세안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2019년 8월 기준 모두 파리협약을 비준한 상태이며 이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Non-Annex I) 국가에 속한다. 아세안 회원국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에 관한 정책방향은 이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ND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를 말하며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 배양, 투명성 등 6개 분야를 포함한다.³¹⁴⁾ [표 5-10]은 아세안 회원국의 NDC 중 감축과 적응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 내용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감축 유형, 목표, 목표연도

314) 환경부(2016), p. 20.

및 기준연도에 있어 공통된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BAU 대비 감축을 선택하였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탄소집약도 방식,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는 정책 및 조치를 통한 감축을 약속하였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자국 스스로 달성해야 할 무조건적인 감축목표 외에 선진국의 각종 지원이 수반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조건부 감축목표 범위를 함께 제시하였다. 브루나이와 미얀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아세안을 비롯한 개도국 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국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배양, 기술이전, 재정 지원 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세안 회원국 역시 NDC상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력 분야 또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한 필리핀은 기후 모니터링과 관측을 위한 시스템, 기후 및 재해 취약성 평가 부문을 강조하였고, 브루나이는 산림 분야, 싱가포르의 사회구조적인 탄력성 강화에 주목하였다.

표 5-10.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결정기여(NDC) 비교

국가	감축 관련				적응 관련
	감축 유형	감축목표	목표 연도	기준 연도	
태국	BAU 대비 감축	20%(무조건) 25%(조건부)	2030	BAU	통합물관리,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생물다양성
베트남	BAU 대비 감축	8%(무조건) ~25%(조건부)	2030	BAU	기후 모니터링, 사회적 안전보장, 해수면 상승 및 도시 침수 대응
인도네시아	BAU 대비 감축	29%(무조건) 41%(조건부)	2030	BAU	지역별 취약성 연구를 토대로 적응 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전 부문에 걸친 위험 저감
필리핀 (INDC)	BAU 대비 감축	70%	2030	BAU	기후 모니터링 및 관측을 위한 시스템, 기후/재해 위험 및 취약성 평가, 농업/물/보건 부문의 기후탄력성, 기후/재해 탄력적 사회경제적 성장

표 5-10. 계속

국가	감축 관련				적응 관련
	감축 유형	감축목표	목표 연도	기준 연도	
말레이시아	탄소집약도	35%(무조건) 10% 추가(조건부)	2030	2005	홍수 및 재해 위험 관리, 인프라 회복력, 해수면 상승 대비, 농업 인프라
싱가포르	탄소집약도	36%	2030	2005	식량공급원 다변화, 구조적 탄력성 강화, 다양화된 물 공급, 해안 침식으로부터의 보호
미얀마	정책 및 조치	수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2030	-	농업부문 회복력, 조기경보 시스템, 산림보존, 수자원, 연안지대 보호, 생물다양성
라오스	정책 및 조치	에너지 소비면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	2025	-	농업인프라, 산림생태계, 수자원 인프라, 도시개발, 공중보건 및 물 공급
브루나이 (INDC)	정책 및 조치	에너지 소비 63% 감축, 전력생산량 1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2035	BAU	산림 생물다양성, 벌목 활동 제한 및 축소를 위한 규정 정비, 홍수 예방/하천 질 향상 /연안 보호

주: 1. 파리협약 이후에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스스로 결정한 목표를 국가결정기여(NDC)라고 지칭하며, 파리협정 이전에 제출한 것은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임.

2. 2019년 8월 기준 필리핀과 브루나이는 INDC만 제출하였음.

자료: UNFCCC, NDC Registry,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ages/Home.aspx>(검색일: 2019. 8. 13);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NDC 현황, <https://www.ctis.re.kr/ko/analysis/mitigation.do?key=1563>(검색일: 2019. 8. 13).

아세안 회원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 공동성명을 제출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및 국제협력 활동과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아세안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제24차 당사국회의에 제출한 공동성명³¹⁵⁾에 따르면 아세안은 파리협약 비준 및 NDC 이행, ASCC 청사진 2025하에서 기후변화 관련 조치 이행,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개발 촉진, 기후변화 관련 재해 위험 관리 등 그간의 성과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선진국에 감축목표를 이행할 것과 아세안 및 개도국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재원 목표 달성,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활동 지원

315) ASEAN Secretariat(2018b), pp. 1-4.

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중요성 역시 아세안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되었다.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가. 재해관리

자연재해의 위험(hazard)은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지구물리학적 현상으로 온도, 강수, 풍랑, 태풍, 지질활동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을 겪는 지역에 주민,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자산이 위치할 경우 이를 위험에 노출(exposure)되었다고 표현한다. 취약성(vulnerability)은 위험과 노출도에 따라 경험하는 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결과를 일컫는다(그림 5-7 참고).³¹⁶⁾ 재해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력 강화에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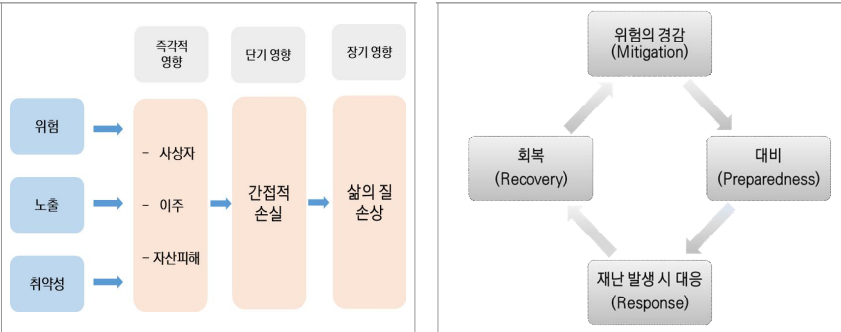
재해관리는 위험의 경감(mitigation), 재해에 대비(preparedness), 재해 발생 시 대응(response), 재해로부터의 회복(recovery) 단계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그림 5-8 참고).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분석하거나 위험예상 지역을 정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재해위험을 경감하고 재난 대응 전략 및 계획이나 훈련체계를 수립하여 재해에 대비한다. 자연재해 발생 자체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경제·금융·사회 제도 및 시설을 정비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세안뿐 아니라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부실시공, 인구과밀, 방재시설 및 대피 시스템의 부재 등과

316) ADB(2019), p. 59.

연관되므로 위험 경감 및 대응 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한다면 충분히 그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림 5-7. 재해의 위험과 영향

그림 5-8. 재해관리 단계



및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5-11. 아세안 자연재해 사례

연도	국가	자연재해	사망자
1990년	필리핀	지진	2,417명
1991년	필리핀	태풍 델마	6,083명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	6,592명
2008년	미얀마	태풍 나르기스	13만 8,366명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7,415명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3,989명

자료: ADB(2019), p. 62.

그림 5-9. 아세안 자연재해 발생 횟수



주: 2012년 1월~2017년 7월 발생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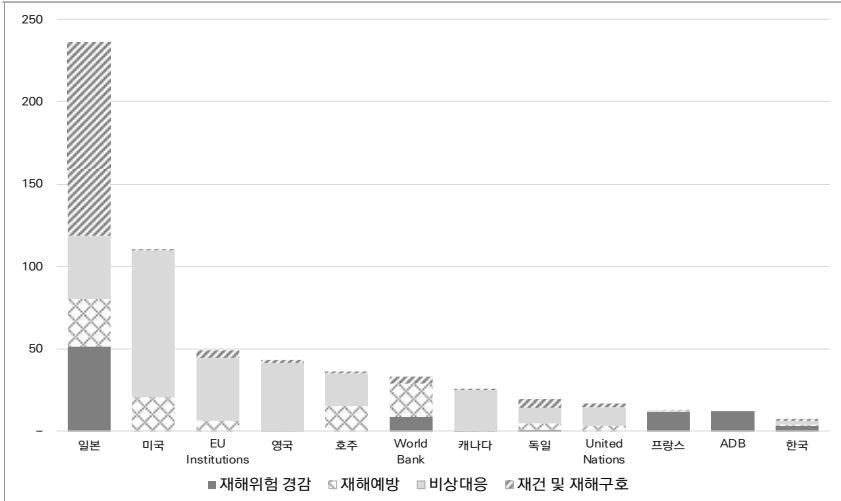
자료: ASEAN Post(2018. 5. 21), "Mitigating natural disasters in ASEAN," <https://theaseanpost.com/article/mitigating-natural-disasters-asea>(검색일: 2019. 10. 10).

2013~17년 평균 재해위험 경감, 재해예방, 비상대응, 재건 및 재해구호 등 본 절에서 재해관리 목적의 ODA 사업으로 분류한 분야에 대해 일본(2억 3,600만 달러)과 미국(1억 1,100만 달러)이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다(그림 5-10 참고).³¹⁸⁾ 같은 기간 해당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는 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재해위험 경감, 재해예방, 재건 및 재해구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여를 했고 미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비상대응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아세안 재해관리 분야에 공여하는 주요 다자기구로는 세계은행, UN 산하기구, ADB 등이 있다.

318) 2019년 10월 기준 OECD Stat의 CRS 데이터는 재해위험 경감 마커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리우 마커 기준이 아닌 ODA 세부 분야 중 재해관리와 관련 있는 분야를 임의로 선정하여 재해관리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추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그림 5-10. 대아세안 재해관리 분야 ODA 주요 공여국/기관(2013~1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2017년 기준)



주: Gross Disbursement 기준, ODA(grant, loans, equity investment 포함) 기준이며 재해관리와 관련된 세부 분야 (43060 재해위험 경감, 720 비상대응, 730 재건 및 재해구호, 740 재해예방)를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함.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P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10. 10)
토대로 저자 작성.

본 절에서는 아세안의 재해관리 분야에 있어 특히 일본과의 협력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 차원으로 환경 및 기후 분야에 특화된 협의체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을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왔다.³¹⁹⁾ 2007년 아세안·일본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일본 환경협력에 관한 대화(ASEAN-Japan Dialogu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의 출범이 제안되어 2008년부터 해당 대화가 개최되었다. 2013년 아세안·일본 협력관계 40주년 기념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아세안·일본 환경협력에 관한 장관급 대화³²⁰⁾가 성사되었다. 여기서 일본은 자국이 만든 JCM(Joint Crediting

319) 일본 환경성, Japan-ASEAN Dialogu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https://www.env.go.jp/earth/coop/coop/english/dialogue/asean_j.html(검색일: 2019. 10. 30).

320) ASEAN-Japan Ministerial Dialogu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을 통해 아세안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은 2011년부터 일·아세안 통합기금(JAIF) 기금으로 아세안 환경시범도시 프로그램(ASEAN ESC Model Cities Programme)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재해관리, 에너지 효율, 생물다양성 등 본 보고서가 다루는 주요 환경협력 분야에 대해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전체와 다자간 대화채널 및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다수의 자연재해 경험을 토대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재해관리 논의를 주도하고 국가정책에 이를 주류화하는 데 앞장섰다. 일본이 재해관리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재해 발생 전 사회 전반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재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재해위험 경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일본에서 열린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UN 회의’에서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를 채택하였고, 일본은 2015~18년까지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는 40억 달러 규모의 Sendai Cooperation Initiative for DRR을 발표하였다.³²¹⁾

지난 2013년 아세안·일본 협력관계 4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아세안은 우호와 협력에 관한 비전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 평화와 안정 △ 번영 △ 삶의 질 △ 상호신뢰를 위한 협력방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아세안의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관리 분야에 향후 5년간 3,000억 엔(2억 8,000만 달러)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향후 대아세안 ODA와 일·아세안 통합기금의 주력 분야에서도 재해관리 부문을 강조하였다.

일본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아세안 재해관리 분야 협력사업은 통합재해예방 ICT 시스템, AHA 센터 지원(이상 일본 총무성), 항만 재해위험

3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Sendai Cooperation Initiativ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https://www.mofa.go.jp/files/000070664.pdf>(검색일: 2019. 10. 10).

경합 지침 마련을 위한 아세안·일본 항만기술그룹, 재해관리협력대화(이상 일본 국토교통성),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구호를 위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훈련(일본 방위성) 등이 있다(표 5-12 참고).³²²⁾ 양자 차원으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을 대상으로 홍수 예측 및 경보 시스템,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 경감 등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JAIF와 JICA 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AADMER 작업 프로그램 2016~2020과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센터)³²³⁾ 활동을 지원한다.

JICA는 재해관리 분야에 있어 개도국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재해관리 활동 촉진 △ 재해위험 파악 및 평가 △ 종합적인 재해관리 계획 수립 지원 △ 재해관리 관점을 적용한 사회경제 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³²⁴⁾ JICA가 수행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세안의 재해 및 기후 탄력적 도시개발, DRR과 CCA 통합 제도 및 정책 수립, 아세안 재해보건관리 역량 강화 등이 있다.

JICA는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위험 경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의 관련 제도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접근방식을 강조한다.³²⁵⁾ 예를 들어 ‘아세안 재해 및 기후탄력적 도시 개발 사업’³²⁶⁾은 역내 분야간 협력 메커니즘 및 파트너십 구축, 시범사업 대상 도시의 재해위험 평가, 재해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

322)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홈페이지, White Paper. Disaster Management in Japan 2018, pp. A-74-79, http://www.bousai.go.jp/kaigirep/hakusho/pdf/H30_hakusho_english.pdf(검색일: 2019. 10. 28).

323) 2011년에 설립된 AHA 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는 역내 자연재해로 비상사태 발생 시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재해관리담당 부처(NDMO: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Offices)와 국제기구 간 의사소통 및 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324) JICA, “JICA’s Policy in Disaster Risk Reduction to ASEAN Countries,” http://open_jicareport.jica.go.jp/pdf/11957842_03.pdf(검색일: 2019. 10. 14).

325) ASEAN and JICA(2017), One Against Disaster and Climate Risks: A Repository of Good Practices for Strengthening DRR and CCA Integration in ASEAN, https://iges.or.jp/en/publication_documents/pub/books/en/6130/Final+JICA+Publication+on+DRR+and+CCA.pdf(검색일: 2019. 10. 14).

326)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ICA(2018a) 참고.

한 도구 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아세안 도시 회복력 포럼(ASEAN Urban Resilience Forum)이 출범하여 역내 관련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라오스 루앙프라방과 인도네시아 덴파사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경감과 토지사용 개선을 위한 지침, 체크리스트, 재해위험 평가 등의 도구가 개발되었다. 또한 JICA는 아세안 회원국의 기후변화와 재해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지원하고 역내 유관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³²⁷⁾

한편 아세안 통합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JAIF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나 경제협력 프로그램 외에 재해관리(DM)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 통합재해예방 ICT 시스템 구축 △ 재해비상 물류시스템 구축 △ 재해관리 전문인력 교육 △ 비상대응 및 평가팀(ERAT)³²⁸⁾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재해 리스크 관련 금융 및 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³²⁹⁾

일본은 2012~17년 아세안 재해비상물류시스템(DELSA)³³⁰⁾ 이행을 지원한 데 이어 2018~20년 JIAF 자금을 통해 DELSA 2단계를 이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7년 개발된 아세안 비상물류시스템 강화 로드맵 2020³³¹⁾에 명시된 네 가지 중점분야(물류시스템, 인력, 훈련, 혁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역내 재해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³³²⁾ 실제 DELSA는 2012년 미얀마 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2015년 미얀마 홍수 등 역내 자연재해 구호 및 재건 활동에 활용된 바 있다.

327)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ICA(2018b) 참고.

328) Emergency Response and Assessment Team.

329) JAIF 홈페이지, JAIF Support for Disaster Management, <https://jaif.asean.org/support/sector-brief/jaif-support-for-dm.html>(검색일: 2019. 10. 14).

330) Disaster Emergency Logistics System for ASEAN.

331) Roadmap for Enhancing ASEAN Emergency Logistics to 2020.

332) AHA Centre, 온라인 보도자료, "Japan Continues to Support Disaster Management Programme in ASEAN," <https://ahacentre.org/press-release/japan-continues-support-disaster-management-programme-in-asean/>(검색일: 2019. 11. 4).

이와 같이 일본은 자국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재해관리 논의에서 재해위험 경감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도록 노력하였고, 대아세안 협력에서도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위험평가, 시스템 개발, 계획 및 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재해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재해위험이 높은 아세안에 공유하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자국의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전파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또한 재해위험 경감과 대비 과정 전반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보다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

표 5-12. 일본의 대아세안 재해관리 협력사업

1. 주요 부처의 협력사업			
부처/기관	대상국	사업명	사업내용
총무성	아세안	ICT 재해관리시스템을 위한 국제협력	재해위험이 높은 국가에 일본의 ICT 재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재해관리 솔루션 도입 지원(아세안, 남미 등을 대상으로 함)
	아세안 AHA 센터	아세안 AHA 센터 지원	2011년부터 외무성과 총무성은 JAIF를 통해 아세안 AHA 센터를 지원하며 아세안 재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비훈련,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아세안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국토 교통성	아세안 회원국	항만 재해위험 경감 지침 마련을 위한 아세안·일 항만기술그룹	일본은 2014년 시작한 본 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공유하고 항만 재해위험 경감 지침 마련을 위해 협력함. 2017년 아세안·일본 교통장관회의에서 해당 지침이 승인됨.
국토 교통성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재해관리 협력대화	2013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아시아 개도국의 재해위험 경감을 강화하고 일본의 관련 기술을 해외로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방위성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구호를 위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 훈련	기존 미국·태국 양자 간 훈련을 확장하여 평화유지 미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에 관한 다자간 훈련을 실시함.

표 5-12. 계속

2.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양자 간 기술협력

대상국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인도네시아	2013-19	Brantas and Musi River Basins 수자원관리 계획에 기후변화영향 측정 및 통합	해당 지역의 수자원관리 계획 수립 시 특히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다른 하천유역 관리에도 적용가능한 지침 초안 제공
	2013-18	화산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재해 경감을 위한 통합연구	인도네시아 6개 화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화산 관련 재해 대응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과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
	2014-18	통합수자원관리하에 하천공유협약체(RBO) 역량개발	통합수자원관리를 토대로 RBO의 구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
필리핀	2014-17	기상관측, 예보, 경보 경각 강화	Southern Luzon 지역의 기상관측, 예보, 경보 역량을 강화하고 기상데이터 분석능력과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지원
	2016-19	홍수예측 및 경보 통합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필리핀 기상청의 통합데이터 관리와 홍수 예측 및 경보 시스템 활용 역량 강화(Cagayan de Oro/Tagoloan River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Center)
	2017-21	기상이변 관측 및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마닐라 지역의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단기 기상이변 및 태풍 강도 예측 기술 개발
태국	2016-19	재해보건관리를 위한 아세안 역량 강화	아세안 회원국의 재해보건관리를 위한 아세안 회원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훈련과정 등을 운영하여 재해대응 역량 강화 지원(이행기구: 태국 NIEM, 아세안 공식 사업으로 운영)
미얀마	2015-20	종합재해회복력시스템 및 협력플랫폼 개발	미얀마의 재해 취약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과 산업·학계·정부 간 협력을 통한 시스템 전파를 목적으로 하며 일본은 시스템 R&D, 인력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

자료: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홈페이지, White Paper. Disaster Management in Japan 2018, http://www.bousai.go.jp/kaigirep/hakusho/pdf/H30_hakusho_english.pdf, pp. A-74-79(검색일: 2019. 10. 28).

나. 온실가스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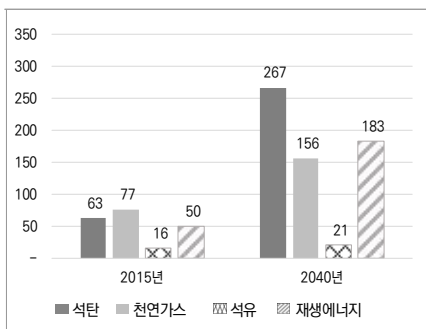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배출량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상위 배출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수송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온실가스의 감축은 아세안 회원국에도 중요한 개발 의제 중 하나이다. UNFCCC에 아세안 회원국이 제출한 NDC에는 자국의 환경에 맞춰 설정한 감축목표(BAU 대비 감축, 탄소집약도, 정책 및 조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국가들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아세안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에너지 정책, 즉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청정한 에너지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5차 아세안 에너지 전망(ASEAN Energy Outlook 2015-2040)』에 따르면 아세안의 발전용량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BAU 시나리오의 경우 2015년 76%에서 2040년 71%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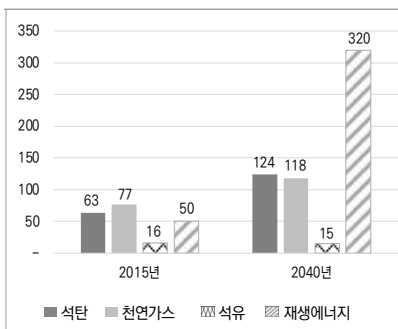
그림 5-11. 아세안의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전망

(단위: GW)

1. BAU 시나리오



2. APS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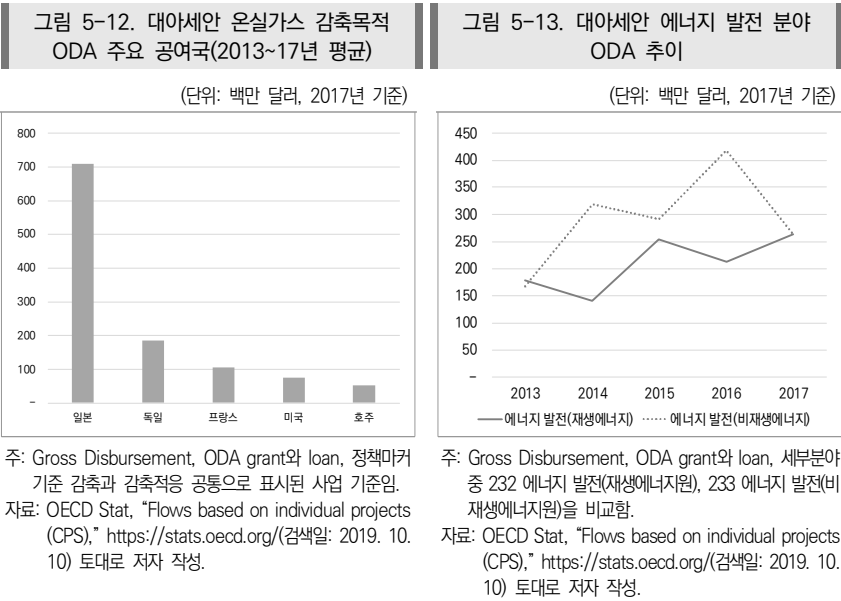


주: APS(ASEAN Progressive Scenario) 시나리오는 보다 진보적인 시나리오, 즉 APAEC 2016-2025에 명시된 에너지 관련 목표(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보존 등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를 의미, APS 시나리오하에서 2040년 총 발전용량은 에너지 효율 등의 개선으로 BAU 시나리오의 총 발전용량보다 적음.

자료: ASEAN Secretariat(2017b), pp. 64-80 토대로 저자 작성.

그러나 국가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와 역내 에너지 협력 행동계획 (APAEC)³³³⁾ 2016~2025에 제시된 목표(2025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23% 달성)를 달성할 경우(APS 시나리오), 즉 적극적인 청정에너지 확대정책이 실현되어야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5년 24%에서 2040년 5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³⁴⁾ 즉 아세안의 BAU 시나리오만으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적 개입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2013~17년 평균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ODA 가운데 기후변화의 감축과 감축 적응 공통 목적으로 13억 5,700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일본은 전체 공여국 지원액의 50%가 넘는 7억 달러를 아세안에 제공하였다(그림 5-12 참고).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1,500만 달러의 ODA를 아세안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감축 및 적응 공통 사업에 공여하였다.



333)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2016-2025.
 334) ASEAN Secretariat(2017b), pp. 64-80.

아세안 발전 부문에 대한 ODA를 살펴보면 2013~17년 평균 비재생에너지원을 통한 발전 사업에 2억 9,200만 달러가 제공되었고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이보다 적은 2억 1,0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그림 5-13 참고). 비재생에너지원 발전사업에 대한 ODA는 2016년 4억 1,9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재생에너지원 ODA와 같은 2억 6,4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주요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 민간은행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개도국의 석탄화력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 및 중단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아세안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공여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대형 화력발전사업에 여전히 상당한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³³⁵⁾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대아세안 재생에너지 ODA가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에서 도입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달성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³³⁶⁾³³⁷⁾ 2019년 11월 기준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총 798건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6,000만 톤의 배출량 감축이 예상된다.³³⁸⁾ 아세안에서 CDM 사업은 베트남(255건), 인도네시아(145건), 말레이시아와 태국(각각 143건) 등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그림 5-14 참고), 스위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 단독, 양자, 다자 협력의 형태로 아세안에서 CDM 사업을 전개하고

335) "Clean coal clean enough?"(2018. 11. 6), <https://theaseanpost.com/article/clean-coal-clean-enough>(검색일: 2019.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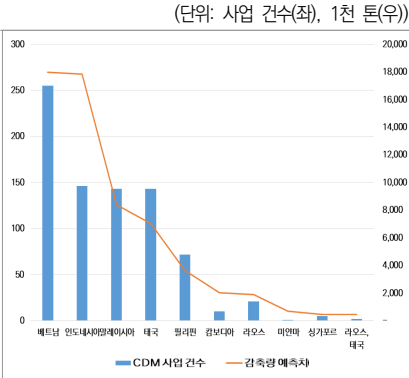
336) UNFCCC, What is the CDM, <https://cdm.unfccc.int/about/index.html>(검색일: 2019. 11. 5).

337) CDM 사업분야로는 에너지(재생, 비재생),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폐기물 처리, 농업 등 15개 분야가 있음.

338) 2019년 11월 5일 UNFCCC에 등록된(registered) 사업 기준이며 소규모 사업인 프로그램 CDM(PoA: Programme of Activities)은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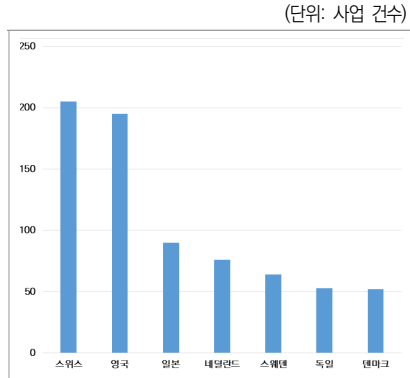
있다(그림 5-15 참고).

그림 5-14. 아세안 CDM 사업 현황



주: 2019년 11월 5일 현재 등록된 사업 기준(registered), 좌축은 CDM 사업 건수, 우축은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예측치(천 톤).
 자료: UNFCCC, CDM Project Search, <https://cdm.unfccc.int/Projects/projsearch.html>(검색일: 2019. 11. 5)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5-15. 주요국의 대아세안 CDM 사업



주: 2019년 11월 5일 현재 등록된 사업 기준(registered),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한 사업인 경우도 포함.
 자료: UNFCCC, CDM Project Search, <https://cdm.unfccc.int/Projects/projsearch.html>(검색일: 2019. 11. 5) 토대로 저자 작성.

아세안은 1999년 아세안 에너지 센터(ACE: ASEAN Centre for Energy)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을 위한 역내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CE의 주요 프로그램은 APAEC 주요 프로그램과 일치하는데 △ 아세안 전력망 △ 범아세안 가스 파이프라인 △ 석탄 및 청정석탄기술 △ 에너지 효율 및 보존 △ 재생에너지 △ 에너지 정책 및 계획 등이다. ACE는 독일과 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이며, 일본은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 USAID는 아세안 청정에너지 분야에 향후 5년간 7억 5,000만 달러를 조성하고 500MW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지원하기 위한 Clean Power Asi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표 5-13 참고).

표 5-13. 아세안 에너지 센터(ACE)의 협력 프로그램

사업명	기간	분야	내용	협력국가 /기관
석유비축로드맵 (ORMS)	2008~	가스 파이프라인, 역내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아세안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해 석유 비축에 관한 로드맵 개발	아세안+3
온실가스 감축협력 프로그램	2007~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아세안+3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 배양, 정보 공유, 온실가스 감축 비즈니스 기회 창출	한국 에너지공단
아세안 에너지 효율 표준화 (ASEAN SHINE)	2010~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아세안 에어컨 에너지 효율 개선, 역내 에너지 효율 표준화(에어컨은 아세안 가정 전력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함)	UNEP ICA ³³⁹⁾ EU
아세안 재생에너지 지원프로그램 (ASEAN-RESP)	2010 ~16	재생에너지	아세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활동 - 재생에너지 그리드 통합 지침 - 재생에너지 대출 지침 - 아세안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디렉토리 - 재생에너지 기술 평가 및 균등화 발전 비용 분석 - 재생에너지 훈련 제도	독일 GIZ
아세안·독일 에너지 프로그램(AGEP)	2016~	재생에너지	ASEA-RESP 확장 및 연장 차원의 사업 으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APAEC) 2016-2025 실현을 지원 - 재생에너지 정책 강화 - 재생에너지 금융 및 보험정책 확대 -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을 위한 금융 지원 메커니즘 개발 -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네트워크 강화	독일 GIZ, BMZ
아세안·일본 에너지효율 파트너십(AJEEP)	2012~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아세안·일본 협력 강화, 민간 참여 촉진을 통한 비즈 니스 모델 개발, 회원국 간 격차 완화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 공급 및 안보계획(ESSPA)	~2014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아세안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원 (에너지 수급 전망을 위한 기술 노하우 전수)	일본 에너지 경제연구소
아세안 기후변화 및 에너지 사업(ACCEPT)	2018~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아세안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APAEC를 에너지 안보, 접근성, 비용, 지속가능성 차원으로 평가	노르웨이 국제관계 연구소(NUPI)

339) UNEP: 유엔환경계획, ICA: 국제구리협회.

표 5-13. 계속

사업명	기간	분야	내용	협력국가 /기관
미·아세안 에너지 협력사업	-	범분야	미·아세안 에너지협력 작업계획 2016-2020 -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 천연가스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 USAID Clean Power Asia(2017~) - 메콩 유역 국가와 아세안 개도국의 청 정에너지원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사 업(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를 통합한 전 력정책의 개발)	-

자료: ASEAN Centre for Energy, <https://www.aseanenergy.org/>(검색일: 2019. 10. 21).

EU는 1970년대부터 아세안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전략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³⁴⁰⁾ 1977년 EU와 아세안의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가 시작된 이후 아세안·EU 장관회의(ASEAN-EU Ministerial Meeting) 등을 통해 협력 분야와 우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EU는 2015년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EU and ASEAN: A partnership with a strategic purpose)³⁴¹⁾을 통해 상호 번영을 위한 협력 분야로 아세안 통합, 교역 및 투자 촉진, 수송, 연구 및 혁신, 지속가능한 환경 등에 관한 협력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7년 ASEAN-EU Plan of Action(2018~2022)³⁴²⁾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아세안과 EU는 2019년 4월 기후행동에 관한 대화(Dialogue on Climate Action)를 시작하여 같은 해 7월에는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고위급대화(High-level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가 본

340) EU, "EU-ASEAN relations, factsheet,"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30722/EU-ASEAN%20relations,%20factsheet(검색일: 2019. 10. 28).

341)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EU and ASEAN: a partnership with a strategic purpos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JOIN%3A2015%3A22%3AFIN&%3Bfrom=EN>(검색일: 2019. 10. 30).

342) ASEAN Secretariat(2017), ASEAN-EU Plan of Action(2018~2022), <https://asean.org/storage/2017/08/ASEAN-EU-POA-2018-2022-Final.pdf>(검색일: 2019. 10. 30).

격 출범하였다.³⁴³⁾ EU의 전문성 및 경쟁력이 높은 분야이자 아세안의 환경 관련 개발 니즈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도시, 폐기물 관리 등의 분야가 주요 협력 분야로 논의되었다.

EU는 아세안과 다양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히 2018년 시작한 민간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EU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아세안과 협력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³⁴⁴⁾ EU는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역내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외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수송(항공, 선박 등)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조치(market-based measure)를 도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탄소상쇄·감축 제도(CORSIA)³⁴⁵⁾를 도입하여 국제항공업계의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연료 및 항공기 기술의 개발과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³⁴⁶⁾ CORSIA는 2021~26년 기간에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한편 아세안의 민간항공시장은 지난 20년간 연 6.6% 성장하여 2030년에는 글로벌 시장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9,000만 톤에 달한다.

이에 EU는 2018년부터 4년간 400만 유로를 투입하여 아세안 항공 분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회원국 간 정책대화를 지원하고 회원국의 항공업계가 2021년부터 CORSI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343) ASEAN 홈페이지, ASEAN, EU to enhance cooperation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https://asean.org/asean-eu-enhance-cooperation-protection-environment-climate-change/>(검색일: 2019. 11. 18).

344) EU, "Action Fiche for EU-South East Asia Cooperation on Mitigating Climate Change Impact from Civil Aviation," https://ec.europa.eu/fpi/sites/fpi/files/annexes_aap_2018_phase_ii_1.pdf(검색일: 2019. 10. 30).

345)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346) IATA 홈페이지 보도자료(2019. 6. 2), <https://www.iata.org/contentassets/73532786767640e0a6118da932617b37/2019-06-02-04-kr.pdf>(검색일: 2019. 11. 18).

방침이다.³⁴⁷⁾ 아세안 회원국의 관련 정책 자문, ICAO에 제출할 국가행동계획 작성 및 개정 지원, 항공 분야 이산화탄소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다. 기타 환경 분야

1) 생물다양성

국제사회는 국제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통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를 채택하였다.³⁴⁸⁾ 이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손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아세안은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3%에 불과하나 전 세계 동식물의 18%가 아세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³⁴⁹⁾ 산림, 농축산물, 육수(inland water), 해안 및 해양 등 역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확보 가능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국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3~17년 평균 6억 4,500만 달러의 ODA가 생물다양성 목적의 사업을 통해 아세안에 제공되었다. 해당 기간 아세안의 생물다양성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ODA를 제공한 공여국으로는 일본(2억 500만 달러), 미국(8,700만 달러), 독일(5,500만 달러), 영국(5,100만 달러), 호주(4,900만 달러) 등이 있고, 우리나라는 7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그림 5-16 참고).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ODA 지원을 많이 받은 국가는 베트남(2억 3,500만

347)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상 4개국만 CORSIA 초기 참여를 약정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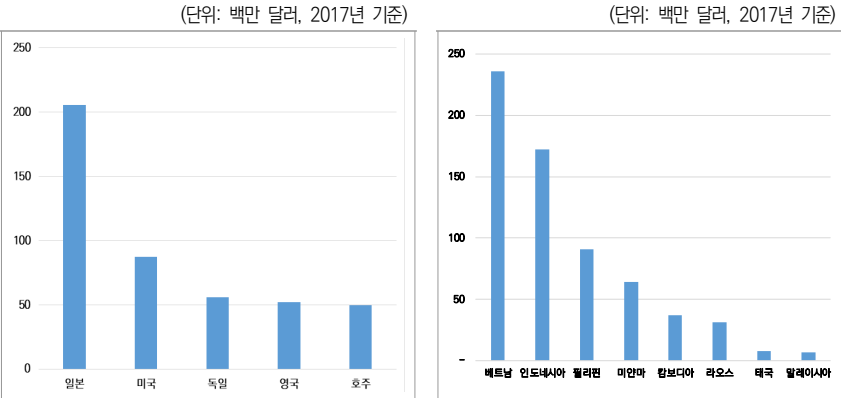
348)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ichi Biodiversity Targets Fliers, <https://www.cbd.int/doc/strategic-plan/2011-2020/Aichi-Targets-EN.pdf>(검색일: 2019. 10. 30).

349) “Southeast Asia steps up biodiversity policy”(2019. 7. 19), <http://www.chinadaily.com.cn/a/201907/19/WS5d312181a310d830563ffe55.html>(검색일: 2019. 10. 30).

달러)과 인도네시아(1억 7,200만 달러)로, 이는 아세안 전체 ODA의 63%에 해당한다(그림 5-17 참고).

그림 5-16. 대아세안 생물다양성 ODA
주요 공여국(2013~17년 평균)

그림 5-17. 아세안 회원국별 생물다양성
ODA(2013~17년 평균)



주: Gross Disbursement, ODA grant와 loan, 생물다양성 분야(sector)가 아닌 정책마커 기준 생물다양성으로 표시된 사업 기준임.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 (CP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10. 10) 토대로 저자 작성.

주: Gross Disbursement, ODA grant와 loan, 생물다양성 분야(sector)가 아닌 정책마커 기준 생물다양성으로 표시된 사업 기준임.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 (CP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10. 10) 토대로 저자 작성.

2005년 아세안은 역내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활용, 천연자원 사용을 통해 생긴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나아가 국제협력력을 도모하기 위해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 ASEAN Centre for Biodiversity)를 설립하였다. ACB는 2010년과 2017년 아세안 생물다양성 전망(ASEAN: Biodiversity Outlook)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제도 강화, 생물다양성 보호, 나고야 의정서³⁵⁰⁾ 이행을 위한 역량 배양, 생물자원을 활용한 상품(BBP:

350)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유전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 ABS 연구센터, 나고야의정서, <https://www.abs.re.kr/app/absInfo/nagoya>

Biodiversity-based Product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주요 협력국가로는 EU,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있다(표 5-14 참고).

표 5-14.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의 협력 프로그램

사업명	기간	예산	내용	협력국가/기관
아세안 회원국의 생물다양성 보호(CARE4BioDiv)	2015-19	-	아세안 회원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사업 - 아세안 생물다양성 분야 제도 강화(ISB) - 생계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상품(BBP) -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리를 위한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small grants programme)	독일 BMZ, GIZ, KfW
아세안 생물다양성 분야 제도 강화(ISB)	2015-19	500만 유로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 본연의 기능 수행 (재정, 제도, 조직, 기술 등에 관한 협력)	독일 GIZ
아세안 생물다양성 분야 제도 강화(ISB II)	2019-21	200만 유로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 본연의 기능 수행 (재정, 제도, 조직, 기술 등에 관한 협력)	독일 GIZ
생물자원을 활용한 상품(BBP)	2015-19	400만 유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완충지대(buffer zones)를 대상으로 BBP의 경제적 잠재력과 시장성 대한 분석(특히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에 미치는 영향)	캄보디아 환경부, 라오스/베트남 자원환경부, GFA 컨설팅그룹, GIZ, BMZ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	2014-19	1,000만 유로	인도네시아, 미얀마(이상 1단계), 베트남(2단계)의 유산공원(heritage park)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 실시	KfW
아세안 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관리(BCAMP)	2017-21	1,000만 유로	아세안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 보존의 효과성 개선, 유산공원과 보호구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분석, 개발계획 수립과 교육 시스템에 생물다양성 보존과 보호구역 관리를 주류화	EU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 (AKECOP)	-	-	한국은 당초 아세안 열대지역의 산림 복구 사업 (2000~2011)을 지원하였고 이후 ACB와의 협력 강화, AKECOP-ACB MOU 체결(2013)	-

View.do(검색일: 2019. 10. 30).

표 5-14. 계속

사업명	기간	예산	내용	협력국가/기관
JAIF 기금 사업	2015-20	-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분류학적 역량 및 인력 강화	일본 환경성
아세안·중국 환경협력행동계획 II	2014-15	24만 달러	생물다양성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대중인식 개선, 정보 공유, 주류화	중국 아세안 환경협력센터 (CAEC)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 · 인도 생물다양성청 협력	-	-	아세안과 인도의 경험 공유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아이치 목표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특히 유전자원과 이익 공유,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중심으로)	인도 생물다양성청 (NBA)

자료: 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Our Key Programmes, <https://aseanbiodiversity.org/our-key-programmes/> (검색일: 2019. 10. 18).

독일은 ACB와 가장 활발히 협력하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사업(BCCP: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Project)을 통해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아세안 유산공원(AHP)과 보호구역(PA)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에코투어리즘(eco-tourism), 협력관리 시스템 개발, 지역사회의 참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강화, 관리지침 개발 등을 주제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³⁵¹⁾ 해당 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생물다양성 관리 및 보존 정책 수립 시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역사회의 생계 및 복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는 이후 독일이 시행하는 해당 분야 사업의 주요 요소로 반영되었다. 또한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 국제협력공사(GIZ), 정책금융기관인 KfW 등은 2015-2019년 아세안 회원국의 생물다양성 보호(CARE4BioDiv) 프로그램하에 아세안 생물다양성 분야의 제도 강화와 생물자원을 활용한 상품(BBP) 개발과 활용 등을 지원한 바 있다.³⁵²⁾

351) ASEAN Secretariat, Sharing Lessons from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Projects in ASEAN, <https://environment.asean.org/sharing-lessons-from-biodiversity-and-climate-change-projects-in-asean/> (검색일: 2019. 10. 30).

이외에 일본은 JAIF 기금을 활용하여 분류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CAEC를 중심으로 아세안·중국 환경협력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아세안과 인도의 전문가 교류를 기반으로 유전자원과 이익 공유, 도시의 생물다양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해양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또는 해양폐기물 문제는 최근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던 중국이 2018년 1월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의 폐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다.³⁵³⁾ 2016년 전 세계 폐기물 수입량의 5%에 불과하던 아세안의 폐기물 수입량은 2018년 전체 수입량의 27%까지 비중이 높아졌다.³⁵⁴⁾

과도하고 비합법적인 폐기물 수입, 오염물질이 섞인 폐기물 처리 문제, 해양 폐기물 문제까지 겹치면서 아세안 회원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과 정책을 전면 검토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등 폐기물 수입이 많은 아세안 회원국은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나아가 2018년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였고,³⁵⁵⁾ 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 2018~2030을 통해 2027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계획을 발표하였다.³⁵⁶⁾ 2019년 6월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해양폐기물 해결을 위한 방콕선언」³⁵⁷⁾과 「해양폐기물

352)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 the ASEAN Member States in Cooperation with the ASEAN Centre for Biodiversity(CARE4BioDiv), <https://snrd-asia.org/download/Care4Biodiv-Brief2-2016-web.pdf>(검색일: 2019. 10. 30).

353) Greenpeace(2019), p. 4.

354) Greenpeace(2019), p. 5.

355) Malaysia's Roadmap towards Zero Single-use Plastics 2018-2030, <https://www.mestec.gov.my/web/wp-content/uploads/2019/03/Malaysia-Roadmap-Towards-Zero-Single-Use-Plastics-2018-20302.pdf>(검색일: 2019. 10. 31).

356) "Thailand to Junk Three Kinds of Plastic by End of This Year"(2018. 4. 18), <https://www.nationthailand.com/national/30367931>(검색일: 2019. 10. 31).

에 관한 아세안 행동 프레임워크」³⁵⁸⁾를 채택하며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아세안, 국제적 협력과 행동을 촉구하였다. 해양폐기물에 관한 아세안 행동 프레임워크는 △ 정책지원 및 계획 △ 연구, 혁신, 역량 배양 △ 인식 개선, 교육, 홍보 △ 민간 참여로 구성되며, 해당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향후 아세안 해양폐기물 경감 센터가 설립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019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³⁵⁹⁾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도 바젤협약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부속서 개정이 결정되었다. 같은 해 G20 정상회의와 환경·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폐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일본이 제안한 「G20 해양폐기물 이행체계」³⁶⁰⁾와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 즉 2050년까지 해양폐기물을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조를 바탕으로 아세안의 폐기물,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 아세안 해양폐기물 경감 역량강화 사업(아세안+3) △ 해양폐기물에 관한 아세안-PROBLUE 활동(세계은행) △ 플라스틱 오염 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사업(노르웨이) △ 순환경제를 위한 아세안·EU 파트너십(EU) 등이 대표적이다.³⁶¹⁾ 특히 일

357) ASEAN Secretariat(2019c), Bangkok Declaration on Combating Marine Debris in the ASEAN Region. <https://asean.org/storage/2019/06/2.-Bangkok-Declaration-on-Combating-Marine-Debris-in-ASEAN-Region-FINAL.pdf>(검색일: 2019. 10. 31).

358) ASEAN Secretariat(2019b), ASEAN Framework of Action on Marine Debris. <https://asean.org/storage/2019/06/3.-ASEAN-Framework-of-Action-on-Marine-Debris-FINAL.pdf>(검색일: 2019. 10. 31).

359) 정식 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임.

360) G20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Actions on Marine Plastic Litter.

361) ASEAN Secretariat(2019a), 15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nd the 15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https://asean.org/15th-asean-ministerial-meeting-environment-15th-meeting-conference-parties-asean-agreement-transboundary-haze-pollution/>(검색일: 2019. 10. 28).

본은 110만 달러를 투입하여 UNEP와 함께 동남아와 인도를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경감을 위한 정보 및 지식 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3의 해양폐기물 경감사업 역시 주도하고 있다.

폐기물과 해양폐기물 나아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향후 아세안 환경 분야의 중요한 의제로 발전될 것이며, 따라서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민간 참여 및 민관협력의 기회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글상자 5-1. 바젤협약과 해양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이하 바젤협약)은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개도국으로 유해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는 등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2019년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COP14)는 플라스틱 폐기물(unclean plaster wastes)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내용이 담긴 부속서 개정에 합의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상대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한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인 Partnership on Plastic Waste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국가간 유해폐기물 이동에 관한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폐기물까지 적극 포함하려는 모습이다.

자료: 환경부(2014): 일본 경제산업성, Fourte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COP14) Held,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9/0514_002.html(검색일: 2019. 11. 6)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글상자 5-2. 다자기구 및 기금을 통한 아세안 환경협력

세계은행, ADB 등의 다자기구는 아세안 회원국을 상대로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믹스 전환, 생물다양성, 폐기물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기후투자기금(CIF), 녹색기후기금(GCF) 등 환경문제에 특화된 기금에서도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이같이 다자기구 및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UNEP, UNDP, ADB, 세계은행(IFC, IBRD 등), UN-Habitat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원조달과 기술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CIF는 청정기술기금(CTF), 산림투자프로그램(FIP), 기후회복력 시범프로그램(PPCR), 저소득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SREP) 등 주제별 세분화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투자나 지열 청정에너지 사업, 태국·필리핀·캄보디아의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등에 CTF 기금이 활용되었다. GCF는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안 지역의 회복력 개선 사업에 4,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 국가가 아닌 아세안 차원의 환경협력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ADB는 아세안에 1조 달러 이상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 출범을 발표하였다. 해당 기금은 아세안 인프라 기금(AIF), ADB, KfW, EIB, 프랑스 개발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OECD와 GGGI는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에 관한 지식 공유와 역량 배양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해당 기금에 3억 5,000만 달러의 협조융자와 500만 달러의 기술협력을 공약하였다. 세계은행은 2018년 일본과 아세안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이 기후 및 재해위험에 대한 금융 및 재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SEADRIF)를 지원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신탁기금(ICCTF)을 만들어 USAID, UKaid, UNDP 등과 감축, 적응, 에너지, 해양보존 등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Adaptation Fund, Projects Table View, <https://www.adaptation-fund.org/projects-programmes/project-information/projects-table-view/>; CIF, Countries, https://www.climateinvestmentfunds.org/cif_enc/country; ADB(2019a), New Facility to Mobilize \$1 Billion for ASEAN Green Infrastructure, <https://www.adb.org/news/new-facility-mobilize-1-billion-asean-green-infrastructure>; ADB(2019b), Republic of Korea Pledges \$355 Million to Support ASEAN Green Infrastructure and Ocean Health, <https://www.adb.org/news/republic-korea-pledges-355-million-support-asean-green-infrastructure-and-ocean-health>; GCF, Project Programmes, <https://www.greenclimate.fund/what-we-do/projects-programmes#gcf-project>; 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SEADRIF), <https://assets.rockefellerfoundation.org/app/uploads/20190226112408/SEADRIF.pdf>(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11. 6).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가. 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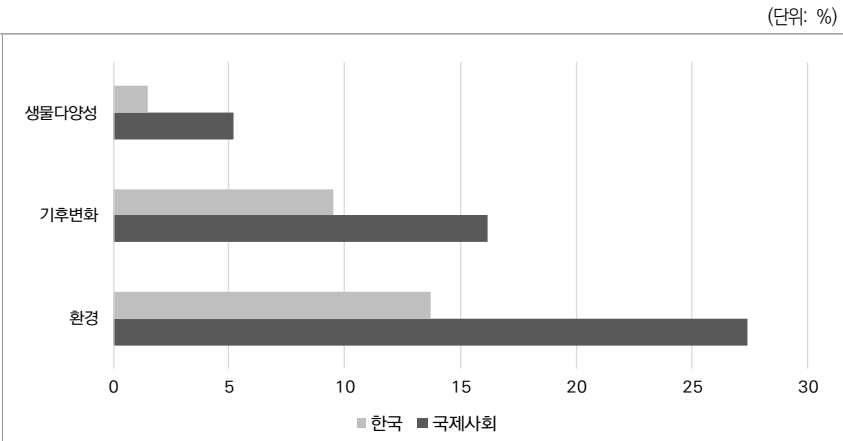
1) ODA 지원 현황

앞서 [표 5-3]을 통해 국제사회가 2013~17년 평균 아세안 8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에 123억 5,000만 달러의 ODA를 제공하였으며, 이 중 33억 9,000만 달러(27.4%)는 환경보호 목적, 20억 달러(16.2%)는 기후변화 사업에 활

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 아세안에 제공한 4억 6,000만 달러의 ODA 가운데 환경과 기후변화 목적 사업은 각각 13.7%와 9.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그림 5-18, 표 5-15 참고). 또한 기후변화 목적의 ODA에서 감축과 적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사회의 경우 각각 44.1%와 32.1%인 반면, 우리나라는 적응의 비중이 65.6%로 감축(3.2%)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제공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상당 부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물다양성과 사막화방지 사업은 전체 ODA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과 같이 우리나라가 제공한 아세안 회원국별 ODA 현황을 비교한 결과, 환경목표가 부수적 또는 주목적인 활동 비중이 높은 국가는 베트남(18.3%), 인도네시아(14.5%), 필리핀(13.4%) 등이었고, 기후변화 목적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28.1%), 필리핀(13.4%), 태국(9.8%) 순이었다.

그림 5-18.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ODA 중 환경 분야 비중 비교(마커 기준)



주: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ODA 전체 금액 대비 정책마커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환경 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의 비중, Disbursement 기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제외, ODA grant와 ODA loan만 포함, 마커는 중복표시가 가능함.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8. 12) 토대로
 저자 작성.

표 5-15.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마커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7년 기준)

연도	ODA 합계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금액	비중	감축	적응	감축적응 공통	기후변화 합계	기후변화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3	435.5	66.7	15.3	0.6	21.4	27.3	49.3	11.3	5.4	1.2	10.6	2.4
2014	413.9	71.8	17.3	1.3	10.4	7.8	19.5	4.7	7.5	1.8	6.0	1.4
2015	505.9	72.3	14.3	2.0	34.9	17.2	54.1	10.7	8.3	1.6	7.7	1.5
2016	450.7	47.4	10.5	1.9	42.3	8.3	52.5	11.6	9.3	2.1	3.4	0.7
2017	497.0	57.8	11.6	1.5	33.9	7.5	42.9	8.6	4.7	0.9	3.3	0.7
2013~17 평균	460.6	63.2	13.7	1.4	28.6	13.6	43.6	9.5	7.0	1.5	6.2	1.3

주: Disbursement 기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제외, ODA grant와 ODA loan만 포함, 마커는 중복표시가 가능함.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8. 12) 토대로
 저자 작성.

표 5-16.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환경 분야 ODA 현황(마커 기준, 국가별)

(단위: 백만 달러, %, 2017년 기준)

국가	ODA 합계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금액	비중	감축	적응	감축적응 공통	기후변화 합계	기후변화 비중	금액	비중
캄보디아	66.9	4.1	6.1	0.2	2.2	0.6	2.9	4.4	0.6	0.9
인도네시아	44.8	6.5	14.5	0.5	9.9	2.2	12.6	28.1	1.9	4.2
라오스	47.6	4.9	10.3	0.2	0.7	0.5	1.4	2.9	0.9	1.9
말레이시아	0.3	0.0	4.8	-	0.0	0.0	0.0	2.9	0.0	0.8
미얀마	37.8	2.4	6.2	0.4	0.7	0.8	2.0	5.3	1.5	4.0
필리핀	52.4	7.0	13.4	0.0	5.8	1.2	7.0	13.4	1.1	2.1
태국	5.1	0.6	11.4	0.0	0.0	0.5	0.5	9.8	-	0.0
베트남	205.7	37.7	18.3	0.2	9.1	7.9	17.2	8.4	1.1	0.5

주: 2013~17년 평균, Disbursement 기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제외, ODA grant와 ODA loan만 포함, 마커는 중복표시가 가능함.

자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8. 12) 토대로
 저자 작성.

2) 주요 대화채널 및 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다자 차원으로 환경, 기후, 에너지 등 분야에 특화된 고위급 대화채널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2000년부터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2002년부터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환경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³⁶²⁾ 특히 최근 신남방 정책을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관련 부처와의 양자 회담이나 MOU 체결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에는 한·베 정상선언 후속 환경장관회담 및 포괄적 환경협정 MOU 체결(4월), 한·싱 정상회의 계기 한·싱 환경장관회의 및 환경협력 MOU 체결(7월), 한(환경부)·인니(해양·자원 조정부) 양자면담(12월) 등 다수의 양자 간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하수처리, 폐기물, 환경정책, 기후변화 등에 관한 협력안을 논의하였다.³⁶³⁾ 미얀마와는 2016년부터 생물자원 협력 환경차관회담을 진행하고 있다.³⁶⁴⁾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사업은 △ 생물다양성 및 유용생물 연구 △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 환경정책 및 마스터플랜 자문 등에 관한 공동연구, 유학생 초청, 전문가 파견, 산학협력 등으로 구성된다.

362) 환경부, 보도자료, 한-베트남 환경장관, 2019년도 환경 협력 과제 확정,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930850&menuId=2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병욱 환경부차관 제8차 ASEAN+3 환경장관회의 참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387228&pageIndex=4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2019-01-27&srchWord\(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31\)](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387228&pageIndex=4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2019-01-27&srchWord(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31)).

363) 환경부, 보도자료, 베트남과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하수처리 등 환경분야 기술협력 강화 합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855580&menuId=286>; 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싱가포르와 양해각서 체결, 환경협력 강화 합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883420&menuId=286>; 환경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조정부 장관과 양자면담, [http://www.me.go.kr/minister/web/board/read.do;jsessionid=m2dT6rbjZac8wyLSMPkNxBZ.mehome2?pagerOffset=72&maxPageItems=6&maxIndexPages=5&searchKey=&searchValue=&menuId=378&orgCd=&boardId=928530&boardMasterId=7&boardCategoryId=5&rn=77\(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31\)](http://www.me.go.kr/minister/web/board/read.do;jsessionid=m2dT6rbjZac8wyLSMPkNxBZ.mehome2?pagerOffset=72&maxPageItems=6&maxIndexPages=5&searchKey=&searchValue=&menuId=378&orgCd=&boardId=928530&boardMasterId=7&boardCategoryId=5&rn=77(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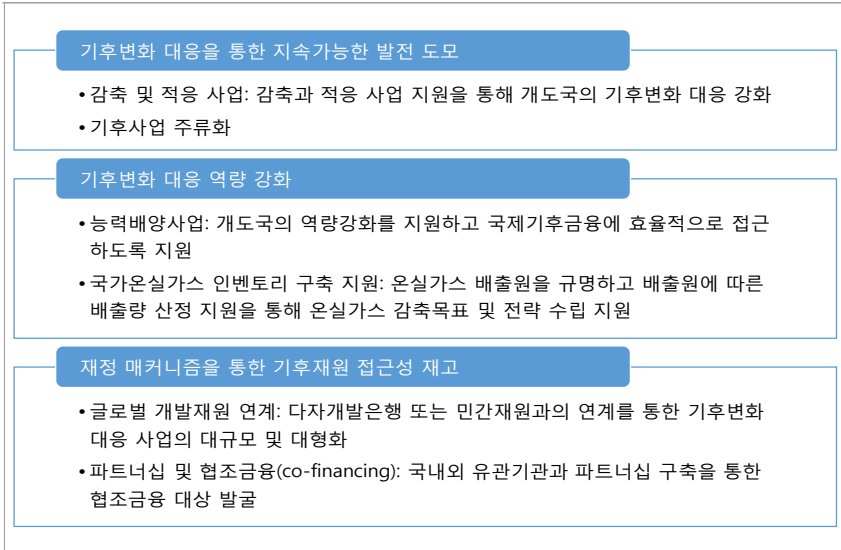
364) 환경부, 보도자료, 미얀마 최북단에서 생물다양성 협력연구 본격화,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NU9UqZHDiwa1WbmMNr0IvJD2.mehome1?pagerOffset=98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8689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검색일: 2019. 10. 31\)](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NU9UqZHDiwa1WbmMNr0IvJD2.mehome1?pagerOffset=98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8689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검색일: 2019. 10. 31)).

한편 우리나라가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아세안 6개국의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의 중점협력 분야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환경보호, 재해예방 등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포함되었다(표 5-17 참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중점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협력 전반에 환경에 대한 고려를 주류화하는 것이다. 환경과 기후변화는 특정 분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교육, 보건, 행정, 교통, 지역개발, 농촌개발 등 모든 개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적(cross-cutting)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개발협력 전략 수립, 사업 설계, 모니터링 및 평가 전반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KOICA는 기후변화 중기 지원전략(2016~2020)을 토대로 △ 기후변화를 개발사업에 주류화 △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역량 강화 △ 글로벌 개발재원 연계 및 협조금융 확대를 통한 개발사업으로 개도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그림 5-19 참고).

표 5-17. 아세안 회원국 국가협력전략에 명시된 중점분야

중점협력국	CPS에 명시된 중점분야			
라오스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지역개발
미얀마	공공행정(거버넌스)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베트남	공공행정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인도네시아	교통	공공행정	환경보호	물 관리
캄보디아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필리핀	지역개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재해예방

자료: 국가협력전략,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asia/Vietnam.jsp(검색일: 2019. 10. 31)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자료: KOICA(2017), pp. 170~174.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중 평화공동체 관련 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정책은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며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는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지역의 대응역량, 나아가 신남방지역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당해 연도 50개 범부처 중점사업에도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과제로 △ 산림협력 강화 △ 해양쓰레기 조사 및 수거 △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구축 △ 산불재난관리 시범사업 등이 제시되었다(표 5-18 참고).

표 5-18.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 계획(2019년)

사업명	담당부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산림활용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협력 강화	산림청	(AFoCO) 베트남 등 신남방 9개국 대상 아시아산림협력 기구(AFoCO)를 통한 산림복원 및 산림자원 조성 등 경제개발 지원	2018 ~23
		(REDD+) ³⁶⁵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대상 대체소득원 및 역량 개발을 통한 산림훼손 방지 및 지역 소득사업 교육지원을 위한 REDD+ 시범사업	2019 ~22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및 수거사업	해수부 신남방 특위	해양쓰레기 배출 상위 3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대상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부유 쓰레기 수거 △ 3개국 시범지역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 역량 강화 워크숍 △ 모니터링 지침서 및 관리계획 수립 △ 청항선 배치 및 수거	2021 ~23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구축	환경부	△ 인프라 구축(연구센터, 유용생물 대량증식장 설치 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물자원 증식 공동연구 등	2019 ~
산불재난관리센터 시범사업	산림청	△ 화재다발지역(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내)에 산불재난관리센터 건립 △ 산불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 △ 선진 스마트 산불예방·진화장비 보급	2021 ~25
훼손된 습지(이탄지) 복원 및 보전	산림청	훼손된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및 소택지 재배, 생태관광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보전 도모	2019 ~22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4. 30, 검색일: 2019. 10. 14).

3) 주요 추진 사업

[표 5-19]는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는 유무상 원조 사업 중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로 포함하는 재해관리, 감축, 생물다양성,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사업을 정리한 표이다. 대부분 양자무상 성격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또는 국가 시스템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에 제공한 양자사업 가운데 지원 규모가

365)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큰 사업으로는 캄보디아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사업(920억 원)과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870억 원)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자연재해 발생 횟수가 많고 강도가 높거나 최근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관리, 기상 조기예경보, 복원력 강화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다. 산림, 유역관리, 해안개발 등의 사업도 아세안의 지리학적 특성과 환경 및 기후변화 관점에서 개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5-19.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양자 협력사업¹⁾

(단위: 억 원)

대상국	사업명	사업 유형	사업 기간	사업 규모	2019년 예산	구분
라오스	남능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개발컨설팅	2016~19	30.55	0.10	양자무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 역량 강화	연수생초청	2016	0.11	-	양자무상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²⁾	프로젝트	2015~19	874.34	28.40	양자유상
	에너지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프로젝트	2018~20	40.36	23.37	양자무상
	지속가능한 고체폐기물 관리방안	개발컨설팅	2019~20	5.2	4.16	양자무상
	녹색성장 분야 투자 촉진방안	개발컨설팅	2019~20	3.2	2.56	양자무상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ODA	프로젝트	2016~19	20.96	6.60	양자무상
미얀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관리역량 강화 사업	프로젝트	2013~16	3.98	-	양자무상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 강화사업	프로그램	2019~23	107.35	1.00	양자무상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프로젝트	2017~19	40.63	16.31	양자무상
베트남	폐기물재활용기술연구 역량 강화사업	프로젝트	2013~15	2.58	-	양자무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 역량 강화	연수생초청	2016	0.05	-	양자무상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설비 개선사업	프로젝트	2018~20	236.76	20.24	양자유상
	평빈성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	2012~19	134.82	14.02	양자유상

표 5-19. 계속

대상국	사업명	사업 유형	사업 기간	사업 규모	2019년 예산	구분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시범사업	프로젝트	2018-21	39.55	12.00	양자무상
	연안 수산자원조성 · 관리 모델 구축	프로젝트	2018-22	19.7	4.90	양자무상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ODA	프로젝트	2016-19	20.96	6.60	양자무상
인도네시아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프로젝트	2013-17	3.70	-	양자무상
	북수마트라 사모서섬 친환경 에너지 시설 및 수자원 관리제도 구축	프로젝트	2019-21	7	1.00	양자무상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 강화 사업	프로젝트	2019-22	50.00	12.00	양자무상
	해양쓰레기 관리개선 사업	프로젝트	2019-21	6.00	2.00	양자무상
	산림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술 지원	프로젝트	2009-21	7.75	6.40	양자무상
	한 · 인도네시아 잠비주 이탄지 복원 및 보전 프로젝트	프로젝트	2019-22	33	4.14	양자무상
	한 · 인도네시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사업	프로젝트	2015-19	32.4	5.40	양자무상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기후변화협약대응 한 · 개도국 협력)	개발컨설팅	2017-20	7.81	2.00	양자무상
	피따룽강 지속가능한 홍수예경보 역량 강화	연수사업	2019-20	2.43	1.22	양자무상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종합개발 컨설팅 사업	개발컨설팅	2014-19	106.4	30.00	양자무상
캄보디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 역량 강화	연수생초청	2016	0.11	-	양자무상
	식사학위-대기과학 역량 강화	연수생초청	2017-19	0.54	-	양자무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	개발컨설팅	2019-20	12	6.00	다자성양자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사업	프로젝트	2018-22	920.82	5.16	양자유상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프로젝트	2019-21	30.61	1.69	양자무상
	메콩강 유역 산림협력사업(캄보디아)	프로젝트	2016-20	21	5.00	양자무상
	연안 ·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	연수사업	2017-19	4.5	1.78	양자무상

표 5-19. 계속

대상국	사업명	사업 유형	사업 기간	사업 규모	2019년 예산	구분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 변화 적응사업	프로젝트	2016-19	870.92	136.02	양자유상
	메트로 마닐라 홍수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프로젝트	2015-19	53.56	1.60	양자무상
	기상 수치예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역량 강화	프로젝트	2019-21	3.645	1.22	양자무상
	북부 일로일로 태풍피해 여항 복구사업	프로젝트	2015-19	56.65	29.00	양자무상
	GGGI 미마로파 낙후 농촌 지역 기후 복원력 강화 지원사업	프로젝트	2019-21	56.5	5.65	양자무상

주: 1)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들을 분류함.

2) 참고로 2019년 7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자료: KOICA, 통합사업관리, <http://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lang=ko>(검색일: 2019. 10. 31);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참고하여 정리.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아세안의 환경 및 기후변화 지원 목적의 민관협력 사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³⁶⁶⁾³⁶⁷⁾ 아세안 회원국의 환경 분야에 관한 CTS 사업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비전력가구를 위한 혁신적 태양광 시스템 보급사업이나 인도네시아 고효율 열전발전 램프 개발 및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전력 부족 지역에 합리적 가격의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재해 발생 시 취약층의 초동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대피안내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IBS 프로그램에서는 필리핀 칼리보 지역의 망그로브 숲을 활용한 친환경 수산양식사업을 통해 어민가구 소득 증대와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다.

366) CTS와 IBS에 대한 설명은 제3장 3절 참고.

367) 환경 분야의 CTS와 IBS 사업은 KOICA 홈페이지, 「2017~2018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브로셔」, pp. 23~27; 「2018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브로셔」, pp. 8~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9)를 참고하여 정리.

양자 사업에 비해 환경 분야에서 한·아세안 차원의 협력사업은 적은 편이다. 1990년 조성된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 2017~2020」에 따라 교육, 문화, 환경 등을 3개 우선분야로 지정하였다. 환경은 생태계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해당 기금의 지원으로 2015~16년 실시한 ‘아세안지역 훼손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은 아세안 10개국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지원, 라오스 공무원의 국내 학위과정 지원, CLMV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단기연수 등으로 구성되었다.³⁶⁸⁾ 이 외에도 아세안 물세도감, 재난재해 위험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정보 통합 시스템 개발 등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수행된 바 있다.³⁶⁹⁾

나. 평가 및 시사점

본 장의 1절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된 아세안의 각종 지표, 아세안 환경 및 재해관리 장관회의 의제, 중장기 전략 등을 검토하였다. 아세안의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결국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겠다. 관련 논의 동향을 검토하여 본 과제에서는 아세안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세부 분야이자 협력 수요로 재해관리(기후변화 적응 차원),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를 선정하였다.

2절에서는 일본, 독일, EU 등 국제사회의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현황을 살펴해보았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

368) 한·아세안 협력기금, 「소개」, http://www.aseanrofund.com/kor/sub_02/sub_01.asp(검색일: 2019. 11. 1).

369) 외교부(2018a), p. 39.

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7년부터 시작한 아세안·일본 환경협력 대화나 2019년 출범한 환경변화와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아세안·EU 고위급 대화 등의 사례와 같이 주요국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정책대화를 통해 아세안에서 우선시하는 환경 분야 협력 수요를 발굴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아세안·독일 에너지 프로그램, 아세안·일본 에너지효율 파트너십, 아세안 환경시범도시 프로그램 등과 같이 개별 회원국이 아닌 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협력 프로그램이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는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조 및 논의 동향에도 부합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된 EU의 아세안 민간항공 부문 감축사업은 국제항공업계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CORSIA)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사실상 해당 제도의 도입에 대비하는 사전 준비 성격의 사업이다. 국제항공 부문의 감축 논의를 주도해온 EU는 아세안 민간항공 감축사업을 통해 아세안 항공업계의 청정기술 도입과 및 감축 관련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국가와 지역이 항공 부문의 감축 노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재해위험 경감이나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협력사업을 선도하면서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아세안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같이 아세안의 수요와 글로벌 의제 사이의 접점을 찾아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보다 많은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다양한 자원(기술, 자금, 인력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아세안 에너지 센터(ACE),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센터) 등 아세안이 해당 주제에 관한 역내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 조직과 적극 협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간 협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000년부터 실시한 한·베 환경장관회의를 제외하고 아세안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 간 회담은 비교적 최근 해당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환경, 에너지, 기후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특화된 한·아세안 차원의 협의채널은 부재하며, 다만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정도가 다자간 논의를 대체하고 있다.

앞서 [표 5-15]와 같이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에 제공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목적의 ODA 사업이 해당 지역에 제공한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7%와 9.5%에 불과하다(2013~17년 평균). 국제사회가 같은 기간 대아세안 전체 ODA의 27.4%와 16.2%를 각각 환경과 기후변화 목적 사업에 제공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대상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수원국의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 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에서 중점 투자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를 포함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³⁷⁰⁾ 향후 아세안의 환경 분야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경쟁력 및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협력전략 또는 우선과제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370) 「메콩강 다양한 생물자원 개발...화장품·바이오산업 새 파트너로」(2019. 11. 1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53898/>(검색일: 2019. 11. 22).

제6장



한 · 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



1.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국의 협력가능 분야를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등 세 분야로 선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아세안의 현황,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분야는 아세안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채널 및 수단을 활용하여 관련 대외협력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아세안과의 공식적 협의채널의 미비로 한·아세안 간 교류 촉진 및 협력의제 발굴 등의 논의가 분절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외에 정례화된 아세안과의 장관급 협의채널은 외교·경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아세안 Dialogue는 정치안보와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다루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준비 성격의 협의채널이다.³⁷¹⁾ 그 밖에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의 경우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 문화·학술교류 분야의 양측 협력사업의 이행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한적 기능의 협의채널에 불과하다.³⁷²⁾

더불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등 사회문화의 세부분야별 협력관계 또한 아세안 차원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협력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의 분야별 협력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화된 공식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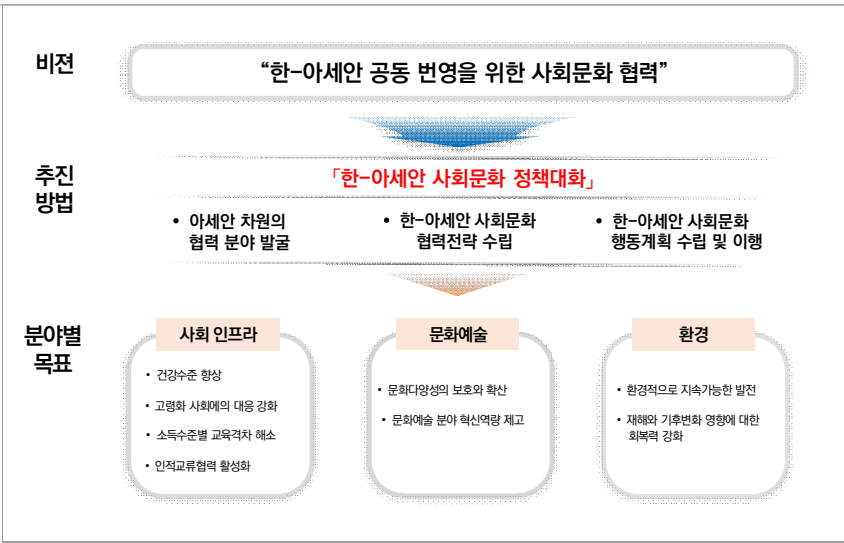
371) 외교부, 「한·ASEAN 개요」, http://www.mofa.go.kr/www/wpge/m_3925/contents.do(검색일: 2019. 11. 6); 외교통상부 아세안협력과(2017).

372) 외교부, 「한·ASEAN 개요」, http://www.mofa.go.kr/www/wpge/m_3925/contents.do(검색일: 2019. 11. 6).

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의 사회문화 협력의 비전을 ‘한·아세안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으로 설정하고,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라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상호협력 분야 발굴, 협력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사회문화 협력의 핵심 영역으로 앞서 제안된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환경 등 3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그림 6-1]에서 제시한 분야별 목표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간 체계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의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

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 산하에 4개의 작업반을 설치한 후 사회문화 차원 및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과제를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그림 6-2 참고). 이러한

범부처 차원의 협의 체계를 통해 아세안 차원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사업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 또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 사업을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부문, 다자기구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관련 부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우리나라 유·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KOICA, EDCF를 비롯하여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 채널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다자기구와도 함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분야별·사업별 중복 및 연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아세안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한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사업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련 노하우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³⁷³⁾ 세계은행의 경우 한국이 이미 환경 등을 포함한 개발 분야에서의 경험을 다자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단순히 시설 지원 등의 하드웨어적 요인 이외에, 그간의 경제사회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표준화와 자료 구축 및 관리, 인적역량 개발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373) 세계은행 기후변화 Senior Specialist, Taise Masuki 및 미국 국제개발처 아시아국 선임국장 Ann Marie Yastishock 인터뷰(2019. 10. 29, 미국 워싱턴 D.C.).

그림 6-2.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 추진체계(안)



주: 세계은행(WB: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Vaccine Alliance),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SEAMEO: 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자료: 저자 작성.

2. 분야별 정책과제

가. 사회 인프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은 ASCC 청사진을 토대로 회원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 소득그룹별 사회 인프라 격차가 남아 있고, 취약한 분야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국(기관)은 양자 협력과는 별도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고 자국이 보유한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며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해왔다. 우리나라 또한 아세안과의 중점협력 분야로 사회 인프라를 손꼽고 있으

나, 유사한 내용의 협력전략 아래 양자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아세안이 추진 중인 분야별 세부계획이나 고령화 등 최근 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관한 관심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와 같은 별도의 대화채널을 새롭게 마련하여 아세안의 수요에 적합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분야와 모델을 발굴한 후 민간과 다자기구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가 추진하는 아세안 간 인적교류 활동 또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득그룹별 우선 협력 분야 도출

현재 아세안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사회 인프라 지원사업들은 수원국의 물리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을 위해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서도 유사한 협력전략을 추진하는 등 수원국 소득수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며, 아세안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장애요인 등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시행한 후 이를 토대로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 산하 작업반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여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다. 또는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들을 하나의 지역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그룹별로 가장 취약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 후 이를 개선해간다면 역내 사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세안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아세안은 사회 인프라 영역을 대상으로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을 추진 중이다. 위의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 수요를 반영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위 작업 프로그램의 하위 성과지표 중 하나로 백신 관련 센터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으며, 2019년 정상회의에서도 백신 안보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³⁷⁴⁾ 우리나라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해당 분야의 전문 다자기구와 함께 이러한 기관 설립 및 인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이 교육 분야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산학협력을 활용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아세안 소재 대학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간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스마트시티 등 타 공동체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에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할 기회가 존재한다. 최근 아세안은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 등을 통해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과 수자원 관리역량을 강조하였고, 이는 건강 및 웰빙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무엇보다 아세안이 공동체 간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AEC 등 타 공동체의 사업과 ASCC 사업을 연계한 통합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정된 자원 규모와 인력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거나 인력을 민간 부문으로부터 일부 조달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KOICA의 민관 협력모델(CTS 등)을 아세안 차원의 협력사업에 응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74) ASEAN 홈페이지, <https://asean.org/asean-leaders-declaration-asean-vaccine-security-self-reliance-avssr/>(검색일: 2019. 11. 8).

3)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 지원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서 나아가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거주민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세안 스스로가 질병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입 규모가 크고 해외 관광과 인적교류가 생활화되고 있는 국가들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질병에 취약하나, 정작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성 질병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성 질병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아세안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간의 파트너십³⁷⁵⁾을 활용하여 공동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내에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으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년층 보편적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UN에 의하면 역내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축에 속하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7.0%p, 6.4%p, 3.3%p, 3.2%p씩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같은 기간 위 국가들의 노년층 증가율 또한 40~50%대를 기록하며 아세안(31%) 및 세계 평균(26%)을 능가하였다.³⁷⁶⁾ 이렇게 역내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암, 당뇨 등 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을 중심으로 노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375) 「질병관리본부, 미국 CDC와 ‘질병예방·관리’ 협력」(2019. 10.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4).

376)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database,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Population/>(검색일: 2019. 11. 1).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가 한창 성장 중이었던 1980년대에 누구보다 빠른 속도(12년)³⁷⁷⁾로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 이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까지 최소 30년 이상이 걸린 타 선진 공여국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³⁷⁸⁾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경제성장이 중요한 개도국이 자 고령화 이슈에 부딪히고 있는 아세안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임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세안과 함께 우리나라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경험을 공유하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 등 환경 분야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고등교육 협력 체계 강화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등교육 기관 간 인적교류협력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세안이 높이 평가한 EU·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 협력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아세안 국적의 학생과 연구자 간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차원의 ‘CAMPUS Asia-AIMS’에 참여 중인 아세안 대학 간 인적교류를 후방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중·일 3개국 간 학생 교류 및 복수학위 사업인

377) 직장의료보험 실시(1977년) 기준.

378) Kim(2012), “The Operation of Nationwide Health Insurance and its Implications,” p. 1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

‘CAMPUS Asia 한중일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아세안 국적의 신청자가 위의 두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싱가포르 등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와의 인적교류사업을 추진 하면서 아세안 국적의 학생 또는 연구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ASCC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현재 대아세안 교육사업들은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 사업과 같이 이미 교육부가 주관 중인 사업이거나 단기연수 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상당수이다. 이러한 일회성 교육연수보다 교육 대상자의 전문성이 꾸준히 키워질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교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전공이나 지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가 다양해지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부처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체적인 국제화 역량 강화 노력을 장려하고, 교원 양성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 기반을 다져야 한다. 또한 아세안 지역 관련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아세안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협력 모델들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나. 문화예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 일본은 경제 및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아세안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주목하고 다양한 협력·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개별 국가

들 차원에서도 문화협력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아세안을 주목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협력 및 ODA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또한 최근 신남방정책 등의 일환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협력·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전체 재외 한국문화원의 절반이 2010년 이후에 설립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외교적 활용에 대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그만큼 관련 정책 수행의 경험뿐만 아니라 관련 네트워크의 구축 수준 등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세안 지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공자학원 설립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뿐 아니라 폭넓은 화인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문화외교전략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개별 국가차원에서 교류협력 대상으로서 아세안 지역의 중요도가 큰 것은 아니지만 아세안이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전략 관련 선행 사례라고 할 수 있는 EU의 경험 및 노하우의 활용가능성은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pop, 드라마 등의 한국문화와 한국의 발전 경험 등에 대한 높은 관심, 신남방정책 등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활동 이행 등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문화홍보원(2019)이 수행한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미 지역과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및 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³⁷⁹⁾ 이러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또한 아세안의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상호호혜적 문화예술 교류협력

먼저 신남방정책 등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상호호혜적 교류협력에 초점을

379) 해외문화홍보원(2019), pp. 16~18.

맞춘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및 교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아세안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여전히 자국 문화의 전파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문화적 수단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패권경쟁 등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된다. 한국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는 점은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세안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진출 등을 위한 시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주요한 협력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수요에 대응한 협력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아세안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아세안 지역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한국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사업으로 ‘아세안 차세대 영화인재 육성사업’, 문화 ODA 사업으로 아세안 예술 분야 인력에 대한 연수 및 장학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인력교류사업보다는 아세안 입장에서 보다 가시적 지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통·대중문화 기반의 콘텐츠 개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협업 프로젝트 구상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앞서 제시한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의 문화예술 작업반 내 한국과 아세안의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 아세안 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

다른 한편으로는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 등의 채널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은 양자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설립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다자협력 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아직은 단순히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이 모이는 교류

협력 채널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세안 차원의 문화예술 전략은 역내 공통의 정체성 확립 및 이를 통한 연대와 통합의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역내 협력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예술 전략 중에서도 특히 아세안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멀티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촉진, 문화유산의 기록 및 보존, 전문인력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지적재산권 협력 등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세안 지역 내 각종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멀티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회원국 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 구상을 통해 아세안 공동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아세안의 전략과 우리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분야도 아세안 공동체 차원의 주요 쟁점일 뿐 아니라 한·아세안 간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이슈의 경우 경제공동체 구상 등과 연계되며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등을 통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³⁸⁰⁾ 이러한 기존 협력채널을 통해 특히 문화예술 측면에서 아세안 지역의 지식재산권 인식 및 제도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향후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회문화공동체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책개발 및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등의 부분에서 앞서 제안된 정책 대화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아세안 센터 등 현재 다자협력의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기관의 문화 관련 조직 및 사업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운용 중인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문화예술 분야 활용과 관련하여 아세안 공동체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380)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부대행사」, <https://2019asean-roksummit.kr/kor/?menuno=127#none>(검색일: 2019. 11. 14).

3)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지원: 문화 ODA 활성화

한편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차원의 문화예술전략계획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문화유산의 복구·보존, 성장전략으로서의 문화예술 분야의 활용 등이다. 또한 현재 국제사회의 아세안에 대한 문화예술 ODA가 가장 활발한 영역 중 하나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 이와 연계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아세안 지역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상당수의 국가들이 낮은 경제발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유산 복원 및 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의 협력·지원 정책 또한 해당 분야의 경험 전수, 인력개발 지원, 합작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지원 수요는 문화유산 복구·보존, 문화산업 분야의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우리나라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이 이와 관련한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단순 교류 및 교육지원사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문화유산의 복구 및 보존, 문화예술 관련 정책지원,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ODA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아세안과의 사회문화 정책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아세안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문화 관련 ODA 지원사업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물론 특히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 및 심화된 협력 프로그램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아세안 간 문화예술

ODA 협력사업 등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세계은행 및 ADB 등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인프라 개발 관련 프로젝트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 또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4) 재외 한국인 네트워크 등 인적자원 활용 여건 개선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 등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인적자원 육성, 재외 한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및 ODA 등 지원사업에서 국가적 역량은 기본적으로 자국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먼저 국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또한 중요하다. 순수예술 분야의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 지원을 위한 마케팅 및 외교 관련 전문인력, 그리고 해당 지역전문가 등의 양성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아세안 등 각 지역의 상황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재외 한국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화인화교 네트워크를 중국의 문화적 가치 전파 및 교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기업가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분야 협력사업에 재외 한국인 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 지속가능한 환경

‘한·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의 비전하에서 환경 분야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세부목표로 하며,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폐기물 관리 등 다

양한 하위 분야를 포함한다. 환경 분야의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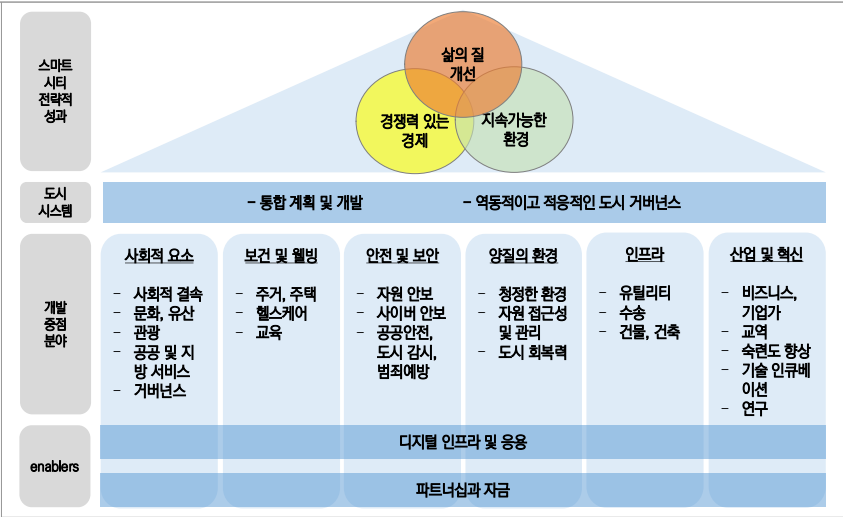
1) 아세안 환경협력 우선분야 발굴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한·아세안 차원의 작업반이나 협의채널을 통해 아세안 환경 관련 목표 및 전략과 우리나라의 지원 역량을 고려하여 대아세안 환경협력 상위전략을 마련하고, 협력 우선분야를 발굴해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본 과제에서 살펴본 재해관리(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폐기물 등을 중점협력 분야로 고려할 수 있다. 아세안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고 그에 비해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역량은 비교적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특히 재해관리에 관한 협력 수요가 높은 편이다. 또한 해양폐기물 문제나 청정한 에너지원의 활용 등과 같이 최근 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제, 그리고 본 과제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산림황폐화나 수자원 관리 분야도 협력 분야로 포함할 수 있다. 단 실제 사업 이행에 있어서는 회원국마다 환경 및 정책 여건에 차이가 있어 환경 협력의제에 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과 기후변화는 경제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으로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아세안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3]과 같이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ASEAN Smart City Framework)는 △ 경쟁력 있는 경제 △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발 분야에는 양질의 환경, 즉 청정한 환경, 자원 접근성과 관리, 도시의 회복력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아세안 10개국 26개 도시 대상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는 생물다양성

보존, 폐기물 관리, 재해관리 등의 요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³⁸¹⁾³⁸²⁾ 따라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 대한 개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아세안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환경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6-3.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와 환경



자료: ASEAN Secretariat(2018f), ASEAN Smart City Framework, <https://asean.org/storage/2019/02/ASCN-ASEAN-Smart-Cities-Framework.pdf>(검색일: 2019. 11. 7).

2) 글로벌 환경협력 논의에 참여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은 지역적인 사안인 동시에 환경문제에 관한 글로벌 노력의 차원에서 이해 및 논의되어야 하므로 한·아세안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

381) 예를 들어 브루나이 Bandar Seri Begawan의 Clean River Management Projects, 캄보디아 Battambang의 Solid and Liquid Waste Management, 라오스 Luang Prabang의 Heritage Wetland Restoration for City Green Spaces and Habitats, 말레이시아 Kota Kinabalu의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말레이시아 Kuching의 Integrated Flood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 태국 Chonburi의 Waste to Energy plant 등이 있음.

382) ASEAN Secretariat(2018d), pp. 1-60.

해서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UNFCCC, CBD, 바젤협약 등 환경 관련 국제협약과 해당 협약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차원의 전략 및 목표(예: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NDC를 통한 감축 및 적응 목표, 생물다양성 아이치 목표 등)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제 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자 및 다자 파트너와 함께 대아세안 협력사업을 추진할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환경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면서 아세안의 개발 수요에 맞춰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EU나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아세안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 다자기구 및 환경 관련 기금과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대아세안 차원의 협력사업은 양자 사업에 비해 소요되는 자원의 규모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공여국이나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리스크를 경감하고 서로 다른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다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는 ADB가 운영하는 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에 3억 5,000만 달러의 협조융자와 500만 달러의 기술협력 지원을 밝힌 바 있는데,³⁸³⁾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아세안 다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 공여국에 비해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적다면 기술이나 역량 배양 부문에서 우리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 에너지센터(ACE),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센터) 등 아세안이 역내외 파트너와 협력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문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아세안은 보건, 교육, 문화에 비해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센터를 다수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아세안에서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383) ADB(2019b), Republic of Korea Pledges \$355 Million to Support ASEAN Green Infrastructure and Ocean Health, <https://www.adb.org/news/republic-korea-pledges-355-million-support-asean-green-infrastructure-and-ocean-health>(검색일: 2019. 11. 6).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택한 최근 아세안에서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택한 「해양폐기물에 관한 아세안 행동 프레임워크」³⁸⁴⁾에 따르면 아세안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할 가능성도 있어 아세안 환경 전문센터와의 전략적인 협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자원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촉진

대아세안 환경협력은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과 아세안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사회개발과 협력 차원뿐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 확보와 이윤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³⁸⁵⁾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및 신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산업 관련 통계³⁸⁶⁾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대아세안 수출액은 1조 5,895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19.5%에 해당하는데, 이는 중동(24.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표 6-1 참고). 분류상 환경산업은 자원순환관리, 물관리, 환경복원 및 복구, 기후대응, 대기관리 등의 하위 분야를 포함하는데 이는 본 과제에서 검토한 아세안 환경협력 수요와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및 송배전, 에너지 효율 등의 분야에서도 사업기회가 있다. 아세안의 재생에너지 목표, 즉 2025년까지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의 23%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2,9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³⁸⁷⁾ 아세안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세계은행, ADB, JBIC, 프랑스 개발청, JICA, OPIC 등 개발금융기구 외에도 발전사, 개발사(developer), 사모펀드 등 민간 부문의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384) ASEAN Secretariat(2019b), ASEAN Framework of Action on Marine Debris, <https://asean.org/storage/2019/06/3.-ASEAN-Framework-of-Action-on-Marine-Debris-FINAL.pdf> (검색일: 2019. 10. 31).

385) 환경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10. 22, 검색일: 2019. 11. 14).

386)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9), p. 55.

387) IRENA and ACE(2016), p. 18.

표 6-1.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지역별 수출액

(단위: 억 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중국	14,496	18.0	14,799	18.2	2.1
동남아	15,388	19.1	15,895	19.5	3.3
중동	20,527	25.5	20,192	24.8	-1.6
아프리카	6,172	7.7	6,584	8.1	6.7
선진국	8,147	10.1	8,538	10.5	4.8
오세아니아	12	0.0	5	0.0	-58.3
그 외 기타	15,875	19.7	15,305	18.8	-3.6
합계	80,618	100.0	81,319	100.0	0.9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9), p. 55.

한편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³⁸⁸⁾의 일환으로 도입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신기후체제하에서도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의 형태로 보완·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7월 우리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을 해외 감축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³⁸⁹⁾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CDM 또는 SDM 감축사업을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고, 아세안 회원국은 관련 기술협력 및 역량 배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KOICA에서 운영 중인 CTS와 IBS 프로그램 등과 같이 혁신적인

388)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해 도입된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으로 배출권거래제(ETS,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이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의미함.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의 이해] 교토메커니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http://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5763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19. 11. 18).

389)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2018) 참고.

환경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환경 분야에서 국제공여기구, 민간기업, 정부 등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협력방식 모색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예컨대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재해정보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 컨설팅이나 전문인력 양성과 같이 아세안 및 각 회원국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세안 및 국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공여국에 비해 우리의 개발협력 자원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한다면 대아세안 환경협력에 있어 제도 개선, 역량 배양,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10월 제15차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는 아세안 역내외에서 고조되는 해양폐기물 관련 지식공유 플랫폼(Regional Knowledge Centre for Marine Plastic Debris)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³⁹⁰⁾ 해양폐기물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해 관련 국제 및 역내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연구나 역량 배양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 제안은 다양한 국내외 협력파트너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소프트 인프라 구축 및 강화에 그 목적이 있어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 설계 시 참고할 만하다.

아세안의 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중요해질 것이다. 이른바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재정적인 이익 추구

390) ERIA(2019), ERIA Participates in the 15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in Cambodia, <http://www.eria.org/news-and-views/eriaparticipatesin-the-15thasean-ministerial-meeting-on-the-environmentincambodia/>(검색일: 2019. 11. 1).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환경적 이익까지 고려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2016~30년 아세안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재생에너지, 농업 및 토지이용 등 분야의 추가적 투자 수요가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³⁹¹⁾ 또한 최근 아세안 금융업계는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세안은 2016년부터 녹색채권(Green Bond)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역내 자발적인 지침인 아세안 녹색채권 표준(ASEAN Green Bond Standards)³⁹²⁾을 채택하였고, 2018년 11월 기준 아세안 회원국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총 50억 달러에 달한다.³⁹³⁾

최근 우리 금융업계 역시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아세안 환경협력의 분야 또는 협력방식의 하나로서 녹색금융 분야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2. 한·아세안 사회문화 분야별 협력과제(안)

분야	분야별 목표	협력과제
사회 인프라	• 건강 수준 향상 •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강화	• 소득그룹별 우선 협력 분야 도출 - 수원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소득그룹별(동일한 수요 보유 그룹별) 사회 인프라 협력 수요 재탐색
	•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 아세안 정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 등 사회 인프라 정책 기반 사업 발굴 - 타 공동체 사업과의 연계 추진, 민간 협력모델 활용 등

391) 김지홍(2018), p. 5.
 392) 자세한 내용은 ACMF, ASEAN Green Bond Standards, <https://www.theacmf.org/images/downloads/pdf/AGBS2018.pdf>(검색일: 2019. 11. 1) 참고.
 393) Climate Bonds Initiatives(2018), pp. 1-3.

표 6-2.계속

분야	분야별 목표	협력과제
사회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성 질병 관련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대 - 노년층 대상 보편적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정책사례 전파 고등교육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연계를 통한 아세안 간(intra ASEAN) 교류협력 지원 -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교원양성 장려·지원
문화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문화예술 분야 혁신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호혜적 문화예술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 수요 및 협력정책 발굴 아세안 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 아세안의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지원: 문화 ODA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ODA를 통한 아세안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 지원 -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와의 연계 채외 한국인 네트워크 등 인적자원 활용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내 한국인 문화예술 전문가·기업가 네트워크 구축, 협력 사업에의 참여 촉진
지속 가능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환경협력 우선분야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환경 및 재해관리 전략 및 계획을 토대로 재해관리,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 협력 분야 모색 - 환경의 범분야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사업 등과 연계 글로벌 환경협력 논의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 발굴 및 파트너 탐색을 위해 글로벌 논의에 참여 - 다자기구 또는 기금을 통한 협력 자원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업, 감축사업 등 민간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국내외 파트너와의 민관협력 기회 모색 다양한 협력방식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지식 공유, 금융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의 환경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대창, 박나리, 유현석, 김형중, 이동운. 2011.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전략지역 심층연구 11-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곽성일, 김제국. 2016.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KIEP
오늘의 세계경제 No.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32차 국제개발협
력위원회 의결안건(제32-1호).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2018. 『2018 상반기 ODA 합동 워크숍 자료집
-III. OECD 정책마커 입력방법』.
- 김지홍. 2018. 『아세안(ASEAN) 지역에서의 녹색금융의 기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김형중. 2014.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의 쟁점과 전망」. 『국제정치연구』,
17(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_____. 2015.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쟁점, 도전과 전망」. 『동남아시아
연구』, 25(4), pp. 1~35. 한국동남아학회.
- 김형중, 최경희. 2017.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한아세안센터 · 외교부.
-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2018. 「일본 ·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진영, 김윤옥, 이민영. 2013.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전략지
역심층연구 13-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진영, 나승권, 이성희, 박나연, 김은미. 2019.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11-01.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2016.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
방안』. 연구보고서 16-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경덕. 2016. 『프랑스의 對아프리카 문화외교 전략과 시사점』. 외교부 용역보고서.
- 양혜원, 조현성, 임학순, 김소영. 2011. 『문화예술통계 증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 외교부. 2016. 『아세안 개황』.
- _____. 2017.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 _____. 2018a. 『아세안 개황』.
- _____. 2018b.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2018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I』.
- 외교통상부 아세안협력과. 2017.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한-ASEAN Dialogue』.
- 윤광일, 김새미, 신혜선. 2017. 『문화선진국 참여 국제포럼·세미나 및 문화홍보 사례를 활용한 문화외교 전략적 방향 연구』. 외교부 연구용역 보고서.
- 윤순진, 엄은희, 이상국, 이승경, 이승호, 이요한, 이주형, 이준표, 전은정. 2018. 「메콩유역 개발과 환경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세계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2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이재호. 2017.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최근 논의와 전망」. KIEP 아세안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8.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시대 개막: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과제」. KIEP 아세안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9.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한국의 대(對)아세안 투자 동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충렬. 2014.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에 대한 기대와 현실」. 『동남아시아연구』, 24(3), pp. 253~303. 한국동남아학회.
- 이태주, 박재성, 김용빈, 오연주. 2017. 『한국형 문화 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 전동진. 2012. 「프랑스 공공문화외교의 구조와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 공공문화외교의 방향」. 『사회과학연구』, 28(4), pp. 459~482.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캄보디아』.
- _____.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인도네시아』.
- _____.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라오스』.
- _____.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말레이시아』.
- _____.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미얀마』.
- _____.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필리핀』.
- _____.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싱가포르』.
- _____.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태국』.
- _____.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베트남』.
- 정홍익, 장원호, 양혜원, 김정인. 2014.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2014-03.

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4. 아시아·태평양』. KOCCA 14-31.

_____. 2018. 『2018 해외콘텐츠 시장분석』. KOCCA 18-19.

해외문화홍보원. 2019.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환경부. 2014. 「바젤협약 개요 및 전문」.

_____. 2016.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관련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2018년(2017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Invest Korea. 2015. 「“문화콘텐츠”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KoFID, KOICA. 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KOICA. 2017.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

[중문자료]

庄国土. 2011. 「世界华侨华人数量和分布的历史变化」. 『世界历史』. 第5期. 재인용: 문진영, 나승권, 이성희, 박나연, 김은미. 2019.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11-01.

[영문자료]

ADB. 2009.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n Southeast Asia: A Regional Review.”

_____. 2019.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9.”

ASEAN Secretariat. 2008.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Jakarta.

_____. 2009a.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Jakarta.

_____. 2009b.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Jakarta.

_____. 2010.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Jakarta.

_____. 2013a.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AADMER) Work Programme for 2010-2015. Jakarta.

_____. 2014a. Mid-Term Review of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2009-2015). Jakarta.

_____. 2015a.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 _____. 2015b.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Jakarta.
- _____. 2015c. “The ASEAN ICT Masterplan 2020.”
- _____. 2016a.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 _____. 2016b.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 _____. 2016c. “ASEAN Strategic Plan for Culture and Arts 2016-2025.”
- _____. 2016d. “AADMER Work Programme.”
- _____. 2016e. “ASEAN Strategic Plan for Information and Media 2016-2025.”
- _____. 2017a. “ASEAN Strategic Plan on Environment(ASPEN) 2016-2025.”
- _____. 2017b. “The 5th ASEAN Energy Outlook 2015-2040.”
- _____. 2018a. “Joint Media Statement of the 8th Meeting of the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 _____. 2018b. ASEAN Joint Statement on Climate Change to the 24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_____. 2018c. “Joint Media Statement: Fourteen Conference of the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and Fifth Conference of ASEAN Plus Three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 _____. 2018d. ASEAN Smart Cities Network. Smart City Action Plans.
- _____. 2018e.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8.
- Climate Bonds Initiatives. 2018. “ASEAN Green Finance State of the market 2018.”
- Eckstein, David, Marie-Lena Hutfls, and Maik Winges. 2018.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9*. Germanwatch.
- EU Mission to ASEAN. 2019. “Blue Book 2019: EU ASEAN Cooperation.”
- Greenpeace. 2019. “Southeast Asia’s Struggle Against the Plastic Waste Trade.”
- Heintze, Hans-Joachim, Lotte Kirch, Barbara Küppers, Holger Mann, Frank Mischo, Peter Mucke, Tanja Pazdzierny, Ruben Prütz, Katrin Radtke, Friederike Strube, and Daniel Weller. 2018. *World Risk Report 2018*. Bündnis Entwicklung Hilft.
- Indra Overland *et al.* 2017.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SEAN International Affairs: Risk and Opportunity Multiplier*.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Myanmar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 IRENA and ACE. 2016. Renewable Energy Outlook for ASEAN: a REmap Analysis.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IRENA). Abu Dhabi and ASEAN Centre for Energy(ACE). Jakarta.
- JICA. 2018a. "Building Disaster and Climate Resilient Cities in ASEAN." Final Report.
- _____. 2018b. "Project for Strengthening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 on disaster risk reduction(DRR)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CCA) integration(ASEAN)." Final Report.
- Morelli, John. 2011. "Environmental Substantiality: A Definition for Environmental Professionals." *Journal of Environmental Substantiality*, Volume 1, Issue 1.
- UNESCO. 2018a. "Indonesia UNESCO Country Strategy 2018-2021."
- _____. 2018b. "Malaysia UNESCO Country Strategy 2018-2021."
-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2013. "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in Vietnam: To 2020, Vision 2030."
- Vejjajiva, A. 2017. "The Critical Importance of Socio-cultural Community for the Future of Asean." A. Baviera and Larry Maramis eds. *Building ASEAN Community: Political-Security and Socio-cultural Reflections*. ASEAN @ 50, Volume 4. ERIA.

[언론 국문자료]

- 「메콩강 다양한 생물자원 개발...화장품·바이오산업 새 파트너로」. 2019. 『매일경제』. (11월 17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53898/>(검색일: 2019. 11. 22).
- 보건복지부. 2019.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논의를 위해 G20 보건·재무 장관들이 한데 모인다!」. 보도자료. (6월 28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957(검색일: 2019. 8. 13).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보도자료. (11월 8일). 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32&board_id=2&cpage=3(검색일: 2019. 8. 19).

- _____. 201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보도자료. (4월 30일). 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115&board_id=2&cpage=3(검색일: 2019. 10. 14, 10. 25).
- 「질병관리본부, 미국 CDC와 ‘질병예방·관리’ 협력」. 2019. 『연합뉴스』. (10월 21일). <https://m.yna.co.kr/view/AKR20191021061700017?section=society/index>(검색일: 2019. 11. 4).
-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사회적 책임] “스틸빌리지”로 글로벌 사회공헌」. 2019. 『뉴스퀘스트』. (5월 13일). <http://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77>(검색일: 2019. 11. 3).
- 환경부. 201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보도자료. (10월 22일).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066880&menuId=286>(검색일: 2019. 11. 14).
- _____. 보도자료. 미얀마 최북단에서 생물다양성 협력연구 본격화.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NU9UqZHDlwa1WbmMNroIvJD2.mehome1?pagerOffset=98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8689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검색일: 2019. 10. 31).
- _____. 보도자료. 베트남과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하수처리 등 환경분야 기술협력 강화 합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855580&menuId=286>(검색일: 2019. 10. 31).
- _____. 보도자료. 한-베트남 환경장관, 2019년도 환경 협력 과제 확정.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930850&menuId=286>(검색일: 2019. 10. 31).
- _____. 보도참고자료. 싱가포르와 양해각서 체결, 환경협력 강화 합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883420&menuId=286>(검색일: 2019. 10. 31).
- IATA 홈페이지. 2019. 「항공사들 각국 정부에 국제 탄소감축 계획 시행 촉구」. 보도자료. (6월 2일). <https://www.iata.org/contentassets/73532786767640e0a6118da932617b37/2019-06-02-04-kr.pdf>(검색일: 2019. 11. 18).
- KOICA. 2019. 「코이카, 정부 신남방정책 발맞춘 아세안 국가 ODA 비전 발표」. 보도자료. (5월 17일). http://koica.go.kr/koica_kr/99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pY2Ffa3IlMkYxNTElMkYzNTMxNDMlMkZhcRjbFZpZXcuZG8lM0ZwYWdlJTNElMjZzc

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mJic0NsU2VxJTNE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XNzd29yZCUzRCUyNg%3D%3D(검색일: 2019. 10. 14).

[언론 영문자료]

AHA Centre. “Japan Continues to Support Disaster Management Programme in ASEAN.” PRESS RELEASE. <https://ahacentre.org/press-release/japan-continues-support-disaster-management-programme-in-asean/>(검색일: 2019. 11. 4).

“Clean coal clean enough?” 2018. ASEAN Post. (November 6). <https://theaseanpost.com/article/clean-coal-clean-enough>(검색일: 2019. 10. 3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UHC Forum 2017.” PRESS RELEASE. (December 4).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4e_001823.html(검색일: 2019. 8. 14).

“Mitigating natural disasters in ASEAN.” 2018. ASEAN Post. (May 21). <https://theaseanpost.com/article/mitigating-natural-disasters-asea>(검색일: 2019. 10. 10).

“Southeast Asia steps up biodiversity policy.” 2019. China Daily. (July 19). <http://www.chinadaily.com.cn/a/201907/19/WS5d312181a310d830563ffe55.html>(검색일: 2019. 10. 30).

“Thailand to Junk Three Kinds of Plastic by End of This Year.” 2018. The Nation Thailand. (April 18). <https://www.nationthailand.com/national/30367931>(검색일: 2019. 10. 31).

U.S. White House. 2009.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Global Health Initiative.” STATEMENTS RELEASES. (May 5).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statement-president-global-health-initiative>(검색일: 2019. 9. 24).

[온라인 국문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a. 「베트남 국별협력전략」.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asia/Vietnam.jsp(검색일: 2019. 10. 23).

- _____. 2016b. 「인도네시아 국별협력전략」.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asia/Indonesia.jsp(검색일: 2019. 10. 23).
- _____. 2016c. 「캄보디아 국별협력전략」.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asia/Cambodia.jsp(검색일: 2019. 10. 23).
- _____. 2016d. 「필리핀 국별협력전략」.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asia/Philippines.jsp(검색일: 2019. 10. 23).
- _____. 2016e. 「라오스 국별협력전략」.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asia/Laos.jsp(검색일: 2019. 10. 23).
- _____. 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http://www.odakorea.go.kr/hz.bltn2.YearPlanSIPL2.do?brd_seq=3&bltn_div=oda(검색일: 2019. 6. 24).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2018 교육정보화백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1&lev=0&statusYN=W&s=moe&m=0310&opType=N&boardSeq=78348>(검색일: 2019. 10. 30).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NDC 현황. <https://www.ctis.re.kr/ko/analysis/mitigation.do?key=1563>(검색일: 2019. 8.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1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 국가협력전략.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asia/Vietnam.jsp(검색일: 2019. 10. 31).
- 기후변화홍보포털. 저감과 적응. <https://www.gihoo.or.kr/portal/kr/change/reduction.do>(검색일: 2019. 8. 1).
- 김제국.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새 청사진 발표」. 전문가오피니언.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 http://www.emerics.org/www/issue.do?systemcode=03&action=detail&brdctsno=178797&search_year=2015&search_month=12(검색일: 2019. 8.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병욱 환경부차관 제8차 ASEAN+3 환경장관회의 참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387228&pageIndex=4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2019-01-27&srchWord>(검색일: 2019. 10. 31).
- 세종학당재단. 「세계 곳곳 세종학당」. <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검색일: 2019. 10. 25).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

- do(검색일: 2019. 8. 12, 8. 29).
-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기관개요」. <https://www.ach.or.kr/ct/2/2/1>(검색일: 2019. 12. 25).
- 외교부. 「공공외교 소개: 주요국의 공공외교」.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main_case.jsp(검색일: 2019. 10. 21).
- _____. 「한·ASEAN 개요」. http://www.mofa.go.kr/www/wpge/m_3925/contents.do(검색일: 2019. 11. 6).
-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의 이해] 교토메커니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http://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5763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19. 11. 18).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programmes/culture/>(검색일: 2019. 8. 8, 8. 12).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9. 「2018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http://www.fki.or.kr/publication/report/View.aspx?content_id=e48607ae-3456-4e3e-803e-8ab2b53a9f77&cPage=1&search_type=0&search_keyword=(검색일: 2019. 10. 29).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개요」. http://overseas.mofa.go.kr/asean-ko/wpge/m_21591/contents.do(검색일: 2019. 9. 18).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진흥원 활동」. http://kofice.or.kr/g100_introduction/g100_introduction_05.asp(검색일: 2019. 10. 2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2019년 CAMPUS Asia - AIMS 사업 추진계획(안)」.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7651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검색일: 2019. 10. 30).
- 한·아세안센터. 「한·아세안 센터 소개」. <https://www.aseankorea.org/kor/AKC/introduction.asp>(검색일: 2019. 10. 25).
- 한·아세안 협력기금. 「소개」. http://www.aseanrofund.com/kor/sub_02/sub_01.asp(검색일: 2019. 11. 1).
- 한국 ABS 연구센터. 나고야의정서. <https://www.abs.re.kr/app/absInfo/nagoyaView.do>(검색일: 2019. 10. 30).
- 해외문화홍보원. 「기관 소개: 조직도」. <http://www.kocis.go.kr/division.do>(검색일: 2019. 10. 25).

- _____. 「한국문화원 활동」. <http://www.kocis.go.kr/kocc.do?searchType=menu0023>(검색일: 2019. 10. 25).
- 현대자동차그룹. 2019. 「현대자동차그룹 사회공헌활동 백서 2018」. <https://www.hyundai.com/kr/ko/company-intro/report/social-report>(검색일: 2019. 10. 29).
- 환경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조정부 장관과 양자면담. <http://www.me.go.kr/minister/web/board/read.do;jsessionid=m2dTh6rbJZac8wyLSMPkNxBZ.mehome2?pagerOffset=72&maxPageItems=6&maxIndexPages=5&searchKey=&searchValue=&menuId=378&orgCd=&boardId=928530&boardMasterId=7&boardCategoryId=5&rn=77>(검색일: 2019. 10. 31).
- 효성그룹. 2016. 「2016 효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kr/csr/sustainability_report.do(검색일: 2019. 10. 29).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부대행사」. <https://2019asean-roksummit.kr/kor/?menuno=127#none>(검색일: 2019. 11. 14).
- CAMPUS ASIA AIMS 홈페이지. http://aims.campusasia.kr/bbs/content.php?co_id=university_1(검색일: 2019. 10. 30).
- KOICA. 통합사업관리. <http://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lang=ko>(검색일: 2019. 10. 31).
- KOICA 홈페이지. 「2017~2018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브로셔」. http://koica.go.kr/bbs/cts_kr/480/295944/download.do(검색일: 2019. 10. 29).
- _____. 「2018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브로셔」. http://koica.go.kr/bbs/koica_kr/150/314524/download.do(검색일: 2019. 10. 29).
- KOICA CTS 홈페이지. 「CTS 파트너」. http://koica.go.kr/cts_kr/2434/subview.do(검색일: 2019. 10. 29).

[온라인 일문자료]

- 外務省. 「ODA実績」.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jisseki.html>(검색일: 2019. 10. 21).
- _____. 「[ODA] 草の根文化無償資金協力: 平成30年度」.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page24_000020.html(검색일: 2019. 10. 25).
- _____. 「草の根文化無償資金協力: 平成29年度」.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page22_000891.html(검색일: 2019. 10. 25).

- _____. 「一般文化無償資金協力平成28年度 地域・国名別」.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page18_000209.html(검색일: 2019. 10. 25).
- _____. 「草の根文化無償資金協力: 平成30年度」.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page22_000370.html(검색일: 2019. 10. 25).

[온라인 중문자료]

- 中国—东盟中心(중국-아세안 센터). 「中国-东盟关系」. http://www.asean-china-center.org/2019-05/28/c_13356849.htm(검색일: 2019. 10. 21).
- 中国文化中心. 「中国文化中心介绍」. <http://cn.cccweb.org/portal/pubinfo/001002011/20150210/0c793f933c364d4c90f8fffb54771d00.html>(검색일: 2019. 10. 21). 재인용: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2018. 「일본·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온라인 영문자료]

- 일본 환경성. Japan-ASEAN Dialogu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https://www.env.go.jp/earth/coop/coop/english/dialogue/asean_j.html(검색일: 2019. 10. 30).
- 일본 경제산업성. Fourte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COP14) Held.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9/0514_002.html(검색일: 2019. 11. 6).
- ACMF. ASEAN Green Bond Standards. <https://www.theacmf.org/images/downloads/pdf/AGBS2018.pdf>(검색일: 2019. 11. 1).
- Adaptation Fund. Projects Table View. <https://www.adaptation-fund.org/projects-programmes/project-information/projects-table-view/>(검색일: 2019. 11. 6).
- ADB. “Projects: Culture.” <https://www.adb.org/projects/country/cam/country/tha/country/vie?terms=culture>(검색일: 2019. 8. 12).
- _____. 2019a. New Facility to Mobilize \$1 Billion for ASEAN Green Infrastructure. <https://www.adb.org/news/new-facility-mobilize-1-billion-asean-green-infrastructure>(검색일: 2019. 11. 6).
- _____. 2019b. Republic of Korea Pledges \$355 Million to Support ASEAN Green Infrastructure and Ocean Health. <https://www.adb.org/news/>

- republic-korea-pledges-355-million-support-asean-green-infras
tructure-and-ocean-health(검색일: 2019. 11. 6).
-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2019. "We support your research."
[http://www.humboldt-foundation.de/pls/web/docs/F346501920/
broschuere_ziele_und_programme.pdf](http://www.humboldt-foundation.de/pls/web/docs/F346501920/broschuere_ziele_und_programme.pdf)(검색일: 2019. 10. 24).
- ASEAN and JICA. 2017. One Against Disaster and Climate Risks: A
Repository of Good Practices for Strengthening DRR and CCA
Integration in ASEAN. [https://iges.or.jp/en/publication_documents/
pub/books/en/6130/Final+JICA+Publication+on+DRR+and+CCA.
pdf](https://iges.or.jp/en/publication_documents/pub/books/en/6130/Final+JICA+Publication+on+DRR+and+CCA.pdf)(검색일: 2019. 10. 14).
- 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Our Key Programmes. [https://aseanbiodiversity.
org/our-key-programmes/](https://aseanbiodiversity.org/our-key-programmes/)(검색일: 2019. 10. 18).
- ASEAN Centre for Energy. <https://www.aseanenergy.org/>(검색일: 2019.
10. 21).
- ASEAN-China Center. "Our Organization." [http://www.asean-china-center.
org/english/2010-06/23/c_13364828_2.htm](http://www.asean-china-center.org/english/2010-06/23/c_13364828_2.htm)(검색일: 2019. 10. 21).
- ASEAN-Japan Center. "About AJC." <https://www.asean.or.jp/en/ajc/>(검
색일: 2019. 10. 21).
- 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 [http://www.filmleadersincubator.
asia/](http://www.filmleadersincubator.asia/)(검색일: 2019. 9. 18).
- ASEAN Secretariat.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7/02/APHDA-In-a-N
utshell.pdf](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7/02/APHDA-In-a-Nutshell.pdf)(검색일: 2019. 5. 16).
- _____.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 [https://asean.org/asean/
asean-structure/asean-sectoral-ministerial-bodies](https://asean.org/asean/asean-structure/asean-sectoral-ministerial-bodies)(검색일: 2019. 11. 8).
- _____. Fact Sheet on ASEAN Community. [https://asean.org/?static_post=
fact-sheet-asean-community](https://asean.org/?static_post=fact-sheet-asean-community)(검색일: 2019. 11. 8).
- _____. "Fact Sheet of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https://asean.
org/storage/2019/01/34.-November-2018-Fact-Sheet-on-ASCC.
pdf](https://asean.org/storage/2019/01/34.-November-2018-Fact-Sheet-on-ASCC.pdf)(검색일: 2019. 11. 8).
- _____.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ASEAN-
China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2016-2020)."
[https://www.asean.org/storage/images/2015/November/27th-summit/
ASEAN-China%20POA%20%202016-2020.pdf](https://www.asean.org/storage/images/2015/November/27th-summit/ASEAN-China%20POA%20%202016-2020.pdf)(검색일: 2019. 10. 21).

- _____. Sharing Lessons from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Projects in ASEAN. <https://environment.asean.org/sharing-lessons-from-biodiversity-and-climate-change-projects-in-asean/>(검색일: 2019. 10. 30).
- _____. 2012a. 2012 Bangkok Resolution on 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https://cil.nus.edu.sg/wp-content/uploads/2019/02/2012-Bangkok-Resolution-on-ASEAN-Environmental-Cooperation.pdf>(검색일: 2019. 8. 8).
- _____. 2012b. 12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nd 8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https://asean.org/12th-asean-ministerial-meeting-on-the-environment-and-8th-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asean-agreement-on-transboundary-haze-pollution/>(검색일: 2019. 8. 4).
- _____. 2013b. https://www.asean.org/wp-content/uploads/images/pdf/Final_Draft_ASEAN_Declaration_on_Disaster_Management_-_23rd_ASEAN_Summit.pdf(검색일: 2019. 8. 13).
- _____. 2014b. “Joint Statement 12th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images/2015/January/asean_health_minister_meeting/12th_AHMM_Joint%20Statement_Final.pdf(검색일: 2019. 7. 11).
- _____. 2015b.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Jakarta. 재인용: 김제국.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새 청사진 발표」. 전문가오피니언.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 http://www.emerics.org/www/issue.do?systemcode=03&action=detail&brdctsn=178797&search_year=2015&search_month=12(검색일: 2019. 8. 20).
- _____. 2015d. 13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https://asean.org/13th-asean-ministerial-meeting-on-the-environment/>(검색일: 2019. 8. 4).
- _____. 2015e. “Joint Statement of ASEAN Plus Three Health Ministers’ Special VDO Conference on The Threat of MERS-COV in The Region.”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8/03/Joint-Statement-APT-HMM-Special-VDO-Conference-on-MERS-CoV.pdf>(검색일: 2019. 7. 11).

- _____. 2016f. <https://asean.org/storage/2016/09/Declaration-on-One-ASEAN-One-Response.pdf>(검색일: 2019. 8. 13).
- _____. 2016g. “Joint Statement of The Ninth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6/05/Joint-Statement-of-9th-ASED_25-May-2016_ADOPTED-2.pdf(검색일: 2019. 7. 11).
- _____. 2016h. “The ASEAN Work Plan on Education 2016-2020.” https://www.aseanrofund.com/lib/upload/files/resources/31_-_ASEAN_20Work_20Plan_20on_20Education_202016-2020.pdf(검색일: 2019. 6. 25).
- _____. 2017c. 14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nd the 13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https://asean.org/14th-asean-ministerial-meeting-environment-13th-meeting-conference-parties-asean-agreement-transboundary-haze-pollution/>(검색일: 2019. 8. 4).
- _____. 2017d. “ASEAN Community Progress Monitoring System(ACPMS) 2017.” <https://www.aseanstats.org/publication/asean-community-progress-monitoring-system-2017/>(검색일: 2019. 6. 25).
- _____. 2017e. “ASEAN-EU Plan of Action(2018-2022).” <https://asean.org/storage/2017/08/ASEAN-EU-POA-2018-2022-Final.pdf>(검색일: 2019. 10. 30).
- _____. 2017f. “Joint Statement 13th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7/09/13th-AHMM-Joint-Statement_FINAL.pdf(검색일: 2019. 7. 11).
- _____. 2017g. “New 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 (AKCF) 2017-2020.” https://asean.org/storage/2012/05/6_New-Framework-for-AKCF-2017-2020.pdf(검색일: 2019. 11. 1).
- _____. 2017h. “ASEAN Health Cluster 1: Promoting Healthy Lifestyle Revised Work Programme 2016-2020.” http://asean.org/wp-content/uploads/2017/02/Agd-8.3_1.-ASEAN-Health-Cluster-1-Work-Programme_Endorsed-SOMHD.pdf(검색일: 2019. 6. 25).
- _____. 2017i. “ASEAN Health Cluster 2 Work Programme for 2016 to 2020.” <http://asean.org/wp-content/uploads/2017/02/Responding->

- to-All-Hazards-and-Emerging-Threats.pdf(검색일: 2019. 6. 25).
- _____. 2017j. “ASEAN Health Cluster 3: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and Access to Care.”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7/02/Agd-8.3_3.-ASEAN-Health-Cluster-3-Work-Programme_Endorsed-SOMHD.pdf(검색일: 2019. 6. 25).
- _____. 2017k. “ASEAN Health Cluster 4 Work Programme for 2016 to 2020.”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7/02/Agd-8.3_4.-ASEAN-Health-Cluster-4-Work-Programme_Endorsed-SOMHD.pdf(검색일: 2019. 6. 25).
- _____. 2017l. ASEAN-EU Plan of Action(2018~2022). <https://asean.org/storage/2017/08/ASEAN-EU-POA-2018-2022-Final.pdf>(검색일: 2019. 10. 30).
- _____. 2018f. ASEAN Smart City Framework. <https://asean.org/storage/2019/02/ASCN-ASEAN-Smart-Cities-Framework.pdf>(검색일: 2019. 11. 7).
- _____. 2018g. “ASEAN Sustainable Urbanisation Strategy.” https://asean.org/?static_post=asean-sustainable-urbanisation-strategy(검색일: 2019. 8. 16).
- _____. 2018h. “Joint Statement of The Tenth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 <https://asean.org/storage/2018/11/Adopted-Joint-Statement-of-the-10th-ASED.pdf>(검색일: 2019. 7. 11).
- _____. 2019a. 15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nd the 15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https://asean.org/15th-asean-ministerial-meeting-environment-15th-meeting-conference-parties-asean-agreement-transboundary-haze-pollution/>(검색일: 2019. 10. 28).
- _____. 2019b. ASEAN Framework of Action on Marine Debris. <https://asean.org/storage/2019/06/3.-ASEAN-Framework-of-Action-on-Marine-Debris-FINAL.pdf>(검색일: 2019. 10. 31).
- _____. 2019c. Bangkok Declaration on Combating Marine Debris in the ASEAN Region. <https://asean.org/storage/2019/06/2.-Bangkok-Declaration-on-Combating-Marine-Debris-in-ASEAN-Region-FINAL.pdf>(검색일: 2019. 10. 31).

- ASEAN 홈페이지.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검색일: 2019. 5. 16, 8. 12).
- _____. ASEAN Strategic Policy Dialogue on Disaster Management (SPDDM).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asean-ministerial-meeting-on-disaster-management-ammdm/asean-strategic-policy-dialogue-on-disaster-management-spddm/>(검색일: 2019. 8. 13).
- _____. <https://asean.org/>(검색일: 2019. 8. 29).
- _____.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asean-education-ministers-meeting-ased/overview/>(검색일: 2019. 6. 25).
- _____. “ASEAN taps on Vision 2025 to support SDGs.” <https://asean.org/asean-taps-on-vision-2025-to-support-sdgs-2/>(검색일: 2019. 7. 15).
- _____. “ASEAN, Germany formalise Development Partnership.” <https://asean.org/asean-germany-formalise-development-partnership/>(검색일: 2019. 10. 15).
- _____. “Practical Cooperation Areas for ASEAN-Germany Development Partnership.”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7/04/PCA-for-ASEAN-Germany-Development-Partnership-2018-2022.pdf>(2019. 10. 15).
- _____. <https://asean.org/asean-leaders-declaration-asean-vaccine-security-self-reliance-avssr/>(검색일: 2019. 11. 8).
- _____. ASEAN, EU to enhance cooperation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https://asean.org/asean-eu-enhance-cooperation-protection-environment-climate-change/>(검색일: 2019. 11. 18).
- Asia Center 홈페이지. <https://jfac.jp/en/>(검색일: 2019. 10. 21). 재인용: 문진영, 나승권, 이성희, 박나연, 김은미. 2019.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11-01.
- Atolia, Manoj, Bin Grace Li, Ricardo Marto, and Giovanni Melina. 2017. “Investing in Public Infrastructure: Roads or Schools?” IMF Working Paper. WP/17/105.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17/05/04/Investing-in-Public-Infrastructure-Roads-or-Schools-44865>(검색일: 2019. 9. 5).
- AUN 홈페이지. <http://www.aunsec.org/aunmemberuniversities.php>(검색일: 2019. 9. 16).

- BMZ. 2015a. "Charter for the Future: One World – Our Responsibility." https://www.bmz.de/en/publications/type_of_publication/information_flyer/information_brochures/Materialie244a_zukunftscharta.pdf(검색일: 2019. 10. 25).
- _____. 2015b. "BMZ Education Strategy: Creating equitable opportunities for quality education." https://www.bmz.de/en/publications/type_of_publication/strategies/Strategiepapier355a_07_2015.pdf(검색일: 2019. 10. 21).
- _____. 2015c.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ASEAN Region: Sustainable Growth through Regional Networking." https://www.bmz.de/en/publications/type_of_publication/strategies/Strategiepapier358_12_2015.pdf(검색일: 2019. 10. 15).
-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홈페이지. White Paper. Disaster Management in Japan 2018. http://www.bousai.go.jp/kaigirep/hakusho/pdf/H30_hakusho_english.pdf(검색일: 2019. 10. 28).
- CIF. Countries. https://www.climateinvestmentfunds.org/cif_enc/country (검색일: 2019. 11. 6).
-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Hanban). "About Confucius Institute/ Classroom." http://english.hanban.org/node_10971.htm(검색일: 2019. 10. 21).
- _____. "About us: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 http://english.hanban.org/node_7716.htm(검색일: 2019. 10. 21).
- _____.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Confucius Institutes." http://english.hanban.org/node_7880.htm(검색일: 2019. 10. 21).
- Consultation of Investment in Health Promotion. 2014. "Evaluation of Japan's ODA to the Health Sector in Vietnam(Partner Country-led Evaluation)." <https://www.mofa.go.jp/policy/oda/evaluation/FY2013/pdfs/health.pdf>(검색일: 2019. 9. 23).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ichi Biodiversity Targets Fliers. <https://www.cbd.int/doc/strategic-plan/2011-2020/Aichi-Targets-EN.pdf>(검색일: 2019. 10. 30).
- DAAD. 2019. "Annual Report 2018." <https://www.daad.de/medien-und-publicationen/en/29887-annual-report/>(검색일: 2019. 10. 24).
- DAAD 홈페이지. <https://www.daad.de/der-daad/unsere-aufgaben/>

- entwicklungszusammenarbeit/foerderprogramme/hochschulen/infos/en/44494-subject-related-partnerships-with-institutions-of-higher-education-in-developing-countries/(검색일: 2019. 10. 18).
- _____. <https://www.daad.de/der-daad/unsere-aufgaben/entwicklungszusammenarbeit/foerderprogramme/hochschulen/infos/en/44507-university-business-partnerships-between-higher-education-institutions-and-business-partners-in-germany-and-in-developing-countries/>(검색일: 2019. 10. 18).
- Donor Tracker. “United States Sector Global health.” <https://donortracker.org/united-states/globalhealth>(검색일: 2019. 9. 24).
- EC. 2015. “The EU and ASEAN: a partnership with a strategic purpos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JOIN:2015:22:FIN&from=EN>(검색일: 2019. 10. 30).
- EC 홈페이지. “EU Support to Higher Education in ASEAN Region - EU SHARE.” https://ec.europa.eu/europeaid/projects/eu-support-higher-education-asean-region-eu-share-0_en(검색일: 2019. 10. 31).
- ERIA. 2019. ERIA Participates in the 15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in Cambodia. <http://www.eria.org/news-and-views/eriaparticipatesin-the-15thasean-ministerial-meeting-on-the-environmentincambodia/>(검색일: 2019. 11. 1).
- EU. “Action Fiche for EU-South East Asia Cooperation on Mitigating Climate Change Impact from Civil Aviation.” https://ec.europa.eu/fpi/sites/fpi/files/annexes_aap_2018_phase_ii_1.pdf(검색일: 2019. 10. 30).
- _____. “EU-ASEAN relations, factsheet.”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30722/EU-ASEAN%20relations,%20factsheet(검색일: 2019. 10. 28).
- EUNIC. “Cluster.” <https://www.eunicglobal.eu/clusters#cluster-what-is>(검색일: 2019. 8. 16).
- _____. “Project.” <https://www.eunicglobal.eu/projects>(검색일: 2019. 8. 16).
- _____. “Project: EUNIC Vietnam.” <https://www.eunicglobal.eu/projects/eunic-vietnam>(검색일: 2019. 8. 16).
- _____. “Project: European Spring Design.” <https://www.eunicglobal.eu/projects/european-spring-design>(검색일: 2019. 8. 16).

-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EU and ASEAN: a partnership with a strategic purpos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JOIN%3A2015%3A22%3AFIN&from=EN>(검색일: 2019. 10. 30).
- Feed the Future 홈페이지. “2017 Feed the Future Progress Snapshot.” <https://www.feedthefuture.gov/resource/2017-progress-report/>(검색일: 2019. 9. 26).
- Fit For School 홈페이지. <http://www.fitforschool.international/fit-in-action/>(검색일: 2019. 10. 23).
- France Diplomatie. “Cultural Diplomacy.”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cultural-diplomacy/>(검색일: 2019. 10. 21).
- _____. “France’s overseas cultural network.”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cultural-diplomacy/france-s-overseas-cultural-network/>(검색일: 2019. 10. 21).
- Fransen, Lieve, Gino del Bufalo, and Edoardo Reviglio. 2018. “Boosting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in Europe.” European Economy Discussion Paper 074. January 2018.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dp074_en.pdf(검색일: 2019. 9. 5).
- GCF. Project Programmes. <https://www.greenclimate.fund/what-we-do/projects-programmes#gcf-project>(검색일: 2019. 11. 6).
- GHSA 홈페이지. <https://www.ghsagenda.org/members>(검색일: 2019. 9. 26).
- GIZ. “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 to Improve the Training of TVET Personnel(RECOTVET).” <http://www.thai-german-cooperation.info/admin/uploads/publication/cdc46875d4421082ce81184925d894cdcn.pdf>(검색일: 2019. 10. 23).
- _____. 2018. “Fit for School Programme.” http://www.fitforschool.international/wp-content/uploads/Factsheet_Fit_for_School_2018_FIN_AL.pdf(검색일: 2019. 10. 23).
- GIZ 홈페이지. <https://www.giz.de/en/worldwide/16755.html>(검색일: 2019. 10. 23).
- _____. <https://www.giz.de/en/worldwide/70532.html>(검색일: 2019. 10. 23).
- _____. <https://www.giz.de/en/worldwide/18723.html>(검색일: 2019. 10. 23).
- _____. <https://www.giz.de/en/worldwide/26261.html>(검색일: 2019. 10. 23).
- _____. <https://www.giz.de/en/worldwide/17777.htm>(검색일: 2019. 10. 23).

- _____. <https://www.giz.de/en/worldwide/57320.html>(검색일: 2019. 10. 23).
- Goethe Insititut. "Locations." <https://www.goethe.de/en/wwt.html>(검색일: 2019. 10. 21).
- Government of Japan. 2015a. "Cabinet decision 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https://www.mofa.go.jp/files/000067701.pdf>(검색일: 2019. 8. 14).
- _____. 2015b. "Basic Design for Peace and Health(Global Health Cooperation)." <https://www.mofa.go.jp/files/000110234.pdf>(검색일: 2019. 8. 14).
- IMF. 2018. "ASEAN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Role of the IMF." Policy Paper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Policy-Papers/Issues/2018/11/07/pp101118asean-progress-towards-sdgs>(검색일: 2019. 5. 15).
- Institut for Auslandsbeziehungen. "Organisation." <https://www.ifa.de/en/organisation/>(검색일: 2019. 10. 21).
- Institut francais. <https://www.institutfrancais.com/en/carte-lieux-evenements-culturels>(검색일: 2019. 10. 18).
- JAIF 홈페이지. JAIF Support for Disaster Management. <https://jaif.asean.org/support/sector-brief/jaif-support-for-dm.html>(검색일: 2019. 10. 14).
- Japan Foundation. "JF Worldwide." <https://www.jpf.go.jp/e/world/index.html>(검색일: 2019. 10. 21).
- _____. "Three Fields." <https://www.jpf.go.jp/e/project/index.html>(검색일: 2019. 10. 21). 재인용: 문진영, 나승권, 이성희, 박나연, 김은미. 2019.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11-01.
- JICA. "JICA's Policy in Disaster Risk Reduction to ASEAN Countries." http://open_jicareport.jica.go.jp/pdf/11957842_03.pdf(검색일: 2019. 10. 14).
- _____. 2012. "JICA's Regional Cooperation in ASEAN." https://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brochures/c8h0vm0000avs7w2-a/tt/jica_asean.pdf(검색일: 2019. 8. 13).
- _____. 2016. "Maternal and Child Health." https://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brochures/c8h0vm0000avs7w2-att/japan_brand_01.pdf(검색일: 2019. 8. 18).
- JICA 홈페이지. <https://www.jica.go.jp/english/about/president/speech/>

- 190213_01.html(검색일: 2019. 8. 13).
- KFF(Kaiser Family Foundation). “The U.S. Government and Global Health.” <https://www.kff.org/global-health-policy/fact-sheet/the-u-s-government-and-global-health/>(검색일: 2019. 9. 24).
- Kim, Jin Soo. 2012. “The Operation of Nationwide Health Insurance and its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pported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https://www.kdevelopedia.org/Resources/all/operation-nationwide-health-insurance-its-implications--04201210100122118.do?fldIds=TP_SOC|TP_SOC_HE#.Xi-0nOSP6mQ(검색일: 2019. 11. 1).
- Malaysia’s Roadmap towards Zero Single-use Plastics 2018-2030. <https://www.mestec.gov.my/web/wp-content/uploads/2019/03/Malaysia-Roadmap-Towards-Zero-Single-Use-Plastics-2018-20302.pdf>(검색일: 2019. 10. 3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Sendai Cooperation Initiativ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https://www.mofa.go.jp/files/000070664.pdf>(검색일: 2019. 10. 10).
- _____. 2018.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17: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https://www.mofa.go.jp/files/000406627.pdf>(검색일: 2019. 8. 14).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홈페이지. “G7 Ise-Shima Vision for Global Health.” <https://www.mofa.go.jp/files/000160273.pdf>(검색일: 2019. 8. 14).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홈페이지. “ASEAN-Japan UHC Initiative.” <https://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0501000-Daijinkanboukokusaika-Kokusaika/0000171523.pdf>(검색일: 2019. 9. 23).
- Mission of Japan to ASEAN 홈페이지. <https://www.asean.emb-japan.go.jp/asean2025/jpasean-sc01.html>(검색일: 2019. 9. 11).
- OECD. 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Japan 2014.” <http://www.oecd.org/dac/peer-reviews/peer-review-japan.htm>(검색일: 2019. 9. 23).
- _____. 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Germany 2015.” <https://www.oecd.org/dac/peer-reviews/peer-review->

- germany.htm(검색일: 2019. 10. 25).
- _____. 2016. “The DAC’s ma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Extract from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16.” <https://www.oecd.org/dac/peer-reviews/Main-findings-recommendations-United-States-2016-EN.pdf>(검색일: 2019. 9. 24).
- _____. 2018.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Annexes - Modules A, B & C.” [https://one.oecd.org/document/DCD/DAC/STAT\(2018\)9/ADD1/FINAL/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DAC/STAT(2018)9/ADD1/FINAL/en/pdf)(검색일: 2019. 9. 5).
-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19. 6. 26, 7. 18, 8. 12, 10. 10).
- OECD. Aid to Environment. <https://www.oecd.org/dac/stats/38025362.pdf>(검색일: 2019. 8. 12).
- OECD. OECD DAC Rio Markers for Climate Handbook. https://www.oecd.org/dac/environment-development/Revised%20climate%20marker%20handbook_FINAL.pdf(검색일: 2019. 8. 12).
- OECD 홈페이지. “DAC List of ODA Recipients.”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_List_ODA_Recipients2018to2020_flows_En.pdf(검색일: 2019. 6. 27).
- PMI 홈페이지. “Greater Mekong Region.” https://www.pmi.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country-profiles/mekong_profile.pdf (검색일: 2019. 9. 26).
-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 the ASEAN Member States in Cooperation with the ASEAN Centre for Biodiversity(CARE4BioDiv). <https://snrd-asia.org/download/Care4Biodiv-Brief2-2016-web.pdf>(검색일: 2019. 10. 30).
- SDG-F. Programmes. <https://www.sdgfund.org/programmes>(검색일: 2019. 8. 16).
- SEAMEO 홈페이지. https://www.seameo.org/Main_about/92(검색일: 2019. 9. 16).
- _____. https://www.seameo.org/Main_about/104(검색일: 2019. 9. 16).
- _____. https://www.seameo.org/Main_about/113(검색일: 2019. 9. 16).
- SHARE 홈페이지. <https://www.share-asean.eu/about-share>(검색일: 2019. 10. 31).

- _____. “The SHARE students mobility scheme.” <https://www.share-asean.eu/sites/default/files/SHARE%20Student%20Mobility.pdf>(검색일: 2019. 10. 31).
- Social Progress Imperative 데이터베이스. <https://www.socialprogress.org/download>(검색일: 2019. 7. 9).
- 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SEADRIF). <https://assets.rockefellerfoundation.org/app/uploads/20190226112408/SEADRIF.pdf>(검색일: 2019. 11. 6).
- UHC 2030 홈페이지. <https://www.uhc2030.org/about-us/>(검색일: 2019. 9. 18).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database.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Population/>(검색일: 2019. 11. 1).
- UNDP 홈페이지. “Glob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검색일: 2019. 6. 29).
- UN Environment. 2018. “Sustainable Urban Infrastructure Transitions in the ASEAN Region: a Resource Perspectiv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https://resourceefficientcities.org/2018/02/sustainable-urban-infrastructure-transitions-in-the-asean-region/>(검색일: 2019. 8. 13).
- UNESCO. “39 C/5 Approved programme and budget, 2018-2019: first biennium of the 2018-2021 quadrenniu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1648>(검색일: 2019. 11. 1).
- _____. “France-UNESCO Cooperation Agreement(CFU).” <https://whc.unesco.org/en/cfu>(검색일: 2019. 10. 21).
- UNESCO Bangkok Office. 2017. “Out-of-School Children(OOSC): regional overview.”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59836>(검색일: 2019. 11. 3).
- UNESCO Transparency Portal. <https://opendata.unesco.org/project/XM-DAC-41304-571RAS1000>(검색일: 2019. 11. 3).
- UNESCO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https://en.unesco.org/creativity/ifcd/projects>(검색일: 2019. 8. 8).
- UNESCO 무형문화유산. <https://ich.unesco.org/en/lists>(검색일: 2019. 7. 31).
- UNESCO 세계기록유산. <https://en.unesco.org/programme/mow/register>(검색일: 2019. 7. 31).
- UNESCO 세계유산. <http://whc.unesco.org/en/list/>(검색일: 2019. 7. 31).

- UNESCO 세계유산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검색일: 2019. 8. 12).
- UNESCO 홈페이지.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5656> (검색일: 2019. 10. 18).
- UNFCCC. CDM Project Search. <https://cdm.unfccc.int/Projects/projsearch.html>(검색일: 2019. 11. 5).
- _____. NDC Registry.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ages/Home.aspx>(검색일: 2019. 8. 13).
- _____. What is the CDM. <https://cdm.unfccc.int/about/index.html>(검색일: 2019. 11. 5).
- United Nation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https://population.un.org/wup/Download/>(검색일: 2019. 8. 14).
- United Nations ESCAP. 2017. “Complementarities between ASEAN Community Vision 2025 and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Framework for Action.” https://asean.org/storage/2017/11/FINAL_Complementarities-Report-no-graphic-on-cover.pdf(검색일: 2019. 7. 15).
- UN OCHA. <http://interactive.unocha.org/publication/asiadisasterresponse/index.html>(검색일: 2019. 10. 29).
- UN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검색일: 2019. 7. 9).
- UN SDGs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검색일: 2019. 6. 25).
- UN SDGs. “4. Quality Education.”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education/>(검색일: 2019. 8. 16).
- _____.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검색일: 2019. 8. 12, 8. 16).
- USAID. 2019. “Acting on the Call: A Focus on the Journey to Self-Reliance For Preventing Child and Maternal Deaths.” <https://www.usaid.gov/actingonthecall/2019-report>(검색일: 2019. 9. 24).
- U.S. Department of State. 2018. “2018 Progress Report: PEPFAR Strategy for Accelerating HIV/AIDS Epidemic Control(2017-2020).”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08/2018-PEPFAR-Strategy-Progress-Report.pdf>(검색일: 2019. 9. 26).

- 「U.S.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Public Law 87-195, 1961. 9. 4 제정, 2019. 2. 15. 일부개정).
- U.S. Mission to ASEAN 홈페이지. “FACT SHEET: Unprecedented U.S.-ASEAN Relations.” <https://asean.usmission.gov/fact-sheet-unprecedented-u-s-asean-relations/>(검색일: 2019. 9. 26).
- U.S. White House.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sc/nss/2002/print/nss7.html>(검색일: 2019. 9. 24).
- _____. 2019. “U.S. Government Global Health Security Strategy.”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5/GHS_S.pdf(검색일: 2019. 7. 11).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Historical Dataset.” http://www3.weforum.org/docs/GCR2017-2018/GCI_Dataset_2007-2017.xlsx(검색일: 2019. 7. 9).
- WHO. 2018. “World Health Statistics 2018: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272596>(검색일: 2019. 8. 13).
- WHO 홈페이지.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universal-health-coverage-\(uhc\)](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universal-health-coverage-(uhc))(검색일: 2019. 8. 13).
- World Bank. CO2 Emission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atm.co2e.pc>(검색일: 2019. 8. 1).
- _____. Population Density.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POP.DNST>(검색일: 2019. 8. 8).
- _____. “Projects: Tourism.” http://projects.worldbank.org/search?lang=en&searchTerm=§orcode_exact=YT(검색일: 2019. 8. 12).
- _____. “Projects: Culture.” <http://projects.worldbank.org/search?lang=en&searchTerm=culture>(검색일: 2019. 8. 12).
-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IT.NET.BBND.P2>(검색일: 2019. 7. 9).

[온라인 독문자료]

- BMZ 홈페이지. http://www.bmz.de/de/ministerium/zahlen_fakten/oda/ngo/index.html(검색일: 2019. 10. 23).

[간담회 및 기타자료]

- 세계은행 기후변화 Senior Specialist, Taise Masuki 및 미국 국제개발처 아시아국
선임국장 Ann Marie Yastishock 인터뷰(2019. 10. 29, 미국 워싱턴 D.C.).
- 전문가간담회.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환경분야 협력 현황. 환경부 관계자 발표 내용
(2019. 8. 6, 세종).
- 전문가간담회. 대아세안 사회문화분야 개발협력 사업운영 방향 및 과제. KOICA
관계자 발표 내용(2019. 8. 9, 경기도 성남).
- 2019 한·아세안 학술 컨퍼런스(교육부, 한-아세안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동
개최) 발표자 및 패널 토론 내용(2019. 8. 28,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홀).

부 록

K
P E



제3장 사회 인프라 개발격차 분석 자료

(1) 소득수준별

분야	세부 지표	그룹별 평균				아세안 평균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보건 의료	(1) 영양 및 기본 의료 서비스	1.49	4.08	7.66	8.97	5.00
	(2) 보편적 의료보장(UHC)	2.15	3.79	7.30	8.92	5.03
	(3) 물과 위생	1.53	3.97	8.08	8.82	5.03
	분야별 평균	1.73	3.95	7.68	8.90	5.02
교육	(4) HDI 교육지수	1.07	5.40	7.02	8.51	5.05
	(5) 고등교육예의 접근성	1.43	4.37	7.62	8.34	4.93
	(6) 직장 내 교육	3.11	4.55	6.18	6.19	4.77
	분야별 평균	1.87	4.77	6.94	7.68	4.92

주: 그룹 1(최빈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룹 2(하위 중소득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룹 3(상위 중소득국: 말레이시아, 태국), 그룹 4(고소득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2) 국가별

분야	세부 지표	국가별									
		캄	라	미	인니	필	베	말	태	브	싱
보건 의료	(1)	2.32	0.72	1.43	2.57	3.07	6.60	7.79	7.54	8.73	9.20
	(2)	2.12	0.86	3.48	0.99	2.90	7.48	6.64	7.97	8.92	8.92
	(3)	0.50	2.28	1.81	2.42	4.62	4.85	8.53	7.62	8.74	8.89
	분야별 평균	1.65	1.28	2.24	1.99	3.53	6.31	7.65	7.71	8.80	9.00
교육	(4)	1.30	1.25	0.68	4.94	6.20	5.07	7.83	6.20	7.45	9.57
	(5)	1.05	1.32	1.91	5.07	5.95	2.10	8.28	6.96	7.03	9.65
	(6)	1.26	2.04	6.03	6.21	5.63	1.81	9.25	3.10	2.72	9.65
	분야별 평균	1.20	1.54	2.87	5.41	5.93	2.99	8.45	5.42	5.74	9.62

주: 캄(캄보디아), 라(라오스), 미(미얀마), 인니(인도네시아), 필(필리핀), 베(베트남), 말(말레이시아), 태(태국), 브(브루나이), 싱(싱가포르).

(3) 지표별 반영 내역

인용 자료	반영 내역
사회진보지수 (S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영양 및 기본 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부족 인구(%), 임산부 사망률(/10만 명), 아동 사망률(/1,000명), 아동 발육장애 비율(% /5세 미만), 감염성 질병 사망 비율(/10만 명) • [보건의료] 물과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식수 이용가능 인구(%), 배관을 통한 물 공급가능 인구(%), 기본 위생시설 이용가능 인구(%), 농촌 지역 개방형 배변 인구(%) • [교육] 고등교육에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3차) 취학기간(년), 여성 평균 취학기간(년), 글로벌 대학 순위(점수), 글로벌 순위권 대학 등록 학생 비중(%)
보편적 의료보장(UHC) 서비스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보편적 의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식(reproductive), 임산부, 신생아와 아동 건강, 감염성 질병 통제, 비감염성 질병(NCDs) 및 서비스 역량과 접근성 영역에서의 필수 서비스 보장범위
인간개발지수 (H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HDI 교육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취학기간(년), 평균 취학기간(년)
세계경쟁력지수 (G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직장 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여부(점), 직원 교육 수준(점)

자료: Social Progress Imperative 데이터베이스, <https://www.socialprogress.org/download>(검색일: 2019. 7. 9); WHO(2018), "World Health Statistics 2018: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 8, pp. 68-7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3); UNDP 홈페이지, "Glob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검색일: 2019. 6. 29);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Historical Datas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9).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in-Young Moon, Seung Kwon Na, Jaeho Lee, Sunghye Lee, and Eunmi Kim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in 2017, Korea has been striving to deepen its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SEAN to the level of the four traditional major partners to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New Southern Policy. This requires strengthening cooperation not only in the economy but also in various fields. In 2015, the ASEAN created three communities - the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and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 also providing a blueprint for each commun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suggest our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sectoral policies to cooperate with ASEAN member countr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ASCC.

In line with ASEAN's people-oriented commitment to improve quality of life, the ASCC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ASEAN social integration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egion. In this context, the ASCC includes a wide variety of social issues such as culture and arts, education, public health, environment and disaster management and these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efforts of ASEAN. When considering ASEAN's needs for cooperation, relevant global

agenda and Korea's recent policy toward ASEAN, the research areas in this report cover social infrastructure culture and arts and sustainable environment.

In Chapter 3,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ASEAN region and their cooperative activities with other countri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area of health care, including water and sanitation and education. These issues are not only main agenda of governmental meetings under the ASCC, but also major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member countries. ASEAN is committed to building and improving its regional social infrastructure while seek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according to the ASCC blueprint. However, we found that there are still development gaps in health care and education sectors among member countries, with each income group showing different weaknesses. These gaps and weaknesses are likely to coincide with demands in ASEAN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With diverse experiences and expertise in the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ed countries and institutions such as Japan, the U.S., Germany and the EU have been working with ASEAN to align their national/regional interests and strengths with ASEAN's needs. This includes various collaborative projects at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For Korea, on the other hand, the health care and education sectors are key areas of cooperation with ASEAN member countries, but it is mainly promoting b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without much consideration for their income levels and development needs at the ASEAN level. We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s that ASEAN is currently discussing, such as aging society, higher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policies for vulnerable groups and so on.

The main goals of Chapter 4 are to analyze ASEAN-level devel-

opment strategies and basic condi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and to identify promising directions for future cooperation strategies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Korea's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with ASEAN. Detailed development plans of the ASEAN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are presented through the Strategic Plan for Culture and Arts, the Strategic Plan for Information and Media, and the ASEAN ICT Master Plan. According to the main contents of these strategic plans, ASEAN seems to give high policy value to securing equal opportunities for cultural activities, supporting cultural diversity,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ultur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with the recent emphasis placed on the importance of public or cultural diploma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many countries are using the culture and arts sector as a major means of their foreign exchange and support policies. ASEAN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regional cooperation partner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economy, politics, and security. Therefore, in addition to Japan and China, Korea also has established overseas base organizations and promoted cultural cooperation policy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case of Europe, especially France and Germany, various cultural exchanges and language dissemination projects are carried out to increase their influence within the ASEAN region through cultural ODA and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centers.

The results of comparing Korea's ASEAN culture and art cooperation policy with main leading countr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verseas networks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still remain insufficient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compared to the major leading countries. Second, achievements in terms of establishing differentiated support channels and related

polici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with ASEAN are still insufficient. Third, compared to various cooperation and support policies with individual ASEAN countries, efforts to develop multi-lateral cooperation agenda and projects for the ASEAN community are showing a relative lack of outcomes. Fourth, there are grounds for concerns about the lack of cohesion and inefficiency in cooperation channels, caused by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are conducted by various organizations.

In Chapter 5, ASEAN's intra- and inter-regional efforts to realize a sustainable environment through disaster management, emission mitigatio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lastic waste management are reviewed. When considering the rapid economic and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ASEAN region, the goals of realiz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a community which is resilient in the face of natural disasters can be seen as urgent priorities to further ASCC progress. Japan, Germany and EU, major aid donor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in ASEAN, regularly communicate with ASEAN to identify cooperation potentials and opportunities through policy dialogue specifically dedicated to environment issues. Also, these donors closely partner with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ooperation programs. Korea should develop strategic policy and priorities for cooperation with ASEAN i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al needs in ASEAN, recent global agenda and Korea's competitive advantages.

Chapter 6 presents the basic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ASEAN-Korea coope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SCC initiative. Since the formal consultation channels of ASEAN-Korea so far have focused on the diplomatic and economic fields, a formal dialogue channel on the lines of an “ASEAN-Social and Cultural Policy Dialogue” (tentative name) needs to be established. Through these dialogue channels, it will be necessary to lead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fields, strategy and action plan establishment, and discussions at the ministry level to establish the goal of ASEAN-ROK joint prosperity by establishing working groups for each major field.

Among the major sectors, cooperation strategies to achieve goals in the social infrastructure sector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ASEAN’s cooperation needs by each income group based on research results on policy, project promotion process and obstacles in recipient countries. Second, we need to develop various cooperation models that reflect ASEAN policy needs. This could be explored by reviewing current policies such as the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and discussing our suggestions with ASEAN.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ojects to improve ASEAN’s health care system and services including supporting ASEAN to manage and treat infectious diseases effectively, and also to pursue a collaborative response to the issue of aging societies. Fourth,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to promote exchange of human resources among ASEAN member countries as well as between Korea and ASEAN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through linkages between current projects.

Next,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we derived the following cooperative strategies to utilize Korea’s comparative advantages and to effectively respond to ASEAN’s support need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mutual benefici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between ASEAN and Korea such as supporting project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ASEAN culture industry.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t the ASEAN community level, not bilateral cooperation with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developing an online platform to record and share ASEAN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Third, stronger support must be provided for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ASEAN through cultural ODA.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support policies to effectively utilize human resources such as overseas Korean networks within the ASEAN region.

Lastly, in the case of sustainable environment, we derived the following policy strategies to achieve specific goals within the sector.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higher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o identify priority areas for cooperation with ASEAN. Since each ASEAN member country possesses different environmental and policy conditions, the target countries should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groups and projects developed by each agenda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ternational discussion trends and reflect them in cooperation strategy. Third, private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expand and mobilize financial resources related to 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various ways of cooperation aside from financial support, such as policy consulting, professional training and partnership in the green finance sector.

문진영(文鎭永)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응용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장
(現, E-Mail: jymoon@kiep.go.kr)

저서 및 논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공저, 201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공저, 2018) 외

나승권(羅承權)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skna@kiep.go.kr)

저서 및 논문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공저, 201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공저, 2018) 외

이재호(李在浩)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 박사 수료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경제담당 주재관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공저, 2016)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공저, 2018) 외

이성희(李聖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국제개발협력 전공)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leesh@kiep.go.kr)

저서 및 논문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2016)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공저, 2018) 외

김은미(金恩美)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現, E-mail: em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공저, 201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공저, 2018) 외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9년

- 19-01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훈 · 김원기
- 19-02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
이현태 · 최유정 · 최재희 · 김태만 · 림금숙 · 백지운 · 서봉교 ·
안국산 · 원동욱 · 이왕휘 · 이현우 · 이현주 · 최필수
- 19-03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
한홍열 · 윤성욱 · 박지원 · 정은이
- 19-04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정재욱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9-05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
권율 · 정지선 · 허운선 · 송지혜 · 유애라 · 김미림
- 19-06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정민지 · 황규희
- 19-07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문진영 · 나승권 · 이재호 · 이성희 · 김은미
- 19-08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이규엽 · 강준구 · 박지현 · 박현
- 19-09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최장호 · 최유정 · 김범환 · 임수호
- 19-1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강태수 · 정영식 · 김경훈 · 강은정
- 19-11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 ·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조동희 · 강구상 · 권혁주 · 문성만
- 19-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
박정호 · 정민현 · 강부균 · 정동연 · 김초롱 · 제성훈 · 세르게이 루코닌 ·
예카테리나 자클라즈민스카야
- 19-13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김종덕 · 윤여준 · 권혁주 · 정민철 · 김유리 · 황운중 · 김경훈 · 김원기

- 19-14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 정영식 · 김정곤 · 한형민 · 정재완 · 이정미 · 김제국 · 윤지현
- 19-15-1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 김규판 · 강구상 · 김종혁 · 오태현 · 이현진 · 손원주
- 19-15-2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 김현수 · 강민지 · 이정은 · 이용규
- 19-16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구경현 · 오수현 · 박혜리 · 김민성 · 황운중
- 19-17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조문희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 엄준현
- 19-18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훈 · 김홍원 · 최지원 · 김주혜 · 최재희
-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정형곤 · 이철원 · 박민숙 · 전봉걸
- 19-20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 현상백 · 이효진 · 조고운 · 오윤미
- 19-21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윤덕룡 · 이동은 · 이진희
- 19-22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9-2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안성배 · 한민수 · 김수빈 · 이진희
- 19-24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한민수 · 김혁황 · 최혜린 · 박단비 · 김지수

■ 2018년

-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경훈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이수영 · 최혜린 · 김혁황 · 박민숙 · 남시훈
-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
최낙균 · 이규엽 · 김혁황 · 장윤중
-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 강태수 · 김경훈 · 서현덕 · 강은정
-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곽성일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김미림
-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윤덕룡 · 김소영 · 이진희
-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18-08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조동희 · 김종혁 · 김홍중 · 문성만 · 윤여준 · 임유진
-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 중동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조남훈 · 이정균 · 김범환
-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 러 신경제협력 방향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 올가 쿠즈네초바
-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최유정 · 임소정 · 이효영
-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윤지현
- 18-16 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현상백 · 박민숙 · 박진희 · 조고운 · 김부용

-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 · 엄준현 · 정민철 · 이장완
-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이규엽 · 조문희 · 강준구 · 강민지
- 18-19 한 · 중 · 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 전자상거래 ·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현테 · 오윤미 · 김승현 · 이정은
-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김종덕 · 박지현 · 김민성 · 안덕근
-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안성배 · 김효상 · 신허비 · 김지수 · 장희수
-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정영식 · 최혜린 · 양다영 · 강은정 · 고덕기
-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 · 신민이 · 신민금 · 정재완 · 김제국
-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문희 · 김영귀 · 구경현 · 박혜리 · 금혜운
-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최보영 · 이수영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
이상훈 · 김홍원 · 김주혜 · 최재희
- 18-27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 이명현 · 한홍열 · 주상영 · 정준호 · Martin Falk
- 18-28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
김홍중 · 오태현 · 이현진
- 18-2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
박성훈 · 안세화 · 정세원 · 김다환 · 김근효
- 18-30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 남수중 · 왕윤종 ·
박순찬 · 박승찬 · 조정원 · 김정인 · 최종석 · 오대원 · 유정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 회원*
S	외부 배포 발간물 일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 원		4만 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 등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es 19-07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in-Young Moon, Seung Kwon Na, Jaeho Lee, Sunghye Lee, and Eunmi Kim

본 연구는 아세안 공동체 중 사회문화공동체(ASCC)에 주목하여 아세안의 ASCC 추진 경과를 분석하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의제 및 우리나라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주요 협력 분야로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별국 차원이 아닌 아세안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1739-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2,000원